월드미션대학교
동문 사역 이야기

사랑의 동행

임성진 엮음

월드미션대학교

월드미션대학교
동문 사역 이야기

사랑의 동행

| **임성진** 엮음 |

추천의 글

《사랑의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월드미션대학교 동문들의 사역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하게 된 것을 축하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계는 나의 목장입니다. 이 학교를 세운 것은 좋은 목회자를 기르기 위함이요, 열성적인 선교사를 기르기 위함이요, 평신도 지도자를 기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은 장래에 한국계 하버드 대학교, 한국계 예일대학교, 한국계 프린스턴대학교처럼 이 학교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립자의 정신을 바탕으로 월드미션대학교는 탁월한 목회자, 열성적인 선교사, 신실한 평신도 지도자들을 끊임없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월드미션대학교에서의 배움을 토대로 전 세계 자신들이 부름 받은 곳에서 가르치고 나누고 섬기며 헌신의 열매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출발하여 세계 선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월드미션대학교는 32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세계의 유수한 대학과도 견줄 만한 성경적이고 영향력 있는 학문의 전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함께한 2년을 지나면서 기독교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월드미션대학교와 그 동문들을 사용하셔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에 기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의 동행》을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불러 주시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이런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살아 숨쉬는 간증들이 이 책에는 가득 담겨 있습니다.
본서 《사랑의 동행》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가슴 뭉클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다시금 복음과 부르심에 반응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2021년 7월

변희관 목사(세계로선교회, ENM)

추천의 글

월드미션대학교에서 공부한 분들의 아름다운 사역과 삶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온전히 느껴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때때로 어렵고 힘든 역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내고, 그러면서 꿋꿋이 버텨낸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졌음을 고백하는 주옥같은 글들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교육의 사명은 그 교육이 지향하는 정체성을 학생들에게 형성시키는 데 있습니다. 월드미션대학교가 추구하는 교육은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학과 선교, 기독교사역학과 기독교상담학, 사회복지, 간호학, 음악학 등을 통해 기독교적 정체성을 갖고 있는 훌륭한 전문가를 키워내는 것이라 봅니다. 이러한 교육을 받은 월드미션대학교 동문들의 이야기는 큰 울림이 있습니다. 사람과 세상의 변화를 이뤄내는 강력한 경험담이 펼쳐집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좋은 학교와 좋은 교육이 뛰어난 인재를 양성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월드미션대학교 동문들이 걸어간 발자취들은 인생 전체를 통해 이뤄낸 값진 삶이기에 진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한 그들의 숭고한 사역의 성과는 신뢰의 산물이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

서 뭐라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성으로 하나님의 소명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의 동행: 월드미션대학교 동문들의 사역 이야기》가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으면 합니다. 그 결과 개신교인들에게는 다시 한 번 '그리스도인 됨'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 주고,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교회는 희망'임을, 아울러 '그리스도인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게끔 이끌어 주었으면 합니다.

2021년 7월

이준우 교수(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지구촌교회 농아부 지도목사)

발간사

월드미션대학교는 1989년에 개교되어 올해(2021년)로 32주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신학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13개 학과로 발전 성장했습니다. ABHE와 ATS에서 Full Membership 인가를 받은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 학교에 대한 평가는 교육의 질과 더불어 졸업생들의 활동이 중요합니다. 월드미션대학교를 졸업한 동문들이 세계 여러 곳에서 헌신적이고 모범적이며 능력 있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졸업생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에 동문들의 사역 이야기를 모아 책자로 발간했습니다. 현장 속에서 동문들과 함께하신 하나님의 생생한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땀과 눈물과 보람과 기쁨이 들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는 독자들은 큰 감동과 축복과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사역의 현장은 어두움과 혼돈과 좌절이 있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사역자는 고독과 아픔과 기도와 헌신 없이 사역할 수 없습니다. 동문들의 사역 이야기 속에는 이 모든 것들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두움 속에서 빛을, 갈급함 속에서 생수의 만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번에 발간된 《사랑의 동행: 월드미션대학교 동문들의 사역 이

야기》가 주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동문들의 수고와 헌신과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7월

월드미션대학교 총장 임성진

차례

월드미션대학교
동문 사역 이야기

사랑의 동행

초보 목사 사역 이야기

• 강동완 목사 (MDiv '19) 로스앤젤레스

할렐루야!

Do-Dream교회를 섬기고 있는 강동완 목사입니다.

현재 LA 시내에서 북쪽으로 1시간 30분 떨어진 거리에 있는 랭커스터(Lancaster) 지역에서 16년째 살고 있으며, 이 지역의 한인교회에서 담임목사로 3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이곳은 LA 북쪽 베이커스필드(Bakersfield)가 속해 있는 컨 카운티(Kern County)와 LA 카운티 경계 지역의 끝부분에 위치한 조그만 도시로서 이스라엘의 광야와 비슷한 조건의 사막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낮 기온이 화씨 100도가 넘다가 밤에는 화씨 70도까지 내려올 정도로 변화가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몰몬교나 여호와의증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여 어떤 면에서는 선교지와 같은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월드미션대학교에서 BA와 MDiv로 졸업하였으며, 2019년 1월에 졸업과 함께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짧지 않은 삶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나눌 수 있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저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1981년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고 주변 사람들에게서 교회에 가자는 말조차 들어보지 못했던 19살 학생 시절, 기독교 계통의 학교인 관계로 채플 시간에 반강제로 참여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예배를

경험했는데, 당시 이 첫 번째 예배는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된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접해 본 예배 시간이었지만, 왠지 그 시간이 즐거웠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 학생은 단 앞으로 나오라는 강사 목사님의 말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먼저 앞으로 나갔던 그 모습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저를 미국 땅으로 부르시면서까지 지금의 모습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후 6년이 지난 1990년 12월, 이곳 LA에 도착하면서 시작된 첫 교회 생활은 첫날부터 아름다운 성가대 찬양에 매료되어 버렸고, 목사님의 설교에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매 주일 예배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가능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1991년 섬기던 그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정식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1993년 5월에 결혼을 하였고, 그때까지도 여느 이민자처럼 주일에는 일을 해야 했기에 온전히 주일을 지키지 못했지만, 우리 부부는 결혼과 동시에 이 문제를 두고 기도를 시작하였고, 1994년 1월에 노스리지(Northridge) 지진이 크게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는 큰 환난이었지만 오히려 우리 부부에게는 기도응답의 은혜가 되어, 주일성수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내가 섬기던 교회에서 맞은 첫 주일 예배는 처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와 감사로 드려졌고, 그때까지 우리 부부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그저 감사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날 예배가 끝나고 곧바로 성가대와 찬양팀에 들어감으로 시작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과 감격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저의 평신도 사역은 (저는 감히 사역이라 부릅니다) 시

간이 지날수록 음악적인 한계와 좀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고민하고 노력도 해보지만, 점점 무기력해질 뿐 시원한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2004년 가을에, 한 형제가 금요예배 시간에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금요예배가 끝난 뒤 혼자 걸어왔던 그 형제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처음으로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자신은 한국에서 여행을 온 지 일주일 정도 되고 예배를 사모해서 예배드릴 교회를 찾아 집에서 나왔다가 찬양 드리는 소리를 듣고 '여기구나' 싶어 들어오게 되었다고 하면서, 자신은 믿는 집안에서 자랐고 찬양 리더로 교회를 섬겼던 경험이 있다고 소개를 하였는데, 그때 드린 찬양 곡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였습니다.

형제가 찬양 경험이 있다는 소리에 내 귀가 번쩍 뜨이면서 그 친구에게 그동안 내가 궁금해하고 힘들어했던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기 시작했고, 마지막에는 내가 부족하여 그만두고 그 친구가 대신 해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친구가 한 말은 평생 잊을 수 없이 고이 간직하는 마음이 되었고, 찬양을 드리는 동기요 목적이 되었으며, 소명이 되었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을 찬양 드리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집사님, 저는 죽으면 죽었지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결심을 하였고 기회가 주어지면 배워서, 찬양을 드리고 싶지만 나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언제든지 도와주는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으로만 다짐했던 그때의 저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음악을 공부할 수 있는 경제적 환경과 기회를 열어 주셨습니다.

2005년, 그동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던 목사님께서 집에 찾아오셔서 신학교에 가서 음악공부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갑작스런

권면에,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조금도 주저 없이 월드미션대학교를 찾았고, 월드미션 음악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그동안 섬겼던 장로교회로부터 정식 찬양전도사로 임명을 받고 사역자로 섬기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신학교 생활을 돌아보면, 일생에 그렇게 즐거운 시간이 있었나 할 정도로 너무 행복했었습니다. 음악 공부와 합창 활동들, 그리고 신학과의 동문들과의 친밀한 관계, 이렇게 개인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면서 학교생활을 하던 중 언제부터인가 음악공부에 대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찬양을 드리고 싶지만, 클래식 음악이나 성악을 할 마음은 없는데…'라는 생각이 들었고, 말씀의 기초가 없이는 바른 찬양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졸업을 위해 남은 시간을 신학을 하기로 결정하고 신학과로 바꾸어 공부를 하고, 2009년에 월드미션대학교 BA 과정을 신학으로 졸업을 하였습니다.

이후 MDiv 과정을 계속할 수도 있었지만 목회에 대한 확신이 서질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목사가 되라고 하지만 저 자신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에게 어떤 방법이든지 직접 신호를 주실 것이고, 그 길을 갈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MDiv 과정을 뒤로 미루고 전도사로 찬양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 2010년에 1년 정도 통풍으로만 여기고 계속 치료를 받았던 발뒤꿈치가 계란 크기만큼 계속 부어오르고 급기야는 걷기가 힘들 정도의 상태가 되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 LA에서 MRI 촬영을 했는데, 그 결과 뼈에 암이 생긴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의사도 놀라서 왜 이제 왔느냐며 자기 소견으로는 지금 발의 상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이 다리를 절단하는 것이고, 만약 더 심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 빨리 큰 병원으

로 가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당시 의사의 진단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차에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나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나도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남겨질 아내와 딸과 아들에 대한 염려로 마음이 너무 무거웠고, '지금부터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가족들을 힘들게 만들어야 되는지 걱정도 되고, '차라리 이대로 기도원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고쳐 주시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천국 가면 되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만 하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내가 아이들을 불러서 아이들에게 병원에 다녀온 결과를 이야기할 때 아내와 아이들이 울기 시작하였고,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되고 있었습니다. 정말 미안하기도 하고, 앞으로 남아 있을 아내와 아이들을 생각하면 안쓰러워 어떻게도 마음을 잡을 수가 없는 상태였지만, 그렇다고 같이 울면서 주저앉기에는 가족들에게 너무도 너무도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있던 그때, 저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된 이유는 잘 알 수 없지만 일단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제부터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더 이상 집에서 울지 말자! 눈물을 보이지 말자! 그냥 아무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라 생각하자!" 저는 이렇게 말하고는 아이들을 각자의 방으로 돌려보냈고, 저도 전과 같이 일상생활을 하리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날 이후 "나 암 환자야! 감기 환자가 아니야!"라고 내가 소리칠 정도로 우리 가정에서 내 위치는 환자가 아닌 그냥 남

편이었고 아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내 문제로 인해서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오른쪽 다리 무릎 아래를 절단하고 항암치료를 다 받을 때까지 우리 가정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며칠 동안은 많이 혼란스럽고 힘들었습니다. 아내가 일을 나가고 집에 혼자 있으면서 하나님께 처음으로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살려 주세요!" 한번 울음이 터지자 끝이 없이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난 뒤에 신학교 교우들이 생각났고, 이들에게 e-mail을 보내 저에 대해 중보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쉽게 나오지 않았지만, 찬양을 드릴 수는 있었기에 저는 기도 방에 들어가서 기타를 잡고 찬송가책을 펴고 계속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첫날이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그렇게 계속해서 찬송가 471장 "주여 나의 병든 몸을" 부르는데, 그런데 갑자기 마음이 평안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내가 왜 이렇게 편안하지? 내가 지금 편안해도 되나?'

이렇게 나 자신이 편안하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그 방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오면서, '내가 지금까지 함께 있지 않았니!'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깨달음이 온 마음을 덮었습니다.

그리고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지금까지 여기 계셨구나. 지금 내 옆에 계시는구나. 내 안에 계시는구나!' 하는, 이렇게 확실한 믿음이 생기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감격의 눈물이 쏟아져내렸습니다. '그래, 이제는 믿을 수 있다!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믿는다! 이제는 나도 천국에 가는구나! 이제는 평안히 죽을 수 있겠다!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하게 되자,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예수 그리스

도를 진실로 믿게 된 이 사실이 그저 너무도 기쁘고 신이 났습니다. 온전히 믿어졌습니다. 지금 당장 죽는다고 해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는 기도가 있어 내가 지금 주님의 평강을 누리고 있구나!'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기도의 동역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일인지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오히려 천국의 확신 때문에 너무 좋아서 집에 병문안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예수님이 지금 우리들과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선택한 우리 가족에게 그 뒤에 이어지는 모든 치료 과정에서도 앞장서시고 함께해 주셨고, 시편 23편 4절의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이 말씀의 참 의미를 깨우쳐 주시면서, 매일 감사의 찬양을 드리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울러 요한계시록 3장 8절의 말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라는 말씀으로 병상에 있는 제게 큰 위로와 힘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5년의 세월이 다 흘러갈 무렵인 2015년에 정기검사를 받다가 암이 폐로 전이되었다는 진단을 받고 폐를 일부 절단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처음보다는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고, 이때도 또 한 번의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USC/LAcounty 병원에서 개복수술 날짜가 잡혀 있었

고, 다른 의사를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개월을 기다려야 겨우 진찰을 받을 수 있는, 도저히 내가 만날 수 없는 USC 대학병원 교수요 로봇수술 전문의를 하나님은 개복수술 일주일 전에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당시 함께 교회를 섬기던 여성도의 아버지가 그분에게서 폐암 수술을 받고 6개월이 지나 첫 번째 진찰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USC대학병원 진찰실에 함께 가서 한번 로봇수술을 받게 사정해 보자는 성도의 말에 우리 부부는 함께 아무 연관이 없던 USC 병원을 찾았고, 진찰 대기실에서 그분들이 진찰을 받는 동안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약 20분이 지났을 무렵, 성도분이 뛰어나와서는 손으로 빨리 들어오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예약도 없이, 어떤 절차도 순서도 없이 그분의 진찰실로 들어가자, 여성도는 의사에게 간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인데 지금 폐암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선생님이 수술해 주시면 안 되겠느냐며 간곡히 간청을 하자. 그 의사는 너무도 쉽게 "저에게 수술 받기 원해요?"라고 우리에게 물었고, 우리는 조금도 주저 없이 "네!"라는 대답과 함께 그분이 저를 진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와 전혀 상관이 없었고 일면식도 없던 USC 대학병원 로봇수술 전문 의사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날 즉시로 수술을 집도해 주겠다는 확답까지 듣게 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적 같은 일이 또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이틀 후면, USC/카운티 병원에서 절개 수술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수술 바로 이틀 전에 USC 대학병원에서 로봇으로 절개를 받지 않고 수술 날짜가 새로 잡히게 된 것이었습니다.

USC 대학병원에서의 수술 날짜가 확정되는 날, LA로 내려가던 차 안에서 하늘을 보며 '참 미련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또 왜? 이렇

게 살려 주시는 것이지?'라는 의문과 질문을 스스로 해보는데, 문득, '하나님, 이것입니까? 저에게 직접 말씀해 달라고 한 기도의 응답이 이것입니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알겠습니다, 하나님! 수술이 다 끝나면, 제가 신학교에 갈게요!'라며 진심으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과 방사선 치료 등 모든 회복 과정에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나를 덮어 주시면서 단순히 목숨만 연장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셨고, 이제 내가 갈 길은 오직 하나님만 증거하는 길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모든 치료가 끝나자 저는 망설임 없이 월드미션대학교 MDiv 온라인 과정에 입학하고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3년 넘는 시간을 월드미션대학교 MDiv 온라인 과정을 공부하면서 정말 재미있었는데, 아마 저뿐 아니라 다른 학우들도 같은 마음이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온라인 공부는 개인적으로도 많이 발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강의실과는 전혀 다른 편안함이 있었고, 각 과목마다 교수님의 자세한 강의를 한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들을 수 있어서 학습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교수님과 언제든지 일대일 질문을 할 수 있는 장점과 매주 개인별과 단체별 학우들의 의견과 의견에 대한 피드백은 온라인으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었고, 모든 내용을 함께 다 볼 수 있고, 같이 나눌 수 있어서 공부하는 학우들의 신학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지식들을 함께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너무도 유익하였고, 개인적으로도 확실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학생들에게 나눠 주시는 교수님들의 전문적이고 풍성한 강의 내용들은 다양한 부분에서 깨닫는 시간이 되었고, 교수님들의 피드백은 학업 중에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을 공급해 주어서 빠

뜨리거나 느끼지 못하던 것까지도 확인하고 깨닫게 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강의는 학교 강의실에서 쉽게 느끼지 못하는 그런 즐거움들을 많이 경험하게 하였고, 각자의 사역에 대한 생각들을 다양한 관점으로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사역자로서 조금 더 폭넓은 안목을 갖추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쉽게 접할 수 없는 각 사역지에 대한 고민이나 경험들을 함께 나누면서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선교지나 다른 사역지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느껴보는 아주 유익한 시간으로, 졸업하는 날까지 많은 은혜를 경험했고 학업 성취에도 큰 도움을 받는 시간이 된 것에, 한 사람의 사역자로서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학우들을 졸업식장에서 만날 때의 반가움과 즐거움은 온라인 강의의 또 다른 매력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사역에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았고 길도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공부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친히 길도 열어 주실 것이라는 생각으로, 사역지에 대한 아무런 걱정도 없이 종의 자세로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시키실 때 "예! 주님"이라고 대답하고 그대로 하면 될 것이라는 그 생각으로만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앞서서 나가지 않고 조용히 주님의 뒤를 좇아가는 종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회자가 되어서도 여전히 이 마음으로 현재 두드림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두드림교회는 2006년에 팜데일(Palmdale) 지역에서 안세광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이며, 2018년 3월 한국으로 청빙받기 전까지 12년 사역을 한 곳으로 한인 중심의 교회입니다. 저는 2015년에 전도사로 섬겼으며, 2018년 3월 이후 지금까지는 두드림교회 2대 담임목사로 EM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월드미션대학교를 다니며 전도사로 5년째 사역하고 있던, 신학교 졸업을 1년 앞둔 2018년 3월 첫 주에, 그동안 11년간 두드림교회를 섬기시던 담임목사님께서 갑자기 한국으로 청빙을 받아 가시게 되면서 담임목사의 자리가 공석이 되었습니다. 당시 교회의 정상화를 위한 교회의 요청도 있었고, 저 역시 그동안 무보수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였기에, 새로운 담임목사 청빙이 완료될 때까지, 주일 1, 2부와 5일간의 새벽설교, 그리고 금요기도회까지 교회의 모든 예배와 설교를 전도사의 신분으로 대신 맡게 되었습니다.

이후 담임목사청빙위원회의 조사와 인터뷰가 진행이 되었고, 한 달이 지난 즈음에 시무장로님이 전도사도 청빙 자격이 있다며, 저에게 면접에 참여하라는 권고를 받고 청빙위원회에서 정식으로 면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혀 생각지도 않게 부족한 자에게 전교인 투표로써, 향후 목사 안수 뒤 담임목사로 취임하는 조건으로 두드림교회 2대 담임 사역자로 섬기게 해주셨습니다.

사심 없이 빈자리를 채운다는 마음으로 사역을 한 것은 누구보다 하나님이 잘 아시기에 지금도 이 부분에 부끄러움이 없지만, 당시 일부 반대했던 성도는 내가 담임이 된 후에 자기 편인 성도들과 꾸며서, 담임이 되려고 전도사가 강단 설교를 했다고 오해하는 일이 있었고, 심지어 내가 졸업한 신학교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전도사가 왜? 본 교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았는가? 전도사인데, 왜? 담임목사 대우로 사례비를 주었는가?' 등 몇 가지에 대한 불만을 표하면서 이 일로 몇 가정이 교회를 떠나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목회자가 되기 전부터 기도하고 갈망한 것은 오직 말씀이 기준이 되는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진 교회였기에, 이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며 지난 3년을 지나왔지만, 현재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어려운 점은 상호 신앙에 대한 신뢰 부분이 아닌가 생각

합니다.

성도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간증하고 설교를 해도, 남의 일로 생각해 버리고 마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힘든 일입니다. 제가 받은 것 다 주고 싶은데, 제가 받은 은혜를 다 주고 싶은데, 그런데 '그것은 목사님의 신앙이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아니냐!'라는 당당한 반응에 그저 힘이 빠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교제를 원하지만, 일방적인 제 생각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교제만 원하는 것 같아 안타깝고, 말씀 안에서 나누는 교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저와의 사이에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는 어려움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대접받고 힘주는 목회를 원하는 것이 아닌데, 말씀을 아는 것이 너무 즐겁고 행복한데, 성도들에게 주고 싶은데, 어떻게 말씀으로 가르쳐야 할지 어렵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전하지만, '전도사가 해봐야 별 수 있나! 목회 경험도 없는 사람이 하면 얼마나 해!'라는, 마치 튕겨져 나가는 용수철 같은 반응이 나타날 때는 정말 아프고 아팠습니다, 어떤 말로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그저 침묵하며 말씀만 바로 전하기 위해 매일매일 말씀과 씨름하고 묵상하며 설교 준비를 합니다.

목회 초보자에게는 일주일 7-8번의 설교 준비는 다른 곳으로는 아예 눈을 돌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너무 평범한 사역의 연속이었습니다. 3년이 지나도 이 부분이 오직 나의 몫이라는 생각이 들 때는 외롭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래! 자격도 없는 나를 이곳 강단에 세워 주신 목적이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하며 힘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보람도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튕겨져 나간 사

람들이 2년이 지나면서 이제 하나둘씩 돌아와서 "목사님, 감사합니다!"라고 하실 때, '그래!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 잘못되지 않았구나!' 느끼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지금은 세심하게 확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여전히 조금씩 성도들의 변화가 없어도 오늘 하루 성실하게 기도하며 쉬지 않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담임이 되고 1년이 지났을 무렵, covid-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지난 2020년은 모두에게 기억에도 없는 것같이 사라진 날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비록 예배 참여 인원은 많이 줄었지만, 그럼에도 새벽예배와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짐없이 드릴 수 있어서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아마 시골이기에 누리는 큰 혜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은 사역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일꾼을 세우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직 목회자로서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기에 진심으로 동역하는 일꾼을 만들지 못한 것 같은 절망이 찾아올 때도 많이 있지만, 언젠가는 마음을 알아주고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부족한 저에게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 중심의 교회를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고 교육하기로 작정하고 지난 3년의 시간이 흘러갔지만,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려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는 솔직히 실망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기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묵히 갈 길을 가리라 매일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으며,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라서 행복하기를 늘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단 한 번도 목회 경험이 없었던 나에게 담임이라는 위치는 너무도

무겁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사역의 일상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는데도 해가 거듭될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즐거운 목회를 하리라 다짐하고 시작했지만, 여전히 성도들의 상황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 목회자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일이 우선이 아닌, 사람이 우선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는 온전한 의미를 깨달을 수도, 그리고 이행할 수도 없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미 그렇게 사람이 우선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저를 만나 주시고 마음속의 바람까지도 들어주신 하나님은 저의 삶과 목회사역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도록, 그리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도록 지금까지 말씀으로 이끌어 오셨다고 믿기에,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성도들에게 잘 전하기 위해 씨름합니다.

짧은 목회의 시간이지만 힘을 주시고, 작은 종이 실망할 때마다 더 큰 소망을 보게 하시며 달려갈 길을 묵묵히 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교회 조경 사역

두드림교회 입구

2020년도 나성산 기도원에서 가진 두드림교회 수련회 사진

목사 안수식(2019년)

2021년 EM 사역 추수감사절 모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인내를 배우다

• 강석재 선교사 (MDiv '08) 일본

1. 선교사로서의 부르심과 선교 초기 사역

원고 부탁을 받게 되어 감사함과 동시에 많은 부족과 허물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WMU에서의 학업과 안수, 또 많은 도움을 주신 총장님 이하 교수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에게 베푸신 은혜를 나눔으로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나는 경남 거창에서 태어나 다섯 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어머니의 도움으로 거창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부산으로 대학을 가게 되었다. 처음에는 매우 신기하고 즐거웠지만 시간과 함께 신선함도 사라지고 공부에 대한 의욕도 떨어져 군대를 가기로 하였고, 제대 후 3학년으로 복학하였지만 여전히 공부는 뒷전이었다. 매일 술과 담배, 미팅 등으로 시간을 허비하며 지내는 사이 세상에 대한 허무함, 자신에 대한 실망감 등으로 의욕을 상실하고 있었다.

그날도 힘없이 벤치에 앉아 있던 나에게 다가온 한 네비게이토 출신의 학생이 성경공부 서클을 소개해 주었고, 거기에 가면서부터 내 인생은 변하기 시작했다. 그 후 그리스도와 함께한 대학생활은 그야말로 꿈만 같았다. 매일 아침 수업 전 학교 뒷산에서 나를 인도해

주던 형제와 같이 읽던 성경과 찬송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사로 시간을 보내면서도 나는 이곳저곳 대학을 찾아다니며 전도를 하였고, 집에 사람들을 초대하여 일대일 제자훈련을 하였다.

1991년 일본에 문부성 장학생으로 유학을 오기까지의 10년은 나의 인생에서 많은 성장과 사역을 경험한 시기였다. 한편 1980년 중반부터 선교회 대표 변희관 목사님은 10년 내에 선교사 100명을 보낸다는 특별기도를 시작하였었다. 이 기도는 일본에 대한 나의 비전을 명확하게 해주었고, 계속된 기도와 도전 끝에 일본 문부성 시험에 합격함으로 비자 문제, 전액 장학금, 생활비 보조, 꿈꾸던 대학생 선교 등을 할 수 있는 길이 한꺼번에 열렸다.

그때 하나님은 요나서 4장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일본은 한국인에게는 니느웨와 같은 민족으로, 가깝지만 영적으로는 거리가 멀어 대부분 우회하는 지역임을 알게 해주셨다.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은 늘 많은 봉변을 당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그곳을 지나시면서 전도를 하셨다. 니느웨에는 육축과 함께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12만여 명의 사람들이 있으니 내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느냐고 항변하신다. 하물며 일본은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억 3천만이나 있지 않은가. 일본에 대하여 너무 배타적으로 살아온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약속의 말씀으로 히브리서 11장 8-12절을 받고, 유학생 신분으로 일본에 오게 되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갔고(8절), 또 약속하신 땅에 순종하여 거하였으며(9절), 그곳에서 하나님이 영적 성을 설계하시고 건축하실 것을 바라며(10절), 믿음으로 셀 수 없는 약속의 자녀를 바란다(11-12절).

일본에 오자마자 매일 기도와 전도, 그리고 전도한 사람들을 영

적으로 돕는 일에 집중하였다. 캠퍼스에서 합법적으로 일본 학생들에게 마음껏(조심해야 하지만) 전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기쁨은 말로 다할 수 없었다. 이렇게 시작하여 약 8년간 규슈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마칠 때까지 일본 정부로부터 모든 도움을 받으며 나의 유학생활, 아니 선교사 생활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자그마한 시영주택에서 일대일 제자훈련을 하면서 매주 전도한 영혼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함께 식사를 하고 성경공부를 하였다. 이곳에 온 2개월 후 대학으로 오가는 전차 안에서 같은 연구실 자매에게 전도하여 첫 열매가 생겼고, 그 후 또 전차 안에서 만나 전도한 한 형제가 있는데 나중에 이들은 결혼을 하여 지금은 부부가 되어 있다. 그 당시 토요일이나 주말이면 후쿠오카에 있는 대학을 이곳저곳 다니며 캠퍼스 전도를 하였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학생들의 신앙성장을 위하여 집 근처에 신앙 공동 아파트를 설치하여 아침저녁으로 함께 산에 가서 기도하며 교제의 기회를 늘렸고, 나중에는 교육대학, 서남대학 앞에 신앙훈련 아파트를 만들어 제자훈련과 전도의 거처로 삼았다. 지금은 이들이 우리 일본 세계로선교회의 기초들이 되어 있고, 이 중 몇 명은 현재 신학을 공부하고 있다. 한편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정집 장소도 좁아 모임이 어려워졌다. 그리하여 소속 선교회와 협력하시는 분들의 기도와 사랑, 헌신이 열매를 맺어 2006년 새로운 선교센터이자 교회를 주님이 허락하셨고, 제2기 선교센터 시대가 열렸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묘하게 WMU 신학 수료와 목사 안수를 통하여 완벽한 준비를 해주셨다. 참으로 큰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하여 일본에 온 지 15년 만에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 10절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에 응답해 주셨다.

2. 일본의 영적 환경에 대한 이해

일본의 종교와 선교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2018년의 종교 통계에는 전국에 사찰이 약 8만 4천 개, 신사 약 8만 8천 개, 기독교 관련 교회가 약 8천 6백 개로 나와 있다. 또한 종교인구도 해마다 감소 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약 1억 8천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와 있다. 그것은 아이들을 제외하면 한 사람이 약 두 개 이상의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인의 종교에 대한 단면을 엿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현재 일본 국내에는 전 세계 90여 개국의 3,000여 명의 선교사들이 활동하고 있고, 절반가량인 1,200명 정도가 한국인 선교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신실한 복음적 기독인들은 0.3-0.4% 정도에 불과하다는 통계는 때때로 크나큰 실망으로 다가온다. 이렇게도 일본 복음화율이 더딘 이유는 많이 있겠지만 몇 가지만 들어보고자 한다.

일본인의 종교의 특징은 다신론과 범신론이다. 일본에는 흔히 800만 개의 신(실제로는 6,000개 정도)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만큼 모든 것이 신이 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한다. 야스쿠니 신사가 문제가 되는 것도 전쟁중에 죽은 사람들을 이미 인간이 아닌 신으로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인들에게 있어서 기독교와 같은 유일신의 개념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다. 하나의 신만을 택하고 나머지는 버려야 한다는 생각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다. 이들은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도 기독교의 신을 기존의 신에다 추가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거기에다 일본의 다른 종교는 개인적인 신앙고백을 요구하지 않는데 비해 기독교만이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려고 하면 상당히 당황스러워한다. 일본인들은 집단주의적인 성향이 강하여 어느 하나만을 고집하는 기독교적인 유일신이나 배타주의는 일본인들의 문화나 전통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성급하게 다루려고 하다가 신앙의 입구에서 좌절하고 마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일본인들의 사고나 문화에 기인한 복음 수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선교사들 자신의 훈련과 준비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다. 마크 알 멀린스(Mark R. Mullins)는 그의 저서 《메이드 인 재팬의 기독교》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많은 일본인 그리스도인이 서양 선교사의 복음을 듣지만 그들의 완고한 주장에는 반발한다. 서양 선교사들의 우월주의,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완고함과 오만함, 경직된 태도 등에 대해 복음을 받은 자들과 자주 긴장과 갈등이 있었던 것이다. 즉 일본인은 복음은 받아들였지만 그 운반자는 거부했다고 할 수 있다. 그중 대표적인 사람이 우치무라 간조, 국제연합 사무차장을 역임한 니토베 이나조 등이 있다.

그 외에도 도쿠가와 시대(1600-1867)에는 한국보다 훨씬 가혹한 기독교 탄압이 있었고, 불교를 장려하기 위하여 단가제도를 도입하여 모든 주민은 불교 사원에 출생, 혼인, 사망 신고 등을 하도록 하였고, 거기서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는 증서(데라우께)를 발행하기도 했다. 그때의 기독교에 대한 이질감과 거부감이 지금까지 남아 있다고 보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한다면, 옴진리교 등의 잘못된 희대의 사건 등으로 인하여 종교에 대한 극도의 편견과 공포가 있어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며 항상 의심의 눈으로 종교를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요즈음의 젊은이들은 종교에 대한 관심은

희박하지만 신비나 주술에는 흥미를 보이는 등 원시적이고 종교적인 감성은 있지만 교단 종교로 상징되는 교리나 신조, 조직에 속박되기는 꺼린다. 그래서 이런 젊은이들의 종교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는 유사 종교적인 어떤 행위, 즉 영화, 문학, 만화, 애니메이션 등과 같은 것이 국제화 시대에 효과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중의 하나가 K-POP이나 한글, 한국 드라마 등도 좋은 선교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일부 그것들을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효과를 보고 있다.

3. 교회 선교 관련 정책

1)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어려우면 사람들을 교회로 오게 하라.

우리는 교회 1층에 카페를 개설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젊은 주부와 아이들이 와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정비를 하였다. 주일학교, 영어 교실, 가스펠 교실, 태권도 교실, 기타 취미 교실 등을 열고 있으며, 조만간에 한류도 구비하고자 한다. 이 중에서도 특히 가스펠은 일본인들에게 하나의 음악 장르로 정착되어 선교의 좋은 수단이 되고 있고, 강사는 매달 한국에서 자비량으로 와서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하여 모임에 오는 사람들에게 전도의 기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 현재 우리 카페 서클에 가입된 넌크리스천 어머니들 멤버는 중복이 있기는 하지만 약 100정도 라인(일본 카톡)으로 연결되어 있어 필요한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2) 직접 전도보다 관계전도를 하라(농부전도).

일본 사람들은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다. 또 마음을 여는 데 한국 사람들에 비하여 10배나 20배 정도 어렵고 시간이 걸린다. 너무

성급하게 다가가면 조용히 사라져 버린다. 천천히, 그러면서도 착실하게 해나가야 한다. 먼저는 조금씩 관계를 맺고, 보이지 않는 겨자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며 물을 주고 잡초를 매고 드디어 가을에 수확하는 농부의 마음으로 전도의 전 과정을 일일이 거치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3) 힘들더라도 되도록 청년에게 집중하라.

물론 청년이 아니라고 하여 전도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타깃은 청년으로 한다. 왜냐하면 청년도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어른이 되고 노인으로 되어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젊은이 전도를 하지 않으면 금방 교회가 고령화로 접어들기 때문이다.

4)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일본인 전도에 힘을 쏟아라.

일본에 오면서부터 나는 한국인 대상이 아니라 일본 젊은이들에게 전도 초점을 맞추기로 하였다. 물론 한국인이라도 꼭 오려고 하거나 필요한 경우는 예외이지만 한국인이 많아지면 일본 사람들은 뒤로 빠지게 되고 한국인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재편되기 때문이다. 일본 사람들의 조용하고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지 않는 성향 때문이다. 일본인이, 그것도 젊은이가 교회의 메인 스트림을 유지하도록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일본인만 있기보다는 한국인이 조금 있는 편이 서로를 보완하고 협력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5) 제자훈련을 통한 질적 성장을 계속하라.

전통적인 교회, 설교 중심의 교회로 만족하기보다는 일대일 제자훈련, 소그룹 제자훈련, 그리고 구원의 확신, 제자의 기본적인 삶들에 대하여는 개인 또는 소그룹으로 철저히 교육하되 그 이후로도

소그룹으로 목자들을 임명하여 영적 케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6) 어린이 전도와 신앙계승에 집중하라

어른이 되고 나서 전도를 한다는 것은 너무도 힘들고 어렵다. 그나마 미션 출신의 아이들이 그래도 마음은 조금 열려 있다. 믿는 자의 자녀도 중학생이 되면 대부분 학교 활동 등으로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어릴 때 이런 면에서 철저한 신앙교육을 해두지 않으면 믿음에서 떠나기 쉽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실제 신앙교육에 힘쓰고자 하며, 현재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4. 일본 선교사로서 배운 교훈과 훈련

1) 국민성에 대한 이해와 포용, 그리고 섬세한 배려의 중요성을 배움.

일본인은 까다롭고 신중하고 폐쇄적이고 신경질적이며 매우 섬세하다. 그리고 전도에는 상상 외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인내하고 받아주고 배우면서 해나가는 데에는 끊임없는 인내가 요구된다. 우리가 일본에 와서 30년간 가장 많이 훈련하고 배운 것 역시 인내였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알아가는 것도, 일을 처리하는 것도, 양육하는 것도, 모든 것이 인내의 연속이었다. 사람들이 겉으로는 매우 상냥하고 부드럽지만 그리고 말은 잘 들어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 이들에게는 혼내(속마음)와 타테마에(겉의 표현)가 따로 있어 적절히 혼용한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배신감을 느끼거나 좌절하기 일쑤다.

관계 맺기가 5년, 7년, 10년 걸리는 경우가 예사다. 너무 가깝게 다가가도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맺는 법을 배우는 데에 많

은 시간이 요구된다. 그래서 관계전도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은 빠른 사람이 3년, 5년, 7년, 어떤 자매는 12년 걸려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 있다. 성급하게 다가가 재촉하는 전도를 하면 탈이 생기기 일쑤다. 그래서 구술전도를 자제하고 충분한 관계를 맺은 후에 서서히 전도를 하는 형태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려서 약속의 자녀를 얻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내에 대하여 많이 훈련시켜 주고 계신다.

2) 도덕적인 인격, 사회적 위치 확보 등의 훈련과 은혜

전도나 사역의 방법에서 높은 수준의 인격, 기술, 언어, 섬세함 등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가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유독 섬세하고 배려 깊은 문화와 사회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도덕성, 자질, 그리고 섬세한 배려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나도 처음에는 한국인의 방식이나 행동, 말투로 선교를 하면서 많은 갈등과 긴장을 만들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적어도 그들과 같거나 더 높은 도덕적 수준과 사랑,세심한 배려심을 배워야 했고, 또 대학에서의 연구를 통해 학문적이고 사회적인 위치를 확보하게 된 것이 선교사역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3) 약속에 대한 헌신을 통한 사명감 확인과 인내의 훈련

일본 선교는 '고비용 저효과'의 전형적인 모델이라고도 한다. 물론 일본 외에도 그런 곳이 많이 있을 것이다. 어쩌면 많은 경우 '저비용 고효과'를 거두는 곳에 사람들을 보내거나 가고 싶어 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선교의 불공평화가 심화되기도 한다. 물론 교회의 선교 광고 효과가 크고 열매의 기쁨도 크기 때문일 것이다. 아마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얻는다'는 경제법칙과도 맞아떨어지기 때문

일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일까. 성경에서의 '선교원칙'은 이런 우리 사회의 경제원칙과는 맞지 않는다. 그분은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희생시키시는 최고의 비용을 지불하셨다. 아마 그분은 이 지구상에 구원받지 못한 인간이 한 사람, 아니 나 혼자만 있었을지라도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처럼 불공평하고 바보 같은 거래가 어디 있다는 말인가. 쓸모없는 인간을 위하여 최고의 것을 아낌없이 버리신 주님의 행위는 경제원칙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다.

때때로 사탄의 속삭임에 빠져 투자에 비해 이루어낸 열매가 적다고 느낄 때 힘들어하며 실망과 좌절을 느끼는 자신이 부끄럽기 그지없다. 물론 일본에서는 '고비용 저효과'를 견디지 못하고 철수하는 선교사가 많은 것도 사실이라 매우 가슴 아프다. 힘들 때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나에게 사명과 용기와 인내를 새롭게 하는 인생의 닻과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국의 휘튼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29세의 짐 엘리엇과 그의 네 명의 동료가 1956년 니카라과의 60명도 채 되지 않는 원시부족에게 선교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접근하던 중 모두 죽임을 당한 사건이 있었다. 그러자 미국 모든 신문에서는 미래가 촉망받는 젊은이 5명이 허무하게 죽었다며 기독교를 맹비난하였다. 누가 보아도 이들의 선교는 어리석게 보였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번에는 이들의 아내들이 또 동일한 지역으로 가서 전도를 한 것이다. 다행히도 그들은 그 부족에게 들어갈 수 있었고, 그들의 남편들의 희생과 아내들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선교는 경제원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원칙에 따라야 함을 가르쳐 주는 사건이기도 하다. 오늘날도 이름 없이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분처럼 주님의 선교원칙을 지키며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존경을 보내며, 끝까지 사명을 이루기를 함께 응원한다.

지금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린다. 동시에 이곳 선교를 위하여 여러 어려움을 이해하고 기도와 사랑과 물질적 헌신으로 함께 해주신 동역자 분들의 격려에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키즈 여름 캠프

가스펠 교실

키즈 여름 캠프

근처 신사의 정월 모습

어린이와 함께

키즈 여름 캠프

사랑의 등대

• 강태준 목사 (MDiv '06) 로스앤젤레스

기독교 집안에서 5남 1녀 중 4남으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교회와 집이 생활 공간의 전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족은 자연스럽게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하였다.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주일에 교회를 빠지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 그런 가정 환경이었지만 아버님께서 월남에 가시게 되면서 우리 가족은 신앙에 대하여 예전보다 자유로워졌다. 고등학교 입시를 앞두고 입학 시험을 핑계로 신앙생활이 점점 식어졌고, 급기야 교회에 가는 것조차 멀어지게 되었다. 특별한 날 외에는 거의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 그런 시간이 직장을 다닐 때까지 계속 이어졌다.

그러던 중 지금의 아내를 만나면서 아내의 손에 이끌려 다시 교회를 찾게 되었다. 아내는 나보다 주님을 뒤늦게 영접하였지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다. 그동안 세상에 빠져 살았던 나를 하나님께 다시 인도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게 노력을 많이 하였다. 결혼 후 아내와 함께 새벽기도를 빠지지 않고 다녔다.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가 나의 새로운 삶의 사이클로 믿음 안에서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며, 교회 안에서 집사 직분을 받아 열심히 성도들을 섬겼다.

믿음이 좋은 성도들에게 맡기는 재정부 일까지 보면서 신앙이 점점 뜨거워졌다.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 새신자로 오시는 성도들이

나를 보고 전도사님이시냐고 묻는다. 그럴 때마다 한 번씩 묘한 감정이 들곤 하였다. '왜 내가 남들 눈에 전도사로 비춰질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자연히 내 삶의 행동도 조심하게 되고, 교인들을 열심히 섬겼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첫 번째 어려움이 다가왔다. 직장 노조에 관여하면서 서울에서 부산으로 발령이 났다. 아내는 극구 직장을 그만두고 운동이나 하면서 쉬라고 하길래, 퇴직금으로 일 년간 열심히 운동도 하고 여행도 다니면서 젊은 나이에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아내에게 조금 미안한 마음에 아내가 운영하는 한정식집 일을 돕던 중 아내가 일 년간 잘 쉬었으니 부탁 하나 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신학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였다. 그동안 가장으로서 도움을 주지 못해서 미안하기도 해서 할 수 없이 집 가까이에 있는 기독신학대학(현재 백석대학) 야간에 입학하여 신학공부를 하게 되었다.

처음엔 미안해서 그냥 다니려고 했는데 젊은 학생들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보면서 나 자신이 많이 부끄러웠다. 교회를 꽤 다녔는데도 성경 말씀이 부족하여 신학생이라는 신분이 창피하게 느껴졌다. 그래도 아내를 생각하면 학교를 그만둘 수가 없어서 한 학기를 버텼다. 내가 목사가 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저 아내에게 미안하고, 먼 훗날 선교사들을 돌보는 쉘터(shelter)를 운영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에 신학공부를 하고 말씀을 배우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힘들게 한 학기를 마치고, 여름방학을 맞아 아들과 미국에 계시는 아버지도 찾아뵙고 아들 학교도 알아볼 겸 미국을 방문하게 되었다. 아버님께서는 은퇴해서 작은 개척교회를 돕고 계셨다.

아들이 공부할 중학교를 알아보다가 미국은 가을학기부터 새 학

기를 시작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초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는 아들을 미국에서 그 학기부터 공부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비자가 필요했다. 내가 학생 신분으로 공부를 하면 아들도 학교에 들어갈 수가 있어서 다니는 교회 목사님께 월드미션대학교를 소개받아 신학과에 입학하게 되었다.

한국에서 다니던 신학교와는 분위기와 규모는 다르지만 교수님들의 열정과 사랑으로 인해 미국에서의 공부도 나쁘지 않았다. 특히 부부가 같이 공부하는 학생부부들과 가까이 지냈으며, 저녁 식사 때면 미역국에 수제비를 끓여 주시는 권사님들의 사랑과 브레이크타임의 간식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그동안 미국에서 가족이민을 신청하고 있었는데 영주권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에 대학원 공부도 하고 학점도 줄여서 신청하면서 영주권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졸업도 하였다. 졸업 후 우연치 않게 선배가 담임으로 계시는 교회에서 중·고등부 전도사로 사역을 하게 되었다.

중·고등부를 맡자마자 준비도 없이 바로 여름수련회를 떠나게 되어 한 학생을 태우러 갔다가 우연히 집 안을 보게 되었는데 먹을 것 하나 없이 패스트푸드 몇 개만 보였다. '이민 온 가정이 전부 그렇게 살지는 않겠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수련회 장소에 도착했다.

1박 2일 동안 커리큘럼은 설교와 프로그램 몇 개가 전부였다. 저녁식사를 하고 촛불을 켜 놓고 20여 명 학생들이 둘러앉아서 '가장 아팠던 일', '가장 즐거웠던 일', '앞으로 무엇이 되겠다는 장래 희망'을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었는데 자신의 성장과정과 부모님 이야기를 하면서 일부 학생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닌가?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중·고등부 학생 전체가 눈물을 흘리면서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다. 마치 친구의 아픔을 내 아픔같

이 울어 주는 것이 아닌가. 학생들 모두가 울면서 순식간에 울음바다가 되었다. 나와 같이 간 전도사님, 그리고 두 분의 선생님들이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위로하고 기도해 주었다.

기도가 끝나고 프로그램을 마치고 간식시간을 가졌는데, 수련회 전의 학생들 모습이 아니었다. 서로 간식을 먼저 챙겨 주고, 쓰레기를 치우고, 수련회 오기 전 다투었던 아이들이 하나가 되어 먼저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전도사로서 '이게 뭐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나 자신이 놀람을 감출 수가 없었다. 그날 밤 내 머리 속에서는 온통 변화된 아이들의 모습과 이전의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어떻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변화되는지, 갑자기 사역을 하게 된 나로서는 꿈을 꾸는 것만 같았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다.

수련회를 마치고 교회로 돌아와 전도사로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 수련회 떠날 때 태우러 간 학생 가정을 생각하며 다른 학생들 삶을 들여다보니 몇 가정 빼고는 대부분이 결손가정이었다. 아이들 공부 때문에 이민 와서는 생활고 때문에 맞벌이로 일을 하고 있었으며, 지인 집에 아이만 홀로 보낸 가정, 부모가 이혼한 결손가정이 많았다. 아이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과 공부를 하는 게 안쓰러워서 교회를 방과후교실처럼 아이들에게 오픈하고 간식과 식사도 제공해 주었다. 중·고등부 사역은 토요일과 주일날에만 있었지만, 학교와 학원이 끝나면 교회에 와서 공부하고, 활동도 하고, 기도하고, 저녁도 먹는 등 매일 중·고등부 학생들이 교회에 모여 교회 안에서 활동하게 하였다. 식사 메뉴는 거의 대부분 돼지고기 김치찌개가 단골 메뉴였지만 정말 아이들이 좋아하고 잘 먹었다. 그때 배운 요리 실력으로 지금도 김치찌개는 아내보다 더 맛있게 끓인다.

정신없이 학생들과 주일 예배, 토요 성경공부, 여가 활동, 수련회 등으로 사역을 하던 중 교회가 둘로 나누어지면서 어려워지자 풀타임 사역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게 되었다. 담임목사님께서 일 한 가지를 더 알아보라고 하시기에, 그동안 다운타운에서 장사하면서 공부와 사역에 전념하라고 뒷바라지하던 아내 몸이 많이 안 좋아지면서 병원에 갈 때마다 보험이 없어서 많은 돈을 지불하였기에 보험을 해결해 주는 직장을 알아보게 되었다. 마침 그 시기에 영주권도 나오면서 정식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었다. 신문사에 들어가 광고부에서 일하게 되면서 거래선 관리와 광고 영업 업무를 맡았다. 한국에서 영업관계 일을 하였기에 어렵지 않게 일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새벽예배부터 수요예배, 주일예배, 그리고 수련회 준비에다 직장까지 다니다 보니 몸에 이상이 생겼다. 무리해서 그런지 좌골 신경통으로 꽤 오래 고생하였다. 할 수 없이 일 한 가지를 내려놓기로 하였다. 나로서는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였기에 사역을 내려놓기로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나를 위해서 희생한 아내를 생각하고는 몇 년만 일하면서 아내의 건강이 회복되면 다시 교회로 돌아오겠다고 마음먹고 사역을 내려놓았다.

그런데 직장에서 영업활동을 위해 거래선에 방문하면 만나는 사람마다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럴 때마다 "목사는 아니고 전도사로 잠시 사역을 하였습니다"라고 앵무새처럼 말해야만 했다. 그러면서 '내가 목사님으로 보이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한국에서 교회 다닐 때 "전도사님이세요?"라고 질문 받던 일들을 떠올렸다. 사람들에게 내가 전도사로, 목사로 보이는 것이 '내 모습에서 그런 분위기가 풍기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잠시 사역을 놓겠다고 한 것이 7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그러던 중,

예전에 가르쳤던 중·고등부 학생들이 대학생이 되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는 말이 들리기에 청년들을 만나 내가 섬기는 개척교회로 인도하여 젊은 2세 목사님에게 청년들을 부탁하였다. 그리고 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개척교회를 떠나게 되었다. 또 다른 어려운 교회로 옮겨 신앙생활을 하던 중 또다시 청년들이 교회를 다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청년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이 마음에 걸리는 이유는 중·고등부 때부터 매일 한솥밥을 먹으면서 아버지같이 함께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다. 청년들과 성경공부라도 하겠다는 생각에 장소를 먼저 알아보았지만 임대료가 생각보다 비쌌다. 고민하던 중 아내가 간병하고 있던 장로님 사위 되시는 분이 자신이 운영하는 건물 2층 공간을 무료로 사용하게 해주었다.

아내와 나는 먼저 기도하면서 준비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일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말았다. 먼저 다니던 교회 장로님과 권사님이 찾아와서 교회를 개척하자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다. 목사 안수도 받지 않았고 목회를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분들을 설득하여 돌려보냈다.

주일 아침에 아내와 둘이 성경공부 할 장소에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장로님과 집사님이 오셔서 예배드리자고 하는 것이 아닌가. 아무 준비 없이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인가? 할 수 없이 찬송과 성경구절을 보고 설교도 아닌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고 주일이라 헌금도 하였다. 마침 같이 공부한 동문인 김학송 목사님께서 북한에 억류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터라 "이 헌금은 북한에서 억류된 목사님께서 나오시면 선교비로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고 그날 예배 아닌 예배를 마쳤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음주 주일에도 또 오시겠다고 하면서 가셨다.

한 주간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는지, 그 준비하는 말씀이 내 이야기였던 것이다. 주일이 되어 아내와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준비하는데 지난주에 안 오셨던 두 분의 집사님이 더 오셨다. 이렇게 첫 예배를 6명이 드렸고 헌금도 하고 주일 예배를 마쳤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인가?' 나 자신에게 묻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또다시 주일을 맞아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참석한 분들에게 다음주에 오실 때 교회 이름 하나씩 기도하고 지어 오시라고 하였다.

한 주간 동안 회사일로 동문이 운영하는 업체도 방문하고 동문들도 만났는데 갑자기 한 동문이 "우리 교회는 40년이 되었는데 성도가 열 명 남았어요"라고 하였고, 또 다른 동문은 박보영 목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몇 년 동안 성도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그때까지 교회를 시작하였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고, 그동안 여러 번 만나도 한 번도 나에게 교회 성도 숫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기에 내 마음에 '전도사님들의 이야기는 나에게 들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목회를 하게 되면 절대 성도들 수에 흔들리지 않고, 사람을 보고 목회를 하지 않겠다고 마음에 다짐했다.

목회를 하면서 성도 숫자에 자유로우면서 얼마나 좋은지, 지금껏 성도가 많고 적음에 한 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것도 목회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2층 사무실에서 윌셔가 빌딩으로 교회를 이전하면서 소식을 듣고 교회를 떠났던 청년들이 하나 둘씩 모이면서 찬양팀도 세워지고 교회가 활기가 넘치게 되었다. 이제 전도사로 목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목사 안수를 받기로 하고 세계복음선교연합회에 목사 고시를 신청, 마감 하루 전에 접수를 시키고, 모든 과정을 어렵게 통과하여 목사 안수를 받았다.

교회를 개척한 지 1년 만에 목사가 되고, 또한 창립 1주년 예배를 드렸다. 총장님을 비롯하여 연합회 회장님, 그리고 함께 공부한 동문들이 와서 축하와 격려를 해주었다. 이제야 메시야선교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로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고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게 되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목회의 방향과 비전도 세우게 하셨다. 처음부터 청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기도한 교회이기 때문에 청년목회와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교회가 나아가기로 하였다. 한 가지 원하는 목회방향이 있다면 세상에 있는 청년들이 교회에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지금 있는 청년들을 믿음 안에서 성장시켜 이들과 함께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청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하게 하는 목회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 밥차를 마련하여 청년들이 모이는 장소면 어디든지 가서 대화도 하고 간단한 식사나 음료, 그리고 찬양과 메시지를 전하는 목회를 계획하고 있다. 청년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한다.

이제 목회에 전념하기 위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기로 하였다.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께서 개척교회에서 목사님이 직업이 없으면 교인들이 불안해한다고 말하지 않는가? 그래서 생각한 것이 직장은 그만두고 재택근무, 즉 파트타임 커미션 일을 하면 목회하는 데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가 있고, 또 성도들이 보기에는 일을 가지고 있으니 사례비 부담 걱정을 하지 않게 할 수 있을것 같았다. 말이 파트타임 일이지 수입은 거의 없었다. 생활비가 부족하여 401K연금을 해지하여 생활비에 충당하며 살았다.

교회는 청년들도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하고, 찬양도 열심히 준비하고, 성도들도 열정을 가지고 봉사하며 공동체가 하나씩 믿음 위에 잘 세워져 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교회의 분위기가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면

서 교회에 첫 번째 위기가 왔다. 교인들 간의 금전 문제와 이성 관계로 시끄러웠다. 급기야 교회 재정까지 문제가 되어, 어떻게 해야 상처 없이 은혜롭게 잘 처리해야 할지 생각이 많았다. 더구나 문제를 일으킨 성도들이 세를 규합하여 담임목사를 몰아세우는 것이 아닌가? 할 수 없이 원로 장로님을 비롯하여 교회 직분자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여 기도하고 문제를 하나씩 놓고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며 용서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전부 찬성하는 것은 아니었다.

교회 재정 문제 해결이 힘들었으며, 시간이 필요하였다. 이 일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겼다. 재정이 문제이다 보니 잘 드리던 헌금도 점점 줄어만 갔다. 잔고가 없는 상태에서 모두 손을 놓고 담임목사한테 재정을 넘기고 교회를 떠나갔다. 솔직히 나는 돈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돈에 매여 살려고도 하지 않고 돈을 좇아다니지도 않았고, 정말 돈에 대해서 모르며 살아왔다. 그래서 재정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로 보이지가 않았고 단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것과 교회를 떠났어도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다.

하루아침에 성도가 줄고 재정은 없지만 이상하게도 전혀 걱정이 안 되는 것은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성도의 수에 자유를 주셨기 때문이다. 재정적인 문제는 돈에 대하여 겁이 없고 모르기 때문에 이 또한 걱정이 되지 않았다. 단지 이번 일로 청년들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할까 봐 걱정이 되었다. 아내와 둘이서 기도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로 했다. 기도로 위로받고 기도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 일로 몇몇 성도들은 다시 돌아왔지만 아주 교회를 떠나 신앙

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성도들을 볼 때 매우 안타까웠다. 교회 재정은 생각지도 않게 아들이 직장을 옮기면서 아직 교회를 찾지 못해서 십일조를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헌금하여 재정에 시드머니(seed money)가 되었다. 교회 재정을 줄이기 위해 형편에 맞게 교회를 이전하였다. 비록 지하에 있는 교회였지만 어느 때보다 청년들이 더 열심히 뜨겁게 찬양을 불러 성도들이 많은 위로가 되었다.

1년 6개월 동안 지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교회 문을 닫게 되었다. 매주 설교를 메시지로 보내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다. 일단 교회 재계약은 안 하고 교회 비품을 집으로 옮겨 놓고 교회 자리를 찾았다.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지하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교인들 모두가 반대였다. 몇 군데 장소를 알아보았지만 재정적인 문제로 결정하기 힘들었다. 대부분의 교회가 어려워 두세 교회가 함께 사용하는 것이 불편하여 시간을 갖고 알아보다가 뜻하지 않게 월드미션대학교 교수님 교회를 함께 사용하기로 하였다. 지상에 예배실이 있고 친교실도 넓고 주차장도 넓고 보안도 잘되어 있었다. 교회 위치도 길가에 있고, 더욱이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어서 너무 좋았다. 아내도 좋다고 하였고 장로님, 권사님들도 만족해하셨다. 하지만 교회 문이 열리기까지는 기다려야 했다. 코로나로 인하여 대면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가정예배로 계속 드리기로 하였다.

교회가 열리지 않으니 자연 재정적 어려움이 있었다. 렌트비로 나가는 것은 없지만 사례비와 선교비, 그리고 자동차 할부금 등 지출을 하여야 하는데 점점 통장 잔고는 줄어만 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빈곤하게 놔두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동안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어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실업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가 교회문을 닫자마자 바로 정부에서 실업 수당을

지급해 줘서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생활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 교수님께서 우리 교회 먼저 대면예배를 드려도 된다고 하시기에 오랜만에 교회 청소를 하고 예배 준비를 하였다.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강대상과 마이크와 앰프시설을 우리 교회 비품으로 설치하고 이전해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감사한 나머지 마음까지 울컥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끝까지 붙잡고 여기까지 온 것이 다 보상받고 위로받는 것 같았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는 로마서 11장 1절 말씀을 묵상하며, 나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을 수없이 배반한 죄인이었지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한 번도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고, 목회를 통하여 깨달음을 주셨다.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 인도한 나의 사역의 동반자인 아내, 그리고 부족한 주의 종을 가르치신 월드미션대학교 교수님들, 목회를 하면서 도움을 주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동역자, 그리고 가장 귀한 청년부들 모두가 하나님의 무대 위에 나를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세 겹 줄이며, 이끌어주신 안내자가 아닌가.

특히 사역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사모이며 동역자로 여기까지 부족한 나를 말없이 인도해 주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아직도 몸이 정상적인 곳이 한군데도 없을 정도로 아프지만 내색하지 않고 말없이 따라와 준 아내에게 고맙고 미안하다. 목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고백한 “하나님, 부족한 종을 10년 목회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서원이 아직 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철부지 아이처럼 “여보 안식년이 언제이지?” 하고 물어보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남편을 주의 종으로 섬겨 주고

있다.

어둠 속에 있는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한 나의 등대, 세상길로 가는 나를 바른길, 의의 길을 인도한 나의 등대, 내가 암벽에 부딪칠까 봐, 그리고 암초에 걸려서 좌초할까 봐 내 앞을 비춰 준 나의 진정한 사랑의 등대,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과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갈 나에게 영원한 등대가 되어 오늘도 쉬지 않고 기도와 격려로 함께하는 나의 영원한 아내가 고맙다. 당신이 나를 비춰 주는 사랑의 등대가 되어 고난과 고통의 어두운 터널까지도 그 불빛은 항상 나의 큰 힘이 되었음을 이 글로 고백드린다.

"여보, 사랑해. 나에게 와줘서 고마워."

강태준 목사의 사역 사진

주일 예배

창립4주년 예배

어머니주일예배 친교(청년부가 “어머니은혜” 노래 합창)

창립 1주년 행사 후 총장님과 동문들과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

• 곽동현 선교사 (MDiv '17) 가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시 23:1).

1.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현재 서부 아프리카 가나에서 사업과 선교을 병행하고 있는 자비량 선교사 곽동현입니다. 샤머니즘적이고 제사를 생명처럼 여기던 가정에서 성장한 저는 '예수'와 '교회'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20대 청년기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1985년 11월 어느 날 밤에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성경책을 우연히 읽던 중 로마서 13장 11-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말씀에서 '예수 옷을 입지 않은 나의 인생은 죽은 인생인가, 살아 있는 인생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인생은 죽은 인생'이라는 고백과 함께 성령께서 임재하여 회개를 하게 되었고, 그 시간 이후로 저는 예수쟁이로 변화되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었고, 모든 삶의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말씀 중심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2천 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서양귀신이 아닌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님이 된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니 그렇게 많던 술친구들도 저를 '예수에 미친 놈' 취급하면서 멀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1983년 어머니를 잃고 아버님이 재혼하셨는데, 어머님을 잃은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였는데 너무 일찍 재혼하신 아버님을 이해할 수 없어서 술과 담배를 의지하면서 방황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한 저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심으로 저의 방황은 끝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처럼 전도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과 더불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그때부터 제 안에 선교사라는 꿈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2. 서부 아프리카 가나로 보내신 하나님

결혼 후 신학을 하려고 했으나 아내의 심한 반대로 끝내 신학을 포기하고 직장생활을 계속하였습니다. 어느 날 주일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성령님께로부터 미디안 광야과 같은 곳으로 떠날 준비를 하라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아내에게 어느 곳인지는 모르지만 좀 험악한 오지로 떠날 것 같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제 아내는 그렇게 말하는 저를 사이비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곤 했습니다.

1993년 1월 무역협회지에서 직원모집 광고를 보았는데 내용인즉 가나에서 성공한 한국인이 한국 제품들을 가나에 수입해서 판매하고자 직원을 모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읽는 순간 '이것이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이 직장을 따라가면 아프리카로 선교하러 갈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이력서를 제출하였는데, 곧바로 응답이

왔습니다. 그러한 연유로 서부 아프리카 가나로 직장을 따라 가족들과 함께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선교하고 싶은 마음으로 왔지만 그 당시 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가족들이 너무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미안한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전기나 수돗물 사정도 좋지 않고, 말라리아와 같은 풍토병과 싸워야 하며, 날씨는 무척 덥고, 친구도 없고, 교통수단도 없고, 치안 때문에 자유롭게 외출할 수도 없고, 필요한 물건들도 구하기 힘든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지금은 아주 많이 발달되어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부르셨다는 믿음으로 계속 버티면서 살아왔습니다.

지금은 가족들이 오히려 가나에서 교육받고 성장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의사들과 의료선교를 다녔고, 청소년 성경공부반을 인도하였으며, 또한 불우한 아이들을 돕는 일들을 하면서 나름대로 조금씩 조금씩 선교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업을 통해서 아프리카에서 선교로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3. 사업의 문을 열어 주신 하나님

회사에서 갑자기 한국으로 출장 갈 기회가 있어서 급히 한국에 왔다가 대학 후배로부터 아프리카 사업에 관심이 있는 친구를 소개받았고, 그 친구로부터 사업 자본금으로 3만 달러를 빌려서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때가 2002년 9월이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삼성전자 제품으로 9년 동안 영업을 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전자제품과 기타 여러 가지 제품들을 수입 판

매하는 무역회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무역업 경험이 풍부한 저에게는 사업 시작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식과 경험만으로는 그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2007년 미국의 금융사건이 일어난 후 그 영향이 2008년 유럽에 미치면서 프랑스 거래선으로부터 더 이상 외상거래를 할 수 없으니 그동안 공급한 물품대금을 갚으라면서 외상 독촉이 시작되었고, 한국 파트너도 마찬가지로 외상대금에 대한 독촉을 해왔습니다. 한국의 IMF와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모든 것이 올스톱되었고, 결국 5억의 빚을 안고 사업은 파경을 맞이하였습니다. 빚 독촉에 너무 괴로워서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때 왜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지,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살아남기 위해서 제조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다른 아이템을 찾던 중에 한국 파트너의 소개로 디지털 광고 프린팅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계가 워낙 오래된 중고 기계들이어서 잦은 고장으로 도저히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포기하였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KOICA 소속 의사가 저희 집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의 소개로 아프리카 선교에 관심이 있다는 청년이 저희 회사에 근무하면서 현지 선교경험을 쌓고자 저희 집에서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가나에 온 지 불과 2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제가 사업 포기선언을 하니, 그 청년이 너무 실망하면서 3일 금식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서 누가복음 13장 8절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프린팅 광고 사업을 포기하지 말고 1년만 본인에게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합

시다" 하면서 그 친구에게 그 사업을 맡겼습니다.

그 친구가 기계를 전적으로 맡고 난 후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고장이 자주 나던 기계가 그 청년 손에서는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기계가 고장이 나면 고치고, 또 고장 나면 또 고치고, 또 수리하고 하면서 기계의 고장 증세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으면서 신기할 정도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로 기계를 더 가져오면서 프린팅 광고 사업을 이제까지 하게 되었고, 자비량 선교사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렇게 기적같이 모든 기계들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될 뿐 아니라 좋은 거래선들을 계속해서 주님께서 보내주셔서 사업을 일으켜 세우시고 빚 5억도 다 갚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사업에 망해서 한참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정부 파견 의사를 저희 집으로 보내주시고 그를 통해서 한 청년을 소개받았고, 그 청년은 기계를 잘 다루는 달란트가 있어서 모든 고장을 잘 수리해서 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기계를 살리고 사업을 일으키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때를 따라 사람을 보내주시고 만남을 주관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4. 산타페 자동차를 통해서 선교사로 부르신 하나님

2010년경 더 이상 한인교회 안수집사로 머물러 있지 말고 선교사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동

차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2007년 말부터 2012년 초까지 무척 어려울 때 자동차도 i10 소형 자동차 한 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협력하고 있던 교회들이 대부분 시골 마을에 있었는데 그곳은 소형 자동차로는 가기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비포장 지역이어서 4륜 자동차가 필요했습니다. 그러한 연유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돈이 없어서 좋은 자동차를 구입할 수 없습니다.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면 당장 좋은 자동차가 하나 필요합니다.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다면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확신하고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한 후 가나 현대자동차 총판을 찾아가서 산타페 자동차를 정말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12개월 할부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12개월 할부로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대금의 절반이나 최소한 1만 달러를 보증금으로 지불해야 자동차를 출하해 주는 것이지, 그냥 구두상으로 계약하고 자동차를 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한국에서 한국사람끼리 거래하는 것도 아닌 타국에서 외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그런 거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산타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마지막 주에 그 자동차로 가나 전역을 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하였고, 그리고 난 후 2011년 1월에 가나한인교회의 모든 직분을 사임하고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느 선교단체에 소속된 것도 아니고, 가나에서 자생한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자칭 평신도 자비량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2012년 5월에 신흥의 성결교단 익산교회에서 정식으로 선교사 파송을 받았고, 그해 9월부터 월드미션대학교에서 목회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5. 월드미션대학교에서 목회학을 전공하고 목사 안수를 받음

교회사역을 하면서 신학공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신학을 통해서 더 많이 배우고 더 잘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사역을 하다 보니 리더로서 목사라는 직분도 중요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신학을 공부하기로 하였고, 이에 적합한 신학교를 찾던 중에 월드미션대학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김문기 선교사가 월드미션대학을 적극 추천하여 WMU에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공부하는 내내 은혜로웠고, 재미있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얕은 지식을 가지고 있던 저에게는 신학을 하면서 새로운 것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은혜요 또한 큰 의미가 되었습니다.

신학에 눈을 뜨고 성경을 더 깊이 있게 알기 시작하였고, 또 많은 교수님들과 학우들과 온라인으로 대화할 수 있는 것이 은혜 그 자체였습니다. 비록 직접 대면할 수는 없었지만 댓글을 통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너무 진지했고, 그러한 대화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공감하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한결같이 하나라도 더 가르치고자 하는 교수님들의 열정을 영상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기에 교수님들의 열의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온라인상으로 댓글로 서로의 의견을 나누면서 서로를 권면하고, 또한 학우들의 댓글을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헌신하는 주의 종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캠퍼스에서 교실 내에서 공부하지는 못했지만 학교에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4년 6개월 동안 행정담당 과장님들은 한결같이 친

절하게 안내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분들의 친절한 지도와 안내가 없었더라면 아마 중간에 포기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신학을 공부하면서 가정적으로 어려운 일 때문에 중도 포기할 생각도 있었습니다. 2012년 9월 학기부터 신학을 공부하였는데 2014년 11월에 가나의 집에 3인조 무장강도가 침입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오른손가락에 총상을 입고 치료차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고, 저 혼자서 그 강도 만난 집에서 공부해야 했습니다. 가나를 떠나고 싶은 마음도 간절했고, 신학을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강도를 만난 집에서 매일매일 혼자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았고, 공부에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강도들이 들어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과 거리에서나 선교지에서나 사람들을 만나면 '혹시 저 사람이 강도는 아닌가? 나에게 덤벼들어서 돈을 요구하며 총으로 내 머리를 내려치는 것은 아닌가?' 하는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신학을 포기하고 선교지를 떠난다면 나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니 내 삶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결론이 내려져 계속 신학을 공부하였습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방해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학을 포기하면 사탄만 좋아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끝까지 공부를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2017년 6월 3일에 학위을 받으면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그런 트라우마를 극복하였고, 아내도 손가락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지만 그래도 가슴이나 얼굴이나 다리나 다른 곳에 맞아서 불구가 되었거나 목숨을 잃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입니다.

6. 사역소개 - 빈민지역 교회 개척과 무슬림 선교와 NGO 설립

저는 일찍부터 가나신학교 이사로 일하면서 그 신학교와 관계를 맺고 협력선교를 하였습니다. 그 신학교 졸업생들이 개척한 교회를 중심으로 몇몇 교회를 맡아서 순회 선교를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도시가 아닌 교회가 없는 시골마을을 중심으로 개척되었습니다.

매주 먼 거리를 오가면서 순회사역을 하던 중 빈민지역에 교회를 개척해서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면서 잠재적인 어린이와 청년들을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양성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기도하면서 한 빈민도시를 목표로 해서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아주 열악한 빈민지역에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 정도 되어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고 있을 때 가나 현지 교회 전도사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교인 32명이 15인승 현대 그레이스 자동차를 렌트해서 결혼식에 갔다 돌아오던 길에 밤 10시경에 대형사고가 발생하여 2명이 죽고 나머지 30명 전원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가 완전히 찌그러져서 사람이 살아남을 수 없을 정도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30명 모두가 건강을 잘 회복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요.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난 교회'라고 소문이 나면서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고, 교인들은 교회를 떠나 교회가 텅 비게 되었습니다(사립학교 교실을 빌려서 교회로 사용하고 있었음). 그때 같이 사고를 당한 청년 중에 한 명이 하나님께 헌신하여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2020년 12월에 졸업해서 교회의 리더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교인들과 함께 조금씩 다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약 10년 가까이 중점적으로 사역해 왔던 것이 무슬림 노숙자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신실한 현지 사역자를 만나서 동역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의 북쪽은 90% 이상이 무슬림들입니다. 그 북쭉 지역은 아주 열악한 환경이고, 일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가나의 수도인 아크라로 내려오는 무슬림들이 많습니다.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시장에서 물건을 머리에 얹어 운반하는 것이라, 그걸로 일당을 벌어 거리에서 먹고 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가나에서는 Kayayei(Head Porter)라고 부릅니다. 유튜브에서 Kayayei in Ghana를 보면 그들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무슬림의 복음화를 위해서 교회를 개척한 지가 벌써 10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보통 주일에 200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작년부터 Covid19로 인해서 교회에 많이 모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멈출 수 없어서 그들이 먹고 자는 거리로 직접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주고 그러면서 지금은 약 2,000명 정도의 Kaya 사람들을 접하면서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굿네이버스와 연합해서 2,100명에게 쌀과 가나 음식을 제공하였고, 가나 보건청과 협력하여 코로나 예방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 예방차원에서 마스크와 비누를 꾸준하게 제공하고, 비가 오면 옷가지들을 담아서 보관할 수 있도록 2m 길이의 PVC 봉지를 무료로 공급하기도 합니다. 그 Kaya 사람들 중에 복음을 전혀 듣지 못했던 무슬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히잡을 쓰고 왔다가 그다음 주일에는 히잡을 벗고 교회에 와서 "나는 이제부터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면서 간증하는 자매도 있었

고, 예배 도중에 사탄에 사로잡혀 쓰러진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난 후 그다음 주에 7명의 친구와 함께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늘 마음의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 살아왔는데 지난 주 교회에서 기도를 받은 그 이후 마음에 불안과 공포감이 없어지고 평강을 갖게 되었다고, 그래서 예수 믿기로 하였고,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어서 7명을 데려왔다고 간증하는 자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하였으니 자기의 아이 이름을 무슬림 이름이 아닌 크리스천 이름으로 해달라고 요청하는 자매도 있었고, 세례를 받고 눈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자매도 있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고 성장한 그 무슬림 청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현장을 목격하면서 저와 우리 동역자들이 함께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복음을 말하는 입술만 하나님께 빌려드렸을 뿐, 나의 능력이 아닌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변화되는 현장에서 저는 그냥 그것을 구경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기 때문입니다.

NGO 사역을 통해서 협력하고, 교회들 중에 물이 없는 지역에 우물을 파주었고, 과부들의 자립을 돕고, 불우한 아이들 학교 보내기 운동을 통해서 많은 아이들을 후원하였습니다.

7. 자비량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젊은 나이에 방황하고 있던 저를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아프리카로 보내시고 그곳에서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그곳, 광야와 같은 그곳에서 저와 저의 가족을 지켜 주시고 사업을 일으켜 주시면서 자비량 선교사로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삶입니다.

힘도 없고 의지할 친구도, 돈도 빽도 없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저를 이제까지 인도해 주시면서 자비량 선교사로 세우시고, 또한 선교사를 돕는 선교사로 세우시고, 불우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사업체를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필요한 사람을 보내 주시고 만남을 주관하심도 모두 하나님이 하셨고, 필요한 것들도 채워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물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며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제 삶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하겠다고 거창한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그 자리에 가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자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겸손하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더 깊은 곳으로 가서 사람을 낚기 위해서 복음의 그물을 던지는 어부로 쓰임 받고 싶습니다.

무슬림 노숙자 초청 거리 전도 집회

무슬림 노숙자 전도 초청 집회 중 설교

물이 없는 지역에 우물 파서 물탱크 설치

빌리지 교회 교인들 심방 중 아이들과 함께

Neighbors Hand Ghana Donates to Kayaye in

NGO 설립과 노숙자 비상식량구호물품 공급 내용과 관련하여 가나 신문에 난 기사

현재 담임하고 있는 교인들과 함께

늘 누군가를 붙들어 주는 삶

• 구계자 사모 (MACP '21) 뉴욕

1.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사랑

1) 열다섯 살의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하던 부모님에게서 육남매 중 다섯째로 태어났다. 어릴 적 기억을 더듬어 보면 우리 가정은 매우 가난했을 뿐만 아니라 건강하지 않은 역기능 가정이었다. 그런 가정환경으로 인해 나의 어린 시절은 누구에게도 말 못할 상처들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이면서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사춘기가 한창이던 중학교 3학년의 어느 날, 가세가 완전히 기울어 은행에 저당 잡혔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우리 식구들은 집 밖으로 내쫓기고 말았다. 이런 최악의 상황이 되자 어머니는 우리 집에 드나드시던 권사님의 전도를 받은 지 꼭 10년 만에 하나님께 항복을 하고 교회라는 곳에 첫발을 들여놓으셨다. 그때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처음으로 교회에 갔지만 그 걸음이 계속되지는 못했다.

그러다가 기독교 재단에서 설립한 여고에 진학하게 되면서 자연스레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신앙생활은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힘들었던 나에게 좋은 안식처이며 피난처가 되어 주었다. 감사하게도 나는 노래로, 종교부장으로, 지휘자로, 응원단장으로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냄으로 선생님들과 아이들의 시선을

받으며 행복한 여고 시절을 지냈다. 그러나 집안형편은 여전히 어려워 어머니는 "명문대에 합격하면 빚을 내서라도 공부시켜 주겠지만 그렇지 못하면…"이라고 말씀하셨기에 공부도 열심히 했다. 하지만 뜻을 이루지 못해 낙심하고 있었을 때, 담임목사님의 적극적인 제안–신학대학의 장학생 선발시험에 응시해 보라는–에 떠밀려 신학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다.

4년간의 공부(종교교육과)를 마치고 졸업은 했지만 진로가 보이지 않았다. 부끄럽게도 그때까지 내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이렇다 할 헌신도, 비전도 없었기 때문이다. 막막해지다보니 "하나님, 제 길을 인도해 주세요. 가장 먼저 열어 주시는 길이 아버지의 뜻인 줄 알고 그리로 가겠습니다"라고 다급하게 기도하였는데 맨 처음으로 열어 주신 길이 '유년부 교육전도사' 자리였다. 그리고 연이어 모교인 여고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2급 정교사의 자리도 주셨다.

나는 주 7일을 근무하는 바쁜 생활(월-토/교사, 주일/교육전도사)을 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어린이 선교단체에서 주일학교 교사들을 교육하는 사역도 맡게 되어 정말 눈코 뜰 새 없는 바쁜 삶을 살았다. 이런 가운데 결혼도 하였고, 1년 뒤엔 목사의 아내(사모)도 되었다. 이후 아들 둘을 낳고 키우면서 나는 여전히 바쁘고 잘나가는 사역자였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나보다 늘 앞서 가시며 길을 열어 주셨고 믿음 없는 나를 이끌어 가신 것이었는데, 당시에 나는 어리석게도 내가 잘나서 그런 줄로 착각했다.

2) 왕궁(한국)을 떠나 미디안(뉴욕)으로

남편과 함께 부부 교역자로 8년 반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섬겨 왔던 교회가 담임목사님과 당회원들의 불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우리 부부는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고, 새로운 사역지를 찾는

과정에서 1999년 여름, 뉴욕으로 사역의 터전을 옮기게 되었다. 그러나 낯선 땅 뉴욕에 온 지 3년 만에 맞닥뜨린 남편의 갑작스런 발병으로 한국에서 20년 가까이 승승장구하던 내 인생은 벼랑 밑으로 끝없이 추락하게 되었고, 선택의 여지없이 '미디안 광야학교'의 학생으로 자동입학이 되었다.

신장투석환자가 된 남편의 투병생활이 시작되면서 나는 비로소 나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나는 누구인가?' '지금까지 나는 무엇을 위해 달려왔는가?'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과 계획은 무엇인가?' '나는 왜 여기에 이르게 된 것일까?' 오랜 세월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나를 드러내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해 온 나의 파렴치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게 된 것이다. 남편이 신장이식으로 새 생명을 얻기까지 10년간의 투병 기간은 불순물로 뒤덮여 있던 이기적이고 교만했던 나를 담금질하시기 위해 필요했던 강력한 풀무였다. 재능은 있었지만 도무지 신앙과 인격이 미흡한 나를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을 고통을 통해서 비로소 낱낱이 깨닫게 되었다.

>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시 119:71).

사역지에서 받은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남편이 사역현장에 복귀할 수 없게 되자 나는 사역지를 옮기기로 했다. 그곳에서 2년간의 어린이부 사역을 끝으로 부교역자 생활을 마감하고 우리 가족과 조카, 유학생 몇 명과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린 것이 지금 우리 교회의 시작이었다.

당시 부모 부재의 건강하지 않은 가정환경 속에 있는 청소년들을

보내주셔서 남편과 나는 그들의 부모 역할을 하며, 신앙지도에 전념했다. 비록 작고 연약한 개척교회의 몇 가정 안 되는 성도들이지만 알곡 신자로 만들어야겠다는 일념으로 일대일 양육에 몰두했다. 그런 중에도 남편은 병원 신세를 져야 할 일이 수시로 생겼고, 감사하게도 감당할 믿음을 예비해 주셔서 모든 상황들을 헤쳐나올 수 있었다. 하지만 시시때때로 나에게 찾아오는 좌절감과 자괴감—'내 인생은 여기가 끝인가? 그저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것인가?'—은 나를 몹시 힘들게 만들었다.

2.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

1) 가정사역의 비전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나는 쉬지 않고 더욱 나를 몰아갔다. 교우들이 직장을 쉬는 날이면 그들의 집으로, 사업장으로 달려가 일대일 양육을 했고, 집에 돌아오면 자녀양육, 부모교육, 상담에 관한 책들을 독파했다. 그러던 중 2011년 6월 어느 날, 뉴욕의 모 일간 신문에 부모교육을 위한 칼럼을 기고한 것이 계기가 되어 매주 칼럼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후 5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 가면서 칼럼을 썼는데 그러는 동안 독자들로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어린 자녀를 둔 젊은 엄마들, 손자 손녀를 둔 할머니, 청소년 자녀의 비행문제, 부부문제로 갈등하고 있는 남편과 아내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호소해 왔고, 부족한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이런 상황이 '가정사역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였고, 한인사회(가정)를 위해 도움이 되어야겠다는 마음에서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2) WMU의 MACP 과정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가정 회복하기(세우기)'를 목표로 한 가정 사역에 대한 비전과 열정은 컸지만 학문적 배경이 부족하다 보니 배움에 대한 욕구와 필요가 더욱 많아졌다. 한국에 있는 대학과 대학원에서 기독교교육과 유아교육을 공부했지만 상담에 대한 공부를 한 적은 없었기에 더욱 절실했다. 여러 해 전부터 나름 상담에 관한 교재를 구해 열심히 독학을 해왔지만 그것으로는 한계에 부딪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2018년 봄, 예전에 WMU에서 보내주신 입학 안내 엽서가 생각이 나서 부리나케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담심리학과 대학원 과정(MACP)'에 지원하게 되었고, 가을학기 신입생으로 입학 허가서를 받았다. 가정사역을 시작한 나에게 '상담심리'라는 공부는 필수적인 분야였기에 기대가 컸다.

그러나 출발부터 순탄하지 않았다. 첫 학기 개강을 며칠 앞둔 8월 하순 어느 날, 한국에 계신 친정어머니가 넘어지면서 팔에 부상을 입으셔서 갑작스레 한국행을 결정해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부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차라리 수강 신청을 취소하고 한 학기를 미루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야, 일단 한국에 나가 상황을 보고 결정하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음을 깨닫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상황을 조절해 가며 공부할 수 있는 WMU의 온라인 공부가 없었다면, 두 달 동안 어머니의 24시간을 책임지며 집 안에만 갇혀 지내야 했던 나는 자칫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에 빠져 더욱 힘든 시간들을 보냈을지도 모른다. 온라인 공부는 내게 더운 여름날에 시원한 얼음 냉수와 같은 위안과

즐거움이 되어 주었다. 힘든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활력소가 되어 주었다. 모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60세가 다 되어 시작한 공부이다 보니 힘에 부친 부분도 있었지만 매 학기마다 개설되는 학과목들은 늘 기대감을 갖게 했다. 특히, 2019년 봄학기에 수강했던 '영성과 지도력'은 단연 최고의 과목이었다. 첫 수업에서 배웠던 "효과적인 지도자는 삶을 전체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라는 명제는 내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고, 그 감동은 모든 과정을 마무리하기까지 나를 단단히 붙들어 주는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지금까지 나는 나의 삶을 전체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하였기에 때론 낙심하고 의기소침하며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었음을 깨달았다.

WMU에 오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곳으로 나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조직신학',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과 같은 신학과목을 비롯하여 채플, '상담심리'에 관한 전공과목들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것 하나 유익하지 않은 과목이 없었다. 특히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은 크리스천 상담자로의 정체성과 사명을 확고하게 해주는 역할을 했고, '결혼과 가정상담'과 '비애와 트라우마 상담'은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개인과 가정을 세우는 일, 즉 가정사역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한 자원들을 제공해 주었다. 또한 상담 사례를 가져와 수퍼비전을 받는 '상담실습 Ⅱ, Ⅲ'을 통해서 상담 실제에 대하여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방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수퍼비전을 해주셨던 송경화 교수님의 열정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WMU의 MACP 과정은 나를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지성과 감성, 그리고 영성을 두루 갖춘 기독교 상담자로 설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었다.

3.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든, 삶의 환경이 어떻든, 조국을 떠나와 이민자로 살아가야 하는 삶은 누구에게나 녹록지 않을 것이다. 내가 살고 있는 뉴욕의 한인사회 역시 만만하지 않은 곳이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참 평안과 은혜를 맛보지 못한 채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가정을 많이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지역교회들은 성도와 가정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해 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다. 그뿐만 아니라 성도들 역시 자신의 힘든 마음은 물론, 가정 내 갈등과 문제를 드러내 해결하려는 의지보다 감추거나 외면해 버리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므로 그들을 돕는 일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에게 주신 사역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남편 목사님과 동역하는 우리 교회(몇 년이 되어도 개척교회로 불리는)의 사모로서의 사역이고, 다른 하나는, 한인사회를 위한 가정사역자로서의 사역이다.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결혼 전부터 사역자로 활동하였고, 결혼해서도 남편과 동역자로 사역을 해왔다. 그러다 보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모의 역할보다는 사역자(목회자)의 역할이 더 많았다. 일대일 양육과 상담을 통하여 그들의 신앙과 삶을 돌보는 일이 나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가정사역자로서 내가 표방하고 있는 사역의 두 기둥은 '교육과 상담'인데, 교육 부분에서는 어린이 사역자로, 고등학교 교사로, 자녀를 양육해 온 부모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녀양육과 부부관계개선에 대한 소그룹 독서 모임, 교육 칼럼 쓰기, 기독교방송의 가정사역 프로그램 진행 등을 하고 있으며,

상담 부분에서는 개인상담을 비롯하여 부부상담, 자녀의 문제행동에 관한 상담, 홈리스 쉘터(뉴욕 나눔의 집)의 상담 서비스 등을 하고 있다.

작년 3월 부터 COVID-19로 인해 대면교육과 상담이 어려워져 줌을 통한 화상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열정을 가지고 시작한 사역이지만 1인 다역을 해야 하는 초기 단계이므로 갖추어 나가야 할 부분들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개인과 가정들이 많다는 것을 알기에 그들에게 좋은 상담자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4.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열다섯 살 어린 나를 찾아오셨던 주님께 평생 예수 잘 믿으며 살겠다고 다짐은 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헌신과 순종이 내겐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세월 강권적인 은혜로 나를 이끌어 오셨다. 그동안 인도하심을 받고 누리며 살아온 많은 것들이 그러하다. 이런 철부지요 미성숙한 나를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아 주셨고 기다려 주셨다. 그러나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던 나를 '고난이라는 터널'을 통과하게 하심으로써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뜻과 사랑을 깨닫게 하셨다.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 비로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딸이 되고 싶다는 마음의 소원을 갖게 되었다.

WMU에서의 공부를 시작하면서 가장 많은 혜택을 본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다. 오랜 세월 내 안에서 외로이 울고 있던 내면아이를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고, 내면아이와 건강하게 유대하는 법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경험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

들의 필요에 민감하게 되었다. 네비게이토의 창시자였던 도슨 트로트맨의 묘비명처럼 나도 남은 생애 동안 '늘 누군가를 붙들어 주는 삶'을 살기로 했다. 가정사역을 통해 인생의 문제로, 신앙의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개인과 가정을 돕는 일을 지속적으로 감당하는 것이다.

또한 영국의 신학자요 설교자인 조지 화이트필드의 "녹슬어 없어지는 사역자가 아닌, 닳아서 없어지는 사역자가 되고 싶다"는 말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지금까지 배웠던 지식과 사역 경험들을 도구로 삼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할 것이다.

5.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내, 어머니(시어머니, 이모), 사모, 가정사역자(상담자)라는 1인 다역을 하면서 60이 다 되어 가는 나이에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WMU에서 상담심리 공부를 시작하고 싶다고 밝히자 남편이 제일 긴장하는 것 같았다. 아내인 내가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 공부하는 일을 1순위에 둘 것이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늘 잠이 부족한 사람인데 앞으로 더 늦은 시간까지 책과 씨름하며, 노트북 앞에서 열공하느라 무리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늦깎이 학생으로서 매 학기 열심을 다하려고 애쓴 것은 사실이지만 나 혼자의 힘으로는 이 과정을 완주할 수 없었을 것이다. 누구보다도 나를 위해 기도하며 배려해 준 후원자는 바로 남편이었다.

그리고 큰아들과 며느리, 작은아들과 조카, 한국에 계신 두 분 어머님과 동기간들, 노 목사님, 우리 교회의 권사님들을 비롯한 지체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추천서를 써주신 박 목사님, 지인이신 윤 사

모님, 남궁 권사님, 박 집사님, 임 집사님의 기도와 격려, 그리고 재정적 후원이 있었기에 모든 과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 자리를 빌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너무도 잘 알기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린다. "Soli Deo Gloria!"

나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 김기홍 선교사 (MDiv '16) 멕시코

1.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저는 1977년에 전라남도 장흥군 영전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장손인 저를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엄격한 유교 집안이었기에 어렸을 때부터 조상에 대한 예와 도를 철저히 교육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건강한 분이 아니었지만, 정말 부지런한 농부셨습니다. 지금도 논과 밭에서 일하시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아버지가 몸이 약한 편이라 술 담배를 안 하셨는데, 42세에 갑자기 뇌수종이라는 병으로 수술을 하게 되었고,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가족과 저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주었습니다. 제가 그때 13세의 어린 나이였고, 어머니는 겨우 34세에 과부가 된 것입니다.

저는 시골을 떠나 광주로 유학을 오게 되었고, 할머니를 제외하고 모두 광주로 이사오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일 저 일 하시면서 자식들을 위해 매우 고단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철이 없어서였는지 매우 강압적이고 억압적인 사립학교의 분위기에 쉽게 적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장손에 대한 기대감과 가정환경은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담과 반항심을 갖게 했습니다.

평소 운동을 좋아했던 저는 전공을 체육교육으로 정했습니다. 작은아버지가 체육교사였는데, 체육교육과를 가면 진로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다른 학과를 생각해 보라는 권면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은 욕심에 결국 전남대 체육교육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교사가 되겠다는 생각보다 그냥 운동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죽음과 가정의 어려움, 장남에 대한 기대와 부담감 등 나에게 놓여진 환경들 때문에 결코 행복하지 않았던 학창 시절이었습니다. 삶의 의미와 목표도 찾을 수 없었던 10대 후반의 삶은 저에게 큰 공허감과 회의감을 갖게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 입학 때 같은 과 한 선배를 만나게 되면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선배의 초청으로 신입생 환영회를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컴공과 박성모 교수님의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한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강의는 무신론과 진화론이 전부였던 저에게 신의 존재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말 그분의 말씀처럼 신이 존재한다면 그분을 꼭 알고 싶었습니다. 정말 내가 신에 의해 창조된 존재라면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배와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읽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인간의 창조주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기쁨과 감격은 정말 컸습니다. 모든 것을 얻은 것만 같았습니다. 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나도 그 선배처럼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며 살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2.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

그러던 중 대학 2학년 때 선배들과 중국 복권성에 있는 복주 대학으로 비전트립을 가게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언어를 배우고 친구들을 사귀면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또 나처럼 복음을 듣지 못한 채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성령께서 강하게 저를 복음 전도자로 부르고 계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언젠가 반드시 선교사로 나가고 싶다는 강한 열망과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비게이토 창시자인 도슨 트로트맨과 허드슨 테일러, 윌리엄 캐리, 아도니람 저드슨, 언더우드와 같은 선교사들의 전기와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통해 선교는 누구나 하는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 생활(장교)을 마친 2002년 말 캠퍼스 간사로 자원했고, 3년간 학생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생들을 전도하고 양육하는 일을 통해 제자훈련과 일꾼 재생산의 삶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 주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주님의 채우심과 도우심을 몸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교사로 살기를 바라셨던 홀어머니의 기대와 달리 캠퍼스 간사로서의 삶은 가족에 대한 마음의 짐을 느끼게 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저의 삶은 배신감까지 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주신 비전과 사랑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가족에 대한 연민을 느끼기도 했지만 주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보다 크지 않았기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3.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그러던 중 ENM 광주 대표 오안도 선생님을 통해 중남미의 영적 상황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 그러나 영적으로 황무한 땅. 현지의 상황을 들었을 때 막연하게 '하나님이 이곳을 보여주시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어연수를 통해 그곳의 상황과 선교지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해 보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 4월에 멕시코시티에 있는 UNAM(국립자치대학) 대학에 스페인어 연수를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너무나 무지하고 미지한 땅 멕시코로 가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한인 목회자들을 통해 그곳의 필요들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미지의 땅 멕시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인 이사야 46장 11절 말씀을 붙들고 갔습니다.

>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녕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녕 행하리라"(사 46:11, 개역한글).

멕시코에 도착해 멕시코 국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독수리가 뱀을 물고 선인장에 앉아 있는 모습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연상케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이 땅에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릴 독수리로 부르셨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의 영혼들을 마음에 품게 해주셨습니다.

국민의 85퍼센트가 가톨릭인 국가, 5퍼센트 내외의 기독교와 대부분 말씀이 약한 순복음과 은사주의적 교회들이 대부분인 상황에

도 불구하고 10대와 20대 젊은이들이 많은 나라, 하나님은 그 젊은 이들을 제자와 일꾼으로 세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길 바라셨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멕시코시티가 선교의 교두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착 초기 2년 동안 언어를 배우고 직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선교회 정책이 자비량 선교였기에 직장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직장생활 2년 반 만에 개인 사업으로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직원들과 아는 몇몇의 학생들과 성경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캠퍼스에 나가 전도를 하면서 학생들을 접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비량 사업이 문제였습니다. 사업이 성장하고 매출이 증가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고, 월세와 직원 월급, 세금, 생활비를 감당하기도 힘든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첫 사업은 전자상가에서 컴퓨터 액세서리와 메모리를 파는 일이었는데, 너무 마진율이 낮고 월세는 높아서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처음에 MP4와 MP5를 중국에서 수입하여 팔았습니다. 마진율은 높았지만 회전율이 낮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금 순환이 늦어 재수입을 할 수 있는 자금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업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힘들었지만 신학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자훈련과 일꾼 재생산의 비전을 위해서 신학이 필수는 아니었지만 선교사로서 역량을 키우고 시야를 넓히는 계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 WMU에서 MDiv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녁까

지 직장에서 일을 하고 밤 9시가 넘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밤에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해야 했습니다. 주말에는 줄곧 공부와 과제를 해야만 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저에게도 힘든 일이었지만 가족들에게도 쉽지 않았습니다. 주말에 주로 공부에 얽매어 있다 보니 가족들과 시간을 갖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신학을 마치는 데 5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한 학기에 세 과목에서 최대 네 과목을 듣다 보니 5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학을 통해 저의 지경을 넓혀 주셨습니다. 신학을 하면서 지구촌 곳곳에 흩어져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많은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보다 더 어려운 환경과 여건에서 공부하는 선교사님들과 학우들을 통해 도전과 격려를 받게 해주셨습니다. 또 신학을 통해 저의 무지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신학을 하기 전에는 제가 성경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게 너무 많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계속해서 발전하고 배우기에 힘써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사업을 소홀히 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의 생계가 걸려 있는 데다 사업이 계속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부에만 집중할 수 없는 환경이라 쉽지 않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견디기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특히 사업이 어려워지고 자금 압박을 받을 때엔 정체성에 큰 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선교를 위해 멕시코에 왔는데, 사업에 어려움을 겪자 선교에 전혀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신

학과 사업을 하는 5년의 시간은 저에게 약속과 사명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강하게 연단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포자기 상태가 되었습니다. 살려고 발버둥칠수록 깊은 수렁에 빠져 들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도 아내도 영적·정서적으로 소진되어 갔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멕시코 10년의 삶이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과 교만함, 정결치 못한 것들을 정결케 하여 주셨습니다. 또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욱 의지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광야의 삶을 통해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며 피할 바위이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철저한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2013년 안식년을 마치고 멕시코로 재입국했을 때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비량 사업에 혼신을 다하고,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냥 내려놓고 싶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3년 동안 DIY 사업에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집 근처 플라자 다락방에 세를 얻어 다양한 물건들을 만들었습니다. 에코백과 파우치, 드레스, 블라우스, 심지어 이불과 베개 등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San Angel이라는 곳에 가게를 냈습니다. 원래 그 지역은 멕시코 전통 물건을 팔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인사동 같은 곳입니다. 주말이면 각 주와 지역에서 만든 전통 제품들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곳이었습니다. 저희도 그 콘셉트에 맞게

직접 제작하여 만들어 팔면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가져온 원단과 멕시코 현지 한국인 사장님을 통해 싸게 받은 원단들로 제품들을 만들었습니다. 에코백과 파우치를 비롯해 원피스와 블라우스, 카페트 등 다양한 제품들을 제작했습니다. 아내가 디자인과 제작을 했고 저도 제단과 봉제를 도왔습니다. 감사하게 만드는 족족 팔려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달 3만 페소(약 2,500불)나 되는 월세였습니다. 월세를 비롯해 고정비를 감당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장소는 좋았는데, 매출에 비해 고정비가 너무 커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출을 늘리기 위해 한국인들이 중국에서 수입한 제품들도 같이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출이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멕시칸들이 San Angel에서 중국 물건을 판다고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chino'(아시아인을 비하하는 말)라며 비웃곤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캠퍼스에 가서 전도를 하고 영혼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캠퍼스에 가면 사업이 걸리고, 사업장에 있으면 캠퍼스 영혼들이 마음에 걸리곤 했습니다. 이런 심적 갈등 속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많이 고민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또 10년의 자비량 선교사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2년간 언어를 배우고 3년 이상 직장생활을 하고 거의 5년 남짓 개인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곧바로 WMU 목회학 석사과정을 하였습니다. 직장에서 만난 영혼들과 UNAM(국립자치대학) 대학생들을 만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름 최선을 다한 삶이었지만 가시적인 열매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사업과 선교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보니 한 마리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낙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세워 가기 위해 더 많은 영적 에너지가 필요한데, 많은 부분에서

소진되어 의기소침해 있는 저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쉼과 충전을 위해 한국행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다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멕시코에 대한 약속과 비전,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언어와 문화를 익히기 위해 투자한 시간과 노력들, 사업을 해나가고 영주권을 받기 위해 들인 수고와 그 많은 시간들을 생각할 때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몇 번이고 결정을 번복하다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하며 기도했을 때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영적·정서적으로 고갈된 우리 자신의 필요들을 생각할 때 계속 이곳에서 자비량 사업과 선교를 병행하는 것에 대한 한계와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멕시코 삶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복귀할 것을 결정했고, 본부에 알렸습니다. 본부에서는 다시 한 번 기도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4.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결국 사업과 집을 정리하고 2016년 9월 30일에 한국으로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 하우스에 머물면서 진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해 여름에 목회학 석사를 마쳤기에 목사 안수만을 남긴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여름에 LA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멕시코에 파송되기 전 했던 캠퍼스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2000대 초부터 캠퍼스 상황이 정체되고 사역이 어려워졌습니다. 소속된 ENM 선교회도 기존의 리더십이 바뀌고 중간 그룹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서 일꾼 재생산이 끊

긴 상태였습니다. 기존에 선교회 출신들의 자녀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선교회에서 자라온 학생들이라 소속감이나 제자도가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또 지방대 학생들의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학생들은 여유가 없고 진로에 대한 염려가 컸습니다. 학생들에게 주님을 배우고 헌신할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전에도 취업이 쉽지 않았지만 미래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마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안정적인 공무원에 대거 몰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응시생이 한 회에 50만이 넘으니 그들이 처한 상황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직장이 늦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도 늦어지고, 심지어 비혼주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 두 명 중 한 명은 결혼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한국의 영적인 상태도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영국의 많은 교회들이 무슬림화되고 술집이나 카페로 사용되는 것처럼 한국교회도 점점 어려워지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교회 십자가는 곳곳에서 볼 수 있지만 교인들은 줄고 있고, 한국의 인구구조처럼 초고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많아지고 있고, 청년부가 있는 교회가 드물 정도입니다. 그런데 비관적인 사실은 사람들의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정부와 언론의 역할도 있겠지만 교회와 목사들에 대한 불신이 매우 팽배해 있습니다. 기독인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한국교회들이 양적 성장에 눈이 멀어 교회의 본질과 신앙을 상실한 죄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때론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이 부끄럽고 민망할 정도로 수치스러운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쌓아온 존경과 신뢰가 땅바닥에 내팽개쳐진 지 오

래입니다.

한국의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렇지 않아도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캠퍼스와 청년들 사역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대학 캠퍼스의 복음화율은 이미 미전도종족 수준이 되었습니다. 복음화율이 3%로 복음에 대한 관심이 없고, 다니는 교회도 고등학교 이후에 출석률이 현저하게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학생들을 전도하고 세우는 것보다 기존에 교회 배경을 가진 청년들을 세워 가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고 성장하여 다음 세대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이 가장 급하고 중요한 사명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단의 영향력입니다. 제가 사역하는 전남대 캠퍼스는 전국에서도 신천지의 영향력이 가장 강한 곳 중 하나입니다. 전체 학생 2만 명 중에 10%가 신천지에 가입되어 있을 정도로 전남대는 신천지의 주요 텃밭입니다. 그렇다 보니 학생들의 반기독교적 정서가 더 큽니다. 또 신천지의 치밀하고 집요한 전도전략 때문에 알고도 당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은밀하게 신분을 위장해서 사람들을 접촉하고 교화시키기 때문에 기독교 학생들이 많이 빠져들어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모든 주권과 권세를 가지시고 이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국에 와서 유학생을 섬기는 한 목사님이 유학생 사역을 해보라고 권면하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협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땐 솔직히 제 마음에 유학생에 대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물론 중남미 학생들은 한국에서 만나기 힘들기도 했지만 외

국인 사역은 당분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국 학생들 사역에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유학생 사역을 하시는 ISF의 한 간사님을 통해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를 통해 유학생을 섬기는 단체인데, 몇 년 전에 10여 명으로 시작했는데 벌써 60명으로 늘어서 한국어 강사가 부족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전남대만 현재 1,800여 명의 유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그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일입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뒤통수를 치시는 것 같았습니다. 맨날 선교지로 다시 갈 생각만 했지, 왜 지금껏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을까 하는 자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학생 사역을 하고 계시는 ENM 강창호 목사님과 더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유학생들을 어떻게 섬겨 나갈지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에 축구를 하다 만난 베트남 친구들에게 한국어를 알려주며 관계 형성 중에 있습니다. 또 ISF에서 접촉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려고 자원한 상태입니다.

현재 ENM에서 강창호 목사님(WMU 출신)이 아프리카와 영어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배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2시 반에 영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0년 전부터 이 사역을 해오고 있는데, 수많은 학생들이 이곳을 거쳐 가며 선한 영향력을 받고 전 세계에 흩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귀하고 감사할 일입니다.

또 ENM 김애심 간사님과 권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중국인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매우 활발하게 학생들 중심으로 사역이 이뤄졌고 많은 학생들이 성경공부와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중국 유학생이 줄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금은 온라인 예배와 교제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ENM에 BMA(Bridge Medical Association)라는 의료선교 팀이 있어 매년 두세 번씩 해외와 국내 의료 봉사를 실시합니다. 주로 의대와 치대를 중심으로 학생들을 모집하여 봉사를 하고 있고, 이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접촉되고 복음에 노출되게 됩니다. 워낙 전문적이고 잘 훈련되어 있어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고,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에게 큰 격려와 힘이 되고 있습니다.

5.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저와 아내, 자녀들은 한국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저는 초기에 한국 생활에 적응하느라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쌓아 온 멕시코의 커리어가 전혀 쓸모없게 된 것 같아 낙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힘들게 익힌 언어와 문화, 자비량 사업과 영주권 등 그동안 힘겹게 쌓아온 것들이 물거품이 된 것 같아 상실감이 컸습니다. 이제 만 4년 6개월이 지나면서 한국에 적응이 되었고, 주어진 일과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 드립니다.

큰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 때 한국으로 왔는데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무서울 것이 없는 중2라 좀 까칠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빠르게 한국어를 배우고 학교 공부에 적응하게 되어 감사가 됩니다. 둘째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 작년에는 코로나로 거의 학교를 가지 못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매일 학교에 가고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

들어온 지 4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마음은 멕시코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저희 가족이 그 영혼들을 섬길 준비가 되었을 때 다시 보내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잠

시 타향이 아닌 타향살이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보니 대한민국이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헬(hell)조선'이라고 하지만 진짜 헬(hell)이 어떤 곳인지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안전하고 복지가 잘되어 있는 살기 좋은 나라가 전 세계에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정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은 희망도 미래도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작은 조선에 들어와 복음의 씨앗을 심었고, 그 씨앗이 자라 나무가 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습니다. 사람들은 그 꽃을 보고 열매를 먹으면서도 불평하고 세상을 한탄합니다. 얼마나 배은망덕한 모습입니까?

한국에 다시 복귀해 살다 보니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크신 은혜를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또 믿음의 선배들의 수고와 헌신, 땀과 눈물의 기도에 더 깊이 감사하게 됩니다. 저도 그분들의 헌신과 섬김의 삶을 본받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먼저 걸어간 그 발자취를 따르고 싶습니다.

김기홍 선교사의 사역 사진

2009년 멕시코 테오티우아칸(Teotiuacan) 피라미드에서

선인장 위에서 뱀을 물고 있는 독수리 형상의 멕시코 국기

2019년 "복음한국" 포항 한동대에서

2010년 멕시코 현지인들과 교제

2019년 전남대 크리스천 찬양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 김영철 선교사 (MDiv '21) 모잠비크

복음 없이 영원한 죽음이 확정된 나에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어릴 적부터 가정 안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소망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신앙을 주셨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라는 시편 119편 71절 말씀처럼 당시에는 '왜 나는 이러한 환경에서 살아야 하는가?' 생각하며 원망하며 고통 받으며 살아왔는데, 세월이 지나고 지금에 와서 과거를 돌이켜보니, 어릴 적부터 받았던 고난으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되었고, 그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어, 믿음이 견고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결국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대열에 나를 동참하게 만들어 주셨다.

1.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기

1) 외로운 유년, 청소년기

외동아들로 자라 온 나의 어린 시절은 늘 외로웠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모두 일을 나가셨기 때문에, 당시 초등학교 시절을 떠올리면 늘 심심하고 외로웠던 것 같다. 또 아버지

는 엄격하셨기 때문에, 나의 잘못된 행동에 물리적으로 많이 혼났던 기억이 남아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교회에 다니기는 하셨지만, 아버지는 어머니를 향한 의처증이 있었기 때문에 늘 욕설과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셨고, 나 역시도 아버지의 폭력에 군대 입대하기 전까지 자유롭지 못한 유년, 청소년 시기를 보냈다.

아버지와 반대로 어머니는 교회에 가셔서 예배하시고 기도하시는 분이었다. 어머니가 교회 가시는 것 때문에 아버지의 폭력적인 모습이 더욱 심해지셨고, 심지어 칼 등으로 위협하는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나는 어머니에게 따듯한 사랑을 받은 기억은 많이 있지만, 아버지에게 사랑받은 기억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시절을 보냈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받지 못한 사랑과 인정을 외부에서 찾기 시작했다. 운동을 좋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육상과 축구를 배우기 시작했다. 등교시간 전부터 하교시간 이후까지 운동을 했다. 중학교 때는 사춘기 시절 방황하는 시기를 보내기도 했다.

2) 기독교의 실제를 경험하다.

고등학교 1학년 여름에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게 되었는데, 수련회 장소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문득 이런 질문으로 자문했다. '나는 그동안 왜 모든 수련회에서 마지막 날 저녁 집회 전까지 놀기 바쁜 모습으로 지내고, 마지막 날 저녁 집회에서만 은혜 받으려고 했을까? 이번에는 수련회 마지막 날만 마음을 열기보다, 첫날부터 은혜받기로 마음을 정해 보자'라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나는 1998년 8월 13일에 저녁집회에 큰 은혜와 복음의 실제와 천국의 환상과 방언을 경험하며, 자연스럽게 '기독교가 장난이 아니구나, 정말 진짜구나, 나의 일생 전체를 하나님 위해 살아야 하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고, 복음의 실제 됨을 경험함과 동시에 이러한 고

백을 하게 되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한 삶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된 나는 이 은혜를 늘 유지하기 위해,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을까?' 자문하며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서 일생을 고민하는 시간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3) 믿음과 육체를 훈련하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삶의 비전을 찾아가는 시기가 시작될 때도, 아버지의 어머니를 향한 의처증과 가족을 향한 폭력이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한 문제 속에서 더욱 기도하게 되었고, 아버지의 삶과 신앙생활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었다. 아버지의 공격이 잦아질수록 그 파장은 더욱 심했고, 여러 차례 어머니와 집을 나와서 떠돌이 인생을 살았다. 어머니와 나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매순간 결단하며, 아버지를 용서하기로 결정하고 다시 집에 들어가곤 했지만, 그러한 상황들이 반복되다 보니 용서는 하되 감당을 할 수 없는 것을 결론으로 여기며 살아왔다.

나는 고등학교 디자인과를 다니며 전국 대회에 참여하여 수시로 네 곳의 대학교에 합격하게 되었다. 이 기쁜 소식을 부모님께 말씀드렸지만, 입학금이 없어서 고민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대화를 의도치 않게 듣게 되어서, 스스로 대학의 길을 포기하고 다른 길로 진로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길을 가다가 우연히 특이하게 생긴 군복과 모자를 쓴 군인을 보게 되었고, 그 군인이 특전사임을 알게 되어서, 직업군인인 특전사를 준비하여, 고등학교 졸업 예정증명서를 내고 2001년 4월 20일 자원입대하여 중사로 2005년 7월 27일에 전역하게 된다. 특전사 입대 조건 중 체력 시험에 특급으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지만, 특수부

대 생활은 그리 쉽지만은 않았다. 체력뿐만 아니라, 선배들로부터 오는 갈굼과 구타, 1년 중 6개월 이상은 외부에서 훈련하는 야외 훈련들(낙하산훈련, 해상훈련, 혹한기훈련, 고등산악훈련, 천리행군, 대통령 및 국빈, 주요인사 경호작전, 대테러 훈련 등)로 4년 넘는 시간 동안을 받았다. 특전사 생활 속에서도 죽음의 고비들을 넘나들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깊어지는 시기가 되었다. 나는 '예수쟁이'라는 별명으로 군 생활을 마무리하였다.

4) 사회 적응기

군대 전역 후 1년도 되지 않아서, 아버지의 폭력이 심해지자 어머니는 임시로 도피하여 생활하시게 되었다. 다른 때와 다르게 폭력성이 심했기에, 건장한 청년이 된 나는 아버지와 물리적인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임시로 도피한 어머니는 남의 집에서 살기 시작하며 기도원에서 일하며 생활하기도 하셨다.

나는 아버지와 단둘이 사는 것이 극도로 스트레스가 되어서 집을 나와 13계단으로 창문을 열어도 지상을 볼 수 없는 지하방을 얻어서 그곳에서 9년의 시간을 살았다. 그 사이에 아버지는 어머니를 찾으러 다니시는 것이 일과였고, 나는 어머니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지만 아버지에게는 비밀로 하였다. 시간이 지나며 아버지가 법정에 이혼신청을 하게 되어서, 자동으로 이혼이 되었다. 사회에 적응도 되지 않았던 시기에 나는 혼자가 되었고, 어려움 속에서 일어나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나고 실패하기를 여러 번 반복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갔다.

운동을 좋아했기 때문에 군 경력을 가지고 경호원 일을 하고, 퍼스널 트레이너 지도자 교육을 받고 휘트니스 업계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2. 하나님께 헌신을 결정한 시기

1) 삼위일체 하나님을 위한 삶을 갈망하다.

당시 퍼스널 트레이너 직종은 매스미디어의 영향으로 인기가 있었고, 그에 따라 수입도 많아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수입이 많아져도 나의 마음에는 만족이 없었다.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하며 사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마음을 깊어지기 시작했고, 동시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욱 알고 싶은 마음이 깊어지기 시작했다.

어느 월급날은 다른 때보다 월급을 많이 받았지만, 퇴근하는 길에 너무 허무한 마음과 동시에 주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교차하면서, 나의 마음이 미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예수전도단 열방대학에서 DTS 과정을 훈련받기 시작했다. 청년 시기에 사역자(선교사)의 삶을 소망하며 훈련을 받기 시작했다. 그 후에도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으로 단기선교를 가게 되었고, 찬양인도자학교, 예배인도자학교, 선교관학교, 복음학교 등 다양한 훈련들을 받고, 고등학교 때 고백했던 하나님을 위한 삶을 실제로 준비하는 청년의 시기를 보내었다.

2) 믿음의 가정을 이루다.

출석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오던 자매와 한 가정을 이루기를 소망했다. 나는 선교사의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청년 때부터 있었다. 이런 나의 마음을 우리 공동체 대부분의 사람들도 알고 있었고, 자매도 알고 있었다. 프러포즈는 간단하면서 직설적이었다. "나는 너와 함께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나는 결혼 후에 바로 선교사로 헌신하고 싶어. 나와 함께 결혼하고 선교사로 헌신하고

싶다면 나와 결혼해 줘.” 이 질문 뒤 2주 후에 자매와 자매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1년 6개월 교제 후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나의 가정 끝 날까지 하나님께 올바르게 쓰임 받기를 소망하며 가정을 시작하였다.

3) 선교사로 부르심에 헌신하다.

결혼 전과 후 시기 때, 선교사 훈련을 받게 되었다. 한국국제기아대책에서 훈련받으며 중간에 결혼식을 올리고, 이어서 계속 훈련을 받고 은혜로 파송까지 받게 되었다. 파송받기 전, 파송 국가를 정하는 시기가 있었다. 기아대책 간사들과 함께 아프리카 대륙 안에서 4개의 국가를 추천받게 되었다. 모잠비크, 탄자니아, 말라위, 잠비아였다. 우선 모잠비크는 포르투갈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마음에서 제일 뒤로 미뤄두고, 나머지 세 나라에 대해서 정보를 얻으며 기도하기 시작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는 ‘왜 모잠비크를 제외하고 기도하니?’라는 마음과 ‘내가 모잠비크 민족도 사랑하는데, 왜 모잠비크를 제외하고 기도하니?’라는 마음을 주셔서 결국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일 뒤로 미뤘던 모잠비크로 파송받기를 결심하고, 2014년 10월 25일에 처음으로 모잠비크에 입국하게 되었다.

3.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선교

1) 모잠비크에서 새로운 지역을 개척하다.

2014년 처음 모잠비크에 갔을 때는 수도지역 마푸토에서 거주하였다. 수도지역에서 선임선교사님들을 통해 여러 가지를 배우며, 언어와 문화를 함께 배우게 되었다. 처음 1년 동안 수도지역에 있으면

서, 수도지역에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니 3년 후에 선교사님들이 없는 지역에서 개척을 하자고 아내에게 말하며 함께 계획을 세웠다. 3년 후 여전히 언어는 부족하지만, 이왕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것,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과감하게 개책을 시도하여 2018년 모잠비크 수도지역에서 1,200km 떨어진 중부지역 '베이라' 도시에 새롭게 개척하여 정착하게 되었다.

2)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무쉥가 마을

정착 후, 어떻게 사역을 시작해야 하는가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지도상에서 가장 소외된 지역 일곱 곳을 선택하여 섬 마을, 바다 마을, 산골짜기 마을 등을 방문하면서, 각 마을의 리더들을 여러 차례 만나고, 마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며 "당신 마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하였다. 일곱 마을 중 여섯 마을은 "우리 마을에는 전기, 우물, 학교, 보건소, 편의 시설 등이 필요합니다"라고 요구하며 답변하였는데, 지금 섬기고 있는 '무쉥가' 마을은 "우리 마을에는 교회가 필요합니다"라고 대답을 하였다.

나중에 알고 보니, 무쉥가 마을은 약 30년 전, 1989년에 옆 나라 짐바브웨 선교사님이 이 마을을 방문하여 1년 정도를 복음을 증거하고 떠나서, 그 후 마을 이장님을 중심으로 약 20여 명이 망고 나무 아래에서 예배드리며,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30년 동안 기도하는 중에 우리 가정을 만나게 된 것이었다. 그로부터 2018년 6월을 시작으로 무쉥가 마을 사람들과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다.

3) 무쉥가 마을에 하나님의 일하심

무쉥가 마을 사람들은 약 157가정에 554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

다. 마을 안에는 전기, 교통, 학교, 우물, 보건소 등의 편의시설이 없다.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마을 인근 5km 떨어진 지역에 위치한 농장에서 일을 해주고 대가로 농작물을 받아서 식량으로, 혹은 시장에 나가 물건을 팔아 수입을 얻고 있다. 마을 안에서도 세 가지 부족어를 사용하고, 이들의 주요 질병들은 말라리아 50%, 콜레라 10%, HIV/AIDS 40%이다. 위생 상태는 마을 전체 인구 중 5%만 화장실이 있는 상태이며, 교육 현황은 약 40%의 사람들은 자신의 국가의 모국어를 읽거나 쓸 수 없는 문맹이다.

처음 망고 나무 아래에서 예배드리던 2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며, 마을에 가정방문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였더니, 지금은 평균 2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으며, 선교사의 권면으로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흙과 돌과 나무로 교회를 세우게 되어서, 지금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다. 주일 예배, 토요 어린이 예배, 성경책 보급, 식량 키트 나눔, 성탄예배, 송구영신예배 등으로 복음의 기쁨을 나누고 있다.

2019년 3월에 사이클론(태풍)으로 인해 살고 있는 베이라 도시 90%가 파괴되었고, 무쉥가 교회 전체가 무너지고, 마을에 60%의 가정이 집을 잃은 힘든 시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교회를 세우고, 마을 사람 전체를 대상으로 세 차례 긴급구호로 식량과 구호물품, 건축재료 등을 나누게 되었다. 어려움 속에서 마을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어서 총 세 명의 교사로 어린이반(6-9세: 52명), 성인 초급반(52명), 성인 중급반(44명) 총 148명을 대상으로 문맹퇴치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

4) 코로나 사태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은혜롭게 진행되던 예배와 문맹퇴치사역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국가는 봉쇄되고 학교수업과 종교모임 중지 명령이 떨어지면서 모든 예배와 문맹퇴치사역이 중단되었다. 심지어 아시아인들을 향한 혐오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서 치안 상황도 악화되고, 신변 안전에 유의하라고 대사관에서 연락을 받기도 하였다.

아내 정예름 선교사와 자녀 다윗이는 심각해진 상황으로 인해 약 2-3개월 동안 외출을 하지 못했고, 간신히 외출을 하는 나는 시내 일정을 보거나 사역지로 갈 때 피부색 때문에 중국인으로 오해받아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욕 듣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화가 나는 일이 있고, 억울하고 민감하게 경계심을 표출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다. 무엇보다 코로나 사태에도 베이라 도시에서는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도심 사람들도 코로나의 심각성에 무지하여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무쉥가 마을 사람들은 더욱 코로나의 심각성을 알지 못했고 예방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무쉥가 마을 사람들(157가정 554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코로나 위생 물품(마스크, 비누, 식품과 담요)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누게 되었다.

또한 예배모임과 문맹퇴치사역을 멈추게 되어 앞으로의 사역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평생을 웅덩이 물만 먹고 살아서 수인성 질병을 달고 살아왔던 무쉥가 사람들에게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는 우물을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

또한 이 감사와 감격에 이어서, 평생을 노상방뇨와 노상대변으로 살아가 각종 질병과 범죄에 노출된 무쉥가 사람들에게 화장실을 세워 주셨다.

4. 월드미션대학교 MDiv 과정

평신도로 선교지에 와보니 앞으로 사역함에 있어서, 교회와 제자들을 세우고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나 자신이 준비되어야 함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인터넷으로 MDiv 과정을 할 수 있는 학교를 찾던 중, 최종 두 개 학교로 좁혀지게 되었는데, 주변 선교사님들 말씀으로 월드미션대학교는 커리큘럼은 좋지만 과제도 많고 할 것도 많아서 졸업하기까지 매우 힘들고, 중간에 그만두신 선교사님들도 많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러한 권면들이 나에게 도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 2018년 가을 학기부터 월드미션대학교 MDiv 과정을 시작하게 되었다. 열정으로 시작한 학업은 1학년 1학기 때 정말 나에게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되어서, 재수강까지 생각하게 되어 교수님께 말씀드렸더니 교수님께서는 따듯하게 권면해 주시고 도움을 주셔서, 포기하려고 했던 그 첫걸음을 포기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첫 학기를 잘 보내었고 지금은 졸업을 앞두고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다.

신학 공부를 하면서 가장 유익이 되었던 점이라면, 다양한 과목과 교수님들의 지도, 함께하는 학우들을 통해 신학의 관점으로 기독교를 바라보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매주 진행되는 토론을 통해 학우들의 다양한 견해들을 인식하고 교감하여 소통하게 된 것을 들 수 있다. 무엇보다도, 신학의 관점으로 기독교와 나의 신앙과 선교지 사역, 이 시대 기독교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넓어짐으로써 졸업 이후에도 언급한 각 영역에 큰 힘이 되는 영적 무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가장 기억에 남은 추억들이 있다면, 선교현장에서 실제적인 사역계획과 전략에 있어서 교수님들과 소통하며 다양함과 뚜렷해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때론 상황적으로 정말 힘이 들었던 시기도 있었지만, 교수님들의 친절한 권면과 응원에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다.

5. 앞으로의 계획

모잠비크는 오랜 역사부터 아픔이 가득한 나라이다. 11세기 아랍인들에게 500년간 노예 착취, 15세기 포르투갈의 점령으로 477년간 식민 지배, 1975년 모잠비크 독립과 동시에 내전이 일어나 12년 동안 100만 명 사망, 170만 명의 난민, 수백만 명의 국내 피난민 발생, 2007년 비와 폭풍으로 인한 홍수로 28만 5천 명의 이재민 발생, 2019년 사이클론으로 인해 185만 명의 이재민 발생, 이슬람 무장단체의 활동으로 지금까지 1,000명 이상이 사망하고 1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했다.

이처럼 오랜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이어오는 식민지와 내전, 재난(자연재해), 가난, 질병(에이즈, 말라리아 등), 외채 부담으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속한다. 이러한 배경에 기반시설이 파괴되었고, 개발은 멈춰 있으며, 원조에 의존도는 높기에 경제 성장이 어렵다. 주변국가 속에서 마약의 주요 교역국, 밀입국 경로로 인식된 모잠비크는 이렇게 다양한 배경으로 인해 극심한 빈부격차를 경험하기에 늘 사회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필자는 모잠비크 선교사로 파송을 받기 전, 모잠비크에서 '복음증거'와 '교회개척'과 '제자훈련'을 중심으로 사역하고자 하였다. 물론 지금도 동일한 선교전략이 있지만, 파송 후 현장을 살펴보고 이곳에서 살아가 보니, 영적인 영역의 중요성만큼 육체적 영역도 무척이나

중요함을 느끼게 되었다. 하루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사람들에게, 당장 성경책(영적 영역)을 나누기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따듯한 빵(육체적 영역) 하나를 나누는 것이 그들에게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더욱 수월하게 열리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셨다. 성경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신다.

모잠비크 사람들이 겪고 있는 빈곤의 삶에 전략적인 선교가 필요하다. '보이는 빈곤(육체적)의 영역'과 '보이지 않는 빈곤(영적)의 영역'을 인식하고, 가난한 자, 포로 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과 공동체로 회복되도록 돕는 목회계획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필자는 모잠비크가 처한 현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가난', '교회개척', '지역개발', '정부관계'의 주제로 접근하여 선교전략을 구체화할 것이다. 첫 번째 '가난'의 영역은 가난하고 소외된 공동체 선정 과정과 방문 후 설문조사, 지역 확정을 중심으로 사역하고, 두 번째 '교회개척'은 공동체 안에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다. 어린이 예배와 주일 예배 세부 전략사항과 가정심방을 통한 목적을 중심으로 사역하고, 세 번째 '지역개발'에서는 교회 중심을 통한 소규모 프로젝트와 주인의식과 자립의지를 확인하고, 총체적 접근을 위한 다양한 지역개발 영역 안에서 사역을 선정하는 과정을 감당할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 '정부연합'에서는 공동체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지역개발을 통해, 주민들을 중심으로 정부와 연합하는 과정과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준비 활동, 정부와 지속적인 관계를 다루는 사역을 감당할 것이다.

위 네 가지 선교 키워드를 선교사 개인의 열정만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이 살아가는 도시에 교회를 개척하는 것을 시작으로 교회가 중심이 되어, 교회 구성원들과 함께 이 비전을 나누고, 각 영역에 기도와 행함으로 사람들을 세워가고, 전문성을 갖추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다. 나아가 가난한 자들을 향한 지역개발과 교회개척의 선교전략은 교회의 중심사역으로 삼기보다 교회의 다양한 비전 중 어느 한 영역의 비전으로 삼고, 다른 영역에서 또 다르게 더욱 다양하고 풍성하게 사역함으로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도시 중심 교회를 세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혼들과 함께 이 사역에 동역하며 생사고락을 함께하여 출발하는 것이다.

6. 소망하는 삶

소망 없던 삶에서, 하나님밖에 진정한 소망이 없음을 알게 하셨고, 그 마음에 걸맞은 가난한 마음과 절박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간절히 알고 싶었다. 나 자신만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덧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변화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끝없이 참으시며, 매일 새롭게 찾아와 주신 이유는 바로 “나의 사랑 영철아,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사랑의 메시지가 있었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선교대열에 동참시키기 위함임을 깨닫게 되었다. 인생을 허송세월로 보내지 않고 복음과 운명을 같이하며, 복음이 복음 되게 살아감으로써 나의 하나님이 또 다른 이들의 하나님이 되길 소망

한다.

인생에는 성공했는데 영적으로 실패한 인생이 될까 두렵고, 명목상으로만 선교사, 대단한 사역과 결과물, 엉성하게 흉내만 내는 불쌍한 삶이 될까 두려움도 있다. 하나님을 실제로 여기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의 잔이 늘 비워져 있음을 알고, 하나님으로 채워가며 살아가길 소망한다.

나의 인생을 마감하는 날까지 살아가면서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더욱 알기 원하는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득한 삶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와 사랑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나의 삶을 더욱 하나님께 드리고, 허락하신 가정 안에서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이다.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사랑으로 충만한 삶과 가정이 되어,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다. 죽음 앞에서 후회되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랑스러운 삶을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내가 소망하는 삶이다.

7. 감사의 삶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이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지금의 나를 인도하신 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감사를 드린다.

또한 핏덩어리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 측량할 수 없는 부모님의 사랑으로 나를 키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무엇보다 소망 없던 가정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삶으로 보여주신 나의 어머니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사랑과 믿음으로 영적으로 키워 주신 존경하는 이종문 원로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나아가 부족한 나를 남편으로 여겨주고 믿어주고 동행하고 있는 아내 정예름 선교사에게 감사함을 표현하고, 무엇보다 학업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작은 것부터 섬세하게 섬겨 주고, 자녀 다윗이와 태중에 있는 행복이(태명)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하고 있는 아내의 사랑에 고마움을 표현한다.

자격 없지만 선교사로 여겨 주시고 파송해 주시고 기도와 재정으로 동역해 주신 모든 교회와 동역자분들께도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월드미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도해 주신 모든 교수님들과 동역해 주신 학우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이 모든 사랑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사랑인데 내가 대신 받았음을 기억하고, 받은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선한 목자가 되어,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고, 잃어버린 양이 돌아오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한다.

마지막으로 온 열방의 왕 되시며 사랑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린다.

김영철 선교사의 사역 사진

코로나 예방교육

가정심방

우물준공식

송구영신예배 후 가족사진

주일설교모습

무쉥가 마을 예배공동체

예상치 못한 주님의 은혜

• 김영해 교수 (MAM '09 입학) 서울

1. 영접과 신앙훈련 – 학창 시절을 지내며

불교를 신봉하던 외가와 무교 친가의 배경에서 자라던 저는 기독교를 가장 배타적인 종교로 생각하여 유독 싫어했었습니다. 중학교 담임선생님의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전도 스타일로 인해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했던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의 전도로 하나님이 살아 계심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양가 두 가문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은 후, 반대하시는 부모님 몰래 예배에 참석하며 얼마나 뜨겁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모릅니다. 마침 가장 친한 두 친구들이 절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기에, 등하굣길과 밤샘 시험공부를 하면서 새신자인 저에게 열심히 신앙에 대해 얘기해 주었고, 그 이야기들은 그 당시 제 영혼에 단비가 되어 주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성경에 대한 목마름과 무지함을 해결하고자, 대학에 입학한 이후에 친구를 따라서 E.S.F.(기독대학인회 서대문지구) 기독교 동아리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도 부모님의 반대가 심하였기에 지역 교회에서는 예배만 간신히 참석하였고, 하교 후 주로 E.S.F.에서 주 3일씩 신앙훈련을 받았습니다. 일대일 목자를 통해 QT 나눔과 일대일 성경공부를 하였고, 소의원이 되어 리더

교육으로 일대일 양을 양육하며 소그룹 성경공부 인도, 캠퍼스 전도와 캠퍼스 기도회를 이끄는 기독청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청년의 때에 교회가 아닌 기독교 동아리에서 기초부터 차근차근 신앙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미국 유학을 꿈꾸던 저는 영어 준비보다는 신앙훈련에 더 많은 시간과 마음을 쏟았고, 대학 시절 동안 너무도 행복하고 감사하게 신앙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 계획했던 대로 보스턴의 뉴 잉글랜드 컨서바토리(New England Conservatory)에서 유학하며, 케임브릿지 한인교회(김태환 목사 담임)에 등록하여 그토록 꿈꿔왔던 아름다운 교회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 성가대, 수요 찬양예배, 금요일 청년성경공부와 금요철야기도회는 긴장된 유학생활에서 진정한 안식과 기쁨, 그리고 넘치는 에너지를 공급받는 안식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때까지도 교회생활로서는 새내기 신도였으나, 예배를 향한 사모함은 더욱 간절했습니다.

보스턴은 눈이 무릎까지도 쌓이는 지역이어서, 겨울에 가끔씩 도로 교통이 마비되곤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도로 교통이 마비된 어느 금요일에 저는 철야기도회에 가고 싶은 나머지 라이드나 택시, 버스 등이 다 끊겼음을 알고도 무작정 교회로 향하였습니다. 1994년 당시에는 집에서 교통정보를 알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사모하는 자에게 차편을 준비해 놓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역시 지하철이 드문드문 운행을 하고 있어서, 지하철을 타고 역에서부터 무릎까지 덮인 눈길을 헤치며 무사히 교회에 당도했습니다. 그때 자가용으로 겨우겨우 당도해 계셨던 교회 장년부의 몇 집사님들은 전 도시가 마비된 상황에 도착한 저를 놀라 맞으시며, 그날의 철야예배는 감사와 감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경험으로 인해 저는 앞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미리 예비하시고 안

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확신하며 평생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1년 후, 수요 찬양예배의 찬양 리더를 맡게 되었습니다. 공부시간이 부족한 유학 시기였지만, 하루를 정해 떨리는 마음으로 혼자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예배를 위한 찬양곡을 선곡하고, 또한 찬양팀 멤버들과 은혜 받을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이 시간들은 찬양대 지휘자가 된 지금까지 이어져서 홀로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찬양곡을 선곡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이때부터 훈련시키셨음을 깨달습니다.

2. 월드미션대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하던 시기

보스턴에서 대학원을 졸업한 뒤 결혼과 두 아들의 양육이 13년간 이어졌고, 2003년에 LA로 이주하였습니다. 이때까지 두 아들을 키우는 것에 집중하며 다시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 날을 소망하며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2009년 큰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13년 만에 중단했던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시작이 월드미션대학교였습니다.

입학해 보니, 체계적인 지휘교육을 받지 못한 저의 수준에 비해, 선배들과 동기들의 실력은 너무도 뛰어났습니다. 저는 이 당시 꼴찌라는 생각에 창피스럽기도 했지만, 윤임상 교수님의 열정적인 가르침과 동문들의 순수한 신앙과 전공을 향한 열성적인 분위기가 너무도 좋았습니다. 아마 그동안 다녔던 학교들 중 가장 즐겁게 공부했던 학교였고, 이런 환경 속에서 공부한다는 것에 주님께 감사하며 정말 행복하였습니다. 윤임상 교수님의 지도하에 매 학기 개최되던 SMF(Student Music Festival)는 매번 큰 도전이 되었고, 연주회가 끝날 때

마다 미비했던 실력이 조금씩 향상되며 자신감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월드미션대학교에서 4학기를 공부한 후 UCLA 박사과정에 지원하게 되었는데, SMF에서 쌓았던 연주 실력으로 인해 미국 전역에서 지원한 10명을 제치고 유일한 입학자로 우수하게 합격하였습니다. 만일 월드미션대학교에서 공부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매 학기 전심을 다해 연주했던 SMF가 없었더라면, 또한 윤 교수님의 열정적인 가르침과 후원이 없었더라면 UCLA의 박사과정 입학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구나 지휘과 교수이자 미국 지휘자 중 거장으로 손꼽히는 도날드 뉴엔(Donald Neuen)의 제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입학하고 보니, 저는 뉴엔 교수님의 마지막 제자가 되었고, 그분을 통해 지휘뿐 아니라 음악에 대한 모든 해석과 체계가 논리적으로 정립되는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아이를 양육하느라 13년 동안 단절의 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월드미션대학교와 UCLA라는 특급열차를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3. 현재의 사역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에 대하여

2015년 여름에 UCLA에서 박사과정을 마친 후 약 6개월간 LA와 오렌지카운티를 중심으로 학교, 합창단과 교회의 지휘자 자리에 지원했었는데 모두 탈락했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이화여자대학교의 강사직에 합격되었고, 동시에 분당우리교회 찬양대의 지휘자로 임명이 되어 2017년부터 강의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LA에서 계속 탈락을 하며 의기소침하기도 했으나, 이는 한국으로 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것입니다.

현재 모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은 대학 시절부터 품었던 꿈속의 저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준비가 되었을 때 이렇게 현실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한 LA에서는 많은 시간을 복음 전도를 하는 개척교회들을 섬기었으나, 한국에서는 그러한 배경을 발판으로 분당우리교회의 찬양대에서 평신도 찬양인들을 인도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대형교회에서의 찬양은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풍요한 환경이 되어 있기에, 현재 분당우리교회 찬양대 지휘자로서의 찬양은 항상 주님의 뜻과 마음을 넘어서거나 빗나가지 않도록 스스로 겸비해야 함을 느낍니다. 반면에, 20-30명의 개척교회에서 1인 3역을 하며 예배와 전도를 했던 저의 찬양은 외관으로는 소박하지만, 하나님의 동행과 동역하심을 더 많이 간절히 구하였던 시기였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한, 그리고 주님의 소원을 향한 동일한 마음과 맡기신 자녀들을 섬기는 자세로 항구여일하길 기도하며 임하고 있습니다.

4. 마지막으로 저의 비전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굳건한 믿음으로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할 하나님의 찬양의 특전사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월드미션대학교에서 행복했던 4학기를 지내는 동안 주변을 돌아보며 이런 기도제목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람이 전쟁 포로로 잡혀 있던 조카 롯을 구할 때 싸웠던 아브람의 장막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의 군사들과 그들이 함께 거했을 장막공동체를 마음에 담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찬양의 특전사들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대적하는 문화에 대항하여 음악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풍족한 경제력이나 지위나 후견인도 없지만, 제 마음

속에 각인된 이 소원이 기도제목으로 있어서, 지금 저와 함께하는 음악인들 한 분 한 분과 복음적인 관계를 맺으며, 환경이 허락되는 대로 찬양의 군사로 함께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거대한 산, 골리앗 같은 세상문화와 싸우는 것인지, 제게 구체적인 청사진이 그려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목동 소년 다윗이 물매와 작은 다섯 돌멩이로 골리앗을 무너뜨렸듯이 하나님은 물매와 다섯 돌멩이 같은 찬양인들이 아브람의 318명 군사로 서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동안 개인적으로 가정의 아픔을 겪었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시작되었음을 알았지만, 고통이 계속되고 있었을 때는 아브람의 장막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기도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고통을 견뎌내도록 자리를 옮기게 해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은 후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사역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람의 장막을 만들어 가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강의와 교회 찬양대를 이끌고 있던 2017년부터 작은 합창단인 빠씨오네-보체(Passione-Voce)를 지휘하게 되면서, 연주회장에서의 연주보다는 동영상으로 연주를 촬영해서 유튜브 등에 올리는 작업에 주력해 보자고 단원들을 독려하며 이끌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듬어지지 않은 음악 실력과 함께 얼굴 표정을 동반하는 표현력이 어설퍼서, 음악 연습과 함께 연기력을 향상시키는 연습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움츠려야 했던 COVID-19의 시기에 저희 팀은 오히려 그동안 준비해 오던 온라인 연습과 동영상 작업들을 계속 진행하며 유튜브에 하나씩 작은 열매들을 쌓고 있습니다.

2020년 가을에는 하나님께서 선교한국단체의 한 간사님을 통해

고형원 선교사님의 '하나의 코리아' 합창 프로젝트에 주역으로 쓰이게 하셨습니다. 대학 때부터 만나고 싶었던 "부흥"의 작곡가이신 고형원 선교사님을 알게 된 것도 신기한데, 그분이 20년간 기도하며 준비해 오신 곡들을 지휘자와 기획자로서 합창버전으로 편곡, 녹음, 촬영을 한 것은 저와 단체에게 최근 들어 가장 큰 은혜였습니다. 이 작업은 아직 출시되지 않았지만, 이제 곧 유튜브와 북한의 장마당에 출시되면 머지않은 미래에 남과 북이 함께 세계 복음화의 깃발을 들고 전진하리라 믿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조직력이 생기면서, 서로 북돋아 주며 단결하는 팀워크가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작은 몸부림일 뿐 큰 주목을 받을 만큼 대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미약한 자들을 일으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평생 동안 찬양할 것입니다. 저는 '아브람의 318명의 군사와 장막'에 대해, 저와 함께하는 찬양인들에게 진심을 다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자, 빛을 발하자, 주님이 끝 날까지 함께하신다.
우리는 택함 받은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다."

대학 시절 E.S.F. 선교단체에서 기도하며 막연하게 소원했던 '선교한국, 세계복음화'를 이렇게 이뤄갈 수 있으니 참으로 행복합니다. 함께하는 찬양의 동역자들, 그리고 그 후대들이 '세계복음화, World Mission for the Christ, JESUS'를 인생의 최종적인 열매로 주님께 드리길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김영해 교수의 사역 사진

고형원 선교사님과

분당우리교회 지휘

분당우리교회 2부 찬양대

빠씨오네-보체 WMU 연주 디즈니홀

빠씨오네-보체 디즈니홀

하나의 코리아 녹화현장

하나의 코리아 프로젝트

사명을 찾아서

• 김주표 선교사 (MDiv '16) 뉴질랜드

한국에서의 군생활(학사장교 대위로 제대)과 직장생활의 모든 경험들을 뒤로한 채, 1996년 4월 20일 뉴질랜드 땅을 처음으로 밟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30대 초반의 나이에 어린 두 아이를 데리고 빈손이나 다름없는 상태로 이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믿지 않았던 우리 가정은 연고가 전혀 없는 이곳에서 교회 성도들의 도움으로 잘 정착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교회로 인도되었습니다. 교회 뜰만 밟고 다니다가 드디어 2001년 9·11테러가 일어나던 무렵 새벽기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건축 관련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는데 일해 준 개발업자가 부도를 내는 바람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에 새벽기도를 시작하게 된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 일어난 삶의 변화는 내가 알고, 교회가 알고, 모든 이웃들이 알게 되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이든 주어지는 대로 순종하며 봉사했고, 교회의 허락하에 하루 감사 300번을 실천하자는 감사모임을 조직하기도 하고, 중보기도 모임을 만들어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에 대한 마음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비즈니스도 회복되기 시작했고, 경제적으로 눈에 띄게 풍족한 생활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성경을 읽고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신앙의 의문이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섬기던 교회가 내면의 영적인 성장을 추구하기보다는 외적인 풍요와 번영만을 지나치게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의문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어졌고, 신학을 하기 위해 집을 팔고 재산을 정리해서 2012년 12월 미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40대 후반의 나이에 부르심에 순종한 저의 관심사는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패서디나에 있는 풀러 선교대학원에 입학해서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사실은 이 시기가 신앙에 대한 의문을 푸는 시기였습니다. 다양한 교단의 사역자들과 다양한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교제하면서 다양한 신앙의 모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의문들이 하나둘씩 풀려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도서관과 기숙사를 오가며 2년을 보내는 동안 세상 속의 선교적 교회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게 되었고, 마음 가운데 교회 개척에 대한 열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선교학 석사과정(M.A.)을 졸업하면서 당시 풀러 한국학부원장 목사님의 추천으로 월드미션대학교 목회학 석사과정(MDiv)에 편입하게 되었고, 처음으로 LA 코리아타운 지역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아내도 합류했습니다. 근처 교회에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LA의 숨겨진 모습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어딜 가나 보이는 홈리스들이었습니다. 저와 아내가 LA 다운타운에 나갔다가 넘쳐나는 홈리스들을 보고는 충격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월드미션대학교에서의 학업은 이론과 현장이 함께하는 환경 속에서 사명을 찾아가는 시기였습니다. 풀러 신학교에서의 선교적 영성과 흐름을 같이하는 월드미션대학교에서의 학업은

후에 뉴질랜드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데 실제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부총장이셨던 임성진 총장님으로부터 설교학을 공부했는데, 그때의 가르침이 목회현장에서 지금까지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2016년 6월 졸업과 동시에 LA동양선교교회 세계복음선교연합회(WEMA)에서 선교사 카테고리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로 돌아와 이듬해 2017년 1월 드디어 감사선교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가정 먼저 시작한 사역은 중보기도사역이었습니다. 뜻을 함께하는 분들과 수요중보기도회, 금요중보기도회가 차례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으로 통성기도를 드리다 보니까, 사용하던 장소에서 쫓겨나는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역은 홈리스 사역입니다. 2018년 부활절 무렵이었습니다. 신실한 어떤 집사님과 교제를 나누다가 개인적으로 홈리스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홈리스 사역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이유는 미국에서의 경험 때문입니다. LA에서 교회를 오가는 길거리에서, 또 전철 속에서 수많은 홈리스들을 보았습니다. '도대체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미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마음속에 질문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이 마음 가운데 큰 부담감으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마음을 주신 성령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집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집사님, 그 사역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집사님이 대답했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

다.” 그냥 그렇게 동참하게 된 홈리스 사역이 8개월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부터는 감사선교교회의 사역으로 매주일 12시 30분 시티 도서관 앞에서 주일 2부 거리예배로 청년들과 함께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홈리스 사역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사람들을 통해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아내와 함께 개인적으로 홈리스 사역에 참여하고 있던 지난 8개월 동안 아무런 관심이 없던 성도들이 이 사역에 놀랍도록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또한 아내가 일하는 가게에서 사역에 사용할 플라스틱 컵을 구입하는데 가게 주인이 그 컵의 용도를 알고는 선뜻 도네이션해 주셨습니다. 그는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목사님으로부터 뜻밖의 카톡이 왔습니다. 성탄절 예배 때 드린 헌금을 우리 교회 홈리스 사역에 헌금하기로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결정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교회 역시 재정적으로 완전히 자립한 교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전부터 새벽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하고 있었는데 홈리스 사역을 위해 꼭 새벽기도를 드려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제하던 영어권 교회에 새벽예배 장소를 부탁했더니 새해 첫 운영회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장소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함께 봉사할 도움의 손길들을 한국으로부터 보내주셨습니다. 워킹홀리데이로 1년 동안 방문하게 된 두 청년이 봉사에 합류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불교 집안의 청년입니다. 전도대상자까지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사역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합니다. 부족한 영어로 설교할 때마다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온몸에

전율이 와서 때때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과 온 오클랜드 시내로 흘러가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어느 날 홈리스 거리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뒤늦게 한 홈리스가 찾아왔습니다. 이미 준비한 음식과 커피는 모두 소진되었고, 대접할 것이 없었습니다. 음식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의 얼굴에 실망하는 빛이 역력했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순간에 그분이 제게 말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것, 기도라도 해주세요!” 그리고는 제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음속으로 깜짝 놀라면서 그분께 안수하며 뜨겁게 기도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원하는 커피를 근처 카페에 가서 사다주었습니다. 커피를 들고 그에게 가는 도중에 같은 홈리스인 케빈 형제가 자기가 먹으려고 챙겨 두었던 머핀과 파이를 내밀었습니다. 자기는 괜찮으니 그 홈리스에게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투바쉬 형제는 다른 사람에게 거짓으로 돈을 빌려서까지 마약을 했던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복음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완전히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 형제가 거리예배에 와서 그동안 있었던 자신의 신앙을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호주머니에서 10달러짜리 지폐를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어린아이의 도시락인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남자만 오천 명이 배불리 먹고도 열두 광주리가 남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생각났습니다 (요 6:9-13).

누구든지 복음을 듣는 자마다 열방과 족속과 방언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을 목도합니다. 그것은 오직 성

령께서 하시는 일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고전 1:27).

이같이 미련하고 연약한 교회를 복음의 도구로 세우시고, 이 미련하고 연약한 자가 선포하는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영혼들을 보내시는 성령의 역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홈리스 사역을 하면서 마음에 더 큰 확신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2019년 3월 15일은 뉴질랜드에서 가장 어두운 날이었습니다. 남섬 크라이스트처치에 있는 두 곳의 모스크에서 호주 출신 백인우월주의자 테러범의 총격에 의해 50명이 사망하고, 47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한동안 이 일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왜 이런 테러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가? 왜 평화스러운 나라 뉴질랜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 테러 사건이 있고 난 후 거리예배에서 한 홈리스가 저에게 다가와 테러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말했습니다. "나는 무슬림과 같이 외국에서 온 종교인들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회와 소통하지 않고, 기여하지도 않으며, 자기들끼리만 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제발 그들이 이 땅에서 나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목사님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우리와 소통하고, 나누기 때문입니다."

거칠지만 솔직한 이 말을 듣고, 한인교회의 미래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 신앙, 내 교회, 내 교단만

을 챙기는 어리석고 이기적인 공동체의 울타리를 허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고전 9:16).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라고 주신 복, 나누어야 할 복음을 나누지 않는 사람, 나누지 않는 교회, 나누지 않는 어리석고 이기적인 집단에게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 화를 피하기 위해서는 내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민자로서 테러의 위협에서 우리를 지키는 방법은 열방과 족속과 방언을 초월해서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후손들의 안전한 미래를 준비하는 길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를 위해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유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홈리스 사역을 통한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선교적인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성장해야겠다는 열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2020년 10월에 성경적인 신약교회를 추구하는 가정교회 세미나를 듣게 되었고, 목장모임을 통해 전도하는 교회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2021년 올해를 전도에 집중하는 해로 정했습니다. 전도에 탁월하셨던 예수님처럼 목사인 저부터 탁월한 관계전도자가 되기 위해 쇼핑몰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풍선을 만들어서 전도하시는 목사님을 벤치마킹(?)해서 아이들에게 풍선을 만들어 주면서 부모들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쉽진 않지만 열매가 있습니

다. VIP 두 분을 포함해서 네 분과 전도교재로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적 교회의 큰 그림을 바라보며, 오늘도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로 창립한 지 4주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규모로는 여전히 개척교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가족이 많은 헌신을 해야 했습니다. 부족한 저를 따라준 가족에게 감사합니다. 매주 홈리스들에게 나눠 줄 음식을 만들기 위해 토요일부터 준비하는 아내에게 감사합니다. 또 변호사로 일하는 두 아이들이 교만하지 않고, 홈리스 사역에도 기꺼이 참여해 줘서 감사합니다. 사역에 함께하는 권사님 부부, 주일 아침마다 저희 집으로 와서 아내를 도와 홈리스 음식을 함께 만드는 자매님, 또 사역에 함께하는 VIP 자매 가족에게도 감사합니다.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김주표 선교사의 사역 사진

2019년 도서관 앞에서의 홈리스 사역

2020년 홈리스를 위한 성탄절 콘서트

위로받는 삶에서 위로하는 삶으로

• 남주영 사모 (MAM '16) 로스앤젤레스

저는 2016년 월드미션 교회음악과 석사과정을 졸업한 남주영입니다. 벌써 월드미션을 졸업한 지도 5년이 되어가네요. 월드미션에서 공부를 한 3년 반의 기간을 합한다면 제가 월드미션과 인연을 맺은 지도 벌써 9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세월이겠지만 저의 삶과 사역은 월드미션에서 공부를 시작한 전과 그 이후로 나눌 수 있을 만큼 월드미션대학교에서의 시간은 저에게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 기간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많은 것을 얻은 '축복의 10년'이었기 때문입니다.

22년 전 우리 가족은 이곳 미국으로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처럼 이민으로 온 것이 아니라 남편의 유학길에 동행하였기에 유학생의 아내로 산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가정에서는 남편이 공부할 수 있게 조용히 살아야 했고, 교회에서는 음악전도사이자 지휘자인 남편 때문에 평신도도 아니고 그렇다고 목회자의 사모님도 아닌, 이쪽도 저쪽도 아닌 어중간한 사모로 조용히 지내야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제게 조용히 있기만을 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한국에서 전도사와 반주자로 섬겼던 저는 이곳에서도 교회에서 반주자로 섬길 수 있게 되었고, 교회 집사님들의 도움으로 그분들의 자녀들을 한 명, 두 명 가르치며 피아노 개인 레슨도 시작하게 되었

습니다.

처음에는 소일거리로 시작한 피아노 레슨이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학생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저는 슬슬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대학교에서 역사교육을 졸업한 저는 영어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아노 실력도 형편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맡겨 주시는 학생들이 늘어나자 저는 영어로 음악 공부를 해보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어린 딸아이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동안 집에서 가까운 엘카미노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피아노와 음악을 배웠습니다. 음악과목 한두 과목만 도전해 보자고 시작한 공부는 어느덧 5년의 세월이 흘러 졸업을 하게 되었고, 졸업 후 다음 길을 위해 편입을 알아보다가 월드미션에서 석사과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이 학교를 졸업한 음악하는 친구들도 많았고, 남편이 윤임상 교수님과 같이 종종 연주를 했기 때문에 이 학교를 전부터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피아노 전공의 꿈을 접었던 저는 다른 피아노 전공자들보다 훨씬 늦게 다시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가정을 지키며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며 병행하는 공부는 쉽지 않았지만 그중에서도 피아노 실기는 제일 힘든 과목이었습니다. 소극적이고 소심한 제가 사람들 앞에서 연주를 해야 하는 것은 언제나 부담이었으며 걱정거리였습니다. 그래도 월드미션에서의 공부는 미국 학교에서 영어로 공부할 때의 피로감과 답답함이 없어서 좋았으며, 나이 많은 아시안 아줌마가 느낄 수밖에 없었던 외로움을 잊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월드미션에서의 음악과 학생들은 영어가 더 편한 어린 학생들부터 목사님과 사모님, 성가대 지휘자들과 반주자들, 그리고 성악이나 악기, 그리고 밴드를 하는 학생들로 다양했습니다. 공부는 신학과

음악 이론 같은 일반 과목들은 다 같이 배우고 실기는 각각 흩어져서 배우는 '따로 또 같이'의 수업이었습니다. 각각 다른 상황과 형편과 위치에 있었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한마음으로 모인 사람들이 서로 세워 주고 힘이 되어 주며 공부하는 시간들은 참으로 고맙고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렇게 공부는 쉽게 해나갈 수 있었으며, 기대하지도 않았던 성적 장학금과 외부 장학금은 유학생 가정인 우리들에게 참으로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캘리포니아에는 음악 선생님들의 모임인 MTAC(Music Teacher's Association of California)가 있습니다. 음악 선생님들이 그 모임에 가입하게 되면 멤버인 선생님들의 제자들이 매년 음악 레벨 테스트를 보고 대학교에 갈 때 특별활동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협회입니다. MTAC에서 운영하는 CM이라는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매년 자신에게 맞는 레벨 시험을 통해 음악의 이론과 실기를 점검받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주를 하고 콩쿠르도 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월드미션에서의 공부를 통해 저는 MTAC 교사의 자격을 얻을 수 있었으며,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에게 그 시험의 기회를 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마다 저의 학생들은 CM 시험을 치렀고, 올해에도 열 명이 넘는 아이들이 그 시험을 보았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재능이나 능력에 맞추어서 ABRSM이나 RCM 같은 다른 많은 음악협회에서 하는 시험의 기회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항상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정규 수업을 받는 학교도 아닌 곳에서 특별활동 크레딧을 받기 위해 일주일에 한 시간씩 피아노를 배우는 아이들이 선생님의 말씀에 귀기울일 이유는 딱히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은 자기 스스로 원해서라기보다는 부모님의 은근한 압박과 소원에 의해

마지못해 피아노를 배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더 많이 가르쳐 주고 싶은 제 마음과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아이들의 마음이 부딪혀 속상한 일들도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이들이 킨더 때부터 저를 만나 12학년까지 그 긴 세월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음악을 배우고, 음악을 통해 서로의 삶을 나누는 것은 참으로 귀한 시간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100명이 넘는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한국 학생들과 많은 아시아 학생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랍 학생, 인도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다른 문화에서 온 2세 아이들을 서툰 영어로 피아노를 가르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음악은 세계 공용어이기에 마음이 통한다는 불변의 진리에 입각하여 지금까지도 같은 마음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인내력의 한계를 느끼며 저의 성정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기독교인인 것을 아는 그들에게 될 수 있으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으려고(골 3:23) 노력하고 또 노력했습니다. 어느덧 이곳에서 피아노를 가르친 지도 20년이 지났고, 그 긴 세월 중에 많은 아이들은 벌써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나갔습니다.

가끔씩 우연히 만나는 그들은 이젠 전세가 역전되어 도리어 저에게 위로의 말과 기쁨을 줍니다. 빵집을 들렀다가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옛 학생을 만나 내가 낸 팁이 무색하리만큼 빵을 선물로 받아온다든지, 산책길에서 나를 알아보고 뛰어와서 인사를 하는 말썽꾸러기였던 남학생을 만나는 날은 그 오랜 레슨 시간들이 꼭 대학 입시만을 위한 시간이 아니었음을 느끼게 해줍니다.

작은 달란트를 가지고 작은 선생으로 이렇게 오랜 세월 어린 학생들과 음악과 삶을 나눌 수 있게 된 데에는 월드미션에서 제게 피

아노를 가르쳐 주신 윤에스더 교수님의 도움이 컸습니다. 교수님은 저를 포함한 학생들 개개인에게 필요한 맞춤 레슨을 해주셨고, 저에게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꼭 필요한 좋은 곡들과 테크닉, 그리고 티칭 방법 외에도 학생들을 잘 다룰 수 있는 지혜들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때의 배움이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오랜 세월 동안 아이들과 음악을 통한 교제는 가능할 수 없었을 것이며, 그들을 통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월드미션을 다니는 동안 또 하나의 사역의 길을 열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부터 항상 부부가 같이 한 교회를 섬기며 남편의 사역을 도왔던 애매모호한 사모의 길을 접고, 나만의 사역의 길을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남편의 공부가 끝나면 '금의환향'을 하겠노라고 꿈꿨던 저의 계획과는 달리 우리는 이곳에서 정착을 하게 되었고, 저는 남편이 음악전도사로서 사역지를 옮길 때마다 반주자가 되기도 하였다가 남편이 지휘를 하는 찬양대에 소속되어 찬양대원으로 봉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사역에 맞춰서 따라다니던 중 월드미션을 다니게 되었고, 교회 밖의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많은 작은 교회들이 반주자가 없어서 예배드리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얘기들을 접하면서 저는 어느 교회이든 도움이 필요한 교회를 섬겨야겠다는 소원이 생겼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집에서 5분 거리에 있는 남가주 예수사랑의교회 반주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을 쉬었다 다시 하게 된 반주는 저의 생각과 의지만큼 쉽지가 않았습니다. 오케스트라와 오르간까지 다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다가 피아노 반주 하나만으로 제가 예배를 이끌어 가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

리고 악보 읽기가 편한 제가 다른 아무 악기의 도움도 없이 코드 반주로 복음성가를 연주해야 한다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찬양에 은혜가 없으시다며 저보고 반주를 하면서 크게 찬양까지 하라시며 마이크를 앞에다 대어 주셨습니다. 기쁨으로 시작한 반주자의 길이 전혀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찬양을 좀 더 크게 해달라, 반주를 멜로디를 살리면서 흥겹게 할 수 없느냐 등등 요구가 많아지자 교회에 가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런 저를 위해 윤 교수님은 개인 레슨 시간에 찬송가와 복음성가 반주법까지 가르쳐 주시며 같이 예배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레슨 시간에 복음성가들을 펼쳐놓고 연구하고 연습한 덕분에, 그리고 교수님의 성격대로 막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힘들었던 예배 인도는 서서히 적응할 수 있었으며, 아직도 그 교회에서 7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전 제가 다시 피아노를 시작한 것도, 그리고 반주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잘 알기에 다른 반주자들과는 다르게 교회를 섬기려고 노력했습니다.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원하시는 곳은 언제, 어디나 가서 반주를 했습니다. 몇 년 동안 평일날 드리는 목장예배에서 두 군데의 목장을 섬겼고, 반주자가 필요한 개척교회에 2년간 도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만약 월드미션에서의 음악과정과 신학의 공부가 없었다면 늦은 나이에 반주자로서 홀로서기를 결심한다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학교 수업을 통해 저는 하나님께 받은 적은 달란트로라도 섬길 수 있는 나의 일이 무엇인지 고민할 수 있게 되었고, 남편 뒤에 숨어 있는 내가 아닌, 나 자신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믿음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주일날 가족이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저의 이전

의 믿음관에는 맞지 않았지만 따로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께 각자 쓰임 받는 관계가 도리어 저의 믿음을 성장시켰고, 우리 부부의 관계 또한 적당한 거리두기로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바뀐 삶과 사역을 보고 USC에서 성악으로 대학원과 연주자 과정을 전공한 남편은 제가 졸업을 한 후 월드미션에 입학을 했고, 윤임상 교수님으로부터 지휘를 배워 작년에 박사과정을 마쳤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항상 교회에서 지휘자로 섬기면서 지휘를 더 많이 바르게 배우고, 더 많이 배운 것을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재작년 Encore High School이라는 예술고등학교에 합창선생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드디어 편안한, 성공한 유학생의 길이 열렸나 보다 생각하며 즐거워하며 인생을 즐기고 있을 때 작년 6월 말, 남편은 뇌졸중(stroke)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아픈 사람을 병원 입구에 놓고 돌아올 때 저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남편을 병원에 보내놓고 딸과 저 단둘이서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기다렸던 일주일은 참으로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남편은 수술을 하지 않고 퇴원을 할 수 있었고, 지금도 회복 중입니다.

코로나가 터진 이후 음악인들에게는 평생 살면서 겪어 보지 못한 참으로 힘든 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지휘하던 합창단과 교회, 직장을 다 잃었고, 저도 많은 학생들이 그만두었습니다. 갑자기 생계가 막막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갑자기 창살 없는 감옥살이를 하게 된 남편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코로나로 남들도 다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저희 가정만의 큰일인 것처럼 떠벌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갑자기 닥쳐온 그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기도조차 할 힘

이 없을 때 윤임상 교수님은 소식을 듣자마자 한의사 친구분까지 모시고 저희 집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코로나 기간이라 목사님들도 심방을 꺼리시는데 멀리서 한걸음에 오셔서 치료를 해주시고, 예배도 드려 주신 것입니다. 윤에스더 교수님도 손수 준비해 오신 점심을 같이 나누면서 저를 위로해 주시고, 위로금까지 챙겨 주셨습니다. 그때 같이 웃으면서 울면서 나눈 대화가 얼마나 제게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또한 월드미션에서 만난 친구들, 은정 사모님과 쥴리 언니, 유리 자매, 그 외에도 많은 친구들의 위로와 격려, 기도의 후원 또한 너무나 큰 사랑이었습니다. 그분들의 고마운 위로 덕분에 저는 빨리 회복할 수 있었고, 그분들의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 이 기회를 통해 떠벌리고 싶지 않은 가정사를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월드미션을 통해 만난 그분들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롬 12:15)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렇듯 제가 경험한 월드미션은 선교지와 각 교회의 전문 사역자를 키우기 위해 학문만 주고받는 곳이 아니라, 있는 그 자리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는 선교의 사역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예외없이 힘든 이때에 세계 선교를 목표로 세워진 월드미션의 식구들이 각자 '자신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주변을 돌보고 위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독교 대학의 사명을 실천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도 월드미션의 졸업생으로서 학교를 통해 배운 학문을 기반으로, 그리고 받은 사랑을 기반으로, 제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르치는 일과 섬기는 일을 더 소중히 여기고 주변을 돌아보며,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살아가야겠다고 소망해 봅니다.

남주영 사모의 사역 사진

개인 레슨 중에 한 컷

대학원 졸업 연주에서 윤에스더 교수님과
4 hands 연주 중

남가주 예수사랑의교회 찬양팀 연습 중

엘카미노 대학에서 CM test를 마치고 나온 제자들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 목창명 선교사 (MDiv ‘08) 가나

반갑습니다.

이렇게 저의 사역을 돌아보고, 저의 부족한 사역 속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학교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프리카 가나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목창명 선교사입니다. 벌써 선교지에 온 지 27년이 되었고, 신학교는 2006년에 입학하여 2008년에 졸업을 하였습니다.

1986년 대학 1학년 때,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며 방황하고 있던 저는 학과 친구가 전해 주었던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믿었고, 교제를 통해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이루는 것이 참된 인생의 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5년간 제자훈련을 받은 후, 예수님께서 맡기신 지상 대사명을 위해 선교사로 헌신하여 2년간의 직업훈련을 받고, 1994년에 전문인 선교사로 가나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선교지에서의 삶은 저 자신의 영적 미성숙으로 인해 오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힘든 적응기를 보냈습니다. 1997년 시편 25편 3절의 말씀으로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않는다는 말씀으로 다시 주님 앞에 서게 되었고, 서대문교도소에서 교도관으로 근무하며 복음을 전하시던 정 장로님이 서진 룸살롱 살인사건을 일으킨 7명의 사형수에게 복음을 전한 “하늘 가는 사형수” 간증을 듣고 제

삶에 깊은 회개와 재헌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비록 사형수였지만, 장로님의 기도와 사랑으로 복음을 통해 온전히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다는 간증을 듣고, 선교사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갖고 선교지에서 살아가지만, 영적 미지근함과 죄에 쓰러져 있는 저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워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간증 속에서 장로님의 복음전도의 비결이 성경 다독이었음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에 성경 읽기에 다시 헌신하여 제 신앙이 바로서게 되었습니다.

선교지인 가나는 기적과 기사를 강조하는 은사 중심의 교회사역이 주를 이룬 가운데, 다양한 자생 교회가 활발히 사역을 하여 외형적인 부흥은 이루고 있었고, 라디오와 TV 방송을 통해 다양한 설교들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과 말씀에 대한 온전하지 못한 가르침들이 일반화되어 실질적인 교회의 영적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찬양과 기도 중심의 예배에 적응되어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 중심의 제자훈련은 아프리카 교회 토양에 맞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있어, 선교사역의 열매를 맺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선교지 상황에 형제자매들을 양육하면서 교회사역의 필요성과 교회와 교리에 대한 성서적인 이해와 확신이 더 구체적으로 필요하였고, 이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선교 12년 차이던 2006년에 신학을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가나 현지에서 직장을 갖고 사역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매 학기 공부를 통해 채워지는 영적 성장의 기쁨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조직신학을 통해

기독교 교리에 대한 분명한 성서적인 이해를 갖게 되었고, 주일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설교학을 통해 배울 수 있었으며, 영적 지도자 이론을 배우면서 앞으로 전개될 30년의 삶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각 과목마다 주어지는 독서를 하면서 각 책의 주제와 내용을 요약하며 저자가 받은 영적 훈련의 흔적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저자가 하나님께 받은 영적 훈련 관점에서 책을 읽으면서, 제자훈련과 교회 사역의 접목 방향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이 갖게 되었습니다.

2008년 드디어 졸업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후, 형제자매들의 격려 속에 사역하던 가나 대학교 농과대학 벤치에 자리를 잡고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생긴 변화는 매 주일 해야 하는 설교였습니다. 원래 제자훈련은 성경공부와 개인 교제를 중심으로 사역이 이루어지지만, 교회사역을 시작하며 설교를 매주 한 편 이상 준비해야 했습니다. 설교 준비에 상당한 시간을 내야 하는데,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역에 접목할 것인가가 과제였습니다. 지난 사역 기간 동안 여기에 대해서 기도하며 사역의 방향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역을 마칠 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를 기도하면서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 5장 1절의 말씀으로, 우선 저 자신이 하나님을 본받는 성숙한 지도자로 성장해야 하고, 그 다음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배가하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우선 저 자신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하고 있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의 말씀을 통해 사역에 사용할 말씀을 직접 제 손으로 적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제가 직접 기록한 영어성경

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묵상하는 신구약의 책을 정하고 성경 각 권의 각 장, 각 단락, 각 절의 핵심 구절과 단어를 찾고 묵상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저 개인의 영적인 필요와 교회의 필요에 맞추어 설교를 준비하여 장별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저 자신이 말씀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히 이해하고, 적용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감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 실질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핵심 구절들을 암송해 가면서 성경 66권 1,189장 전체를 암송하는 목표를 주셔서 20년 장기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전에는 감히 엄두를 낼 수 없었던 일이지만, 선교 24년 차, 제가 나이가 5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을 암송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 3단계를 거쳐 암송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1단계는 말씀의 핵심 구절을 파악하고 말씀을 통해 경험한 간증들을 기록하여 말씀을 즐기는 것이고, 2단계는 각 장의 핵심 구절과 전후 상관 구절들을 암송하는 것이며, 3단계는 모든 구절을 암송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1단계에 5년, 2단계에 5년, 3단계에 10년을 사용하며, 제가 70세가 되면 모든 성경을 암송하여 하나님과 즐겁게 동행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아름다운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1단계 3년차를 보내는 지금은 매주 하는 장별 설교를 통해 각 장의 이해가 깊어지고, 그 속에 살아 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는 것을 통해 성경 각 장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말씀을 나눌 때 경험한 나의 변화와 형제자매들의 삶의 변화를 즐기면서 나의 생애에 기억해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이고, 이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목표인지를 더

욱 확신하게 됩니다.

성도들의 성숙을 돕는 과정은 기초를 놓는 단계, 삶을 세우는 단계, 삶의 축복을 누리는 단계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된 사역지인 가나 대학교에서 만나는 20대인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마태복음 7장 24, 25절의 말씀으로 기초를 세우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업과 개인적 영적 훈련, 사역의 훈련을 통해 전도와 양육을 배우며, 실질적으로 한 사람을 전도하여 영적 성장을 돕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영적 성장의 필요를 발견하고 영적 성숙을 위한 기초를 견고히 세우는 단계입니다.

이들이 30대가 되면 결혼, 직장, 교회 사역의 세 가지 삶의 축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돕고,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성숙도를 발전시켜 가는 단계입니다.

이들이 40대가 되면 삶의 세 가지 영역에서 보이는 영역과 부르심에 따라 사역의 영역을 확정하고 직장과 함께 교회 일반 사역자로 섬길지, 아니면 전임 사역자로 섬길지를 결정하고 성숙한 영적 지도자로 쓰임 받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이후 겪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사역의 방향이 교회의 인원을 많이 채우는 것보다 적은 인원이지만, 이들을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숙의 방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함을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아직은 부족한 사역이지만 창세기 12장 1-3절과 이사야 58장 10-12절의 약속을 주장하며 하나님께서 사역을 발전시켜 나가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늘 저의 옆에서 저의 헌신과 성장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랑하는 아내 신종선 선교사에게 감사하며, 저의 구원부터 선교사로 헌신하

기까지 기도와 말씀으로 인내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변희관 목사님, 장진호 선교사님, 박창식 선교사님께 감사를 드리며, 사역의 동역자로 함께하고 있는 블레스드 목사님 부부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의 글을 읽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믿음의 경주로 달려가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나 대학교 졸업생 형제들과 함께

가나 목창명 선교사 부부
(목창명·신종선)

여름 방학 훈련 캠프

세상 속에 나이팅게일의 작은 등불이 되어

• 박소피아 간호사 (BSN '21) 로스앤젤레스

미국에서 다양한 민족과 인종, 그리고 문화가 마치 멜팅 팟(Melting Pot)처럼 어우러져 살고 있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 10millions이 넘는 시민이 거주하며 지난 10-20년 사이 백인과 더불어 흑인, 라틴, 아시안계 이민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도시입니다("Home to more than 10 million residents, 140 cultures, and as many as 224 languages, Los Angeles County is the Largest and most culturally diverse county in the nation" from County Digest, June 2019 Vol.51 issue 6).

남가주에는 LA 시가 운영하는 4개의 공립 병원과 19개의 보건소가 있는데, 제가 근무하는 Olive View-UCLA Medical Center는 San Fernando Valley & Antelope Valleys 지역의 일차 진료와 입원치료, 그리고 수술 등 특수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과대학과 간호학과 학생에게(UCLA 의과대학 Residency and on-campus School of Nursing Program) 교육과 실습을 제공하고 있는 공립병원입니다. 저는 이 병원의 소아과와 산모, 그리고 미숙아 중환자 병동에서 일하며, 주로 남미 이민자들과 저소득층 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Code Blue 5BS Room 5-1" 지난 겨울에는 하루 종일 병원에 응급상황을 알리는 안내 방송이 부쩍 늘어났고, 환자의 절반이 COVID-19 양성이나 의심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제

가 살고 있는 LA 시 카운티는 작년 뉴욕 시 다음으로 사상 유례없는 5.9million이 테스트를 받았고, 그중에서 1.2million이 COVID-19에 감염되었으며, 약 22,000명이 사망에 이르는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L.A. County Daily COVID-19 Data from County of L.A. Public Health, 03/12/2021 기준 통계 보고). 그래서 우리 모두 가까운 가족이나 친지, 그리고 교회 식구를 잃는 슬픈 경험의 시간들이었습니다.

특히 COVID-19 Pandemic 상황이 1년이 지나가며 병원의 환경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병동에서 일하며 응급 상황을 알리거나 혹은 도움의 요청에 늘 마음을 써야 했습니다. 또한 보호자 방문을 제한하며 달라진 근무환경은 모두가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등 개인 보호장비 착용으로 하루의 일과가 전에 비해 번거롭고, 감염 노출의 위험과 두려움 속에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빈번한 도움의 요청으로 일손이 부족한 낯선 병동에서 일을 도우면서 모두가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특히 제가 주로 일하는 소아과 병동에는 COVID-19가 시작되며 전과 다르게 여러 다양한 환자들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질병과 감염과 수술을 요하는 환자 외에 산모의 COVID-19 감염으로 인해 비감염자인 갓 태어난 신생아를 격리하고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염으로 격리가 필요한 어린 환자에서부터 불안과 우울, 그리고 자살 충동에 시달리는 청소년 환자를 보호시설에 보내기 기까지 간호사들은 부모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정서적·정신적인 위로와 돌봄을 제공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적 제한과 격리가 저에게는 인간이 느끼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절망감, 그리고 소외감 외에 인간의 한계성과 무지함을 깨닫게 하였고, 더욱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날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커뮤니티 속에서 나

누었던 '너와 나'의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느끼는 귀한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간호사로 병원에서 의사들과 간호사들, 그리고 많은 실습 학생들과 일하며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 멀게만 생각했던 공부의 기회가 2019년 저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심리상담이 필요한 교회 집사님의 자녀를 돕는 과정에서 우연히 RN to BSN Program이 World Mission University에 개설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해 가을 학교에 입학하여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대학 입학 이후 긴 세월이 지나 다시 공부에 도전하는 것이 저에게는 많은 용기와 각오가 필요했습니다. 저와 비슷하게 함께한 모든 학우들도 가정에서는 한 남편의 아내로 또한 자녀들의 어머니로, 직장에서는 가까이서 환자들의 고통에 귀기울이고 함께 마음 아파하며 환자들을 섬기는 간호사로 이렇게 1인 2역, 3역을 감당하며 풀타임 학생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저희를 향한 기대와 격려는 우리에게 많은 힘이 되었고 용기를 갖게 하였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신입생 환영회를 위해 제공한 만찬과 교수님들의 따뜻한 격려의 환영의 메시지가 기억에 새롭습니다.

월드미션대학교에 2019년 처음 RN to BSN(Bachelor Science of Nursing) 과정에 입학하여 졸업을 앞둔 2021년까지의 길고 짧은 과정을 뒤돌아볼 때 다시 학생의 신분으로 설레는 마음과 기대, 그리고 각오로 캠퍼스 교실에 모여 새로운 지식을 얻는 깨닫음과 성취감으로 기쁨이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의 현장인 병원의 수술실, 중환자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Home Health, Hospice Care, Hemodialysis clinic, Surgery Clinic, Nursing home 등에서 서로 각자 다양한 경험을 공감하고 위로하는 참으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개인적으로 힘든 순간뿐만 아니라 함께 공부한 18명의 학우들 각자 삶에 어려움이 많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낙상으로 인한 사고로 4개월 가까운 어려운 시기를 병상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때 학교의 배려와 주위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공부를 끝까지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하여 여러 학우들이 교통사고나 건강상의 여러 문제로 응급한 상황을 경험하거나 병원으로부터 직장을 잃게 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COVID-19 Pandemic 기간에는 대면수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 모두 Zoom Meeting을 통해 비대면 수업으로 학업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3학기와 3 여름·겨울방학을 거치며 채플과 전공인 간호학뿐 아니라 다양한 교양과목을 통해 영적인 전인간호사로 나를 부르시고 나의 전 삶을 통해, 영적으로 더욱 성장시키시며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의 각오와 공부를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음으로 환경적인 제한과 개인적인 문제와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 간호학과 학우님 모두 기쁨으로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 가운데 그 백성들에게 40년 광야의 삶을 경험케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심처럼, 우리 모두를 각자의 어려운 형편과 과거에도 없었던 환경 가운데서도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BSN 과정을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광야의 어려움 가운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신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처럼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선한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간호학 지식뿐 아니라 학교에서 배운 많은 성경적 지식과 채플 시간을 통해 새롭게 변화되게 하셨고, 과학적 지식을 겸비한 BSN 간호사로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가정과 커뮤니티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를 통해 상담심리학(M.A. in Counseling Psychology) 과정을 수학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라는 말씀이 저의 마음에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를 비롯한 많은 간호사들이 마음의 상처와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았고, 인간의 깨어지기 쉬운 연약함과 죄악된 모습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병상을 지키며 소임을 다하는 나이팅게일의 후배들과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모든 학우님들 모두가 "사역 현장에서 탁월한 WMU People이 되자!"라는 올해 학교 표어처럼 가정과 커뮤니티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귀한 등불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 박수민 선교사 (MDiv '19) 폴란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엡 2:8).

나는 1969년 경기도 양평의 작은 시골마을에서 3남 1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집 앞쪽으론 남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사방엔 작은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싼 고요하고 작은 촌마을이다. 신라시대 파사왕이 쌓았다는 파사산과 그 성 중턱에 작은 불교암자가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는 곳이다. 마을에 교회는 없었지만 국민학교 시절 여름방학이 되면 서울에서 이름 모를 교회의 대학부에서 마을 회관에서 여름성경학교라는 특별한 학교를 열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을 수 있었다. 뽀얗고 세련된 서울 형들, 누나들이 가르쳐 주는 노래와 율동들이 신기하고 즐거웠다. 친척이나 주변 가족 중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없었지만, 나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낭만적이고 낙천적인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고, 입시에 대한 큰 스트레스 없이 1988년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다.

시골에서는 비교적 공부를 잘해 서울로 대학을 올 수 있었지만, 모두가 대도시 출신인 과 친구들과 비교해서 열등한 자신을 발견하고 깊은 절망과 고뇌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세상에 마음의 문을 닫기 시작했다. 사회 분위기도 내 마음처럼 엉망이었다.

대학은 매일 데모로 최루탄 연기가 사라질 날이 없어 희망이 없어 보이고, 민주화를 외치는 선배들은 그들이 증오하는 군사정권을 꼭 닮아서인지 권위적이면서도 비도덕적이었다. 친구 없는 외톨이가 되고 나서는 대학가 근처의 어둠침침하고 음란한 삼류 심야극장에서 새벽까지 머물며 죄와 어둠 속에 방황했다.

그 첫 서울에서의 여름, 깊은 고독과 절망과 열등감 속에서 88서울올림픽이 지나가는 것도 몰랐다. 이 무렵 죽음이 주는 깊은 허무감의 힘이 주기적으로 공격해 왔다. 그럴 때면 어둔 밤 대학 교정의 숲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과 세상을 저주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만 계속 지속되었더라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 확실하다.

당시 먼저 같은 대학을 간 친형의 권유로 대학생성경읽기선교회(UBF)에서 성경공부를 시작했다. 그러던 중 대학 2학년 시절 요한복음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요한복음 성경은 생명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했다. 특히 요한복음 11장 25-26절 말씀 속에서 부활이며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이후에 로마서 성경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죄 아래 고통하며 형벌에 처한 죄인 된 나와 세상에 눈을 뜨게 되고,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만났다.

이때 나도 모르는 사이 주기적인 삶의 허무와 열등감의 어떤 힘이 사라져 갔다. 허무감이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발견했다. 구원의 은혜와 영생의 은혜에 감격하며 내가 듣고 만난 그리스도의 진리와 은혜를 후배들과 나누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게 되었다. 대학원에 진학할 무렵에 이런 기쁜 청년의 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와 같은 젊은이들, 대학생들의 구원사역을 위해 일생을 헌신하겠다고

주님께 기도했다.

대학원을 마치고 군에서 제대한 후 선교사의 삶을 살고자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이면 어디든 가고자 했고, 구공산권의 나라들에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 1997년 여름 무렵에 《주기철 목사의 생애》 전기를 읽다가 오정모 사모의 신앙에 매료되어 이런 아내를 선교사 가기 전 만나기를 기도하고, 또 담임목사님께도 기도를 부탁했다.

마침 중국 선교사로 2년 반 사역하다가 비자 문제로 한국에 잠시 머물던 한 자매를 소개받았다. 나는 지체할 이유가 없었다. 분명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믿고 같은 해 선교사의 부르심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동유럽 중 인구가 가장 많은 폴란드로 1998년 2월에 파송되어 나왔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나온 것이 아니라 강력한 힘에 떠밀려 나왔다. 어떤 강력한 성경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밀려온 게 맞는 것 같다. 그때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였고, 선교지와 생활의 현실을 계산하고 준비할 시간이나 마음의 여유도 없이, 강력한 힘에 끌려서 생전 처음 유럽행 비행기에 오른 것이다. 그때는 한번 선교지에 가면 다시는 고국에 돌아오지 못할 것만 같았다. 배낭 안에 비상식량을 가득 채우고, 마치 죽으러 가는 전사처럼 성령의 바람에 끌려서 나와서, 정신을 차려 보니 낯선 선교지에 홀로 뚝 떨구어져 있는 나를 발견했다.

동서남북을 모르고 거처할 곳도,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땅에 신혼의 부부가 나올 수는 없었다. 일단 혼자서 정착의 길을 찾고자 나왔는데, 마치 갓난아기로 서울 한복판에 떨어진 느낌이었다. 유럽의 대학들이 가을 무렵에 새 학년이 시작되는 기초

적인 선교지 정보조차 모르고 2월에 선교지에 나왔으니, 어쩌면 바로 본국으로 귀국해야 할지도 모를 일이 되었다. 첫날 저녁 배낭을 메고 아무도 없는 곳 벤치에 앉아 야곱의 벧엘의 기도를 드렸다. 이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말씀을 주셨다.

첫 예배는 유스호스텔에서 드렸는데, 베드로전서 1장이었다. '흩어진 나그네'가 된 자신이지만, 이 정처 없는 나그네가 바로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의 부름을 받았다고 하나님은 내게 말씀으로 앞날에 대한 용기를 심어 주셨다. 새벽을 깨워 여호수아서 말씀을 읽고 기도했다. 약속의 땅에 머물길 원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요단 물이 끊어지고(수 4:7) 전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도록 말씀으로 동행하셨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전진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서 두려움을 제거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없던 길을 열어 주셨다.

지방 우츠 국립대학교에 단기 유학을 온 프랑스 국가 장학생들과 함께 최고의 폴란드어를 공부할 수 있는 새 길을 열어 주시고, 어학을 마친 후엔 수도 바르샤바에서 국제무역을 하는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셔서 장기적으로 대학생 선교사역을 위한 자립의 길을 활짝 열어 주셨다. 하나님은 나의 부끄러움과 위축된 마음을 가리워 주시고, 매일 바르샤바 기차 중앙역에서 샌드위치 점심을 먹으면서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출 19:6; 벧전 2:9)로 삼으셨다는 기분 좋은 부르심과 택정하심에 가슴이 부풀게 하셨다. 집 없는 사람들과 중앙역에서 휴식을 취하며 먹은 샌드위치는 '눈물 젖는 빵'이 아니라 감격스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와 같았다.

폴란드어 ABC를 모르고 동서남북을 모른 채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부르심을 따라서 선교지에 와서 세 명의 자녀를 선물받았다. 언

어가 어눌해도 선교지에 온 이후부터 바로 폴란드어로 예배를 드리고, 폴란드 대학생 청년들을 찾아나섰다. 그리고 이들을 일대일 성경공부에 초대하고 창조신앙과 질서를 그들의 삶에 심는 일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알고, 만민 구원의 하나님의 소망 안에서 나의 자리와 시간에 인내하며 오늘까지 살게 하셨다.

아내는 선교지에서 홀로 세 아이를 낳고 때론 우울증을 겪었다. 곁에 돕는 사람이 전혀 없고 낯선 이방 땅에서 홀로 아이들을 낳고 기르면서도 지속적으로 섬겨야 할 젊은 대학생들이 언제나 드나들었다. 아내가 우울증으로부터 더 악화된 길로 나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특히 둘째 아이가 3달 정도 되었던 2001년 초 알 수 없는 일로 경련을 일으키고 응급차에 실려가야 했다. 병원에서 병명을 찾지 못했다. 한 달 반을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했다. 아내는 병원에서 생활하고, 나는 두 살이 채 되지 않은 첫째 아이를 돌보면서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된 야이로의 믿음에 대해 생각했다. 자격 없는 죄인을 구속하셔서 선교사로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 안에 생명의 주권이 있음을 믿는 믿음을 주셨고, 결국 뇌수막염이라는 병명이 밝혀지고 치료받게 하셨다.

사역 초기부터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느꼈지만, 세월이 흘러 익숙해져도 한 사람의 삶에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장벽은 더 두껍고 높게만 느껴졌다. 한 사람도, 폴란드라는 나라도 가까이할수록 장벽이 더 높게 느껴졌다.

현지 대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몇몇 청년을 변화시켜 영적 지도자들로 세우고자 했지만 번번이 결단의 시기마다 철저한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 가치관과 오랜 문화 속에 갇힌 국가 가톨릭 교회로 가버렸다. 마음 착한 폴란드 대학생들은 성경공부에 은혜를 받

았고 기뻐했다. 그러나 이제 배운 성경에 순종하고 살아야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자신을 헌신해야 할 때가 되면 전통적인 가톨릭 종교 생활로 쉽게 돌아갔다. 그렇지 않다면 철저한 무신론적인 청년들이 있었다. 철저한 무신론적 가치관을 버리지 못해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절교하고 떠나 버린 청년들이라도 인내하고 기다렸다.

그 오랜 구원의 소망과 인내함 중에 즈비섹과 알렉시 형제들이 있다. 이들은 2003년에 만나 지금은 국립물리연구소 연구원 박사, 그리고 대학강사로 일하고 있다. 즈비섹 형제는 창세기의 신앙과 자신이 지닌 진화론적 무신론과 여러 차례 부딪히면서 '나는 다시는 교회에 나오지 않겠으며, 성경을 읽지도 않겠다'는 말을 하고 떠났다.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기도밖에 없었고, 구원의 소망 안에서 인내하는 일밖에 없었다. 그는 후에 몇 차례 들락날락하다가 스스로 돌아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소망과 인내다. 하나님의 만민 구원의 소망 안에서 인내하며 소명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훈이다.

요즘은 K-CULTURE에 대한 관심 때문에 젊은이들이 한인교회를 찾아온다. 그러면 한인 목회자께서 이런 현지 청년들을 소개해 주시고 양육하도록 연결해 준다. 그중에 요한복음, 창세기 일대일 성경공부와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세바스찬 형제가 있다.

그래도 가장 든든한 나의 동역자들은 이곳에서 태어나서 이곳의 교육을 받고 자라서 대학교 3학년과 1학년, 고등학생 2학년이 된 나의 자녀들이다. 이들은 좋은 기도의 동역자들이며, 예배의 인도자들이며, 하나님의 선교의 동역자들이 되었다. 이들이 하나님의 좋은 동역자들이 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나는 부모의 믿음

과 소명 때문에 내가 겪지 못한 어려움을 겪고 성장한 아이들을 사랑하고 이해해 주려 노력했다. 그리고 때론 사역에만 몰두하여 다하지 못한 아버지의 역할을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화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내 나이 20세가 막 끝나가는 젊은 시절, 성령님의 강한 바람과 말씀의 힘에 끌려 구공산권이라는 미지의 나라에 와서 열정과 믿음만 있지 신학적이고 체계적인 목양의 교육을 받지 못해 기도하던 중, 2015년 대서양 건너편의 한 동료 선교사의 느닷없는 LA 월드미션대학교에 대한 정보가 나의 E-MAIL로 들어와 있었다. 모든 선교사들에게 뿌려진 정보지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도의 응답이라는 개인적인 확신 때문에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등록했다.

목양과 자립의 일상 속에서도 지침 없는 엔진처럼 배움의 즐거움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빠져들어갔다. 배움과 선교와 목양의 자신들의 삶 속에서 우러나오는 토론과 교제에 취해서 3년 반의 기간이 너무나 짧게 지나갔다. 마지막 학기는 좀 더 배움을 느끼고 싶어 일정을 느슨하게 조정했다.

성경과목들은 즐거웠고 체계적이었지만 늘 배운 것을 적용하도록 돕는 과제들도 의미가 컸다. 복음적인 신학을 가지신 교수님들은 목양과 선교에 경륜이 있는 은사님들이자 선배님들처럼 가깝게 느껴졌다. 이것은 매일 내가 한 사람을 붙들고 그의 신앙과 가치관을 돕는 목양의 과정과 같았다. 교수님들이 인격적으로 어찌하든지 한 제자들을 돕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온라인 교육이라 일주일 내내가 공부하는 날이었고, 온 세상에 흩어진 교우들의 신앙과 삶의 전선에서 묻어나오는 열띤 토론은 지적 유희가 아니라 목양과 선교의 삶에서 나오는 진국과 같은 은혜

와 도전들이었다. 낮에 일하고, 저녁에 목양과 예배 준비 등으로 수시로 새벽까지 가는 날이 일상이었지만 즐거움과 기쁨이 있었다. 일상의 선교와 목양의 삶에 엔진을 달아 주는 느낌이었다. 한국에서 대학과 대학원을 다녔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월드미션대학교는 마치 영적 사관생도처럼 훈련하는 곳같이 느껴졌고, 감사가 넘쳤다.

많은 동역자들을 동료로 얻었고 선교와 천국까지 함께할 친구, 윤석언 전도사를 만났다. 그는 1991년 8월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전신마비 장애인이 되었지만 24시간 침상에서 나와 동료들의 선교와 삶과 학문의 동반자요 스승이 되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2018년엔 친구의 일상을 담은 책을 함께 만들어서 유명한 출판사의 이름을 달고 세상에 보내는 복음 전도지로 출판까지 하게 되었다. 그렇게 나온 문서선교 책이 《꼼짝할 수 없는 내게 오셔서》다.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2019년 6월 졸업을 하게 되었고, 또 졸업식장에서, 미국과 세계 선교의 역사의 현장인 LA 동양선교교회에서 안수도 받고 선교와 기도의 인연을 맺게 되었다. 윤석언 전도사도 2020년 영광스런 졸업을 하였고, 그가 가진 모든 연약한 몸들을 병원에 기증하고, 아이티 어린이들에게 가진 모든 물질을 드리면서, 그해 가을 9월에 영광스런 주님의 품에 안겼다.

지난 23년간의 선교지에서의 삶과 모든 과정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며,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었다(엡 2:8). 처음도, 과정도, 앞으로의 모든 결론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다. 이 모든 과정과 만남들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이기에 오직 은혜 안에서 유럽과 폴란드의 젊은이들을 사로잡고 있는 무신론적 인본주의 사상과 가치관에 도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무너진 창조신앙과 질서를 그들의 삶 속에 세우는 기도와 일을 쉬지 않고자 기도한다. 소수의 젊은이들을 영적인 지도자들로 세워서 이 나라와 사회에 영

향을 주고 또 다른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세우는 지도자들로 세워갈 것이다. 이 만민구원의 소망 안에서 인내하며 선교사의 삶을 살다가 건강하게 주님 곁으로 가는 게 소원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 현지 지도자에게 목양과 선교의 리더십을 물려주고 좋은 기도의 동역자의 자리에 머물고 싶다.

나의 일생과 선교의 동반자요 동지인 아내와 함께 우리와 같은 '가정을 교회로', 젊은이들 가운데 세워가는 것이 사역의 기도제목이다. 바르샤바 대학교 의대생인 딸과 생명공학을 전공하는 아들, 그리고 피아니스트인 막내아들은 나의 귀한 기도의 동역자들이며, 친구들과 젊은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중보기도하는 현지 선교사들이다.

월드미션대학교에서 만난 세계 선교의 동지들과 은사님들, 동양선교교회, 그리고 지금은 영원한 그리스도의 생명과 부활의 영광 속에 있는 친구 윤석언 전도사와 그 가족들은 이미 나의 가장 든든한 기도와 신앙, 선교의 동역자들이 되었다. 주님을 전혀 모르던 무신론자 집안이었던 우리 모든 가족들은 온전한 사역자들이며 각자의 교회 안에서 헌신자들이 되었다. 3남 1녀와 그 자녀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천국 소망 가운데 사시는 부모님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역과 교회의 헌신자들이며 나의 든든한 선교의 후원자들이다. 이 모든 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부르심과 택정하심 안에서, 그리고 만민 구원의 소망 안에서 인내하는 선교사가 되고자 한다.

박수민 선교사의 사역 사진

2019년 친구 윤석언 전도사와 함께

아래쪽 왼쪽부터, 알렉시(2003), 즈비섹(2003), 안드제이(1999)
뒷줄 오른쪽 토마쉬(1999), 프세멕 부부(2003)와 아내, 사만타 자매

가족사진

2019년 성탄축하 저녁시간, 맨 뒤편 서 있는 사람, 세바스찬 형제

2018년 성탄축하 행사를 마치고

아프리카 청지기

• 박창식 선교사 (MDiv '08) 남아공

1. 선교지로 나오기 전

2000년 1월 1일은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대전의 배재대학교 강당에서 창세기 12장 1-3절 말씀을 선포하며 세계로선교회가 창립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이날 이 말씀으로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당시 국내에서 선교회의 중책을 맡게 되고 안정된 중년의 삶을 살 수 있었지만 이날의 부르심은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날 후로 맡은 사역을 하면서도 약 6년 반을 호주, 베트남까지 방문하며 재정적으로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까 기대했지만 늘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돈 한 푼 없어도 선교지로 나가겠다고 결심을 하고는 전셋집을 내놓았는데, 저희가 전세로 들어올 때는 거의 6개월 이상 비어 있던 은평구 산 밑, 절간 앞집이 바로 나갔습니다. 전세자금은 선교회에서 빌려서 지불했던 터라 반환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부탁이라도 하려고 방문했던 제자교회(당시 중계동 소재, 현재는 구리시 갈매동 육사 앞) 담임목사님께서 후원교회가 되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중계동에 살 때 제 아내가 두 아이를 데리고 2년 반 동안 아직 유치원생이었던 아들과 갓 초등학교에 입학한 딸을 데리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기도회에 참석하였던 교회

였습니다. 목사님이 저희 아이들의 열심에 감동하셔서 자녀들을 특별히 축복하신 적이 있었고, 아내가 새벽기도 오셨던 성도들이 다 나간 줄 알고 주님께 한맺힌 기도를 할 때, 목사님께서 맨 마지막까지 남아 나가시던 것을 본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교단에서 선교훈련을 6개월 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이미 전셋집을 돌려주어 머물 곳이 없다고 말씀드렸을 때, 목사님께서 저희들이 즉시 선교지로 갈 수 있도록 파송 절차와 시간을 조절해 주셨습니다.

2. 선교지가 정해진 과정

선교사로 나갈 마음을 주셨지만 정작 어디로 가야 하는지, 선교지에 대한 인도는 없었습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말씀만 있었습니다. 중미의 과테말라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부산 외대에서 6개월간 스페인어를 공부하기도 했고, 호주에서 네비게이토 스태프를 훈련하는 일을 제안받기도 했지만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03년에 서부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아비장에서 두 명의 현지인 선교사를 파송하는 행사에 참가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공항을 경유해서 가는 일정 가운데 공항에서 체류한 약 8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였고, 그 가운데 2-3명이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 팀이 모였고 저에게 남아공을 위해 기도하도록 제안하셔서, 조금 전 예수님을 영접하고 갓 태어난 그 영혼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양육해 줄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요청했던 것이 그 자리에 함께했던 이들의 마음에 남게 되었습니다.

아비장 아웃리치를 다녀온 후 선교회 대표께서 아직 아프리카 영

어권에 우리 선교사가 없으니 남부 아프리카의 Gate country인 남아공으로 가도록 말씀을 해주셨고, 이는 우리가 기다리던 기도의 응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도 후원 교회나 후원 팀이 없었지만 떠나기로 작정을 하고 전셋집을 내어놓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달 후 아내와 초등학교 6학년 딸 다은이, 4학년 아들 성은이를 데리고 선교지에 대한 사전 탐사도 없이 2005년 7월 1일에 요하네스버그 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3. 선교지에서 행한 신학공부

2003년도에 싱가포르 파실리스 해변 근처에 있는 ACCTI(Asia Cross Cultural Training Institute)에서 5개월여 선교훈련을 받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선교가 뭔지를 알면 쉽게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하지 않을 것이라 여기시고,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뒷바라지하기를 바라신 선교회 대표님의 배려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 선교지로 떠나기 전 월드미션대학교에 입학을 하여 신학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원격으로 하는 공부였기에 선교현장에서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선교회에서 훈련받고 평신도 사역자로 섬겨 오면서 부족했던 영역들이 신학공부를 통해서 채워져 갔습니다. 이론적 근거와 확신이 더해졌고, 다양한 과목에서 얻어지는 지식과 독서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임동선 목사님을 모시며 교제할 수 있어서 배움과 기쁨이 되었으며, 졸업 후에도 계속 이어진 교제의 장들은 선교지에서의 단순한 생활을 풍성하게 해주었습니다.

4. 선교지에 발을 들여놓으며

선교지에 도착했을 때에 주님의 임재와 함께 주어진 그 신비함과 기대감, 그리고 일상의 생활은 저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꿈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요하네스버그에 있는 UBF 선교사의 가정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분들은 중고차를 구입하도록 도와주었고, 우핸들 차량에 맞춰 간단한 도로주행 연습을 하게 한 뒤에 1시간 정도 떨어진 행정수도인 프리토리아로 데려다 주어서 저희 가족의 홀로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담가 주었던 한 통의 김치는 생애 가장 맛있는 김치였으며, 빌려 주었던 두꺼운 이불보따리는 아프리카의 겨울을 상상하지 못했던 우리를 첫 겨울의 매서운 추위로부터 구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경건의 시간을 갖기 위해 작은 2층집 베란다에서 혼자 마주한 동이 트던 모습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선교지의 신비함에 꿈같은 시간을 보내느라 아내와 아이들의 고충을 볼 수 없었음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5. 자녀들의 선교지 적응과 프리토리아 대학교에서의 사역

누구나 타 문화권 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자녀들의 적응과 관련해 안쓰러웠던 아련한 추억들을 간직하고 계실 것입니다. 아이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미 성인들이 되었는데 후일에 MK들을 도울 때 그들을 품을 수 있는 큰 마음의 공간들을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교사로 혹은 개척사역자로 사역현장에 바로 뛰어드는 것이 좋

은가, 아니면 여호수아 정탐 같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현지 언어와 문화를 익히고 적응하는 몇 년을 보내고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의견이 나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역현장에 바로 뛰어들었습니다. 프리토리아로 온 다음 날 가족들을 두고 저는 캠퍼스로 갔습니다. 차도, 핸드폰도, 집 열쇠도 하나뿐이었으므로 안전을 위해 집 문을 잠그고 제가 캠퍼스로 나가 있는 동안 아내와 두 아이들은 가구도 없는 작은 집 안에 갇혀 있어야 했지만 그때는 그 생각을 깊이 하지 못했습니다. 나에게 선교지는 첫날부터 신비와 열정을 주었지만 가족들에게는 낯선 감옥이 되었음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캠퍼스가 문을 여는 날, 신입생들을 중심으로 하루에 약 40여 명을 만났던 기록들이 노트에 남아 있습니다. 부활절이 휴일임에도 예외없이 성경공부를 했었는데 이 형제들이 순종하여 "오늘 왜 왔느냐?"는 경비원의 말을 뒤로하고 텅 빈 캠퍼스에 왔던 것은 특별한 추억입니다. 주님께 대한 첫사랑이 그랬던 것처럼 선교지에서도 뜨거운 첫사랑의 열심으로 열매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대체로 흑인 학생들을 집으로 불러서 함께 식사하며 교제를 하였습니다. 집이 곧 선교관이었습니다. 집을 얻을 때도 가족을 위한 편의가 아닌 선교관의 역할을 먼저 고려했습니다. 가족들의 이해와 희생이 없었다면 선교지에서의 첫사랑이 열매를 맺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현재는 현지인 지도자를 세워 두고 선교지를 옮길 것인가, 아니면 현지에 머물면서 사역자들과 선교사들을 파송할 것인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현지에 머물면서 주요 캠퍼스와 직장에 사역자들을 파송하며, 주변국의 형제자매들과는 원격으로 교제를 해오고 있습니다.

6. Covid-19 중에 행하는 사역

2020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록다운은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캠퍼스 문이 닫히게 하고 우리를 언택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캠퍼스에서 대면하여 복음을 전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사역은 개인 또는 소그룹을 대상으로 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에 충실함으로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도록 이끌어 주고, 나아가 영적 재생산이 일어나도록 개인적으로 돕는 사역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뚜껑을 열어 보니 기대와는 다르게 약한 모습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오히려 팬데믹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실체가 확연히 드러난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주일 예배와 우분투 모임(새신자들을 초대하여 격려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는 모임), 그리고 매일 아침 돌아가며 나누는 경건의 시간 축복은 우리의 관계의 끈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거리에 제약을 받지 않고 온라인으로 하는 교제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이전에 멀어서 아예 교제에 나올 생각을 하지 못했던 형제들이 온라인 예배와 교제에 연결되는 것이 좋은 사례들입니다.

프리토리아 대학에서 교제하다 고향으로 돌아간 레소토(남아공 내의 작은 나라)의 마따이디 자매가 소천하였습니다. 그 남편은 공무원으로 아내 생전에는 교제에 나온 적이 없었지만 아내의 장례 과정에 형제자매들의 위로를 받고 교제에 연결되어 잘 배우고 격려가 되는 형제가 되었습니다.

카스베스 형제는 이전에 생활비를 낼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웠지만 생활훈련관에서 사랑을 많이 받았던 형제인데 다른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하느라 교제에서 멀어져 간 형제입니다. 요하네스버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마이크라는 좋은 형제를 얻어 제자로 세우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경건의 시간을 나누는 일에 충성되게 드려지고 있습니다. 타우(짐바브웨), 빅터 형제는 초창기 형제인데 온라인으로 교제의 끈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탄자니아에서 짜와디, 우펜도 자매, 칼링가 형제, 짐바브웨에서는 타텐다, 빅터가 자라고 있습니다. 모잠비크에는 사미라 자매가 있습니다.

프리토리아는 행정수도이므로 대학을 졸업한 많은 형제자매들이 이곳 정부기관에 취직이 되어 일을 합니다. 현재와 같이 주님을 섬기듯 맡은 일을 해낸다면 보다 높은 위치에서 많은 사람들을 섬길 기회를 주님께서 주시리라 기대가 됩니다. 리더들로서 멤버들을 챙겨 교제하며 재생산하는 사역에 드려지는 형제자매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실로 사람이 남길 수 있는 아름다운 흔적은 사역 가운데 남겨진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정부에서 일을 하는 한 형제는 국가를 대표하여 출장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나라에서 대표로 온 사람들을 만나 일일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심지어 모슬렘권에서 온 자들도 복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영접자들이 생기고, 기초양육도 하였습니다. 교제에 연결이 되는 자들도 있습니다. 훈련이 된 사람이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복음을 전하고 양육을 할 수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팬데믹 상황 속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대면하여 만날 수 없지만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2050년이 되면 세계 인구의 절반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채울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얻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하여 현재 4-14세의 아이들의 양육이 소중한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인 고교사역을 시작해야 한다는 강한 열망을 주셔서 기도하며 그들을 돕기 시작하였습니다.

7. BMW가 알게 해준 나의 사역

남아공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구입한 1994년산 중고 BMW 차량이 있었습니다. 기대감으로 구입한 그 차 수리에 들어간 돈이면 새 차를 사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입니다. 한번은 제대로 수리가 된 것 같아 그 차에 가족을 태우고 케이프타운으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낯설고 외진 산길에서 비가 오는 중에도 열이 나기 시작한 차를 빗물을 받아 부어 가며 가는 중에 라디에이터 뚜껑이 달아나는 통에 얼굴과 팔에 화상을 입기도 하고, 엔진을 식히려 보닛이 살짝 열린 상태로 주행하다 언덕길에서 보닛이 앞유리를 쳐서 깨뜨리고 망가져 닫히지 않더니 전원이 꺼져 깜깜해졌습니다. 강도를 만날까 두려운 중에 나타나 도와주었던 분들이 있어 숙소가 있는 마을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 일 후로 아들은 자동차 여행과 케이프타운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폐차를 권고받았지만 보험회사를 설득하여 수리를 한 이 자동차는 우리와 13-14년을 함께했습니다. 아내와 다툴 일이 별로 없었는데, 이 차에 대해 얘기만 하면 언성이 높아지기 일쑤입니다. 아내는 조심스럽게 차가 수리되어 괜찮을 때 팔자고 하였는데, 저는 매번 이번에는 제대로 차가 고쳐졌으니 더 타보자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수없이 많은 애환을 가졌습니다. 지금 이 차는 공군에서 비행기를 정비하면서 자신의 집에서 이웃의 자동차를 수리하는 아모스에게 맡겨졌는데, 계속 부품을 사달라고 해서 혹시나 이번에는 고쳐지겠지 기대하며 자동차 보험을 끊지 못하고 부품을 사 나른 지가 1년 5개월째입니다.

변화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일념으로 사람들을 돕는 선교단체에 몸담은 42년이라는 세월이 자동차를 포기하지 못하게 합니다. 문

제투성이의 차, BMW와 함께해 온 세월은 아프리카에서의 나의 사역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상처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섬겨가면서 포기할 수 없는 자동차처럼 기대감을 갖고 바라고 기다리며 세월을 보내는 것이 나의 선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이후 선교지의 영혼들조차 사랑하게 되었고, 이 영혼들을 사랑하기에 부족함이 보여도 예뻐 죽겠다는 고백이 저의 마음과 입에서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박창식 선교사의 사역 사진

가족

남아공 ENM key 형제들

초중고 제자 삼기에 나선 믿음의 용사들

민속의 날

우분투 모임 첫 배가

집짓기

하나님의 인도하심

• 신병철 목사 (MDiv '12) 서울

이메일을 보고 나서 부족하고 내세울 것 없는 저의 삶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신학을 시작하게 된 동기

저는 독실하신 어머니의 영향으로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자라면서 의료선교사의 비전을 가지게 되어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료선교의 비전을 점검하고자 군복무 대신에 KOICA(한국국제협력단)에 자원해서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2년 6개월 동안 협력의사로 봉사하고 돌아와서 앞으로의 삶의 계획에 대해서 고민하며 기도하던 중에 2005년에 예수전도단의 훈련(BEDTS)을 소개받았습니다. 훈련 기간 동안 많은 은혜를 받았고, 나의 인생 방향을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게 되었습니다.

예수전도단에서 BEDTS 훈련을 받으면서 내적 치유사역 기간에 많은 젊은이들이 말씀 가운데 치유되는 것을 보면서 기독교 치유사역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기독교 치유사역 단체를 찾던 중에 2006년에 국제생명나무사역(TLMI, Tree of Life Ministries International)을 통해 훈련을 받고 그때부터 기독교 상담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담하는 분들 중에 목사, 선교사분들이 많아서 제가 신학을 공

부해서 목사가 되는 것이 이런 분들을 효과적으로 상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서 주위의 자문을 통해서 WMU(월드미션대학교) MDiv 과정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WMU 과정에서 있었던 일

교수님들의 성의 있고 열정적인 강의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과제를 통해서 나를 점검하는 시간도 많이 가졌습니다. 기독교 상담학에 관심이 많았기에 선택과목은 주로 상담 관련 과목들을 많이 들었고, 기독교 상담학에 대한 식견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과목은 지도력 개발과 설교학 시간이었습니다. 지도력 개발 과목 중 목회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여정을 나의 삶에 적용해서 돌아보는 시간은 큰 은혜와 감동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설교학 과목을 통해서 실제 설교 준비와 설교 실습까지, 자세한 교육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고 실제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배울 수 있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 큰아들에게 정신적인 질병(조현병)이 발생했습니다. 급기야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도 받았고, 그 이후 계속해서 외래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사역을 하고 있는 가운데 아들이 진단을 받고 입원하는 상황을 맞으면서 인간의 연약함을 한번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왜곡되게 인지하는 것을 보면서 나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얼마나 왜곡되게 생각해 오고 있었던가를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같이 다투면서 나의 연약한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큰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차츰 좋아졌고, 현재는 신대원 마지막 학기 중이며, 경기도의 한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를 치유사역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깨닫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큰아들의 경험이 있었기에 상담을 하면서 내담자들의 아픈 마음에 공감할 수 있는 자세가 갖추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WMU 과정을 통해서 원래 생각했던 기독교 상담학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이룬 것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설교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신학 과정 이후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말씀사역을 기뻐하고 기대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WMU 신학 기간의 사역

WMU 신학을 시작하면서부터 중·고등부 때부터 계속해서 섬기는 교회(순복음사직교회)에서 협력전도사로의 사역을 하였습니다. 청년회 사역, 주일 오전 찬양 인도, 금요기도회 기도 인도 등이 저의 교회에서의 주 사역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국제생명나무 사역 활동과 기독교 상담사역, 단기 의료선교사역으로 섬겼습니다.

목사 안수(2013년)

2012년에 WMU MDiv 과정을 마치고 2013년에 한국의 독립교단을 통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안수 이후 교회에서는 협력목사

로 계속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현재는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 독립교단에서 나와서 순복음 교단 목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의료선교

의대를 졸업하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아프리카 카메룬에 다녀온 것을 계기로 그 이후 정기적으로 의료봉사를 매년 다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방문한 지역은 아프리카 카메룬 4회, 가봉 1회, 적도기니 1회, 인도네시아 2회, 필리핀 10회입니다.

의료선교현장을 섬기면서 깨닫는 것은 어디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들을 통해 열방을 섬기게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심을 깊이 경험하였던 기억들은 계속적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남아 있습니다.

의료선교뿐만 아니라 전도사역, 밥퍼 나눔사역, 정비사역 등 여러 사역과 함께 공동사역을 해왔습니다.

WMU 졸업 이후에 달라진 의료선교사역은 단기선교에서 제가 설교하는 사역과 팀원들과의 말씀 나눔, 세미나 등을 주관하는 것이 달라진 사역의 내용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대로 인해 단기의료선교를 나가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하늘길이 다시 열리게 되면 필리핀을 위주로 지속적으로 선교사역을 하려 합니다.

상담사역과 강의사역

제가 섬기고 있는 국제생명나무사역(TLMI, Tree of Life Ministries International)에서 부대표로 현재 섬기고 있으며, 간헐적으로 상담사

역과 강의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의원을 운영하고 있어서 전임사역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점심시간, 저녁시간, 공휴일 등을 이용해서 기독교 상담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국제생명나무사역에 자매 상담을 하는 분들은 많이 있어서 저는 주로 형제 상담이나 부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분들, 선교사님들을 대상으로 많이 상담하는 편입니다.

강의는 이전에 고신대학교 교양학부를 통해서 치유 강의를 한 적이 있고, 순복음부산신학교에서도 기독교 상담 강의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중국 BEDTS, 일본 개교회 수련회, 미국 현지 고등학교(기독교 대안학교), 필리핀 faith academy 등에서도 치유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나눈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는 제가 섬기는 생명나무치유사역에서 하는 생명나무치유학교나 치유 세미나에서 기독교 내적 치유 강의를 간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WMU 목회학석사 과정 이후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설교를 하고 싶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효과적으로 나누고 싶은 생각이 저를 사로잡을 때가 많습니다. 지금은 섬기는 교회에서 협력목사로 한 달에 한 번 설교를 감당하고 있지만 1-2년 뒤에는 현재 섬기는 교회의 담임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시게 되어서 제가 교회 담임으로 섬기게 될 예정입니다.

물론 운영하는 의원을 계속해야 할 상황이라서 많은 한계가 있겠지만 교회가 작고(50명 이내) 목사님께서 은퇴 이후에도 같이 사역할 수 있어서, 공동목회 개념으로 해나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늘 깨닫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WMU를 통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더욱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신학공부 이후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말씀을 설교하며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이 부족한 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족한 자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WMU 총장님과 교수님들, 그리고 모든 동문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사진

2013년 목사 안수식

2013년 필리핀 선교여행

2016년 생명나무사역 간사 컨퍼런스

2014년 모교인 고신의대 부흥사경회에서 치유사역 강의 모습

2015년 미국 Grace prep. High schoo에서의 강의와 치유 소그룹

내 인생의 꽃, 찬양과 노래

• 오위영 목사 (MAM '14) 로스앤젤레스

한평생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인생은 축복된 삶일 것입니다. 누구나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어 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인생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면 그것은 청소년기에 만난 하나님과의 만남과 WMU에서 만난 전문 음악인으로서의 삶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사건은 저의 인생에 행복을 가져다 준 가장 고귀한 가치입니다. 첫 번째 만남이 신앙인으로서의 삶에 중심을 잡아주었다면 찬양과 노래는 꽃을 피우게 하는 도구였습니다. 그 속에서 삶에 대한 동기와 열정이 피어났고, 그 일을 위해 열심히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2007년은 특별한 해였습니다. 2007년 WMU 음대에서 준비한 여름 베르디(Verdi)의 "레퀴엠"(Requiem) 연주에 참여하게 된 것이 저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이야 꿈에도 몰랐습니다. 원래부터 좋아했던 음악이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연습하는 장면을 보면서 다가오는 새로움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레퀴엠" 노래를 해보고 싶다는 충동이 강하게 일어났지만 용기는 없었습니다. 당시 총무로 수고하는 분이 다가와서 제게도 악보를 건넸습니다. 음대 학생도 아닌 저에게 악보를 주는 것을 그분의 실수로만 생각하며 악보 책을

열기가 미안했습니다.

살짝 악보를 열어 보니 그곳에 쓰여 있는 언어가 읽기 어렵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뒷자리에 앉아 테너 파트를 조금씩 따라 해 보았습니다. 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래에 매료되며 저도 모르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외국 노래를 부르게 될 줄이야 꿈에도 상상해 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며칠 후 음대 교수님이었던 윤임상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Robert McNail 교수님을 소개받았습니다. 레슨을 받으면서 음악에 초보자였던 저에게 음악의 세계가 열렸습니다. 노래의 기술과 발성, 아름다운 소리의 기교와 흐름 등, 알면 알수록 다가오는 음악의 즐거움은 큰 것이었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한 WMU에서의 학교생활은 이민사회에서 느낄 수 없는 따뜻한 분위기와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참 좋은 신앙인, 참 좋은 노래하는 사람들, 음악으로 교회를 돕고 사회를 지원하는 전문가들을 만나는 기쁨이 컸습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매우 흥미롭고 즐거운 긴장감을 주는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행복한 학창 시절을 보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지원해 주는 많은 음악회와 찬양의 시간, 예배의 시간들은 무대에 서서 노래하는 많은 기회를 제공해 주었고, "연주회가 연주자를 만든다"는 격언처럼 무대에서 노래할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인도하심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학교에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훌륭한 신학자들이셨지만 또한 음악을 참으로 좋아하시는 음악 마니아들이시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언제나 든든한 후원자였던 것입니다.

학교에서 여러 수업을 들으면서 예배와 찬양, 신학과 음악은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있는 곳에 찬양이 있고,

음악은 교회가 발전해 가는 과정 가운데 항상 옆에서 시대적인 재해석을 해왔고 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앞으로 어떤 목회자로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던 저에게 많은 도전을 주었고, 이민사회에서 찬양과 음악의 중요성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생각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생활 속에서 마치 꿈꾸듯 살아가는 저에게 2010년 인생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기대하지도 준비되지도 않았던 삶을 송두리째 바꿀 만한 사건이 터져 버린 것입니다.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영주권의 문제가 이민국으로부터 거절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절망의 순간을 생각하면 마치 인생에 패배자가 된 듯한 느낌과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걱정이 막막하게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무너져 버린 인생의 현실 앞에서 어떤 탈출구가 있을까? 매일매일 이러한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냈고, 많은 변호사님들과 이민전문가들도 아무런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미 신분은 서류 미비자가 되어 있었고, 변호사님의 제안에 따라 가족들과 어쩔 수 없이 2010년 12월 10일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처음 한국에서 유학생으로 미국에 올 때는 꿈 많은 젊은이로 꿈을 꾸며 들어왔지만 이날 비행기를 타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저에게는 모든 꿈이 무너지고 패배자로 돌아가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던 불가능한 꿈들은 이젠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한국에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아니면 미국에서의 꿈을 접고 한국에 정착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잡을까?'

막상 한국에 돌아가니 이미 몸에 배어 버린 미국에서의 삶이 많이 그립고, 다시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변호사님과 웨이브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서류를 다시 준비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면서 다시 희망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1년 4개월이 지난 후 미국에서 다시 들어와도 된다는 승인을 얻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살 수 있다는 기쁨보다는 이곳에서 찬양과 음악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꿈, 그 꿈을 꿀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훨씬 더 큰 기쁨이었습니다.

미국에 들어오자마자 학교에 다시 복학을 했고, 무사히 음악석사 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바닥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난 것 같은 기쁨이 매일매일의 삶이었습니다.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 수 있었고 만나는 사람, 하는 일들, 주변에서 보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지를 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의 큰 어려움과 시련이 마음의 상태를 바꾸어 놓았고, 세상을 보는 눈을 새롭게 바꿔 놓은 것입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난 후 실제로 접하는 사회 속에서 음악인으로서의 삶은 모든 것이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저의 노래를 들어주는 일들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어떤 단체나 개인들로부터 전화가 와서 노래를 불러 줄 수 있느냐고 물어올 때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음악인으로서의 삶, 찬양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쌓아가면서 조금씩 경험이라는 것이 생기고, 무대는 조금 더 익숙해지는 장소로 바뀌어 갔습니다. 무대에 설 때마다 생기는 엄청난 긴

장감은 조금씩 완화되었고, 여유 있게 노래할 수 있는 환경이 무르익어 갔습니다.

윤임상 교수님과 함께 WMU 재학생들로 구성된 합창단의 후신인 LAKMA를 함께하면서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음악인으로서 지역사회와 어떤 연계성과 영향력을 가져야 하는지를 배워 나갔습니다. 매년 두 차례에 걸친 LAKMA 음악회와 봄과 가을에 있는 학생 연주회를 졸업 후에도 함께하면서 깊이 있는 음악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매년 연주되는 이 일들을 통해서 깊이 있는 음악의 세계의 묘미를 많이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저의 노래는 한인사회와 타이완 커뮤니티, 그리고 주류사회 속에 조금씩 알려져서 이제는 그분들과 함께 음악을 만들고 진행하고 연주하는 단계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항상 기억되는 것은 WMU에서 학창생활이 이러한 일들을 만들어 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부한 지식을 나눌 수 있었고 학창시절에 떨면서 처음 서 보았던 무대를 항상 기억하며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당당하게 노래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살아가고 있는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연속된 위기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인도해 주셨고, 그분의 손에 붙들리게 해주셨습니다. 절망이 심장을 에워싸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먹구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여주셨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삶의 행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앞으로 저의 계획은 팬데믹을 지나면서 일어날 미래의 상황 속에

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찬양과 음악을 통해 희망을 주고 꿈을 주는 일들을 찾아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 계시고 역사하심을 찬양과 노래를 통해 전하고, 사람들의 가슴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심어가는 것입니다. 한인 이민자로서 타 민족과 이웃들에게도 이 일들을 나누며 함께 꿈을 꾸고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늘 마음속에 감사한 일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명과 소명의식으로 학교와 우리 공동체를 말없이 묵묵히 섬기시는 총장님과 교수님들, 그리고 사회에 빛과 소금이 되겠다는 믿음의 신념으로 지금도 세계 곳곳을 누비며 예수의 이름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하시는 졸업생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까지 인도함을 받아 말씀의 종으로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재학생들, 이 모든 일들이 아우러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선교의 꿈이 이루어져 가는 그곳에 미약한 힘이지만 저에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2016년 4월 2일(타이완 커뮤니티에서 “삼손과 들릴라”에서 삼손)

리처드 용재 오닐(비올리스트), 알핀 홍(피아니스트)과 함께 베네핏 콘서트

소프라노 강혜정 교수와 함께

제6회 평화음악회(한국에서)

테너 박인수 교수님과 함께

영 김 연방하원의원님과 함께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 유동근 목사 (MDiv '07) 부산

대한민국 인천, 서해안 소래포구가 제 고향입니다. 2남 7녀 중 일곱 번째로 장남입니다. 위로 누님이 여섯 분, 아래로 여동생, 남동생이 태어났습니다. 대를 이을 아들은 안 나오고 딸만 계속 나오자 어머니께서는 급기야 서원기도를 하십니다.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서원기도 후 태어난 아들이 바로 접니다. 얼마나 고대하던 아들이었던지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안고 업고 다녔답니다. 백일 기념 잔치를 100일이나 하셨답니다.

부친께서는 '한국화약' 이사로 계셨고, 정이 많고 온유하신 분이셨습니다. 출근하시기 전에 펌프질을 하셔서 그릇마다 물을 다 받아놓고 출근하신 아내 사랑꾼이셨습니다. 우리 9남매가 아프다고 응석을 부려도 짜증 한번 내지 않고 아픈 배를 쓰다듬어 주셨고, 많이 아파하면 새벽에라도 우리를 업고 병원에 데려가셨습니다. 겨울이 되면 등교 전에 연탄불 위에 연탄 집게를 옆으로 뉘어 여섯 누님들의 신발을 따뜻하게 해서 학교에 가는 순서대로 갖다 주셨습니다. 우리 집 개가 새끼를 낳아도 미역국을 끓여 주실 정도로 인자하셨습니다.

모친께서는 초등학교 교사생활을 하시다가 아들을 낳았으니 아들 양육을 위해 교직을 그만두셨습니다. 1960년대 한국은 전체적으

로 가난했지만 우리 집은 기사 딸린 자가용을 타고 다닐 정도로 넉넉하고 행복한 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회사 퇴직 이후에는 잘 모르는 장로님의 제의를 받아들여 동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아버지는 위암이라는 병의 고통에 놓이게 되었고, 58세에 소천하시게 됩니다. 그때 모친은 51세셨고 9남매 중 둘만 결혼했고 7명을 공부시켜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이 잘되고 있으니 아내와 많은 자식들이 고생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다 치른 이후에, 어머니께서 동업한 그 장로님을 수소문 끝에 찾아갔을 때는 모든 것이 사기였음을 알게 되셨습니다. 남 부러울 것 없이 살던 우리 집은 졸지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누님들의 학비는 고사하고, 아침마다 버스비가 없어 울고불고 했고, 중학생인 저는 군것질하는 친구들 옆에서 침만 삼키고 있었습니다. 학비를 마련하지 못해 선생님께 야단도 맞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너무 싫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 집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실 수 있느냐며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하나님은 없든지, 죽었든지 둘 중 하나라고 선포하며 잘 다니던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고, 고등학교도 자퇴하면서 방황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정고시를 준비하면서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 술 담배를 배웠고, 이런 모습을 보시는 어머니는 아침 금식, 저녁 철야기도를 하셨습니다. “내가 어때서? 왜 나를 위해 기도하냐구?”라며 어머니께 대들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어머니는 저에게 “교회 가라,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술 담배 끊어라, 집에 일찍 들어와라”와 같은 훈계의 말씀은 한번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려 기도만 하셨습니다.

1982년, 해병대에 지원할 때에 가족들은 사람 버린다며 모두 반대를 했습니다. '이미 다 버렸는데, 더 버릴 데가 어디 있겠냐'라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해병대 생활 중 외출이나 외박, 휴가를 나오면 술을 먹고 깽판을 부리고 타 군들과 싸움을 하는 것이 예사였고, 타 군들의 돈과 담배를 뺏기도 했습니다. 졸병 때는 주일에 교회를 피난처 삼아 갔지만 고참이 되어서는 하나님은 없든지, 죽었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제 밑으로 그 누구도 종교활동을 못하게 금했습니다. 내 밑으로 종교활동하면 그날이 죽음이라고 엄포를 놓고 금지시켰습니다. 악당인 내가 얼마나 무서웠던지 주일마다 종교활동을 열심히 하던 후임들이 아무도 종교활동을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신이 살아 있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죽인다고 할지라도 신이 살려 줄 것을 믿고 종교활동을 계속해야지!" 그들을 보면서 "역시! 신은 죽었어. 없어"라고 다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후임들이 아무도 교회에 가지 못하니 군목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후임들 교회에 보내." "하나님은 없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뭣 하러 교회에 보냅니까? 못 보냅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화가 나면 아주 무서운 분이야"라고 단호히 한 번 더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후임들 교회에 보내라!"

그 이후로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기억나서입니다. 천하의 해병이 죽을까 봐 위험한 훈련들은 열외를 하고 두려워서 밖에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에 전출 온 지 얼마 안 된 상병 한 명이 "유 해병님, 제가 죽으라면 죽는 시늉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좀 보내

주십시오"라고 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두 가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이게 덜 맞아서 그런가?', '얘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뭔가 있겠는데….' 이 상병은 이상하게 교회 가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 이후로, 기타를 잘 치던 이 상병은 일과만 끝나면 다가와 흥겨운 기타 반주로 유행가를 부르도록 유도하면서 어느새 함께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가 어느 날 유행가를 부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상병의 의도에 이끌려 나도 모르게 찬송을 부르다가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정신이 돌아온 저는 돌아서서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찬송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마지막 날, 밝은 얼굴로 하늘을 향해 손을 저으시면서 부르시다가 돌아가신 찬송입니다. 추도식 때마다 이 찬송을 부르며 많이 울기도 했던 찬송이었습니다. 이 상병이 찬송을 반주했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상병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신데, 클럽에서 기타 반주를 하다가 군에 가는 아들에게 간청한 한 가지 일이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린 이후, 주일 당직병 근무를 서고 있는 저녁 즈음 군목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제대하기 전에 인간 좀 되라면서 교회에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1980년대 TV 프로 중에 젊은이들에게 아주 인기가 많은 "쇼쇼쇼"라는 예능 프로를 보고 있었는데 그것을 뒤로하고 어린 양처럼 순하게 무엇에 홀린 듯 교회를 갔습니다. 지금 생각해 봐도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인데, 어머니의 기도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압니다.

그날 설교는 사단 군종 참모님의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설교가 모두 나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동근아, 동근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주여, 뉘시니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런 너를 사랑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네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느냐?”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제가 지은 많은 죄들이 너무나 선명하게 파노라마처럼 한순간에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주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너는 손끝 하나, 발끝 하나, 머리털 하나 다친 데가 있느냐? 나는 너를 이렇게나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배당에는 훈련병들이 함께 예배 드리고 있었는데 말년 병장인 내가 부끄러움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어 흐느껴 울며 많은 눈물과 콧물을 쏟아 내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죄인을 이렇게나 오래 참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께서 질문에 선명한 대답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같이 너도 부대에 돌아가서 후임들을 사랑해라. 그만 때려라.”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드리고 부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결심과는 다르게 부대에 돌아와서 후임병을 구타하고 말았습니다. 무진장 애를 썼지만 도무지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누워서 줄담배를 피우다가 구타했던 후임을 불러서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일과 그분께 후임을 더 이상 구타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자초지종을 말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선임이 후임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 따위는 있을 수 없는 당시 해병대 정황상 후임병은 계속 자신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결국 이해는 안 되었지만 후임이 용서해 달라는 내 말에 “아, 알겠습니다” 하고 자기 침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은혜를 깨달은 저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해 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술도 싫어지고 담배도 싫어졌습니다.

1984년 제대를 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탕자 아들을 위해 아침 금식과 저녁 철야기도를 7년간 해오시던 어머니가 입이 돌아가 몸져누워 계셨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보는 순간 내가 이렇게 무사히 군에서 제대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어머니의 기도였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복학 전에 셋째 매형이 지부대표로 계시던 네비게이토 선교회의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읜 어린 시절부터 저를 사랑해 주셨던 매형은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자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어느 날 매형은 자신이 기도원에 갈 테니 가방 들고 비서 하러 오라고 불렀습니다. 사랑의 작전이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 유학길에 오르기 위해 분초를 아끼며 공부하고 있던 터라 저는 싫었습니다. 그러나 받은 사랑이 떠올라 속마음과는 다르게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가방을 들고 기도원을 따라갔습니다.

기도원 입구에 들어서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바뀌어 금식기도가 하고 싶어졌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작전이었습니다. 3일 금식기도 동안 제 입에서 생각도 안 해본 복음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 개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마음을 끊임없이 울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죄송하고 감사한지 한겨울 추운 기도원이 뜨거워지면서 눈물, 콧물을 다 쏟아내며 엉엉 울며 회개만 하게 하셨습니다.

회개하는 동안 주님께 "주님, 누구십니까?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라는 질문이 일어났습니다. "너는 그렇게 나를 핍박하고 방황하며 온갖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라고 다시 질문을 드렸습니다. "미국에 유학 가지 말고 학교에 복학해서 너처럼 내가 없다고, 내가 죽었다며 방황하는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제게 성경 말씀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어 가는데 열왕기상 20장 13절 말씀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학교에 복학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청년들을 구원하는 일에 저를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단호히 미국 유학을 포기하고 복학을 했습니다.

85년 복학을 한 이후,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가 멀리 학교가 보이면 하나님의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 이 많은 학생들이 주님께 돌아와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캠퍼스로 걸어가면서 또 하나님의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약속을 주장하며 “하나님, 오늘도 저를 통해 구원받는 학생들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강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원래 전공이 회계학인데 캠퍼스 시절 4년 동안 제 전공은 전도와 제자 삼는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를 두고 보시던 교수님들 중에는 차라리 신학교를 가는 게 더 낫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 4년 동안 전도하여 제자훈련 공동체 23명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함께 살며 밥도 같이 먹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제했던 예수님 제자들 중에 키 맨이었던 두 명은 월드미션을 졸업하고 선교사로 파송받았습니다. 지금도 함께 세계로선교회에서 동역하고 있음에 힘이 됩니다.

졸업하고 89년도에 부산지부 부산대 캠퍼스 사역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인정받게 된 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것은 잠시! 부산대학에서도 열심히 전도하고 제자 삼기로 각오하고 달렸습니다. 이전 캠퍼스에서의 사역 성공 경험으로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긴밀한 연합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팀 리더들과 경쟁심을 가지고 다투며 사역을 했습니다.

>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마 12:25).

팀의 좋은 형제들이 떠나기 시작했고, 사역은 실패라고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던지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싫어졌습니다. 당당하게 청산유수로 전도하고 제자 삼던 저는 말까지 더듬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에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다. 대신 뼈저린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고서는 아무 열매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요 15:5).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은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며,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생긴다는 것을…(약 3:15-16). 성령으로 하나 되기를 힘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고 부흥을 주신다는 뼈저린 교훈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도 마음속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후, 캠퍼스 시절에 선교사로 헌신했던 터라 아프리카 자비량 선교사로 떠나기 위해 사진 기술을 1년 이상 배우며 비자까지 받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교회 본부를 통해 국내 대학 캠퍼스를 개척하도록 플랜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결혼의 은혜도 주셨습니다. 사역의 성공 경험에 의지하다가 쓴맛을 경험한 저는 실패의 원인을 기억하고 주님과의 교제에 최우선을 두었고, 주님의 은혜로 열매 맺기를 소원했습니다.

약 8년간의 대학 캠퍼스 개척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좋은 형제자매들을 붙여 주셨고, 주님의 제자와 일꾼들로 세워 주셨습니다. 개척 기간 중에 얻었던 형제들 중 세 명이 월드미션 신학을 하고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한 부부는 부산지부에서 협력 목사로, 한 부부는 국내 대학 개척 목사로, 한 부부는 선교사로 파송되어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와 회복을 경험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기간 동안 대인 기피증, 말 더듬는 것이 치유되었습니다. 할렐루야!

2000년 1월 1일 네비게이토 선교회가 각자의 사명으로 나뉘면서 우리 부부는 영적인 부모님을 따라 지금의 세계로선교회 부산지부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자 삼는 비전에만 전념하여 교계와 고립된 특징을 가진 네비게이토 선교회와는 좀 다른 출범을 세계로

선교회는 했습니다. 교계와 연합해서 우리만 가지고 있는 은사로 지역교회를 섬기며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우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지역교회의 목회자들은 당시 선교회 간사들이 신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력을 원치 않는 듯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하나님께서 월드미션과 세계로선교회를 만나게 해주셨고, 세계로선교회의 해외선교사들과 국내의 간사들이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 받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 이후 선교회는 지역교회와 좀 더 가까이 연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원복음화협의회와 성시화운동에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2005년 한국 부산에서 원격으로 신학공부를 시작하던 해에 아내가 탈진 탈수를 두 번이나 겪으면서 쓰러지더니 급기야 페트병을 대고 받아야 할 정도로 엄청난 양의 코피를 흘리게 되었습니다. 멈추질 않아서 하루에 두 번씩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병원 처치로 코를 지지고 막아두니 피가 눈으로 흘러나오고 목에 핏덩어리가 계속 고였습니다. 이런 일이 한 달 정도 반복이 되니 아내는 숨쉴 힘도 없이 죽은 듯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아내 옆에서 두 손을 모으고 아내를 살려 달라며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내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첫날부터 8평짜리 집에서 형제들 밥을 해먹였습니다. 먹회가 목회입니다. 캠퍼스에서 전도하고 돕는 형제들을 갑자기 몇 명씩 집으로 데려가도 항상 기쁨으로 식사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백일이 된 시점에 세 명의 형제들을 집에 데리고 홈 트레이닝을 시키자고 했을 때 아내는 기쁘게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함께 캠퍼스에 올라가 QT를 하고 내려와서 함께 청소를 하고 아내가 준비한 아침을 먹으며 식탁 QT를 나누었습니다. 학교 수업 시간 이외의 시간에 함께 전도하다가 저

녁에 집에 가서 식탁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형제가 결핵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되어 마음이 아팠고, 생후 4개월 된 아들에게도 결핵약을 먹여야만 해서 우리 부부의 마음은 너무 아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삼으신 방법처럼 함께 생활하며 제자 삼는다는 사명이 있었기에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큰아들 세 살, 둘째 아들 생후 10개월쯤 되었을 무렵에는 대학생 7명을 데리고 살며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아내는 소같이 먹어대는 형제들을 위해 아침과 저녁을 준비했고, 점심은 4단 찬합 도시락을 싸주었고, 빨래도 해주었습니다. 당시 부산에서는 예수님 믿으면 쫓겨나야 했고, 우리도 개척 시작이니 눈물 젖은 한솥밥을 먹고 생존했다는 것이 감격입니다. 아들을 잡으러 와서 차에 우격다짐으로 태워가려는 부모, 새벽 2시에 전화해서 쌍욕을 하는 종손 부모, 등록금으로 협박하던 부모, 용돈을 한 푼도 주지 않는 부모들 속에서 믿음으로 생존한 귀한 형제들을 위해 한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봅니다.

아내의 바쁜 음식 준비로 11개월쯤 된 둘째 아들은 싱크대 날카로운 부분에 손가락이 베어 다섯 바늘을 꿰매었고, 아내가 음식 준비를 하다가 손가락을 잘라 다섯 바늘을 꿰매었던 일도 추억 속에 있습니다. 부산대학으로 사역지를 옮긴 이후에도 아내는 생활훈련관에 있는 40여 명 형제들을 위해 밑반찬과 김치를 끊임없이 담가주었습니다. 학생들을 집에 데리고 함께 살며 제자훈련을 하며 13년간 쉼 없이 질주해 온 아내가 이렇게 코피를 흘린 이유입니다.

선교회 회장님께서 "이러다가 아내가 죽겠다"며 우리 부부에게 미국에서 1년 안식년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월드미션 신학대학교 원격 공부를 하다가 학교에서 직접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미국 생활인지라 동서남북이 구분도 안 되면서 모든 것이 낯설고 생

소했습니다. 도시락을 싸 들고 일찍 학교 도서관으로 출근했습니다. 도서관에는 읽고 싶은 책들이 제법 많았고, 성경을 읽다가 궁금했던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책들도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도서관에 줄곧 있다가 보니 교수님들과도 틈틈이 만날 수 있었고, 궁금한 것들을 질문하며 배울 수 있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지금까지 선교단체에서 전도와 제자 삼는 사역에만 몰두해 있었는데, 신학을 하면서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과 여러 신학자들의 생각과 교수님들의 생각을 접하며 생각의 폭을 넓고 깊게 하는 기회가 되었으면서도, 전도와 제자 삼는 사역을 좀 더 예리하게 다듬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감사했습니다. 배움이 안식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유학을 포기하고 헌신했던 그 유학을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도록 보상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멕시코 단기선교도 추억합니다. 내가 맡은 일은 교회 안 바닥에 타일을 까는 것이었습니다. 멕시코 뜨거운 여름에 3박 4일 동안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무거운 타일과 시멘트와 모래를 1층에서 2층으로 옮기고, 시멘트를 모래와 섞어서 바닥에 펴 바르고 그 위에 두꺼운 타일을 깔았습니다. 일을 끝마쳤을 때는 모든 에너지가 소진이 되었고 손가락은 붓고 아파서 잘 움직이지 않았지만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되는 것에 내가 쓰임 받았다는 것이 참 기뻤습니다. 온 캠퍼스에서 누렸던 부에나 파크에서의 체육대회는 동문들과 친숙해진 즐거운 추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07년도에 졸업을 하게 되었고, 아내도 월드미션에서 석사, 박사 과정을 마치고 졸업하는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세계로선교회는 한국 전역의 캠퍼스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시절부터 제자훈련 받은 복음의 일꾼들을 세계 각 곳에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전체에서 15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고, 부산지부에서는 7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상황입니다. 불신자를 대상으로 해서 전도하고 제자훈련하여 파송한 소중한 일꾼들입니다.

현재 세계로선교회 부산지부에서 국내 대표로 섬기고 있는 저의 직무는 부산지부에서 파송한 개척지부(경희대, 중앙대, 수원 성균관대, 천안 단국대, 구미공대) 사역자 다섯 부부를 세우고 무장시키는 일입니다. 부산지부는 청년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주일학교, 틴틴, 청년 캠퍼스, 장년 4개의 초원과 17개 목장, 노년 1개 목장으로 나누어 세대간 폭넓은 제자 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20절 말씀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세계로선교회에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시대적 상황이 제자 삼는 사역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어렵지 않았던 적은 없어 보입니다. 사도 시대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로마 시대도, 중세에도 근대에도 현대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복음의 진보를 나타내고 계시니 질적인 일꾼 한 사람이라도 길러낼 수 있다면 우리는 이 길을 계속 갈 것입니다. 99% 헌신된 100명보다 100% 헌신된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해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계로선교회가 출범할 때 선포했던 비전이 한국의 모든 대학 캠퍼스에 사역자를 파송하고자 했는데 헌신된 일꾼을 길러내어 이 일을 끝까지 완수하고자 하는 불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계속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 삼고 일꾼 재생산하는 일로 지역교회를 섬기자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불도 계속 주고 계십니다.

올해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좋은 일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선교회 건물이 좋은 가격에 팔리고 그 재정만큼의 새 성전을 건축할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와 형통과 행복이 있는 건축이 되게 하시고, 우리 내면의 성전 건축도 함께 이루어지길 합심하여 간구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오늘의 제가 있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어머니,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어머니를 주셨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며 사랑해주시는 영적인 부모님도 주셨습니다. 우리 사역과 가정의 필요를 적시에 채워 준 육신의 형제들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참아 주고 기다려 주며 애써 준 공동체 형제자매들을 주셨습니다.

자녀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많습니다. 사역에 바쁘게 막 뛰다가 아이들을 보면 마치 잡초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픈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 아들을 친히 길러 사춘기 방황 때와는 달리, 부모 된 우리와 제자 삼는 사역를 향해 존경하는 마음과 효도의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늘 내 옆에서 내 편이 되어 준 아내에게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핍박하던 자를 불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부부 사진

아프리카 수양회

제자수련회

함께 가는 길: 예수님 어디 계세요?

• 유아브라함 선교사 (MDiv '14) 베트남

"무슨 병을 앓고 있다고요?"

"심장병이래요."

"그런데 왜 이런 움막에 살고 있나요? 뭔가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동행한 베트남 학생이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놀란 표정으로 다가온다.

"아, 다시 물어보니 정신이 이상한데, 힘이 너무 세서 움막 안에 쇠사슬로 묶어 놓았대요."

"언제부터요?"

"3년이나 지났대요. 정신병원에 갔다가 5년이 지나서 집으로 왔는데, 다시 정신병이 도져서 움막에 있는 거래요."

"정신병? 그럼 미쳤다는 말입니까?"

"맞아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서 가둬 놓은 거래요."

이건 또 무슨 일인지, 선교지를 다니다 보면 이런 일이 있다고는 들어봤지만 너무 당황스러웠다. 움막 문 앞에 서서 뒤를 보니, 동행한 학생들과 성도들 하며, 동네 사람들이 줄이어 서 있다.

"움막 문을 열라고 하십시오."

"어떻게 하시려고요?"

"어서 문을 열라고 하세요!"

그날 밤 움막 안에서는 영적 싸움이 한참 동안 이어졌다. 움막을 막 나서니 눈물 콧물 범벅이 된 미친 사람의 아들이 손을 잡는다.

"기도 좀 해달랍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건너편 아들의 집으로 들어서니, 그제야 아들도, 동네 사람들도 얼굴을 알아볼 수 있었다. 희미한 등불이 비추고 있음에도 여기저기에서 통성기도 소리가 끊이지를 않았다.

얼마 동안 시간이 흘렀을까? 기도를 마치기가 무섭게 걸음을 재촉해야만 했다. 밤이 더 늦기 전에 꼭 찾아가야 할 가정이 있다. 동이 트면 다음 선교지로 옮겨야 해서 늦더라도 만나야만 했다.

날이 궂은지 달이 없어 이동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가야만 했다.

'동막골'에서 밭길을 내달려 보고 싶은 친구를 만나러 가는 내내 어둠은 칠흑 같은 얼굴을 내리려 하지 않았다.

하노이에서 여섯 시간을 차로 달리고 다시 오토바이를 갈아타고 반 시간 남짓 가면 만나는 마을이다. 이곳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우리는 '동막골'이라고 부른다. 동막골은 60여 세대가 모여 사는 소수민족 촌락이지만, 믿는 가정은 그리 많지 않았다. 겨우 일곱 가정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그들이 촌락 사람들의 성화에 지쳐서 예배를 그만두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지 벌써 반년이 지나간다. 현지 전도사로부터 새로운 가정이 영접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어김 없이 이곳을 찾아온다. 3년을 움막에서 지낸 정신병자의 집도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가정이었다.

동막골을 뒤로하고 내달린 지 40여 분이 지나자 작은 마을이 어둠 속에서 어렴풋이 멀리 보인다.

겨우 어두운 길을 돌고 돌아서 집 마당에 들어서니, 대나무로 지

은 초막에서 아이가 내려온다. 수줍은 듯 손을 내밀며 집 안으로 우리를 반긴다.

"다리는 어떻습니까? 아직 많이 아픕니까?"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도 걷지는 못한다. 목발을 짚고 걷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집에 앉아 있기 일쑤이다. 집주인은 이제 서른도 되지 않은 아들 같은 젊은 친구이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 신증후군이라는 병을 앓고 있다. 신장이 너무 나빠져서 이제는 다리 관절에 염증까지 생겼다. 겨우 수술을 받았고, 차도를 지켜보고 있는 중이었다.

"예배는 빠지지 않지요?"

집으로 현지 전도사가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이 친구는 목발을 짚고 예배당으로 가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건 밥 먹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하네요."

지난 늦가을에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이 떠올랐다. 다리가 앙상한 채 앉아 있던 젊은 친구가 다리와는 다르게 얼굴은 정말 밝았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날도 어김 없이 물었다.

"예수님은 저와 함께 계세요."

코끝이 찡해 왔다. 여기 정말 기댈 곳이 없는 이 영혼에게도 주님은 손을 놓지 않고 계셨다. "기도합시다!"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내 손을 덥석 잡았다.

그날 우리는 대나무로 엮은 휘청거리는 마루 같은 방에 앉아서 울며 웃으며 젊은 친구 가정에 한참을 머물렀었다.

두 달 만에 만났는데, 얼굴이 더 야위었다. 지난 두 달 동안 마음이 많이 힘들었다고 한다. 병원에서 차도가 있을 거라고 하였지만, 자신은 몸이 더 아프단다. 너무 항생제를 많이 써서 몸에 무리가 오

는 것 같다고 한다. 병원 진료서와 처방전을 놓고 한참을 말이 오갔다. 하노이의 병원으로 진료서와 처방전을 보내서 방법을 찾기로 하고 집을 나섰다. 선라의 밤은 이렇게 깊어만 갔다.

우리 공동체는 두 달에 한 번꼴로 선교지를 찾아온다. 열악한 선라 지방은 도시의 손이 미치지 않아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로 넘쳐난다. 두어 달이 멀다 하고 만나건만 가는 곳마다 손을 붙들고 놓으려 하지 않는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느닷없이 물을라치면 “내 마음 안에 계세요!”라고 소리치는 통에 눈물이 핑 도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숙소에 돌아와서는 너도 나도 지쳤는지 기도가 끝나자 약속이나 한 듯 모두 잠자리에 들었다.

벌써 날이 밝았다. 늘 그랬듯이 아침 예배가 끝나기 무섭게 길을 나선다. 오늘은 ‘목쩌우’로 가서 보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

“두 달밖에 안 되었는데, 왜 이렇게 설레지요?”

집사님은 벌써부터 마음이 그리로 향해 있어 얼굴에 설렘이 가득하다.

동네 어귀에 다다르자, 멀리 동산에서 나무에 숨어 누군가가 빼꼼이 내려다보는 것 같았다. 벙어리 아주머니이다. 우리 일행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마을 어귀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모웃수!” 만날 때마다 얼토당토않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나를 부른다. “목수!” 베트남 말로 ‘목사님’이라는 뜻이다.

“지금은 일을 하느냐고 물어봐 주세요.”

벙어리 아주머니 손을 잡기가 무섭게 동행한 학생을 채근했다.

“아침에 나무하러 갔다 왔다고 합니다.”

“그래, 일을 해야지….”

아들 둘하고 딸을 하나 둔 벙어리 아주머니는 뭐가 그리 반가운

지 얼굴에서 함박웃음이 그치지를 않는다. 벙어리 아주머니는 말귀를 조금 알아듣는다. 아주머니는 머리카락도 드문드문 있고, 어린 시절 영양실조로 잘 걷지도 못하고, 얼굴은 찡그린 듯 입이 비뚤어져 있다. 그런데 아이는 셋이다. 아비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아이가 셋이다. 서로 닮지 않아서 사람들은 아비가 다 다르다고 한다. 성폭행을 당한 이유란다. 그것도 십 년에 걸쳐서 동네 주정뱅이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거란다. 아무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다. 그나마 벙어리 아주머니 시누이가 아이들을 챙겨 준다.

"너는 커서 뭘 하고 싶니?" 이제 중학교에 들어간 둘째 아들은 아무런 표정이 없다. "뭐가 제일 갖고 싶냐?" 그래도 답이 없다.

"학교는 가니?"

"가는데, 힘들어요!"

들릴 듯 말 듯한 소리로 퉁명스럽게 내뱉는 소리에 애절함이 묻어 있다. 동네 어귀에 있는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중학교에 진학하니 너무 멀어서 학교 가는 것이 힘들단다. 아이는 벌써 사춘기가 왔지만, 잘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엄마를 곁에서 지킨다.

이렇게 목쩌우의 친구들과의 만남은 설렘으로 시작한다.

아랫집 앉은뱅이 집도 가봐야 했다. 곱추에 앉은뱅이인 중년이 된 친구는 늘 문지방 너머에 꼿꼿이 앉아 있다. 지나가는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고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고 있다. 무슨 생각이 그리 많을까?

"신짜오!"

고개를 돌리더니 화들짝 놀란다. 얼굴에 미소를 잔뜩 머금고는 "목수!"라고 부른다.

"밥은 먹었냐?" 어찌 알아들었는지 통역하는 학생이 묻지도 않았는데, 고개를 끄덕인다. 오늘은 깔끔하게 머리도 가르마를 타고 뭘

묻혔는지 단정하고 기름기가 철철 흐른다.

"화장실은 잘 되어갑니까?" 동행한 베트남 전도사에게 물으니 말이 없다. 아직도 준비조차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뭐가 그리 바쁩니까? 이거 말고 뭐가 더 급합니까?" 채근하는 소리에 말없이 고개만 끄덕인다.

이 마을에는 화장실이 없다. 그냥 밖이 모두 자연 화장실이다. 그런데 이 앉은뱅이 친구는 걸을 수가 없어서 밖으로 나가서 대소변을 가릴 수가 없다. 그러니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앉아서 볼일을 본다. 화가 나고 답답하면 그냥 앉은 자리에서 대소변을 보기도 한단다. 지난 1월에 화장실을 실내에 만들어서 몸도 씻고, 볼일도 혼자서 볼 수 있도록 공사를 시작하라고 했는데, 준비도 하지 않은 모양이다. 물탱크도 타일도 좌변기도 다 준비하라고 시켰더니 아예 준비도 안 되어 있었다.

이제 막 예수님을 만나서 예배도 참석하고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이 친구를 가까이서 도울 수 없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웠다. 애먼 전도사만 어쩔 줄을 모른다.

"성경을 매일 듣고 있냐?" 학생이 말을 건네자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인다. "기도하자!" 오늘은 앉은뱅이 친구의 손이 참 따뜻하다. "아멘!" 기도를 마치자 보여줄 것이 있단다. 주섬주섬 종잇조각을 허리춤에서 꺼내 펼쳐 놓았다. 성경이었다. 소수민족 글로 번역된 성경이었다. 그동안 듣는 성경이라도 들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고 싶어서 성경을 얻었단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글이나 잘 읽을지 모르겠다. 그런데 성경이라고 종이를 펼쳐 놓으면서 주절주절 자신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얘기할 때는 차마 그 모습을 바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아려오면서 고맙기도 했다.

대소변도 못 가리는 친구가, 불평불만으로 죽을 날만 기다린다는

친구가 이제는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좋단다. 이제는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좋단다. 주님은 초라하다 못해 외면에 외면을 당하고 있었던 이 영혼도 손을 놓지 않고 계셨던 것이다.

"목사님, 할머니가 기다리신대요?"

조금 떨어진 마을에 사는 벙어리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단다. 화장실 만드는 일을 다짐에 다짐을 받고는 앉은뱅이 친구의 집에서 자리를 떴다.

벙어리 할머니 집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 혼자서 사시는데, 태어날 때부터 말을 못하시는 분이다. 집에 들어서기 무섭게 뭘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은지, 내 손을 잡고는 알아듣지도 못할 말을 혼자서 계속 해댄다.

"예배당에 가요?" 베트남 전도사가 손짓으로 전한다. 할머니는 알아들으셨는지 연신 손을 뻗어 하늘을 가리킨다. "하나님 만나고 있다는 소리래요."

일 년 전 처음 만났을 때, 나를 붙잡고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던 모습이 떠올랐다. 예수님 믿으라는 소리라고 했다. "목사님한테 예수님 믿으래요!" 그때 한참을 웃었던 기억이 난다.

오늘은 흥얼흥얼 뭐가 그리 좋은지 소리가 그치지 않는다.

"뭐 하시는 거냐?"

"찬양하신대요."

목쩌우의 해는 뭐가 그리 급한지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다.

"목사님, 저기 자전거 상점이 보입니다."

"자전거요?"

이제 막 시내에 접어들었을까 돌아갈 길이 아직도 멀었는데, 한 집사님이 성폭행당한 어머니의 둘째 아들에게 자전거를 선물하자고

한다.

"그럽시다. 이왕이면 기어 달린 것으로 합시다!"

차에 기어 달린 자전거를 싣고 벙어리 아주머니 둘째 아들을 만나러 갔다.

"이걸 타고 학교 빠지지 말고 다니렴!"

아이는 자전거를 붙들고는 고개를 들지 않는다. 아이도, 벙어리 아주머니도, 우리도 펑펑 울었다.

또 만나겠지. 두 달이 지나면 또 만나겠지. 어떤 모습으로 만날까? 기대 반 걱정 반으로 한마음이 되어 통성기도를 시작한다.

우리 공동체는 성도가 그리 많지 않은 작은 공동체이다. 이제 겨우 백 명 남짓 등록한 작은 공동체이다. 이방 교회들이 그렇듯이 우리 공동체도 하나로 마음을 모으기가 쉽지 않았다. 심지어는 말씀 통독도 기도 모임도 쉽지 않았다. 그저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성도가 거의 대부분이었다. 그때 우리 공동체를 붙든 것은 '왜'라는 물음이었다.

우리는 왜 베트남에 있는가?

우리는 왜 이 척박한 곳에서 공동체를 찾았는가?

우리는 왜 척박한 땅에서 누리고만 있는가?

이 세 가지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일을 시작하였다. 말씀으로, 기도로, 때로는 선교지 방문으로 6개월을 이어가면서 답을 찾도록 하였다. 지금 섬기는 선라와 목쩌우 지역은 이때 찾은 답이었다.

주께서는 척박한 땅에서 누리려고만 하는 우리 공동체에게 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 줄 수만 있다면 십자가 고통까지도 다 감내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제는 각 가정마다 선교지의 한 가정을 섬기고 있다.

쌀 최대 생산국인 베트남에서 쌀이 귀하다면 믿을 수 없을 것이

다. 그런데 산골에서는 흔한 이야기이다. 기껏해야 옥수수로 끼니를 때우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 공동체는 각 가정에 쌀을 공급해 주고 있다. 그리고 가정마다 믿음으로 신앙 결연을 맺어서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있다. 물론 각 가정은 섬기는 가정의 생활을 성심껏 돕고 있기도 하다.

주님이 우리 삶을 찾으셨던 것처럼, 그리고 주님이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해야 하는 것을 이제 서서히 깨달아가고 있다.

내일은 선교회의가 있는 날이다. 신장 때문에 다리를 수술한 젊은이를 위한 진료 계획과 앉은뱅이 친구에게 화장실을 마련해 주는 문제 등을 상의하는 날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선교지 각 가정이 자립할 수 있도록 양계 사업을 실행하는 일정도 확정할 예정이다. 머지 않은 날에 그들이 자립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니 회의도 하기 전에 마음이 뜨거워진다.

우리 공동체가 늘 붙드는 말씀이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요일 4:19).

37년 전, 스무 살에 소경이 된 분

선라 지역의 고산지 마을의 청년 가족과 함께

선라 지역의 고산지에 사는 청년의 집에서 지역 청년들과 모임

지중해병이라는 희귀혈액병을 앓고 있는 선라 시골마을에 사는 소녀(왼쪽)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 윤경미 사모 (MAM '09) 로스앤젤레스

먼저 훌륭하신 교수님들, 재학생, 그리고 동문 여러분들과 후원자님 앞에서 부족하고 글재주도 없는 제가 뭘 어떻게 써나가야 하는지 망설여졌지만, 임성진 총장님의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며 사역을 정리해 보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라는 그 한 구절이 제 마음과 머리에 새겨졌고, '그래…, 정신없이 달려만 왔던 나의 시간을,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닌, 어쩌면 신앙적으로 조금은 느슨해져 있는 나를 위해서 정리해 보고 또 한번 새롭게 다짐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제 삶을 나누길 원합니다.

저는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고 교회의 중직을 맡아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부모님을 만나 감사하게도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인천의 주안감리교회라는 중대형교회를 섬겼는데 일반 성도가 아닌 구역이란 시스템을 가진 감리교회의 구역장으로 약 250명 정도의 구역원을 담당하고 심방하고 사역자를 도와주고 대신하는 역활을 하셨던 어머니와, 늦게 영접을 했지만 회사를 다니시며 신학을 따로 공부하시고 강의까지 하셨던 아버지는 사역자가 아님에도 장년부를 맡아 매주 예배시간 전 한 시간 동안 성경공부를 15년 동안 인도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회자 가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못지않게 열심으로 바쁘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름이면 모든 휴가를 교회 중·고등부 수련회에 쓰셨고, 한국에 있었던 20년 동안 가족여행이란 걸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으며, 남들 다 가는 호텔 대신 어머니 아버지를 따라 한얼산기도원, 오산리 기도원에 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면서, 그때는 몰랐지만 지나고 어른이 되어 보니 방황할 수 있는 많은 기회와 순간순간 직면하는 위기 속에서도 그때의 부모님의 헌신과 열심, 기도가 저와 우리 가족의 밑거름이 되고 방패막이 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대학을 마치던 2001년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반주를 하고 대학에서 피아노와 반주를 전공했던 탓에 미국에 와서 금방 음악하는 분들을 소개받게 되었는데 그때 윤임상 교수님을 한 단체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간간이 활동을 같이 해오던 중 교수님께서 월드미션 입학을 권유하셨고, 공부에 대해 계속 아쉬움이 있었던 저는 음악과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여러 신학교들이 LA에 있지만 교수님과 학교에서는 LA 주류 명문 음대의 교수님들을 모셔와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최고의 레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학생들 모두 실력들이 출중했고 어디 내놔도 훌륭한 인재들이었지만 음악만을 하며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들을 모아놓은 곳은 보이지 않는 경쟁의 팽팽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음악만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 신학을 공부하고 예배를 함께드리며 신앙생활 몇 년을 같이 해 나가면서 자체적으로 기도모임을 만들어 지금의 음악과 강의실에서 삼삼오오 모여 눈물 콧물 다 빼며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시간은 지금도 저희 동문들에게는 감사한 기억이고 추억입니다.

또한 월드미션 합창단의 반주를 하면서 뉴욕과 오레곤, 또 하와이 순회 연주는 제 평생의 그리운, 지금도 동문들과 그 시간이 너무 그립고 감사하고 각자의 인생에서 최고의 기억이었다고 나누는 것은, 화려한 연주가 아닌 찬양예배를 통해 각 개개인을 향한 성령님의 개입하심과 일하심이 있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날카롭고 뾰족했던 제 모습이 월드미션 안에서 조금씩 조금씩 깎이고 변화하며 졸업을 앞둔 2009년에, 성악을 가르치시던 Kathleen Roland 교수님께서 클레어몬트(Claremont)에 있는 스크립스 칼리지(Scripps College)라는 사립대학에 1년 초빙교수(Visiting Professor)로 가시면서 반주자 자리(accompanist position) 공고가 있다는 말을 해주셨고, 영어를 따로 배우지도 않고 잘 못했던 저는 못한다고, 100퍼센트 떨어질 것이라며 부정했지만 Kathleen 교수 특유의 긍정적인 마인드로 저에게 “Why not?”(안 되면 어때?)라는 그 말씀에 ‘그래,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테스트나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아무 기대 없이 원서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일했던 것, 경험했던 것을 끌어 끌어 모아 접수시키고 서류가 통과되고 실기시험을 보러 오라는 학교측의 연락에 너무 겁이 나서 ‘어차피 떨어질 거 가지 말까?’라는 생각까지 했지만 결국 가게 되었고, 초견(처음 보는 악보를 즉석에서 치는 것)을 해보라며 즉석에서 제공한 악보를 보고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 월드미션대학원 학생이 졸업연주 때 노래했던, 제가 한 달을 어렵게 어렵게 연습하며 연주했던 곡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사전에 연습 없이는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었던 그 곡이 저에게 시험곡으로 나온 것이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저를

그곳에 인도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1명의 반주자를 뽑는 자리에 12명의 풀/파 타임 교수가 참석했던 오디션 자리는 그 분위기만으로도 엄숙하고 살벌했는데, 여러 교수와 30분가량의 실기 오디션이 있은 후 이어진 30분 가량의 인터뷰를 무슨 정신으로 하고 나왔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지금도 그 시간은 살짝 블랙아웃이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떨리고, 영어가 짧았던 제가 무슨 대답을 어떻게 하고 나왔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아 나오자마자 '나는 떨어졌구나' 하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합격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Kathleen 교수님과 1년을 함께하면서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다른 교수님들에게 저에 대한 최고의 말씀들을 해주시며 자리 잡고 적응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기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후로 감사하게도 13년째 좋은 포지션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같은 클레어몬트 단과대학 중 하나인 퍼모나 칼리지(Pomona College) 코칭 교수(Coaching Faculty)로 12년째 재직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지요. 어느덧 적응을 하고 그 새 영어도 늘면서 10년을 넘기니 제 안에 단순함과 반복이 주는 무료함이 자리 잡으면서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더 크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곳에 지원도 해보고 합격해 기회가 있었음에도 결국 마지막 결정에서 지금 직장을 놓지 말라는 마음을 주심에 순종하며 있던 와중에 아주사 퍼시픽 유니버시티(Azusa Pacific University)에 파트타임 자리가 나게 되서 지금 직장을 그만두지 않아도 일할 수 있음에 지원하게 되고 2018년부터 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오리엔테이션을 하던 날 “God First”라는 학교의 슬로건이 제 맘을 후벼팠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세상 속에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지 잊어버린 채, 비록 세상 직장이지만 너의 사역지로 생각하고 모든 종교가 공존하고 있던 그곳에서 네가 크리스천의 역할을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린 채 살았음을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으로 깨닫게 해주시면서, 지금은 세 학교 모두 제 직분을 잘 기억하고 감당하려고 노력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2008년 월드미션 재학 시 시댁과 인연이 있으셨던 고 임동선 총장님께서 주례를 해주시고 동문들의 축하를 받으며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생활 2년 정도가 지났을 무렵, 당시 방송 관련 일을 하며 안정되고 편안한 생활을 하던 남편이 예전부터 마음의 부담으로 가지고 있었다며 신학을 공부하고 싶다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공부가 목적이 아니라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며 저에게 기도해 보라 했습니다. 아버지도 신학을 공부하시고 강의도 나가셨지만 목사 안수를 받지 않으셨기에 ‘그래, 공부는 할 수 있지’라며 1년을 각자 기도하던 중에 어느 날 직접 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편을 콜링하셨다는 응답을 주시면서 완강했던 제 마음을 열게 해주셨습니다. 아니, 남편의 성품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보면 그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래도, 기왕이면, 굳이…’라며 거부 아닌 거부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두 손을 들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경험을 통해서 지금은 부목사로 사역하고 하나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매일매일 제 안에서 갈등합니다. 나는 소위 말하는 사모감이 아닌데, 다른 사모들과 비교도 되고, ‘사모인데 이렇게 세상일

을 하며 세상에서 활동해도 되나? 이게 맞나?'라며 매일매일 갈등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제가 있는 그 사역지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크리스천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예수님을 전하며 학생들을 위로하고 함께 기도해 주며 그 자리를 지키길 원하심을 말씀하십니다. 또 허락하신 두 자녀를 잘 양육하며, 적어도 가정생활만큼은 제가 도움이 되어 주고 남편이 마음껏 사역하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하는 것이 나의 자리이며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가 언제일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떠나라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아쉬운 마음 없이 떠날 수 있게 해달라고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며 오늘도 하루하루 하루살이를 합니다.

항상 어디를 가든 월드미션 동문임을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학교에서 주신 가르침으로 인해 지금의 이 자리에 서 있음을 다시 한 번 고백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윤경미 사모의 사역 사진

with_Prof. Harley_at_Scripps College

with_collegues

with_Dr. Kathleen_Roland

Studio_picture

한국 군선교 이야기

• 이권헌 목사 (MDiv '12) 서울

나는 《사랑의 동행》 원고 모집에 참여할 생각이 1도 없었다. 왜냐하면 현재 은퇴하였을 뿐 아니라 내세울 만한 성취나 고난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누구처럼 극적인 감동 스토리가 있는 것도 아닌, 편안하고 밋밋한 사역을 해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쓰기로 결심한 것은 동문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사역이 소개되면 좋을 것인데, 한국 군대교회 사역에 대하여 소개할 사람이 별로 없어 보여서이다.

1.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의 사랑

나는 경기도 평택에서 태어나서 강원도 동해시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대구에서 고등학교, 광주에서 대학교, 서울에서 대학원을 졸업하였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서울 구로동 수출공단에서 공원으로 근무하다가 폭행사건에 연루되어 육군으로 도피성 지원입대를 하였다.

군에서는 논산육군훈련소 이등병으로 출발하여 부사관, 장교, 장군까지 승진하였다. 그래서 군번을 3개, 주특기는 5개를 갖고 있다. 논산에서는 소총수 특기를 받았고, 후반기 교육 시 AR자동소총 사수의 특기를 받았다. 부사관은 야전공병으로 임관하였다. 3사관학교 졸업 시 보병 소위로 임관하였으며, 대위 때 화학병과로 전과하

여 병과장까지 승진하였다. 그래서 입지전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비범(?)한 성장과정 속에 얼마나 파란만장한 사연들이 많았을까? 아슬아슬한 수많은 위기의 순간들과 사연들은 박노해 시인의 "잘못 들어선 길은 없다"라는 시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의 간증 소재로 조금도 손색이 없다.

나는 8남매의 막내로 태어나 가족들, 특히 어머니의 사랑을 흠뻑 받고 자랐다. 어머니는 내가 태중에 있을 때, 동네 산마루고개에 있는 나사렛교회에 출석하셨다고 한다. 그런 의미로 나는 모태신앙(?)이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전혀 없는 형식적인 크리스천이었다. 불신자보다 더 타락한 생활을 했다. 1983년 내가 서른 살 때 어머니를 여의었다. 나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다. 삶과 죽음에 대한 고뇌와 성찰이 깊었었다.

영적으로 매우 갈급한 시점에 맞추어 하나님은 나에게 영적 리더를 보내주셨다. ENM(당시 네비게이토) 선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경건한 크리스천 후배였다. 그 부부는 먼저 아내를 전남대학교 성경공부 모임에 초청하였다. 아내는 매 주일 다녀와서 선교회의 분위기와 배운 내용들을 나에게 들려주었다. 흥미로웠다. 관심이 생겼다. 선교회는 그해 크리스마스 파티에 나를 초대하였다. 많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못 이기는 척 참석하였다. 매주 아내로부터 들었던 사람과 분위기였기에 낯설지 않았다.

형제들의 환영 속에 쉽게 적응하며 성경공부에 참석하였다. 1987년 1월 7일 성경공부를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이후 삶의 가치관이 급속도로 변했다. 말씀과 동행하니, 새로운 세상을 만난 것 같았다. 술과 담배를 끊었다. 매일 밤늦게까지 성경을 읽고 새벽기도에 참석했다. 세례를 받았다. 제자훈련을 받으며 나도 영혼에 대한 사랑

과 관심이 커갔다. 동기생 부부를 권면하여 성경공부를 시작했다.

1년간 제자훈련을 받고 그다음 해 1988년 1월 나는 서울 수색에 있는 국방대학원 석사과정에 합격하였다. 신촌이 가깝기 때문에 연세대와 이화여대 네비게이토 모임에 2년간 참석하였다. 대학원 재학 중에 중령으로 진급하여 1989년 말, 졸업과 동시에 전방 대대장으로 부임하였다.

그때부터 줄곧 군대교회에서 신우회 신우부장이나 주일학교 부장으로 섬겼다. 신우회에서는 주로 병사들의 예배와 군종병들의 성경공부를 인도하였다. 주일학교에서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성경공부를 섬겼다. 장군이 되어서는 MCF(기독군인회, Military Christian Fellowship) 회장직을 수행하며 장교 및 부사관들의 양육을 성경공부와 성서적 리더십 교육으로 섬겼다. 그런 가운데 1999년 안수집사, 2008년 장로로 임직하였다. 군생활 37년 중에 23년을 말씀사역으로 섬겼다.

2.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

1) WMU(World Mission University) 입학 동기

내가 2009년 WMU에 입학하게 된 동기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말씀 공부에 대한 갈급함이다. 선교회에서도 말씀을 배우지만 주로 지상사명 성취를 위한 사역과 연관된 공부와 훈련이었다. 즉 전도와 양육 중심이었다. 학문적 갈증은 만족할 만큼 해소되지 않았다.

둘째, 전역 후 사역에 대한 준비가 필요했다. 나는 전역이 다가오면서 제2막의 인생은 말씀사역에 헌신하고 싶었다. 은사 발견 테스트에서도 사도와 목사의 은사가 가장 높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령 때, 부산에 근무하면서 고신대학교 선교대학원 치유상담학과에

입학하였다. 4학기 과정인데 2학기 수업이 끝나갈 무렵 장군으로 승진하여 서울에 있는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사령관으로 발령을 받았다. 어쩔 수 없이 휴학했다. 그때 나를 선교회로 인도했던 후배가 WMU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어 나에게 WMU 입학을 권하였다. 여러모로 시기적절하여 2009년 입학하였다.

2) 보람과 힘들었던 점

공부를 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것은 조직신학 공부였다. 신학적으로 상반된 각각의 주장을 각각의 입장에서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이 참 좋았다. 그동안은 이단사상이나 교리로 결정되면 리더나 나 스스로도 터부시하고 접근을 삼가하였다. 그러나 조직신학 공부는 각각의 이론에 대하여 학문적 정보를 제공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어서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잠깐 동안의 혼란은 더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다. 그리고 다양한 과목을 공부함으로써 보다 큰 그림 속에서 나의 사명과 비전을 확립하고 미래 사역을 설계할 수 있었다.

어렵고 힘든 기간도 있었다. 지금도 여전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과거이다. 사실 이 때문에 《사랑의 동행》 간증문 쓰는 것이 더 내키지 않았다.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도 많은 죄와 허물이 있었고 그것을 성경에 남겼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용기를 내었다.

헬라어 수업을 받을 때의 일이다. 당시 업무적으로 무척 바빴다. 공부하여 숙제를 제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마침 함께 공부하는 학우가 있어서 상의를 하고 그 친구의 답안을 복사하여 약간 수정한 후 제출하였다. 분주한 마음이 도덕과 양심을 둔감하게 하였던 것이다.

곧바로 학교 행정담당 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누구와 답안이 같아서 교수님이 부정으로 처리한다는 것이었다. 너무 부끄러웠다. 깊은 고민 끝에 학업을 포기하기로 결심하고 그 뜻을 보고하였다. 며칠 후 학생생활을 담당하시는 CH 교수님에게서 꽤 긴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 결론은 용서할 테니, 계속 수업을 하라는 것이었다. 긴 고뇌의 시간을 거쳐 학업을 계속하기로 결정하였다.

[나는 지금도 이 수업은 직업을 갖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무리한 수업이라고 생각한다. 이 수업의 목표는 헬라어 문법을 숙지하는 것보다 헬라어를 읽을 수 있는 수준과 신약성경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예, 오이코스, 카이로스 등)에 대한 해설 교육이 더 실용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가장 보람 있고 감사한 것은 졸업식을 위하여 처음 학교를 방문하였을 때 많은 분들이 환대하여 주신 것이다. 그분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우리들은 그만큼 환대하여 주지 못할 것이 뻔함을 알기에 더욱 고맙고 한편 미안하였다.

3.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1) Christian Pre-Army School(이후 CPAS로 표기함) 사역

군에서 전역을 앞두고 전역 후의 사역에 대하여 많은 기도와 고민을 하게 되었다. "경험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이 사명의 토대가 된다"고 했다. 나의 군번 3개, 주특기 5개의 경험은 어떤 사명의 토대가 될까 생각해 보았다.

내가 군대생활을 하면서 살펴보니 부대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살하는 병사가 1년에 70명이나 되었다. 5일에 1명꼴이었다. 대부분 입대 1년 이전의 신병들이었다. 그중에 크리스천 병사가 30% 이상이었다. 당시 육군 내 개신교 신자의 비율은 30.7%인데 기독교 병사들

의 사고율은 31.4%였다. 신자 비율보다 사고자 비율이 0.7% 많은 것이었다.

나는 혼란스럽고 부끄러웠다. '성도 안에 내주하시면서 위로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은 무얼 하고 계셨나? 왜 타 종교보다 자살률이 높아 믿는 지휘관들을 부끄럽게 하시나?' 기도하며 묵상한 결과 원인은 첫째, 군 입대 전에 군대에 대한 소개와 교육이 부족하였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가 상당 부분 박탈되는 군 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없었다. 둘째,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분위기에 휩쓸려 대규모 진중 세례에 참여한 병사들은 대부분 양육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었으나 사실상 복음을 깨닫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병사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그래서 나는 다양한 군생활의 경험을 살려 입대 전 청년들을 교육시키고 싶었다. 가칭 Christian Pre-Army School(CPAS)을 설립하고자 하는 꿈을 가졌다. 상설 학교가 어려우면 강사로서 직접 각 교회를 찾아갈 계획이었다. 이 사역을 위해 두 가지를 준비하였다. 첫째, 군선교복음화위원회와 국군 군종단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6회 한국교회 군선교 신학 논문 모집에 "Christian Pre-Army School(CPAS) 운영을 통한 군선교 활성화 방안"으로 응모하였다. 장려상을 받았다(2007. 10). 둘째, CPAS 교육에 사용할 교재로 《군대 가기 전에 꼭 맞아야 할 예방주사》라는 책을 출판하였다(2012. 6).

전역을 한 후 CPAS 사역을 시작하였다. 청년부가 있는 교회에 책을 보내며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수십 교회의 문을 두드렸으나 의외로 응답이 없었다. 어쩔 수 없이 그동안 인연이 있는 군대교회를 방문하여 이미 입대한 병사들을 대상으로 교육하였다.

그러다가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었다. 한국 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원주) 전문경력직 초빙교수를 신청하였다.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하였다(2013. 6).

내가 객원교수로 초빙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였다. 사연을 부연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나는 상무대라는 곳에서 마지막 군대생활을 하였다. 상무대는 5개 병과학교가 통합주둔하며, 8명의 장군이 근무하고 있는 곳이다. 5개 병과학교 장병이 모두 상무대교회에 출석하는데 장로는 나 혼자였다. 그래서 내가 5개 병과학교 기독 장병 모임인 MCF 회장이 되었다. 8명의 장군이 같은 빌라에서 거주했다. 내가 부임하기 전에는 장군 빌라에 구역예배가 없었다. 나는 장로의 권위로 구역예배를 성경적 리더십 토의로 드리자고 제안하였다. 4명이 동의하여 매주 1회 공부(토의)를 하였다. 멤버 중 한 사람인 N준장이 '육군 리더십 센터장'으로 발령을 받았다.

N준장은 전역하여 예비역 1년차인 나를 '2011년 육군 리더십 세미나'에 메인 연구발표자로 초청하였다. 능력이 없다고 거절하니 그동안 함께 토의했던 내용을 기초로 논문을 쓰면 된다고 용기를 주었다. 그래서 그해 9월 "고급제대 지휘관의 리더십 발전방향"이란 논문을 완성하여 발표하였다. 그런데 그 연구논문과 발표 경력을 연세대에서 인정받아 교수로 초빙된 것이다(2013. 6). 담당 과목은 리더십과 조직관리, 인간관계론 두 과목이었다. 3년은 객원교수, 4년은 강사로 복음적 강의를 하였다. 연세대 교수와 목사라는 자격으로 중앙신학대학교 대학원 최고위 과정 강사로 초빙되어 '성서적 인간관계와 리더십'이란 과목을 교육하기도 하였다(2014).

나는 CPAS 사역을 위해 정경대학 홈페이지에 계획을 올리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다렸다. 인터콥 선교회 4명의 학생만이 참석하였

다. 기대 이하의 참석으로 실망하였다. 그시기에 원주 1군사령부 통일대교회의 N담임목사님(대령)과 교제할 기회가 있었다. 대화 중에 목사 안수 받은 것을 말하였다. N목사님은 마침 1군사령부 신우(병사)들이 예배드리는 영내교회를 전담할 목사가 공석이니 내가 맡아주길 요청하였다. 영내교회는 군목(대위)이 담당하였었는데 목사 인가 인원수가 줄면서 공석이 되었다. N담임목사님이 영내와 영외를 오가면 힘들게 사역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2015년 1월부터 통일대 영내교회 신우회 사역을 내가 담당하게 되었다.

2) 통일대 영내교회 신우회 사역

1군사령부를 통일대라고 부른다. 통일대에는 영외교회와 영내교회 2개의 교회를 운영한다. 영외교회는 부대 밖 군인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하여 간부들과 가족들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담당한다. 담임목사는 군종참모(육군대령)이다. 영내교회는 부대 안에 위치하여 영내 생활을 하는 병사들을 대상으로 예배드리고 양육을 담당한다. 영외교회 담임목사의 통제와 지원을 받는다. 내가 담당한 교회가 바로 이 영내교회이다.

영내교회는 주일 예배에 병사들이 약 150명 정도가 출석하며 약 20-30명의 교사(대위로부터 준장까지의 현역과 부인들로 편성됨)들이 단위대별로 나누어 양육을 담당한다. 나는 5년간 목회를 하면서 너무 넘치는 지원을 받아서 행복하였으나 한편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목회하는 대대급 목사님들에게 너무 미안했다. 나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 9:8)는 말씀을 진심으로 신뢰하고 감사한다.

하나님은 천지창조 때, 다섯째 날까지는 아담에게 필요한 모든 것

을 만드시고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여섯째 날 아담을 지으셨다. 나에게도 그리하셨다. 먼저 manpower로 통일대교회 내에서 제일 믿음 좋고 유능한 분들이 신우회 교사를 지원하셨다. 신우부장은 대부분 장군이거나 재직 중에 장군으로 승진하였다. 첫 신우부장은 준장으로 예편하셨고, 또 한 분은 현재 소장으로 ○○사단장에 재직 중이시며, 또 한 분은 중장으로 ○군단장에 재직 중이시다. 물질적인 것도 풍족하게 지원되었다. 교회시설 및 장비물자도 최선이었다. 시설보수 등을 계획하는 공병부장(준장)과 실제 보수 공사 등을 담당하는 근무단장(공병 대령)이 교사였다. 말하지 않아도 필요를 찾아서 적극 조치하였다.

군대교회 민간 목회자의 정년은 만 65세이다. 젊은 청년들과 정서적 소통 등을 고려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은퇴 정년에 맞추어 내가 섬기는 1군사령부와 3군사령부를 통합하여 지상작전사령부를 만드셨다. 내가 사역하는 1군사령부가 해체되었다. 그 자리에는 규모가 작은 다른 부대들이 들어왔고, 그 부대의 군종장교가 영내교회를 인수하였다. 그래서 나는 2018년 6월 16일 퇴임예배를 끝으로 통일대교회 사역을 마쳤다.

3) 통일대교회 은퇴 후의 사역

통일대교회 은퇴한 것을 아는 J후배 목사(대대급 교회인 백마소망교회 담임)가 눈 건강이 좋지 않아 도움을 요청하여 왔다. 그래서 월 1회 설교로 섬겼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하여 영내 출입이 제한되어 지금은 쉰다. 그리고 사관학교 동기생의 애절한 가정사를 듣고 맨투맨 성경공부로 돕고 있다.

간간이 군대교회에 초빙설교를 한다. 나이가 들면 설교 시 발음이 어눌해지고, 기승전결이 없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 또한 그럴

것이 분명하여 아주 조심스럽게 응한다. 올 4월에는 세종시에 있는 ○○사단교회 MCF 예배에 특별설교를 하였다. 8월 예정된 성경사경회 인도를 부탁받았다.

군에서 전역한 후 우리 가족은 집에서 가까운 지구촌교회(수지)에 출석하였다. 나도 교회 목회를 하기 전에는 호칭장로의 직분으로 목장교회를 섬겼었다. 지금은 은퇴하였기에 다시 지구촌교회 목장으로 돌아와 장로로서 봉사하고 있다. 요즈음은 시간이 여유로워서 명시(名詩)에 대한 시평(詩評)을 썼다. 지구촌교회에서 발행하는 〈지구촌비전〉이라는 월간지 4월호 사색의 창에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란 시의 詩tory telling(내가 만든 용어)을 실었다. 연재를 부탁받아 5월호에는 랄프 왈도 에머슨(Ralph Waldo Emerson) "무엇이 성공인가?", 6월호에는 조동화 시인의 "나 하나 꽃피어"가 예약되어 있다. 지구촌교회 홈페이지 〈지구촌비전〉을 통하여 읽어볼 수 있다.

4. 마무리 글

지난 삶을 돌아본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 서자로 태어났다. 초등학교 시절 찢어지게 가난하여 강냉이 죽을 타 먹고, 영양실조도 걸리고, 염병이라고 불리는 장티푸스로 죽을 고비도 넘겼다. 남들은 교복 입고 중학교 다닐 때 마차도 끌고, 오징어잡이 배도 탔다. 청소년기엔 불량학생이었고, 사관생도 때는 퇴교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그런 내가 예수님을 만난 후로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었다. 언감생심 꿈도 못 꾸던 장군, 교수, 목사라 불리게 되었다. 그러고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고 계신다니, 하나님의 이 망극한 은혜를 어찌할까 싶다.

인생에 결정적 만남이 있었다. 나에게는 지금까지 세 번 있었다. 첫 번째는 1973년 3사관학교를 만나 육군 장교가 된 것이다. 육군에서 37년간 자랑스러운 복무를 하고, 군대교회에서 말씀사역을 23년간 하였다. 두 번째는 ENM(네비게이토) 선교회를 만나 주님을 영접하고 말씀과 사역을 배운 것이다. 많은 신앙의 롤모델을 만났기에 그 분들의 삶을 흉내 내며 살아갈 수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WMU를 만나서 신학을 배우고 목사가 된 것이다. 목사가 되었기에 매주 수많은 영혼들에게 맘껏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다. 대학교 강단에서 성서적 인간관계와 리더십을 강의할 수 있었다.

올해 한국 나이 70세가 되었다. 모세는 사람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해야 80이라고 말하고, 자신은 80부터 사역을 시작하였다.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16년(아라비아 3년, 다소 13년)이 지나서 안디옥 교회 목회를 시작하고, 노년에 세계선교(1, 2, 3차 전도여행)에 헌신하였다. 나는 우리 가족 남자들 중에서는 가장 오래 살고 있다.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지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나 바울처럼 다 끝나가는 나이에 다시 부르시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과 기대가 있다. 정말 어쩔까? 오늘의 내가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과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권헌 목사의 사역 사진

유럽에서 품은 일본 무목교회

• 이상필 목사 (MDiv '14) 일본

"정말이라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너도, 나도 만드셨다니까…."

시끌벅적한 중학교 교실 앞에서 위정칠이라는 친구가 내게 던진 말이다. 중학교 1학년 같은 반이었지만 말도 몇 번 섞지 않았던 친구가 갑자기 중요한 할 말이 있다면서 내게 한 말이었다. "미친놈…" 그렇게 말을 던지고 돌아섰고, 그 후 정칠이는 내게 더 이상 그런 말을 꺼내지도 못했다.

나는 불교를 믿으시는 어머니 아래서 자랐다. 그렇다고 우리 가족 모두가 불교신자는 아니었다. 그저 어머니를 따라 절에 몇 번 가보았고, 그곳에서 절을 하는 어머니를 본 것이 전부였다. 절에 갈 때마다 느낀 것이지만 나는 절 입구에 있는 사천왕상도 싫었고, 대웅전의 불상도 싫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사천왕상의 부리부리한 눈이 싫었고, 부처의 가는 눈이 싫었다. 더 싫었던 것은 아침마다 들리는 어머니의 기도소리였다. 중얼중얼하는 그 소리가 아침마다 나를 깨웠고,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늘 짜증스러웠다. 집의 문 위마다 붙어 있는 부적들도, 실타래에 묶여 있는 북어도, 때때로 치러지는 고사도 정말 싫었다. 그래도 어머니 앞에서는 싫은 내색을 전혀 하지 않는 그저 착한 아들이었다. 그랬던 내게 던진 정칠이의 말 한마디는 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큰 파장을 일으켰다.

어릴 적 기억 저편 언저리에 한 장의 사진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었다. 동네 교회에서 야외극장을 만들고 영화를 보여주었는데, 그 장면 중 잔칫집에서 웃고 있는 머리가 긴 청년의 모습이었다. 예수라고 했다. 정칠이가 던진 말은 이 기억을 저편 언저리에서 나의 생각의 중심으로 끌어다 놓았다. 그러나 쉽사리 지고 싶지 않았던 내게 1년 반이 지난 후, 결정타가 찾아왔다. 중학교 2학년 겨울 방학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TV에서 "나사렛 예수"라는 영화를 했고, 나는 그것을 다 보게 되었다. 정칠이가 내게 던진 한마디가 내 마음에 떨어져 뿌리를 내렸고,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었다. 정칠이는 알았을까? 자기가 뿌린 씨앗이 어디에 떨어졌는지를….

실제로 가족 모두가 교회에 발을 들이기까지는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다. 중 1 때 처음으로 들은 말이 고 1이 되어서야 열매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것은 고 2 때였다. 수련회라는 것을 처음으로 갔다. 그것도 친구 교회의 수련회에…. 작은 교회의 수련회였기 때문에 학생 수는 20여 명 남짓 되었다. 첫날 저녁집회 후에 담당 선생님은 종이를 한 장씩 나눠 주며 그간 자신이 지은 죄를 적어 보란다. 웃음이 났다.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억지로 기억을 짜내서 중학생 때 거짓말 한 번 한 것을 적었다. 그렇게 연필만 만지작거리고 있는 나와 달리 다른 친구들은 열심히 적어 내려갔다. 한 친구는 앞뒷면을 빽빽이 채우고도 모자라 종이를 한 장 더 달란다. "나쁜 놈…."

자기의 죄를 모두 적고 난 후에 선생님이 그 죄들을 회개하는 기도를 하자셨다. 친구들을 돌아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너희는 밤을 새워도 다 못하겠다.' 그러나 정작 그날 밤을 새워도 다 못한 것은 나였다. 적기는 한 줄을 적었지만 나의 머릿속에서는 온갖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나는 밤새 눈물을 흘리며 데굴데굴 굴러야 했다.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

이전의 나는 항상 모범생이었다. 아니, 엄밀히 말하자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나의 모습은 늘 모범생 같아 보였다. 그러나 나의 내면은 그렇지 못했다. 나는 늘 자기의로 가득 찬 생활을 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다. 내가 원하는 것을 최우선으로만 생각했고, 그렇게 생활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그날 이후, 나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주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먼저 묻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생활하기 시작했다. 그 생활이 이어지면서 군대에서는 군생활 30개월 중 22개월을 군종병으로 사역하였고, 전역 후 대학에서는 기도모임을 만들어 학우들과 함께 기도하는 일에도 힘쓰게 되었다. 이 모든 일들이 나의 의지를 따른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와 응답을 통해 이루어진 일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마칠 무렵,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으나 전공했던 성악 공부를 더 하고 싶어 유학의 길을 선택했다. 내가 간절히 원했던 부분이라 주님께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를 기도하며 강행했다. 그렇게 시작된 밀라노 유학생활 중에 아내를 만났다. 아내는 목사의 딸이었다. 그래서인지 대학 시절부터 목사후보생들 소개나 선이 많았다고 한다. 사모가 되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던 아내는 도망치듯 밀라노로 유학을 왔고, 노래하는 나를 만나게 되었다. 물론 나는 결혼 전 아내에게 주님의 부르심과 성악공부 후에는 목회의 길을 가고자 한다는 말을 했으나 아내는 그 말을 애써 외면했다. 결혼 후 가정을 위해 공부와 일을 병행하면서 목회에 대한 나의 갈망은 점점 심해졌지만 반대하는 아내가 동의할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기로 했다.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집 근처에 오신 담임목사

님을 집으로 모셔 차를 나눌 기회가 되었는데, 그날 담임목사님이 아내에게 주님께서 부르신 소명에 대한 말씀을 하시게 되었다. 그날 이후 아내는 일주일이 넘는 시간을 매일 눈물로 살았다. '혹시 저러다 큰일 나는 것은 아닐까….' 결국 아내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나는 당당히 주님의 부르심에 응할 수 있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 학비였다. 일은 해도 생활비로 들어가 버리고 학비가 모이지 않는 것이었다. 그렇게 한두 해가 지나게 되어 너무 답답한 나머지 이렇게 기도했다. "주님, 당신이 부르셨으니 당신이 책임지세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주님이 받아주셨다. 당시 밀라노한마음교회의 운영위원들이 이런 나의 사정을 알고, 운영회의를 통해 밀라노한마음교회에서 학비 전액을 부담하기로 결의했다는 내용을 전해 주었다. 물론 이 내용은 제직회와 공동의회에서도 인준이 되어 학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자, 이제 시작이다. 그런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지?' 당시 밀라노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밀라노에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유럽의 여러 학교도 알아봤으나 반드시 이주를 해야 하는 등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밀라노에 계신 한 분이 미국의 한 학교를 통해 공부하셨다며 알려주셨고, 그 학교에 등록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아뿔사' 학업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 지정해 주는 책 몇 권 읽고 레포트를 제출하는 것으로 학위를 주는 것이었다. '이게 아닌데…' 참 답답하고 난감했다.

그러던 차에 알게 된 학교가 바로 월드미션대학교였고, 이 학교에서는 원격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생각에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았다. 그렇게 알아본 후 등록하여서 2010학년도 가을학기부터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다. 처음으로 학기를 시작하기 전, 미국으로부터 밀라노 집으로 도착한 소포가

있었다. 그 속에는 공부해야 할 강의안, 강의 CD, 읽어야 할 책 등이 동봉되어 있었다. 한인사회가 아직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밀라노에서 한국 서적을 찾기란 쉽지 않았다. 그런데 요청만 하면 미국에서 보내주는 것이 너무도 인상적이었다. 책도 인상적이었지만 무엇보다 강의 CD가 인상적이었다. 강의실에서 녹화된 것으로, 함께 강의실에 있는 착각이 들게 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은 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강의 후에는 온라인을 통해 곧바로 테스트를 해서 수업의 이해도를 측정해 볼 수 있는 점 역시 좋았다.

또 하나는 기말시험이었다. 시험을 어떻게 보려나 참으로 궁금했는데, 밀라노에서 시험감독을 선정하면, 그분에게 시험지가 도착했고, 시험 보기로 한 날 시험감독의 입회하에 시험을 보는 것이었다. 시험이 끝난 후에는 시험감독이 시험지를 가져가서 학교로 보내는 방식이었다. 이런 과정을 보면서 학교의 성의가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목회학의 필수과목인 조직신학 또는 성서신학 등을 공부하면서 다양한 신학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편협하고 편파적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셨다. 나름 신앙적으로 보수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었기에 근대 이후의 신학적 사상들에 대해서는 비판하기 바빴다. 그러나 학업을 진행하면 할수록 나의 생각이 얼마나 좁았던가를 실감할 수 있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다. 신약개론의 독서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읽은 책이 전혀 공감되지 않았다. 심지어는 책을 읽다가 하도 답답해서 집어던진 일도 있었다. 그래도 독서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니 꾸역꾸역 다 읽고, 온갖 악평의 독서보고서를 만들었다. 악평만 해댔으니 적당한 분량이 나오기도 만무했다. 보고서 점수가 형편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며 제출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담당교수께서 점수를 상당히 후하게 주셨다. 그리고 달아 놓으신 코멘트는 이랬다. “저자에 대한 반대의 입장이 좋았습니다. 다만, 반대할 만한 근거들을 제시할 수 있는 도서나 자료의 각주가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담당교수께서 마주보고 말씀하셨다면 창피해서 얼굴도 못 들었을 것 같았다. 결국 나의 편협한 생각만 드러낸 꼴이 되고 말았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다양한 관점으로 사고할 수 있는 폭이 더욱 넓어지게 되었다.

공부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다. 매일 교회에 출퇴근해야 했고, 감당해야 할 사역도 적지 않았다. 특히 이태리어가 가능하다 보니,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이태리 교단과 관련된 일들, 임대하여 사용하는 이태리 교회와 관련된 일들, 때론 담임목사님의 서류나 자녀들의 학교 면담에 참석하는 일 등, 해야 할 일들이 많았다. “손오공의 분신술이 필요해….” 일이 겹칠 때마다 농담처럼 외치던 말이었다.

그렇게 하루 일과를 보내고 저녁에 퇴근해서는 식사를 마치자마자 쉴 새 없이 책상에 앉아 공부를 했다. 매일 밤 2-3시에 잠자리에 들고 이튿날 아침에 출근해야 했다. 특히 마지막 두 학기는 교회에 새벽기도회가 신설되면서 잠시 쪽잠을 자고 교회로 달려가야만 했다. 분명히 몸은 힘들었다. 그런데 성경을 석의하고 해석하며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겨질 수 없었다. ‘목자는 양들을 위해 좋은 꼴을 준비해 먹여야 한다’는 생각이 더욱 깊어지게 되었다.

밀라노에서의 사역은 정확히 10년이었다. 그 10년간의 주된 사역은 행정과 주일학교였다. 특히 주일에는 청소년부와 아동부 설교를 도맡아 했다. 아이들의 특성상 설교 본문, 설교 내용, 전달 방식 등

모든 것이 달랐다. 매월 1회는 청년부 설교도 해야 했고, 새벽기도 인도 주 2회, 주말설교 월 2회 등 설교 준비에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아부었다. 간혹 이태리 목사님의 초청설교가 있을 경우 동시통역을 했으며, 한 건물을 사용하는 이태리 교회 20주년 행사에서 담임 목사님을 대신해 이태리어로 설교하기도 하였다. 행정적인 부분에서도 교회가 설립된 후 정리되지 않았던 자료들을 모아 교회의 연혁을 만들고, 성도들의 교적부를 만들어 관리하였으며, 성도들의 등록 및 출결상황 등을 토대로 연도별 변동사항을 점검하여 목회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만들고, 재정의 편의를 위한 양식 등을 만들어 사용하도록 하였다. 특히 이태리 교회와 주고받는 문서 및 재정의 소통 역할을 하며 이태리 교회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데도 일조하였다.

밀라노의 사역이 아주 익숙해진 2018년 5월, 정말 우연치 않게 일본의 무목교회에 관한 뉴스를 접하게 되었다. 무목교회란 교회 건물이 있고 출석하는 성도들은 있는데 목사가 없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었다. 목사가 없다 보니 출석하는 교인의 수도 적어지고, 설상가상으로 젊은이들은 교회를 찾지 않아 노인들만 교회를 지키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었다. 그나마 지역의 목사가 몇 교회를 순회하며 설교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었고, 순회하는 목사님들도 이미 연세가 많은 상태였다. 심지어 90세를 넘겨도 은퇴를 못하는 목사님도 다수였다. 그와 같은 일본 무목교회의 상황을 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 새로운 사역의 시작이 되고 말았다. 기도할 때마다 그들이 마음에 밟혔고, 목자 없는 양과 같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맴돌았다.

그렇게 혼자 기도하던 중 7월에 가족들에게 선교사역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가족들이 너무도 쉽게 동의를 하는

것이었다. 밀라노 생활 20년이 넘었고, 일본으로 간다면 언어 및 준비해야 할 것이 너무도 많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족들은 너무도 당연한 듯 동의를 해준 것이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일을 위해 기도하던 중, 일본 무목교회에 선교사를 훈련시켜 파송하시는 목사님이 일본선교에 대한 생각이 혹시 있는지 나에게 의견을 물어오신 것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라 여겨 밀라노의 사역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교회와 수많은 지인들이 아쉬워하였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순종해야 하지 않겠냐며 기꺼이 수긍해 주셨고, 2018년 11월 30일, 22년 6개월을 살았던 밀라노를 뒤로하고 한국으로 향하였다.

한국에 도착한 우리가 정착한 곳은 부산이었다. 이곳에서 훈련을 받아야 했기에 거할 곳을 마련한 후 일본어학원에 등록하였다. 한국사람들은 일본어 공부하기가 쉽다고 했지만 이태리 생활이 길었던 내게는 오히려 어순이 적응되지 않아 고생을 했다. 수시로 주어 다음에 동사가 튀어나오는 바람에 말을 하는 데 쉽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일본어 설교였다. 이제 일본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매주 설교 한 편씩을 일본어로 번역해야 했다. 그렇게 준비된 설교를 읽고 수정하기를 반복하며 설교 훈련을 했다. 매일 일본어 성경을 10장씩 읽으며 성경의 내용을 일본어로 숙지하고, 노트에 일본어 성경을 필사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해야만 했다. 주일에는 일본어 예배를 참관하고, 심지어는 그 예배에서 일본어 설교를 하기도 했다. 그렇게 8개의 설교가 준비되면서 한 학기가 마무리되었고, 여름방학은 일본 현지 교회로 가서 2개월간 실습을 해야 했다.

도쿄에 위치한 도쿄 고백교회에서 1개월, 그리고 기타큐슈에 위치한 오리오 교회에서 1개월을 실습했다. 각 교회에서 주일설교와

수요일 설교, 그리고 성찬식을 인도했다. 모두 일본어로 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녹록지 않았지만, 매일 읽고 연습하기를 반복하며 준비하고 주일과 수요일을 맞이하였다. 그렇게 두 달의 실습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곧바로 다음 학기 수강을 하였고, 또다시 반복훈련이 된 후, 겨울방학에 규슈 후쿠오카에 위치한 치쿠시노 교회에서 2개월간의 실습을 하였다.

겨울의 실습은 여름과 달리 치쿠시노 교회를 중심으로 후쿠오카 죠난 교회, 쿠루메 교회, 사가 교회, 야나가와 교회, 시모노세키 교회, 나가사키 교회, 시메 교회, 고쿠라 교회 등을 순회하며 설교 및 성찬식을 집례하였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새롭게 설교를 만들어 번역해서 촛불예배를 드리기도 하였다. 그렇게 바쁜 일정을 마치고 연말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일본으로 들어가기 위해 날짜를 기다리며 비자를 준비해야 했다. 이때까지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그런데 이듬해인 2020년, 흉흉한 전염병의 소식이 번지기 시작했다. COVID-19였다.

갑작스럽게 모든 것이 멈춰 버렸다. “주님,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막막하기만 했다. 지난 1년을 쉴 새 없이 달려왔는데, 갑자기 멈춰서는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매일 COVID-19 상황을 뉴스로 접하며 기도할 수밖에 달리 길이 없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일본사역 훈련을 시키던 원장님이 꼭 일본에 가지 않더라도 후방에서 지원사역을 할 수 있으니 함께 사역하는 것은 어떤지 의견을 물으셨다. 아쉬움이 많았던 탓인지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어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더 기다려 보기로 하였다. 그러나 COVID-19는 그칠 줄 모르고 더욱 심각해졌고, 기다리는 시간도 길어져 더 이상 기다리는 것도 무모하다고 생각되었다. 원장님은 그 사이 몇 차례 권유를 하셨고, 결국 원장님을 도와 일본 선

교사역을 후방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원장님이 섬기는 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길 수 있는 기회까지 주어져 감사함으로 사역에 임하고 있다.

지금 비록 이곳 부산에 정착해서 일본 선교를 위한 지원 사역을 하고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후의 일본을 향한 사역을 준비하고 계시리라 믿는다. 성악을 전공한 탓에 일본에서 노래를 부를 기회가 조금 있었다. 이태리에서의 생활과 음악이라는 도구가 그들을 만나는 접점을 만들어 주는 훌륭한 도구였다는 것을 경험하며, 일본에서 있을 음악적 사역에 대한 준비도 계획하고 있다. 반드시 현지에 머물지는 않더라도 여건이 되는 한 일본의 선교지를 방문하며 일본의 선교사들, 그리고 현지의 목회자들과 네트워크를 이루어 사역의 장을 넓혀가고자 한다.

목회자로 잘 준비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바탕을 만들어 준 월드미션대학교, 첫 사역지인 밀라노한마음교회, 일본선교의 꿈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 준 호도스 신학원과 일본의 현지 교회들, 그리고 현재의 사역지인 부산고백교회 모두가 내게는 소중한 곳들이다. 지금의 내가 있도록 섬겨 주신 모든 분들과 가족, 그리고 무엇보다 창세 전부터 나를 택해 주시고 사랑으로 늘 동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린다.

이상필 목사의 사역 사진

도쿄 고백교회 성도들과

기타큐슈 오리오 교회 성도들과

하기 일본 현지사역 보고회

후쿠오카 치쿠시노 교회 수요기도회

후쿠오카 치쿠시노 교회 성도들과

쿠루메 교회 앞에서

성서 아프리카

• 이재일 선교사 (MDiv '19) 남아공

1. "내가 곧 길이요"

저는 1959년 광주에서 출생하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자식만 많이 낳는다고 구박하는 바람에, 어머니가 태중에 있는 저를 지우려고 했었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저를 불쌍히 보시고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부모님을 따라 절에 다녔습니다. 매년 5월이면, 석가탄신일에 서천사라는 절에 가서 거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높은 산과 맑은 물이 흐르는 곳에 위치한 사찰은 저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었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불교학생회에 가입하여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가을에는 전국 명산에 있는 절들을 방문하는 사찰순례를 하면서 친구들과 다도회, 참선 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1978년 대학 1학년 여름방학 때 친구들과 해인사를 방문하여 한 암자에서 일주일간 사찰생활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절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학승으로부터 수계를 받았습니다. 밤새 친구들과 율무 염주로 횟수를 세어가면서 3000배를 하고, 다음 날 아침 성철 스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고,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뜬구름 잡는 듯한 불교의 가르침은 저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대학 입학 후 줄곧 인생의 허무함 때문에 친구들과 호주머니의 돈이 떨어지고 몸이 쓰러지기까지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보다 못한 아버지는 빨리 군대에 가라면서 작대기로 매질을 하셨습니다. 결국 저는 지원병으로 군에 입대하기 위해 혼자서 논산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 창밖을 내다보며, 해답이 없는 인생에 대한 절망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제대할 즈음에 부천시의 어느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전도사님이 우리 부대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을 모두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밝은 얼굴, 희망차고 힘 있는 목소리는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제대하면 교회에 한번 가보리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1982년 제대를 한 후, 다시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여 서울에서 자취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을 떠나 혼자 있게 되었을 때,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자유로운 일이었습니다. 자취하는 집에서 가까운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출석하게 된 교회는 성경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선배 중 한 분과 창세기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마음이 평안해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인생의 허무함 속에서 살아왔던 나에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다는 것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불안한 내 인생을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절대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처음으로 저의 인생에 희망이 빛이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성경공부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이어갔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수양회를 준비하면서 차츰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끊게 되었고, 허무함 속에서 시간을 낭비하던 습관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캠퍼스에 올라가 성공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후배들에게, 쾌락을 좇아가고, 또 정부를 향해 데모하는 후배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저는 대학교의 문리대, 미대, 법대생들을 교회에 데리고 와서 성경을 놓고 대화도 하고 복음도 전하였습니다. 대학교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방황하고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영생의 샘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이 자연스런 하루 일과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전에는 무가치해 보이던 저의 인생이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여겨졌습니다. 또한 그들이 예수님의 죄 사함의 사랑과 은혜를 영접하고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았습니다. 그들은 계속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여 나중에 중국으로, 남아공으로, 독일로 출발하는 선교사가 되기까지 헌신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교회를 섬기는 동안, 무엇을 위해 나의 인생을 드릴 것인가 하는 분명한 방향이 생기게 되었고, 허무함이나 절망이 나의 생각 속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영혼을 향해 선포하셨습니다.

> "내가 곧 길이요"(요 14:6).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길을 찾았을 때 모든 것이 새로웠고, 더 이상의 방황이나 허무함 없이, 교회의 형제자매들과 매일 기쁨 속에서 지낼 수 있었습니다.

2.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는 1990년 아프리카 말라위에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자비량 선교사로 생활했습니다. 말라위는 원조를 받아 살아가는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수도인 릴롱궤는 그 나라의 수도였지만 차도에 빨간색, 녹색 신호를 주는 교통신호등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 수도인데도 4년제 대학이 하나도 없었고, 보건전문대가 있어서, 그 캠퍼스를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전도했습니다.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을 때, 학생들의 고향 마을에 들어가서도 전도했습니다. 식사를 하기 위해 10명이 넘는 형제들이 땅에 앉아서, 한 대야에 담긴 물에 모두가 손을 씻으면, 이미 물은 연탄물처럼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옥수수 가루로 만든 한 개의 큰 빵을, 돌아가면서 손으로 조금씩 뜯어 먹을 때, 아프리카 영혼들에 대한 애정이 조금씩 마음속에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1992년에는 한국에 가서 결혼을 한 후, 아내와 함께 선교를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갔습니다. 이곳에서도 말라위 선교지에서 했던 것처럼 계속하여 자비량 선교를 하였습니다. 수도인 프리토리아에서 프리토리아 대학생들을 상대로 전도하였습니다. 직장이 끝난 오후에 캠퍼스에 가서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토요일에 그들과 성경공부를 하고, 일요일에는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차츰 형제들이 많아지므로, 캠퍼스 안의 서클룸을 사용할 수 있었고, 전도와 초청이 쉬워졌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고 학생들을 위해 성경공부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성경 중에서 선택한 본문을 읽고, 주제별로 문단을 나누고, 그것을 기초로 문제를 만듭니다. 한 학생을 일대일로 만나서, 그 문제지를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한 후에는, 학생

에게 그 성경 본문에 대하여 자신이 관찰한 것을 쓰게 하고, 본문에 비추어 자신의 생활을 반영하는 내용을 쓰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의 죄들이 무엇이고, 그런 죄들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왜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죽으셨고, 그리스도가 되시는지 알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프리카 청년들의 문제는 '아버지의 부재'입니다. 그들의 인생에 기둥이 되고 규범이 되어야 할 아버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 신학자들의 말대로 아프리카 기독교의 모습은, 광대할 만큼 넓게 펴져 있으나, 실제적인 믿음은 아주 얕은 모양의 기독교라고 합니다. 이는 아프리카인들이 출생과 성장의 과정에서 아버지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아버지는 돈을 벌기 위해 도회지로 나가서 생활하고, 그곳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기 쉬운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빼앗긴 자녀들은 할머니의 손에 자라기도 하고, 친척의 손에 맡겨지기도 합니다. 열악한 시골에서 누군가 정말 책임을 지고 교육할 수 있는 기관이나 사람이 없습니다. 인생에 근간이 없이 자란 세대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앙을 갖추기가 어렵고, 혹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도 인도자의 권위를 인정하지도 않고,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살아갈 소원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아프리카인들과 교제하면서 선교를 하는 세월 동안, 가족과 함께 모여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직장생활과 선교사역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자녀들은 문화가 다른 나라에서, 부모의 보호와 관심마저 부족한 상태로 성장기를 지냈습니다. 돌이켜보면,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선교사가 되었어야 했는데, 왜 현지인들에게만 시간을 다 사용해 버리고, 집에 있는 자녀들을 남처럼 여겼을까 하는 후회가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인생도 축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생각

하며, 믿음으로 그날들을 기다립니다.

아내와 저는 현지인 대학생들을 전도하고 양육하면서, 가난한 그들을 위해 먹을 음식을 준비해 주고, 공공교통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을 항상 차에 태우고 다녀야 했습니다. 제자양육을 위해 수년 동안 그들과 함께 공동생활을 하였습니다. 학비가 없는 학생들에게 학비를 주고, 배가 고픈 학생들에게 용돈을 주었습니다. 직장에서 받은 월급을 쪼개어 그들과 나누어 먹고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기보다 행복한 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는 일들은 모두 가치가 있고 만족함을 주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민들은 빈부의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늘 도둑이나 강도의 위험이 상존합니다. 어느 토요일 오전에 시내를 걷고 있을 때, 흑인 세 명이 다가와 칼로 위협하고 돈을 가지고 달아났습니다. 그로부터 수년 후에는 집에 있는 모든 것을 털렸습니다. 잠깐 집을 비운 사이에, 강도들이 대문을 열고 차를 가지고 들어와서 모든 것을 싣고 가버렸습니다. 한 선교사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우리 집에 주차해 놓았던 차까지 도둑질해 갔습니다. 이때 마음이 어려워지고 이들이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그때도 예수님의 은혜가 차츰 저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다시 그들을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을 생각하면, 그들이 어떻든 다시 사랑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곳 경찰의 범죄 사건의 검거율은 10퍼센트 미만이라, 이런 사건이 해결될 기미가 없고, 그들의 부패도 심하여 공정한 결과를 기대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캄캄한 밤이면 차가 없는 형제들을 나의 차에 싣고 그들의 집이나 버스정류소에 데려다 주어야 합니다.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 형제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였

고, 저희와 함께 동역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선교사들과 성경공부를 하고, 그것으로 집에서 직장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성경공부를 해줍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여섯 가정이 도착하여 함께 선교사역을 이루었고, 남아프리카공화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형제들을 파송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케이프타운, 요하네스버그, 더반에 동역자들을 보내어 그곳에서도 개척하게 하셨습니다.

성경공부를 해왔던 학생들은 현재 사회의 곳곳에서 신자로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고 있습니다. 아비아(Abia) 형제는 경찰에서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테판(Stephens) 형제는 산업부의 공무원입니다. 이노센트(Innocent) 형제도 시청에서 근무합니다. 르필위(Refilwe) 자매는 의사입니다. 엠포(Mpho) 자매도 의사이며, 미다(Midah) 자매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저스티스(Justice) 형제는 물류회사 매니저이며, 여러 형제들이 회사의 회계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자매들은 대학교 1학년때부터 우리 교회에 나와서 성경을 공부한 자들입니다. 사람들마다 아프리카의 희망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희망은 물질이 아니며, 많은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3.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딤전 4:15)

2014년경에 우리 교회의 멤버이신 서요한 박사로부터, LA에 소재하는 World Mission University의 MDiv 과정을 공부하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직장생활과 선교사역으로 이미 바쁘게 살고 있는데, 대학원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2015년에 일단 등록을 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을 때 차츰 알 수 없는 힘이 붙

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들의 학생들을 위한 중보기도와 단계마다 친절한 안내가 힘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특히 헬라어 과목을 가르치신 남종성 교수님의 열정이 기억에 남습니다. 과거에도 늘 해보고 싶었던 헬라어라서 기대는 많았으나, 실제로 시작하니 좀처럼 따라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의 수준 높은 강의교재가 도움이 되고, 격려와 칭찬이 힘이 되어 학점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번역본 성경들이 있지만, 헬라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은 큰 유익이 됩니다. 성경을 깊이 알고자 하는 소원과 함께 현재도 매일 헬라어를 조금씩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때 배웠던 공부가 발판이 되어, 날마다 헬라어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설교의 전달 면에서의 성장입니다. 저는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도착한 후, 거의 30년간을 매주 영어 설교문을 작성하였고, 전달하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엄청난 영어설교가가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설교문 작성도 어렵고, 설교를 전달하는 과정도 저에게는 엄청난 짐이 됩니다. 설교문 작성은 월요일부터 매일 끙끙거리며 주일날 아침까지도 힘들어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설교문 작성이나 설교 전달 부분에서, 임성진 교수님의 가르침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설교 전달은 저에게 늘 어려웠던 것인데, 그 과목을 공부하고 난 후, 어떻게 설교를 전달해야겠다는 개념이 정립이 되었습니다.

이런 좋은 교육을 받음으로써 선교현장에서도 큰 도움이 된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2015년에 시작한 MDiv. 과정을 2019년에 마치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4. 성서 아프리카

아모스 8장 12-13절은 땅에 영적인 기근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오늘날 청년들에게 물질은 풍족한데 영혼이 갈하여 피곤하고 지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른 대륙에 비하면 여전히 많은 격차가 있지만, 그래도 이제는 아프리카도 서서히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청년들도 인터넷으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아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면, 이들은 성경의 말씀들을 행운과 위로를 주는 금언 정도로 사용합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가정들이 많지 않고, 교회에는 점쟁이(fortune teller)들이 많습니다.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성경공부를 통하여 은혜와 고난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터넷을 통해 신자들이 어디서든 성경을 공부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인터넷의 사용은 아프리카 선교를 크게 확장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여전히 수도, 전기, 도로 등 사회기본시설이 빈약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소셜미디어(Social Media)들을 복음을 전하는 고속도로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Bible Africa’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됩니다.

과거 선진국 선교사 파송 단체들이 아프리카 선교를 어렵게 생각했던 것이, 인력과 재원은 있으나 선교지 현장에 찾아가지 못하는 것이었다면, 그 문제가 이제는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인터넷 플랫폼을 사용하여 아프리카 영혼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손에 복음을 든 뜨거운 마음의 사람은, 누구나 아프리카인에 대한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인구 중 60퍼센트 이상이 25세 미만의 연령대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젊은 대륙입니다. 아프리카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피곤하여진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공부하게 하여 새 힘을 얻어서 세계의 제사장 나라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프리카가 아직 도로 사정이 좋지 않고 사회기본시설이 미약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ZOOM이나 Facebook, WhatsApp 등의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거대한 성경공부의 바람을 성령님께서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계의 어느 곳에 있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복음 전도자가 아프리카의 한 영혼을 연결하여 일대일 성경공부를 할 때, 아프리카가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제사장 나라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재일 선교사의 사역 사진

이재일 선교사 주일 예배 설교 전달
(2017년, 프리토리아 UBF 교회)

남부 아프리카 대학생 수양회 단체사진(2017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축구 경기 후 단체사진(2016년, 요하네스버그, Wits University 운동장에서)

주님과의 사랑, 월드미션과의 만남을 거쳐 사랑의 선교현장까지 동행하다

• 임철현 선교사 (MDiv '17) 제주도

이 글을 쓰게 된 이유

저는 다문화청소년 홈스쿨링 사역을 위해, 미국 LA 소재 나성한인교회의 파송 선교사로 2019년 11월 한국으로 파송받아, 지금은 제주도 서귀포 안덕면 화순리 마을에서 '다봄집'(다문화자녀돌봄센터)을 운영하고 있는 임철현 선교사입니다.

이제 겨우 1년 4개월의 현지 선교기간을 지내온 늦깎이 선교사가 과연 사역현장 상황은 물론 선교사역에 대해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고개가 가로저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을 제쳐두고 컴퓨터 앞에 앉아 월드미션(WMU) 동문들의 사역 이야기 모집 프로그램인 《사랑의 동행》에 참여하게 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이유는, 늦게나마 복음 선교사역을 위한 '선지자 수업' 중에 혹시라도 고민하고 있을 후배 동문들에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라는 도전을 주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성공 여부는 사역기간의 길고 짧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순히 손을 들고 나아가는 순종과 믿음의 굵기에 따라 정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를 전하고자 하는 용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로서의 개인 이력

선교를 향한 제 이력은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올라갑니다. 1987년, 미국 이민 직후부터 다니기 시작했던 교회에서 한글학교 교사로 섬기던 평신도가, 1999년 새로 시작된 교회 내 한 영성 프로그램(Tres Dias)에 참석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산 위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제자로서의 헌신된 삶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매년 한두 차례씩 참가하기 시작한 단기선교는 저에게 선교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불러일으켜 주었습니다.

드디어 2009년, 단기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주님으로부터 풀타임 선교사에 대한 부름을 받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한글캠프USA'라는 비영리 선교단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단기교육 캠프 사역으로 선교지를 돕기 시작하면서 저는 선교사역자로서 신학공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도하며 소개받은 곳이 월드미션신학대학원이었습니다. 거기서 5년 동안, 주경야독 식의 학업 끝에 2017년 졸업, 그리고 이듬해 목사 안수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제주에 세워진 다봄집

저와 제 아내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재 나성한인교회(Los Angeles Christian Presbyterian Church)의 파송 선교사로서, 현재 제주 서귀포에서 다봄집(다문화자녀를 위한 돌봄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 북한과 가까운 지역에서 북한 아이들을 위한 영어/한국어 캠프를 계획하며 강원도 철원을 첫 사역지로 정하고 귀국길에 올랐

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를 통해 저희 부부를 제주도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런 급작스런 변화가 처음에는 황당하게 보였지만, 함께 기도하던 동역자들과의 의논과 기도 응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마을에 저희 거처를 허락해 주셨고, 더 나아가 집 가까운 곳에 홈스쿨링 장소로 최적의 다봄집을 임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게다가 COVID-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다봄집 수리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 과정에는 저와 선교 비전을 같이한 동역자들의 수고와, 예전의 '한글캠프USA' 사역 때부터 함께 일해 왔던 동료들, 그리고 저희 사역을 위해 기도로 돕고 후원으로 함께해 온 분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다봄재단의 사역 목표

저희 다봄재단의 사역 목표는, 한국에 들어와 살고 있는 탈북민을 포함한 다문화가정을 도와주고 세워 주는 일입니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청소년 교육과 신앙 양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의 '다문화자녀'라는 말은, 한국에 이주해 살지만 한국이라는 타 문화권 환경에서 자라는 자녀들을 말합니다.

지금 한국에 들어와 사는 이주자는 크게 세 부류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한국 국적의 미혼 배우자와의 결혼을 통해 들어온 결혼 이주자입니다. 주로 중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결혼을 통해 한국에 이주해 온 이민자입니다. 또 다른 한 부류는 한국에서의 필요 노동력을 메우기 위해 들어온 노동 이주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부류는, 한국에 공부를 위해 온 유학생이나 여러 사업체의 필요에 따라 직원 자격으로 들어와 사는, 나름 엘

리트 이주자 그룹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다봄집의 돌봄사역은 앞 두 부류의 이주자 가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중에서 특별히 가족 관계나 환경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돌봄과 홈스쿨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봄재단의 사역 계획

현재 저희 다봄재단이 이곳에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사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급변하는 한국의 현실 환경에 적응이 어려운 청소년 자녀들을 위한 돌봄과 홈스쿨링 사역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여름 내내 자원봉사자들의 땀과 수고로 냉난방을 갖춘 아홉 개짜리 방을 가진 다봄집이 마련되었고,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긴 하지만 주위의 도움으로 침구용품은 물론 책상 및 제반 생필품까지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대부분의 다문화가정이 갖고 있는 아픔이나 상처 또는 관계문제를 다루고 치유할 수 있는 상담 및 돌봄 사역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미 여러 명의 상담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현 COVID-19의 상황으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상담까지를 준비하고 있기에, 저희들도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관련해서 일반 봉사자의 사역 참여를 유도하는 선교동원[1] 사역입니다. 이는 비영리 선교기관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로써, 우리의 경험과 현장을 나누고, 누구나 원하는 자들이 선교나 구제사역에 기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

1) 선교와 관련한 제반 사역들을 위해 인적/물적 자원을 발굴하고 교육시킬 뿐 아니라, 격려와 기도 그리고 후원 및 참여까지를 돕고 인도하는 일

의 통로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봄재단의 홈스쿨링 방식

다봄재단은 환경 부적응 다문화청소년 자녀들을 위한 돌봄과 홈스쿨링이 중요 사역입니다. 청소년 돌봄과 홈스쿨링 교육은 크게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이뤄집니다. 하나는 성경공부와 예배를 통한 신앙교육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영어 교육 위주의 지식 교육입니다. 이런 교육을 위해서, 주중의 오전 시간은 '느새'[2](7:00-7:50 am)를 시작으로 성경공부(9:00-10:00 am)와 영어수업(10:20-12:00 am)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토요일과 주중 오후에는 산책과 등산 및 특별활동을 통한 각자의 특기와 취미활동에 초점을 맞춰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COVID-19의 상황으로 지연되고 있지만, 저희 다봄재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오후 특별활동 프로그램은, 각 과목이 10주 과정으로 실시되는 연중 단기 캠프 스케줄입니다. 오후에 실시되는 교과과목은 언어(영어/한국어/중국어) 캠프, 체육(축구/농구 등의 활동) 캠프, 음악(기타/키보드/드럼 등의 악기) 캠프, 기술(목공예 등의 기술 습득) 캠프로 진행되며, 일 년을 4분기로 나눠 각 10주씩 전문가 집단의 단기선교 자원봉사자들이 맡아 실시하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입니다.

다봄재단의 사역 디테일

현재, 저희 다봄재단은 위에서 언급한 청소년 돌봄과 홈스쿨링 사역과는 별개로 다음의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2) '느슨한 새벽예배'의 줄임말

첫째, 제주 소재의 탈북민 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이 땅에 탈북민을 포함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영적 돌봄 문제가 갈수록 중요한 이슈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 이들 가족과 청소년에 대한 기독교 상담학적 돌봄사역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 시점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 다봄재단이 좋은 롤모델이 될 수 있기를 감히 소망해 보면서, 이제 막 제주에 설립된 탈북민 교회 한 곳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배 참여와 기도로 돕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탈북자 목회자를 포함한 몇 가정이 제주로 이사온 신생 교회로, 많은 기도와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둘째, 저희 다봄집을 마을 사람들을 위한 교육장소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주중 빈 시간을 이용해 전도를 위한 기타 강습 교실을 진행하고 있으며, 동네 아이들을 위한 토요마당(영어와 성경 이야기 및 놀이로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아이들과의 소통 기회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도전과 권면

오늘날 한국에는 타 문화권에서 많은 이민자들이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지난 몇십 년 동안 한국교회에 많은 사랑을 쏟아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 확신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일은 당연히 한국교회가 맡아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교회가 이와 관련한 일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꼼꼼하게 살펴볼 수 없는, 그래서 꼭 필요한 돌봄의 손길이 닿지 않는 틈새가 많습니다. 저 같은 해외 이민 경험자를 이곳에 보낸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때를 놓치면 안 되는 시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더 늦춰서는 너무 많은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해외에 살고 있는 여러분의 관심이 무척 중요합니다. 이민자로서의 경험을 가진 자가 이 땅의 이민자를 잘 헤아리고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지학교에서 훈련받는 예비 사역자입니다. 부디 계획하신 학업 후에는, 여러분 모두가 구제기관이나 선교기관을 찾아가 주님의 부르심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기다리는 다봄재단

앞서 두서 없이 적은 글로, 저희 다봄재단의 존재 이유와 사역에 대한 대략을 기록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 후원을 부탁하는 마음과 함께 저희 다봄재단의 이념을 소개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다문화자녀돌봄재단(Multicultural Kids Care Foundation)의 이념**

- 많이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해야 합니다 : 한국인이면서 크리스천인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 '선점'(先占)의 원리가 중요합니다 : 어려운 환경에 처한 이민자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먼저 전해져야 합니다.
- 이민자로 하여금 이민자를 돕게 해야 합니다 : 이민의 삶을 경험한 자들이 이민자를 돕는 일에 먼저 참여해야 합니다.
- 그들로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이민자 자신의 형제/부모 나라에 복음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게 키워야 합니다.

임철현 선교사의 사역 사진

다봄집 전경

다봄집 실내 모습

다봄집 방 안 사진

다봄집 외부 수리 모습

아내와 함께 바닷가에서

주님 부르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기쁨으로

• 장진호 선교사 (MDiv '08) 코트디부아르

저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월드미션대학교 목회학 석사 과정을 온라인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큰 은혜와 도움을 받았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나눕니다.

구원 간증

저는 유교적인 색채를 띤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대학에 들어올 때까지 교회라고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문외한이었고, 친척이나 친구 중에도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 저는 세상 일에 열심이었고, 자기 의가 강한 자였으며, 목표중심적인 삶을 살았고,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청소년 적십자와 학생회 활동을 한 영향으로 대학에 와서도 여러 단체활동과 정치 쪽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많은 활동과 나름대로 목표지향적인 삶을 열심히 살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는 늘 공허함이 있었고, 참 만족을 얻지 못한 채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며 철학을 논하며 많은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허무감 속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사랑의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같은 학과의 한 친구를 통해 복음을 듣게 되고, 그 친구를 따라 네비게이토 선교회 모임에 참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 무신론자였던 제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강한 깨달음과 확신을 갖게 되면서, 저의 삶은 급격한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였고, 성서적인 올바른 생애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때로부터 저는 매일 복음 전파에 자신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매일 두세 명의 사람에게 전도를 하였습니다. 캠퍼스에서, 버스 안에서,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열정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약 1년 후, 저의 전도 노트에는 수백 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980년 8월 군 입대할 때까지 동일한 열정으로 전도와 양육에 자신을 드렸고, 주님께서 많은 열매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해외 선교사로의 부르심과 준비

1978년 1월 어느 날, 저는 그 당시 네비게이토 선교회 부산지역 책임자이며, 저의 영적 아버지인 변희관 목사님 댁에서 함께 거하며, Home training(일정 기간 동안 책임자 집에 함께 거하며 신앙과 생활 전반에 대한 훈련을 받는 것)을 받고 있던 중, 그분의 서재에 꽂혀 있던 리빙스턴의 생애에 대한 전기집을 읽으면서 깊은 감명을 받고, 저도 해외 선교사로 헌신하리라고 마음먹었습니다.

이때부터 저의 삶은 이 목표에 집중된 가운데, 많은 선교에 대한 책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전기집을 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 세계 비전에 관한 성경구절들을 발견하거나 선교에 관한 메시지나 선교보고 대회를 통해 저의 가슴은 더욱 불타올랐고,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주님을 배우고 섬기고 있었던 부산대학교 캠퍼스에 새벽마다 올라가 기도하면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시온의 팽창과 메시아 사역과 연관된 약속들을 묵상하면서 부르짖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1980년, 군 입대를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서원을 하였습니다.

"주님, 저는 예비 선교사로서 이 군 생활을 통해 필요한 선교사 자질을 계발하고 주님 앞에서 확증받기를 원합니다. 저를 합당한 주님의 일꾼으로 훈련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욥기 23장 10절과 시편 66편 10-12절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응답이 있었습니다.

1982년, 제대 후 부산대학 가까운 곳에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계속 캠퍼스 사역을 경험하며 저 자신을 준비하였습니다.

1989년 초부터 바울선교회를 통해서 선교사 국내 훈련을 받고, 같은 해 7월에 필리핀 선교사 훈련원에 입소하여 약 8개월간 현지 선교사 훈련과정을 마친 후, 그 당시 네비게이토 선교본부에서 선정한 선교지인 스리랑카에 들어가기 위해 기도하며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선교사 비자를 얻기가 힘들었던 이 나라에 사업투자를 한 이랜드 봉제공장 직원으로 비자를 얻기 위해, 1991년 1월에 이랜드에 입사하여 6개월간 사원 교육을 받은 후 7월에 스리랑카에 직업 선교사로 들어가서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새로운 인도를 따라 이랜드를 그만두고, 한국에 돌아와 사진 현상기술을 배워 1994년 7월에 코트디부아르로 사역지를 옮겨 현재까지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선교지 소개

현재 저희가 선교하고 있는 코트디부아르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코트디부아르는 1960년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인구가 약 2600만 정도이며, 75개 종족에 60개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주요 생산물은 커피, 카카오입니다. 경제 수도는 아비장이며, 종교는 이슬람교 40%, 가톨릭 25%, 개신교 10%, 정령숭배가 25%입니다.

저희가 선교지에 도착하면서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새벽마다 아비장 국립대학을 찾아가 기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캠퍼스를 거닐며 "아비장 대학이 코트디부아르는 물론 서부 아프리카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캠퍼스 복음화가 직장과 사회, 나아가 전 민족 복음화로 이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저희에게 우연히 학생들과의 접촉점이 마련되었습니다. 프랑스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없었던 터라, 언어 공부와 현지 적응에 집중하던 저희에게 매일 새벽 기도하던 곳 옆 핸드볼 구장에서 태권도 훈련에 여념이 없던 현지 청년 꾸아메 달리에를 알게 되었습니다. 태권도 훈련에 열심이던 그를 보면서, '만약 이 청년이 주님을 알게 되어 저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청년의 마음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는 저의 복음 전도를 듣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서, 그 당시 그가 다니던 의과대학 재학생 친구들을 하나씩 둘씩 데려오기 시작하였고, 선교지 도착 6개월 만에 생각지도 못했던 2개의 성경공부 그룹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역에 대해

현재 코트디부아르에서 대학생과 젊은 엘리트 그룹을 대상으로 제자양육과 지도자 양성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장래를 이끌어 갈 좋은 크리스천 지도자를 길러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프리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다른 대륙에 비해 많이 뒤처진 가운데 있는데, 그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올바른 지도자의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 분야에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좋은 크리스천 지도자를 길러내어, 이들이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사회와 국가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나라를 그 가운데 세워 나가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 만나게 되었던 가장 큰 어려움을 나눈다면, 이들의 심각한 실업 문제로 인한 가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큰 장애물 중 한 가지는 바로 부정과 부패, 쿠데타, 내전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과 이로 인한 고질적인 가난으로, 대부분의 서민들이 생존의 위협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이크로 프로젝트(Micro Project)를 통한 자립의 기회를 만들고 고용의 창출 등이 실제적인 필요이며, 이것을 통하여 좀 더 효과적인 사역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선교지에 도착하여 사역을 시작한 지 2년 정도가 지나 사역의 열매가 꽤 늘어났을 때, 저희가 봉착한 첫 번째 사역상의 문제점은 멤버들의 심각한 실업사태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였지만 일자리 얻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무슨 일이든 하기 원하지만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그동안 학생들에게 주던 장학금과 기타 혜택들도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매일의

끼니를 걱정하며, 내일의 전망이 보이지 않아 절망하고 낙심하는 형제자매들을 매일 대하면서, 저희는 참으로 마음이 답답하였습니다.

그래서 선교부 본부와 상의한 끝에, 고용창출을 위한 사업을 시작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1996년도에 이랜드 재고의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일로부터 시작하여, 대학식당 운영, 학용품, 의료용구 판매, 사이버 카페 운영 및 컴퓨터 용품 판매, 제빵제과 사업, 농산물 유통업 등등 저희의 오랜 자립 선교를 위한 노력과 헌신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생선을 주기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는 원리를 따라,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제3세계에서 일하는 모든 선교사의 공통된 고민 중 하나가 바로 현지인들의 자립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네비우스의 3자 원칙, 즉 자립, 자치, 자전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은 자립이며, 이 현지 교회의 경제적 자립이 가능할 때에 비로소 자치, 자전도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교지 교회의 자립을 사역의 목표로 삼고, 이의 실현을 위해 지난 20여 년을 투자하고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코트디부아르에 살며 선교해야 할 동기를 주는 두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강한 사탄의 영향력 아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는 지난 1999년 12월 이후 수차례의 쿠데타가 있었고, 급기야는 2002년 9월 18일 내전이 터졌습니다. 이 쿠데타와 내전은 수년 전부터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정치인들의 정권 탈취를 위한 야망

과 몇몇 주변국들의 국익과 사욕이, 그리고 신식민지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프랑스의 이권이 개입된 전쟁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국영 방송국 옆에 있기 때문에 쿠데타나 전쟁 등 무슨 중요한 일이 터지면, 저희 집은 군인들의 전쟁터 한복판이 되었습니다.

총알이 수없이 날아다녀, 저희 아이들 예랑, 예찬과 함께 방 안에서 엎드려, 시편 46편과 시편 91편 등을 읽으며,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셔 보호해 주실 것을 기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전쟁으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다니던 학교가 불타게 되어, 학교가 갑자기 사라지는 바람에 1년간 프랑스 통신 강좌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 전쟁으로 수만의 희생자가 생겼고, 수백만의 피난민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포악하고 잔인해질 수 있는지 처음에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깨달은 사실은, 이 아프리카 땅에 악한 사탄의 영이 강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쟁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반군들이 그들의 미신적 영력을 키우기 위해 사람들을 잡아 희생제사를 드리며, 목을 칼로 베서 피를 마시고 심장을 꺼내어 구워먹습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들이 행해졌습니다.

그 당시 이 나라 정부에서, 전쟁의 충격으로 정신적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들을 징모해서, 약탈과 인권유린이 가장 악랄했던 서부 지역에 파견했습니다. 저희 멤버 중 상담학 석사 과정을 마친 한 형제가 다녀와서 실제 상담사례를 보고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두에꾸에’라는 수도 아비장에서 서쪽으로 500킬로미터 떨어진 마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엄마와 14살 된 여자아이와 16살 된 남자아이, 이렇게 세 식구가 자신이 사는 곳이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도망을 했습니다. 도망가는 중에 이들은 마약에 취한 한 무리의 무장 반란군들에게 잡혔는데, 반란군은 이 16살 아들에게 엄마와 성관계를 가지도록 강요했습니다. 이 소년은 딱 잘라 거절했고, 그러자 자기 엄마와 누이가 보는 앞에서 이 소년의 목을 벴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용기에 담아 여동생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여동생은 애걸하며 마시기를 거부했으나, 그들에 의해서 강제로 마심을 당했습니다. 엄마는 강간을 당한 후 죽임을 당하고, 이 소녀는 반란군이 있는 진영에 끌려가, 14명의 반군들에게 동물처럼 강간 유린을 당했습니다. 얼마 뒤 정부군이 이곳을 공격해 이 소녀는 살아났는데, 임신한 가운데 ‘귀글로’라는 보호소에 인도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밤을 밝히기 위해 사람들을 나무에 묶고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이고, 아기 밴 산모의 배를 갈라 아이를 꺼내어 때기장을 치고, 집에 사람들을 가두어 놓고 불을 질러 튀어나오면 총으로 쏴 죽이고, 아이들이 튀어나오면 다시 불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사람들을 낫으로 토막 내 죽이고, 사람들을 묶어 우물에 집어넣어 총질해 죽였습니다.

또 다른 형태로 악령이 역사하고 있는 실례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제 아내 전명숙 선교사가 캠퍼스에서 인도하는 체조 클럽을 통하여 이 나라의 고위관리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좋은 크리스천이

며 나중에 내무부장관을 지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루는 자기 사무실에 저희 부부를 초대해 장장 4시간에 걸쳐서 비디오를 보여 주며 간증을 했습니다. 이 비디오는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사탄의 힘으로 파괴하려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실패한, 어느 무당의 증언이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이 무당이 오랫동안 자기가 돌봐주었던 자기의 가까운 조카였으며, 이 지역 감리교회의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그의 무당 행위를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것은, 그가 겉으로는 의의 일꾼으로 가장했기 때문입니다. 이곳의 교회나 성당의 지도자들 중에 큰 무당이 많은 것은 흔히 있는 현상의 하나입니다. 이 관리의 증언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시며, 사탄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자신의 종으로 삼아 모든 악랄한 짓을 하게 하는지를 폭로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악령들의 역사에 관한 증언을 여러분께 소개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 아직도 많은 곳에서 사탄이 더럽고 추악하고 극악한 모든 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사탄의 종이 되어 있는 자들을 예수님의 권세로 빼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사탄에 의해 비참하게 고통받다가 지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도 선교지에 있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흑암과 같이 어려운 상황 중이지만 예수님이 값 주고 사신 귀한 보배 같은 영혼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복음으로 변화되어, 이사야 58장 12절처럼 '오래 황폐된 곳들,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세상은 영적으로 갈급해 있습니다. 추수할 것이 널려 있습니다. 이 보배들을 찾고, 키워 주어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고,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61장 1-9절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며, 저희들을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전파하는 일이 계속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저희의 선교전략은 영적 재생산입니다.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와 성장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회심자를 얻고, 그 회심자를 다시 양육하여 전도에 나서게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영적 재생산은 질적인 성장을 보장해 줍니다.

이 선교 비전은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바울-디모데-충성된 사람-또 다른 사람'으로 이어지는 영적 4대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영적 세대 형성이 어느 나라, 어느 문화에서나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첫 열매인 달리에 형제를 통해 저희 집으로 인도된 학생들 중에 아뇨멜이 있는데, 이 형제도 주님을 영접한 뒤 말씀을 배우면서 캠퍼스 전도를 통해 이수프 형제 등을 주님께 인도했습니다. 이수프 형제는 레오나를, 레오나는 두에 형제를, 두에는 로랑을, 로랑은 다시 다른 학생들에게 전도를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님의 복음은 대를 이어 전파되어 가고 있고, 그중에 이수프 형제와 그의 영적 아들 레오나는 현재 각각 기니와 토고에 선교사로 나가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에 형제는 현재 코트디부아르에서 목사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적 세대를 잇는 사역에는 전인적인 양육과 돌봄이 요구되며, 이 전인적인 돌봄을 위해서는 적지 않은 희생과 헌신이 필요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열고,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쏟아부으며, 이들을 친자식처럼 돌아보고 뒷바라지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저희들이 해보지 않았던 많은 일들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나가기 전, 약사로 약국을 경영하면서 부산대학교 캠퍼스에서 사역을 하였고, 제 아내는 고등학교 교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선교지에서 만난 필요들은 저희로 하여금 여러 모양으로 변신케 하였습니다. 마치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 모양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했습니다.

심각한 경제난과 실업 문제로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가 없어 절망 가운데 낙심해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고용의 기회를 주고, 자립을 돕기 위해 이것저것 많은 사업들을 펼치면서,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경험들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 속에 저희의 생명에 위협을 받는 특별한 경험도 하였습니다. 1999년 10월 1일, 그날 저녁 7시 15분, 세 명의 무장강도가 저희 집에 침입했습니다. 제 생애 참으로 죽음과 가까웠던 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마치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순식간에 지나갔고, 이 일로 저는 아파트 3층에서 창문을 통해 떨어지면서, 오른쪽 대퇴와 턱이 깨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로 인해 1년 6개월간 목발을 짚고 다니게 되었고, 지금도 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정도가 짧아져, 항상 구두 축을 높여 신고 다닙니다.

또 한 번은, 저희 집에 도난 사건이 일어나 경찰에 분실신고를 하였는데, 경찰이 조사하는 과정 중에 혐의자로 지목한 사람인데, 저희가 신뢰하고 가까이 지내온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재판 결과 무죄

로 풀려나자 그 사람이 저를 부당하게 명예훼손죄로 법정에 고소함으로, 1년 반을 법정 투쟁으로 힘을 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또한 많은 위로로 저희를 격려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의 영적인 자녀들로 인한 기쁨과 격려입니다. 저희를 친부모처럼 따르며 마음을 다하여 함께 주님을 섬기는 귀한 형제자매들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형제는 빠듯한 월급에서 자기 수입의 반을 선교를 위해 헌금하는 형제도 있고, 어느 의사 형제는 저희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기쁨으로 저희를 도와 이곳 한인이든, 사역 속의 형제자매든, 자기를 필요로 할 때마다 기쁨과 자원함으로 수고해 주는 형제도 있습니다. 어떤 형제는 저희를 도와 사역에 유용해지기 위해서 자기의 안정되고 좋은 직장까지 포기하고 헌신하는 오른팔 같은 형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형제자매들이 저희의 자랑이요, 기쁨입니다.

저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었던 것은 2005년에, 저희가 훈련시킨 현지인 일꾼 2명을 각각 주변국가인 세네갈과 베냉으로 선교사 파송을 한 일입니다. 그리고 2012년에 3호 선교사를 토고로 파송하였습니다(이수프 형제는 세네갈에서 10년간 사역을 마치고 현재는 기니에서 선교하고 있음).

현지인 선교사의 장점은, 언어와 문화에 대한 동일시와 적응기간 단축, 선교비 절감, 비자문제 해결, 선교지의 높은 수용성 등 타 대륙 출신 선교사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대륙의 55개국 중 불어권이 24개국, 영어권이 18개국, 기타 어권이 13개국입니다. 코트디부아르는 불어권인데, 이곳에서 훈련된 일꾼이 아무런

제약 없이 불어권 다른 나라로 가서 선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언어와 문화가 동일하기 때문에 선교지 도착과 더불어 바로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파송한 현지인 선교사들도 아주 모범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문서 번역 및 출판 사역

또 한 가지 불어권 아프리카 선교에 꼭 필요한 중요한 투자는 문서 출판 사역입니다. 한 나라의 교회가 제대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려면 그 나라의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성숙해져야 하는데, 현재의 코트디부아르 교회에는 이러한 지도자를 위한 말씀교육이 아직도 소아기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이유는, 코트디부아르를 포함한 전체 불어권 아프리카 교회에 건전한 기독교 도서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는 성경공부 교재, 양육 교재, 경건한 신앙 서적들이 필요한데, 이것이 너무나 빈약합니다. 특히 성경공부 교재와 양육 교재는 거의 부재한 상황입니다. 한국교회에서는 너무나 흔히 듣는 '제자양육'이라는 말이 아프리카에서는 아주 생소한 단어입니다. 양육에 대한 개념을 가진 목회자도 찾기 힘든 것이 아프리카의 현실입니다.

저희는 94년 선교지 도착 시부터 저희가 한국에서 사용하던 성경공부와 양육교재를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재정적인 이유로 아직 출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서출판 선교에 관심이나 부르심이 있는 분들과 동역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불어권 아프리카는 오늘날 복음에 소외된 땅입니다. 그동안의 선교가 주로 영어권 서구 선교사들에 의해 이루어졌기에, 이들은 자신

들의 말로 쉽게 선교할 수 있는 영어권에 집중을 하였고, 불어의 종주국인 프랑스는 세속적인 가톨릭 국가이기에 선교에 거의 기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 불어권 아프리카는 아직도 복음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불어권 문서출판 사업에 동참하신다면, 그것은 아프리카 24개국을 포함한 전 세계 50개의 불어권 국가에 살고 있는 수억 명의 영혼에게 복음을 들을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복음사역에 엄청난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장진호·전명숙 선교사 가족사진

2005년 2명의 현지인 선교사 파송식 1

2005년 2명의 현지인 선교사 파송식 2

선교방문팀과 함께 예배

선교방문팀과 미션센터 멤버들과 함께

리우 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동메달리스트와 함께

코트디부아르 태권도 국가대표팀과 함께

이탈리아에서 외치는 십자가 복음

• 진성훈 선교사 (MDiv '18) 이탈리아

안녕하세요. 이탈리아 밀라노 사역을 하고 있는 진성훈 목사입니다. 현재는 밀라노 은혜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으며,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복음 콘서트 사역과 유튜브 복음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이탈리아에 유학을 와서 클래식 오페라를 공부하던 중 이탈리아 현지인들과 주변 유럽 국가에 특별한 복음 전도 사역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 월드미션대학교에 입학하여 지난 2018년 목회학 석사과정을 마치고 지금까지 이곳 이탈리아 밀라노를 중심으로 사역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1년 넘게 힘겨운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제가 진행하던 복음 콘서트 선교사역들은 직격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복음 콘서트 사역은 이탈리아 현지 양로원, 고아원, 오페라 극장 등에서 다양한 퍼포먼스 음악과 무언극으로 현지인들의 마음 문을 열고 복음 메시지를 설교하는 형태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대면으로 하는 모든 콘서트 사역을 중단하게 되었으며, 이탈리아에 코로나19가 점점 확산되면서 함께 복음 콘서트로 동역했

던 많은 크리스천 음악가들과 유학생, 그리고 많은 교민들이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강도 높은 봉쇄를 세 차례나 시행했던 이탈리아는 현재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확신으로 다시 한 번 강도 높은 봉쇄가 이루어져 대부분의 상점과 직장, 학교들이 문을 닫게 되었고, 특별한 사유가 없이는 집에서 외출할 수 없는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1년 넘게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사역들이 막혀 있는 시간을 보내면서, 외적으로는 너무나 힘겨운 상황을 지나고 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깊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케 하셔서,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자로서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깊이 있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시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역의 성과들로 기쁨과 만족과 안정을 추구하며 그것들을 제 마음에 소유로 삼고 있었던 저의 뿌리 깊은 죄의 본질을 다시 한 번 깊이 있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코로나19 팬데믹이 주어져 모든 것들이 막히게 되자 제 마음에 큰 공허감이 느껴지고, 코로나가 언제 끝나서 다시 예전과 같은 활발한 사역이 이어질까 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까지 하나님 사역을 한다고 달려왔지만 정작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역들로 나를 채우고 있었던 저의 죄인 됨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때 누가복음에서 주님께서 선포하신 메시지가 마음속 깊이 치고 들어왔습니다.

> "이와 같이 너희 중의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눅 14:33).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정신없이 뛰어왔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 한 분으로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사역에 마음이 집중되어 내가 원하는 대로 사역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형태로 사역이 내 마음에 소유로 들어와 있었고, 또한 지금까지 이루어 놓았던 나의 사역의 열매들을 잃어버리면 어쩌나 불안해하는 형태로 내 마음에 소유로 들어와 나의 죄악된 자아를 살찌우고 있었던 것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앞에 나아가 철저하게 나의 존재론적인 죄인 됨에 대해서 회개하며, 내가 정말 주와 함께 죽은 자임을 성령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심을 통해서, 모든 것이 막혀 있는 이 시간 속에서 이 모든 상황을 나의 거룩에 유익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분의 무한한 지혜와 선한 계획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마음이 사로잡히고 그것들이 마음의 소유로 들어올 때마다, 2000년 전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지금 나의 사건으로 바라봄을 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복음의 능력을 깊이 있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사역자들이 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환경적으로는 많은 부분이 막혀 있지만, 온 천하 만물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함을 통해서 주어진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청소년기에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복음 전도

사역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강하게 느끼며 신학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 3 여름방학 기간에 참여했던 베트남 단기선교를 통해서 생각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목회나 선교사역 가운데 신학만 공부해서 사역현장에 나가기보다는 전문적인 나만의 전공과 함께 사역을 준비하게 된다면 그 사역은 더 풍성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음악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친형이 성악을 전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형을 통해서 음악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었고, 전문 성악가로서 충분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악대학교 성악과에 입학하여 음악 공부와 함께 섬기는 교회 안에서 성가대 지휘와 찬양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더욱더 깊이 있는 음악 공부와 음악 활동을 위해서 2009년 클래식 오페라 성악의 본고장인 이탈리아 밀라노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와서 이탈리아 언어를 습득하고 이탈리아 현지인들과 많은 교제를 갖게 되었고, 국립음악원에 입학하여 오페라 공부를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곳 밀라노에 있는 밀라노 은혜교회에서 선교팀 팀장 직분을 맡으며 사역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탈리아 현지인들과 이 땅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향한 복음 전도 사역에 대한 열정을 강하게 부어 주셨고, 이탈리아어로 복음 전도지를 만들고 길거리 노방전도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복음 전도사역을 진행하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신학 공부가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고, 밀라노 은혜교회 송영호 담임

목사님의 추천으로 월드미션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어 좋은 교수님들과 학우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신학 공부와 말씀을 깊이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 음악과 함께 바른 신학에 기초한 말씀으로 더욱더 효과적인 복음 전도 사역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학교 교수님들의 열정적인 가르침과 학우들과의 뜨거운 토론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이해와 깊이가 더욱더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사역에서도 교수님들의 강의안과 학우들과의 토론 때 나누었던 글들을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복음 사역에 잘 적용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나라에서 선교사로 사역하시는 학우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다양한 선교전략과 형태를 배울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난 2014년 월드미션대학교에 입학하여 좋은 교수님들과 학우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독특한 선교전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재 제가 진행하고 있는 복음 콘서트 사역입니다.

이탈리아는 로마 가톨릭의 본산지이며 국민의 74%가 가톨릭 신자입니다. 이처럼 가톨릭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사역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톨릭 문화에 젖어 행위구원론과 인과율의 논리에 사로잡혀 있는 이탈리아 사람들의 사상과 논리를 치고 들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음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들의 삶의 중심에는 음악과 예술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감성에 호소할 수 있는 음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탈리아 선교의 열쇠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사역하는 밀라노 은혜교회 안에는 유학을 온 많은 음악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선교팀을 구성하여 이탈리아 현지 양로원, 고아원, 그리고 많은 오페라 극장에서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퍼포먼스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 유럽 국가 현지 선교사님들과 동역하여 복음 콘서트 사역을 진행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 문이 열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통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복음 콘서트를 통해서 복음을 영접하게 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복음 콘서트 사역에 함께 동역하여 사역에 동참한 많은 크리스천 음악가들이 선교현장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어 그들이 음악계와 모든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다짐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면서 대면으로 하는 복음 콘서트 사역은 멈춘 상태이지만,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 '프랑코진의 복음의 발성 TV'를 통해서 이탈리아 현지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지인들을 위한 다양한 온라인 양육 프로그램들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이후 이탈리아의 수많은 도시 전역에 이 복음 콘서트 사역의 확대 및 복음을 영접한 현지인들이 이탈리아와 유럽, 더 나아가 온 열방 가운데에 복음 전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들을 양육하고 교육할 수 있는 선교센터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막강한 종교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가톨릭의 뿌리인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복음 콘서트 사역을 통하여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놀라운 구원의 영광이 온 열방

에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한 영혼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탈리아 사람들의 문화와 정서를 파고들어 십자가 은혜를 전하는 이 복음 사역의 영광된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썩어 문드러진 소돔 땅을 중재하며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함을 가진 것처럼, 또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만일 내 동족이 구원만 얻는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19장을 보면 멸망하는 소돔 성에서 롯이 구원받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해 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재 전 세계에 주어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많은 사역자들의 사역들이 막히게 되고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것 같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월드미션 가족들을 통해서 복음이 더욱더 강력하게 전파될 것을 기대합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이제는 더 이상 복음 전파가 중단되고, 그 억울하고 망망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 놀라운 고백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겉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 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빌 1:18).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막혀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복음이 더욱더 강력히 전파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감옥이라는 현장에서 가졌던 소망은 감옥이라는 환경에서 빠져나가거나 삶에 주어진 어려운 문제들을 변화시키고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소망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놀라운 신앙 고백처럼, 지금 이 시대에 주어진 코로나19 팬데믹은 감옥과 같이 모든 것이 막혀 있는 상황처럼 보이지만,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더욱더 강력하게 복음이 전파될 것을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저의 사역을 항상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한국에 계신 사랑하는 부모님과 저의 밀라노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송영호 담임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특별히 월드미션 임성진 총장님과 많은 교수님들과 동문들,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는 모든 월드미션 학우님들의 모든 가정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여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흘러가 누군가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진성훈 선교사의 사역 사진

이탈리아 길거리 복음전도 사역

주일 예배 찬양인도

이탈리아 밀라노 극장 복음 콘서트 진행

진성훈 목사가 진행하는 유튜브 복음 방송 (FRANCOJIN 복음의 발성 TV)

한 알의 씨앗

• 최영희 선교사 (MDiv '96) 캐나다

나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는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1997년 혼자의 몸으로 C국을 시작으로 선교여행을 시작했습니다.

2000년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2001년 아들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들이 1년 6개월쯤 되던 어느 날, 거실에 있는 신발장 위에 놓여 있는 물건을 꺼내려던 아이를 신발장이 덮쳤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너무 무거운 물건이고 큰 사고였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다리를 조금 절룩거릴 뿐 뼈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병원에 가기보다 그냥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당장 빵이 필요해서 아이를 데리고 버스를 타고 제과점에 도착하니 그날따라 오후 1시부터 문을 연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집에 갔다 다시 오기보다 한 시간 정도 그 주위에 있다가 빵을 사서 집에 돌아가야겠다고 결정하고 아이가 놀 수 있는 곳을 찾다보니 제과점 앞에 놀이터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금 있으니 한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놀이터로 왔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인

사를 하고 아이들이 같이 노는 것을 지켜보면서 혹시 "예수님을 아시나요?" 하고 물으니 "아니요, 나는 그런 사람 몰라요. 나도 이곳에 이사온 지 3개월밖에 안 되었는걸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이 나라는 복음을 마음대로 전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만약 내가 종교활동을 하는 것을 경찰에 신고하면 감금되어 벌금을 내야 하고, 석방되더라도 바로 이 나라에서 추방됩니다. "아, 그러세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지요" 그는 나를 이상하게 보면서 나의 억양이 이상하니까 다른 지방에서 이사왔느냐고 하며 자기는 북경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내가 한국사람이라고 하니까 놀라면서 자기는 한국사람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간략하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처음 듣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아들은 울거나 보채는 아이가 아닌데 오늘따라 놀이터에 가자며 얼마나 보채고 울던지, 그래서 아이에게 끌려 나왔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당신을 통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인 것 같다고 좋아하며 더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나의 아들이 절룩거리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어서 사실을 이야기하니 나의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며 자기 전화번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집에 도착 후 조금 있다가 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가 며칠 전 뼈에 문제가 있어서 친구를 통해 소개받은 뼈 전문의를 통해 치료를 받았는데 정말 좋은 의사라고 하면서 지금 그와 나의 아들을 위해 약속을 하고 병원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바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이와 함께 그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는 병원 현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사를 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줄도 서지 않고 바로 의사를 만나 진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관계 중심의 나라이기에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미안했지만 약속된 것이라 그냥 친구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사가 아들을 진찰해 보더니 뼈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타박상이니 약을 발라 주라며 약까지 주었습니다. 그리고 진료비를 내려고 하니까 친구가 데려온 사람이라 안 받는다고 해서 감사하다고 하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그 후 그 여인과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이 나에게 '언니'라고 부르기 시작하며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정기적으로 성경을 가르칠 시간을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지역 고아원에 사역이 있어서 한 달 정도 집을 떠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역 마치고 집에 돌아와 만나야지' 하고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떠나기 며칠 전 3월 8일에 만나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왜 3월 8일 일까?' 이상하게 생각하며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그 친구에게 3월 8일 우리집으로 오라고 전했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서 한 달 동안 사역을 마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3월 8일을 기다리며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주위에 있는 신앙의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외국인인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인도하는 것보다 자국민이 자국민에게 영접 기도 인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신앙 좋은 친구에게 준비시키고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다시 소개하고 믿기를 원하느냐 물을 때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며 죄를 회개하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그 여인의 얼굴에 한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를 안아 주고 주님의 자녀 된 것을 환영하며 기쁨과 감사로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그 친구가 떠나기 전 준비해 둔 성경을 건네주면서 "태어난 아기가 엄마의 젖을 먹으며 자라나는 것처럼 당신도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기에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 양식이 바로 이 책입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분과 깊이 교제할 수 있게 됩니다"라고 하니까 그러겠다고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에 전화가 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서 너무 기뻐서 버스 안에서 성경을 열어 읽는데 누군가 자기를 꼭 껴안아 주는 것 같았고, 머리 위에 무엇인가 자기를 지켜보시며 보호해 주시는 것 같았다고 하면서, 꼭 자기를 너무 사랑하셨던 친정아버지를 만난 것 같은 따뜻함이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하니까 너무 좋아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그녀가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하면서 우리집에 지금 당장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라고 했더니 와서 하는 말이, "내가 어제 일기를 보다 깜짝 놀란 것이 3월 8일은 나의 남편이 나를 만나기 전 남편이 사랑했던 옛 여자와 늘 만나던 호텔에서 밤을 지내는 것을 알고 그곳에 찾아가 그 현장을 보고 남편이 너무 밉고 배신감에 그와 결별한 처참한 날이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다시 살리신 기쁨의 날로 바꾸어 주셨어요"라고 하며 너무 놀라워했습니다.

'아!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3월 8일을 말씀하셨구나. 만약 내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 여인이 이런 놀라운 경험을 못할 수 있었겠구나' 생각하니 늘 성령께 민감해야 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던 그때 우리는 사역을 위해 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수공예품 상점을 개업하는데 언니가 와

서 기도 좀 해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우리 가족은 10시간 밤 버스를 타고 그 개업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을 영접한 친구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그 상점 이름을 나의 이름인 'Grace'로 걸어 놓았습니다. 나에게 괜찮느냐 물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 상점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물건을 파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곳에 들어오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물건을 거저 주고 또 많은 사람들을 돕다가 이제는 그만 해야 할 때다 생각하고 폐업한 후 소그룹 성경공부를 시작하여 많은 사람들과 성경공부를 하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그 나라에서 사역하다가 그 나라를 떠나야 하는 일이 생겨 떠나게 되었습니다. 캐나다로 돌아와 남편 1차 뇌종양 수술 후 2년 동안 회복하고 말레이시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소수 민족인 아슬리 민족을 섬기면서 작지만 예배당도 짓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C국에서 만난 이 여인은 저희를 방문하기 위해 말레이시아까지 찾아와 주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의 사역 4년 후, 남편의 뇌종양이 재발되어 캐나다로 돌아로 2차 수술을 하고 2년 동안 회복하던 중에 '이제는 선교지로는 못 나가는 것일까' 하는 좌절감이 있던 중에 태국으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2014년 너무 행복해서 부푼 꿈을 가지고 태국에 도착해서 동남아권 선교사 후보생을 훈련해서 선교지로 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이 사역은 합숙 훈련이라 식사 제공을 다 해야 하는데, 그때 그 여인이 태국까지 와서 음식 만드는 것을 돕는 사역을 해주었습니다. 그때 훈련받은 선교사들이 지금은 중동 쪽으로 많이 나가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의 사역 2년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이 눈이 잘 안 보이고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가서 진찰한 결과 뇌종양이 다시 재발했다고 했습니다. 캐나다로 다시 돌아와 수술하고 한 달 후 다시 진찰하니 다시 종양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방사선 치료를 결정하고 매일 방사선 치료를 하던 중 신장이 완전 죽어 버렸습니다. 신장이 기능을 못하니 몸이 코끼리처럼(풍선) 되어 걷지도 못하게 되었고, 병원에 입원하고 투석을 시작하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남편을 간호하며 병원과 집을 오가며 아이들을 돌보던 중 너무 피곤했던지 나에게 대상포진이 왔습니다. 눈에서 시작되어 뇌 손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하면서 의사들이 속히 치료를 시작해 주어서 감사하게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병원을 오가며 투석을 하고 있던 그때 태국에서의 훈련을 위해 나는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남편이 이런 상태인데, 가야 하는지요? 가는 것을 허락하시면 사인을 주세요." 그날 저녁 한국으로부터 한 지인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저희들의 사역에 대해 질문을 하셔서 저의 상황을 말씀드리니 말하자마자 그분이 여행 티켓을 모두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바로 티켓을 사서 병든 남편을 두고 3개월 훈련 사역을 위해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어찌 보면 병든 남편을 두고 가는 것이 남들이 보면 정말 이상하고 미친 짓 같았겠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야 한다는 마음이 늘 있었기에 일주일에 서너 번씩 투석하는 남편을 아버지께 부탁드리고 떠났습니다.

내가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니 남편이 아픈 자기를 두고 떠나는 나에게 섭섭한 마음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없는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제가 떠난 한 달 후 투석 횟수가 두 번으로 줄었습니다. 두 달 후 한 번으로, 이제 3개월의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2주 후, 의사가 투석을 하지 않고 약으로 치

료해 보겠다고 말하면서 '이것은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치료해 주셨다고 자랑스럽게 간증하였습니다. 듣는 사람들 모두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남편은 투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힘이 없어 늘 앉으면 졸던 남편이 지금은 Zoom으로 우리를 통해 훈련을 받고 선교사가 되어 중동, 유럽권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영어 성경공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국에서 만난 그 여인은 현재 Zoom 사역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동남아에 흩어져 있는 많은 C국 사역자들, 또 국내 지도자들을 연결해 놓으면 저희들은 그들에게 성경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이렇게 많은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남편을 통해 성경 영어 공부를 하는 선교사님들이 너무 행복해하며 그 시간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운 사역지로 옮길 때마다 이 여인의 방문을 통해 저희들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캐나다로 돌아왔을 때 그의 아들을 캐나다 대학으로 보내면서 다시 이곳까지 방문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여인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저희들과 협력하여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시 126:5-6).

복음의 씨앗을 한 여인에게 뿌리는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은 친히 그를 성장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 많은 영혼들을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 최은종 목사 (MDiv '14) 울산

나의 성장과정 및 배경

저는 소설《태백산맥》의 배경이기도 하고 뻘이 많다는 전라남도 벌교에서 1970년 3월에 태어났습니다.

아들만 네 명인 4형제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께서 그 당시 많이 배우지는 못하셨지만 신앙에 열심이 있었습니다. 특히 아버지께서는 열심이 특심하셨는데, 목수로 가구를 직접 만드는 공장을 조그맣게 운영하셨지만, 사업에는 늘 어려움이 많으신 중에서도 교회 일이라면 공장일을 제쳐두고 교회의 자질구레한 수리 등을 하셨고, 제 기억으로는 철마다 처음 나온 과일은 목사님을 드려야 한다면서 목사님께 가지고 갔던 것이 기억나는데, 특히 수박을 수레에 싣고 목사님 댁에 같이 갔던 것이 어렴풋이 기억납니다.

아버지께서는 신앙에 있어서는 상당히 엄하시고 지금 생각하면 조금 율법적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철저하셨습니다. 매일 이른 아침에는 4형제 모두를 깨워서 약 20분 정도 걸리는 길을 걸어가야 하는 교회로 강제로 보내셨습니다. 가서 기도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4형제는 벌교 냇가를 따라 강둑을 걸으면서 매일 이른 아침마다 교회에 가서 문을 열고 잠시 교회 의자에 앉았다가 바로 일어서서 집으로 돌아가는 훈련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또 주일성수만큼은 철저하셔서 주일에는 아무것도 사 먹을 수 없었고, 교통편도 이용할 수 없었으며, 특히 시험날을 앞두고도 공부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특히 주일에 공부하지 않는 습관은 제가 대학 시절까지 계속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벌써 습관이 되어서 주일에는 그냥 쉬었는데, 나중에 고 3 때는 이것이 무척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지친 몸과 마음을 주일에 충분히 쉬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성적에도 오히려 더 기여했던 생각이 나서, 지금도 어린 청년들에게는 한 번씩 주일에 공부도 다 내려놓고 충분히 쉴 것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아버지께서는 그 열심으로 고등교육이나 신학교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전라북도 어느 시골마을에 전도사님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초등학교 5학년 시절입니다. 그 뒤로 우리 가족은 사역자의 가정으로 살게 되었고, 왠지 친구들과는 늘 거리감이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때부터 교회 봉사와 일을 거들었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두루 교회 요직(?)을 거치면서 오로지 교회에 열심이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심한 때는 부산에서 있었던 청소년 집회에 참석한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뜨거운 집회 열기와 함께 저 자신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한 기억이 납니다.

저의 회심의 변화는 대부분 모태신앙이 그렇듯이 극적이지는 않았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대한 이해와 사모와 열심은 점점 더해갔습니다.

지금 기억으로는 가장 절정이었던 때가 바로 고 3이었습니다. 그

바쁜 고 3이었음에도 성경 읽는 것이 시편의 표현대로 꿀송이처럼 달고 좋았습니다. 반 친구에게 제가 깨달은 바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함께 기도모임도 하며 신앙의 꿈을 같이 키워갔습니다.

대학은 집으로부터 멀리 떠나야 한다는 마음이 있어서 그나마 국립대이면서 집과 먼 광주 전남대학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학력고사를 치르고 와서 정말 시험을 형편없이 봤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신도 모르게 홀로 시골에 있는 본교회에 가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를 합격시켜 주시면 정말 주를 위해 저 자신을 드리겠다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합격자 발표날, 정말 이게 꿈인가 할 정도로 합격자 명단에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타향살이가 시작되었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신앙의 힘 하나 붙들고 살게 되었습니다.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에 남의 집에 더부살이를 하면서 그 집 아이들 과외도 시키며, 이 집 저 집 떠돌이처럼 살기도 했습니다. 그때 갈 곳 없는 저 자신이 많이 서럽고 힘들었지만,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아픔이었습니다.

오직 신앙의 힘으로 간신히 버티면서 공부를 하고, 특히 저에게 힘이 되었던 것은 대학교 1학년부터 시작한 선교단체의 도움이었습니다. 1학년 때는 네비게이토 선교회에 가입되어 그 당시 의대, 치대 선배들이 상당히 많아서 자연스럽게 교제하며 그나마 위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부터는 제가 원래 가고 싶었던 예수전도단을 겨우 찾게 되어 그곳에서 신앙생활의 틀을 다졌습니다. DTS라는 예수제자훈련학교도 가장 바쁘다는 본과 1학년 때 들어가서 공동생활

을 하고, 그 당시 처음으로 미필자이면서 어렵게 인도네시아 선교여행을 갔던 기억이 납니다.

대학생 때 예수전도단과 함께했던 것은 저의 신앙에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당시 함께했던 형제들과는 둘도 없는 친구 사이로 지내며 그들 중에 선교사로 간 분들도 많고 계속 서로 후원하며 격려하는 관계로 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정말 중요한 인도하심과 축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 후에 군대를 다녀오고 치과 개업을 하기 위해서 울산으로 처음 오게 되었습니다. 이미 울산에서 예수전도단 광주의 선배님이 개원을 하고 계셨는데, 울산이 영적으로 가장 척박한 도시라고 하시면서 함께 치과를 하면서 울산 복음화를 위해 일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주의 부르심으로 들려 낯선 경상도, 그것도 한 번도 온 적이 없는 울산에 오게 되었습니다.

울산에 와서 함께 치과를 하면서, 또 늘 분열이 있고 목사님이 오래 계시지 못하고 늘 변동이 있는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청년회 간사를 하면서 주로 청년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들이 지금은 모두 흩어져 각각 귀한 사역을 하는 일꾼이 되었고, 그중 한 가정은 대구에 있는 부부인데, 그 당시 같은 청년들이었습니다. 그 가정이 울산에 있는 지금 개척교회까지 와서 귀하게 함께 동역하는 일꾼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신학교로 인도하신 하나님

울산의 약 두 군데 교회에서 10여 년 이상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간사로 섬겼습니다. 청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리더들을

따로 양육하며, 중보기도 팀을 만들어 매주 금요일마다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이들과 함께 선교여행도 다녀오면서 참으로 값지고 감사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청년들을 양육하고 그들이 성장할 때마다 느끼는 감사와 열정이 생겼습니다. 이것에 저의 본업인 치과 일을 할 때보다 더 자원된 마음과 기쁨과 열정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신학에 대한 소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전임사역자로서 가는 것보다 여전히 나의 직업을 가지면서 지금처럼 사역을 할 수는 없을까? 왜 신학을 하면 모두 전임사역자만 해야 하는가? 충분히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당시 약간 교만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무모하고 사역에 대해서 잘 모르는 미숙한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계속 마음에 품고 기도도 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생명의 삶〉 큐티 교재로 묵상을 하다가 그 잡지에 나온 '월드 미션 대학' 목회학 석사과정 광고를 보았습니다. 온라인으로 충분히 목회학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는 광고였습니다. 이 광고를 보자 저에게 딱 맞는 학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계속 치과 진료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전임사역자로 부르심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직업을 가지고 목회사역을 병행하고 싶었는데, 그 길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알아보고 등록을 하여 월드미션 대학에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만큼 학점이수가 가능했기 때문에 저는 저의 일과 공부를 병행할 정도의 분량만큼 학기마다 학점을 이수하였습니다. 그래서 약 5년에 걸쳐서 목회학 과정을 이수할 수 있었습니다.

신학공부가 저에게는 많이 낯설지는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늘

교회배경에서 자랐고 그 용어가 익숙했고, 오히려 과목 과목마다 재미가 있었습니다. 주어진 필독서를 읽는 것도 새로운 생각의 지경을 넓혀 주었습니다.

매주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독서를 하며 과제를 제출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매일 성실하게만 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이었습니다. 다양한 과목을 통해서, 그리고 좋은 교수님들을 통해서 상세하게 배웠으며, 특히 모두 복음의 열정이 있고 복음주의적 신학교라는 느낌 때문에 더욱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지금도 늘 학교에 대한 감사와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개척 사역을 시작하다

신학교 졸업이 다가오는 시점에 그동안 청년회 간사로 활동했던 교회를 섬긴 지가 10년이 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역에 대해서 기도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했으며, 마침 간사로 섬기고 있던 청년회를 다른 부목사님께서 전적으로 맡아서 하게 되어 내려놓은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중에,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같은 지역의 누가회 소속인 한 선생님으로부터 울산대학교 안에 대학생들을 위한 작은 교회가 있고, 그 선생님도 최근에 그 교회에 참석하여 돕고 있는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시 제가 섬기는 교회는 이곳 울산지역에서는 나름 큰 교회이고 알려져 있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부르심으로 가야 할 때가 되었을 때, 그 선생님의 권유는 저에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이라는 마음의

확신이 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아내와 가족들에게 말했을 때, 아내는 선뜻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은 평신도 사역자로 섬기고 나름 안정되게 그 교회에서 섬기며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목사의 직분과 목사의 사모로 전혀 새로운 교회, 그것도 아직 건물도 전혀 없는 대학교 안에 있는 강의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에 간다고 하니, 아마 많은 부담이 되고 결코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온 가족이 함께 결정하고 2014년도 1월부터 울산대학교 안에 있는 교회로 함께 가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 교회는 울산대학교 IVF 출신의 한 공대 교수님께서 학생들을 많이 전도하시면서 지역교회에 보내도 적응하지 못했던 학생들을 모아놓고 강의실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대학생들은 매주 새로운 학생들이 초청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거의 초신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그 교수님과 협력해서 돕는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는 나를 소개해 준 누가회 선생님 한 가정이 있었고, 또 IVF 출신인 한 목사님 가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협력해서 팀사역 형태로 사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교회처럼 한 분의 담임목사님을 두고 목회를 하는 형태가 아니라, 각자의 일을 가지고 있으면서 모두 파트타임으로 협력하는 형태로 팀을 이루어서 팀사역을 하는 공동목회의 형태였습니다. 마침 제 목회학 석사 논문 주제가 '팀사역'이었고, 저 자신이 신학을 할 때부터 이런 새로운 형태의 목회를 하고 싶었습니다.

교회에 의존된 전임사역 형태의 목회가 아닌, 각자 일상에서 자신의 일을 가지면서 동시에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혼자서

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팀으로 분담하여 사역하는 형태입니다. 이것을 꿈꾸며 신학을 하고 기도했었는데, 저의 첫 목회현장이 이런 팀사역이 필요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교회를 시작한 교수님은 여전히 평소에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의 일을 하시면서 학생들을 전도하여 교회에 새가족을 데리고 왔으며, IVF 목사님 역시 평소에는 교회일보다 선교단체 지역대표로 활동하였으며, 저 역시 평소에는 치과의사로서 주로 치과 진료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대학생들과 만나면서 교제하며 성경공부도 하고, 주일에는 함께 예배하며 섬기게 되었습니다. 설교도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하였기 때문에 부담을 많이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교회에는 매주 새로운 학생들이 방문하였고, 우리는 그들을 만나고 섬기는 데 바빴지만 함께 협력했기 때문에 많이 어렵지 않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대학교 내의 분위기가 종교모임을 허락하지 않는 쪽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역시 일정하게 모여서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고, 나아가서 정식으로 교회를 설립하고 등록하는 절차와 제도와 형식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도하면서 학교와 가장 가까운 건물을 알아보게 되었고, 드디어 건물을 계약하고 교회설립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제가 함께 사역을 시작한 그해 11월에 울산지역의 여러 목사님들을 모시고 정식으로 교회설립식을 가졌습니다. 설립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담임목사로 세워지고 장로님을 비롯한 안수집사님을 세울 수 있었고, 교회도 정식 독립교단에 가입을 하여 법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준비를 다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약속하신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말씀을 눈으로 확인하며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교회 사역의 특징과 열매들

우리 교회는 대학생들과 청년들을 전도해서 훈련하고 보내는 사명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역자와 어른들은 목자가 되어서 이들을 만나 교제하고 성경공부하고 양육하여 세워가고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만 7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돌아보니 수많은 청년들이 왔다가 떠나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 초신자들로서 50% 이상은 복음을 처음 듣고 얼마 동안 나오다가 정착을 하지 못해서 떠나는 아이들이 많았고, 또 얼마는 꾸준히 남아서 대학 시절 동안 교회에 나와 교제하며 함께 성장하고 취업을 하면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 취업을 해서 교회 일꾼으로 새롭게 세워지고 열심히 봉사와 섬김을 하는 소수의 청년도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 중 가장 큰 것은 주일에 예배사역과 교제와 나눔입니다. 일반 교회와 다르게 주중에 추가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주일 예배에 집중해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점심 식사 사역이 큰 사역 중 하나인데, 대학생 청년들이 거의 타지 학생들이어서 집밥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서 교회 집사님들의 정성 어린 점심 식사의 다양한 메뉴를 청년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심지어 이것 때문에 교회에 온다는 학생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예배 후에 교제를 하면서 청년들은 청년들끼리 따로 모여 교제도 하고 성경공부나 특강을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청년들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은 좀 걸리지만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됩니다.

평일에 이루어지는 큰 사역 중 하나는 매일 아침에 묵상모임 및 기도회를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학교 가기 전에, 저와 몇몇 어른들은 직장에 가기 전에 교회에 매일 아침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보고 나눔과 기도를 하는 시간을 한 시간 정도 가집니다.

이 시간에 꾸준히 참석하였던 청년들이 통계적으로 보면 교회에 오래 남는 경우가 많고, 신앙이 성장하며 일꾼으로 세워지기도 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매일 말씀을 함께 보고 나눔과 교제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함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즈음 코로나19 발발 이후로는 1년 이상 모이지 못하고 있어서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조직이 거의 없지만, 약 6개의 소그룹 목장으로 나누어서 어른 성도와 청년들이 섞여서 교제와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목장은 정기적으로 따로 모이는 모임이 아니고, 목장 자체로 수시로 자유롭게 모여서 교제하는 형식입니다. 목자들이 목장 식구들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하며 비정기적으로 만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목장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변동되지 않고 계속 같은 구성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을 멘토와 멘티 역할을 하며 조언과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로 대학생, 청년들 중심으로 모든 교제와 양육과 사역을 진행하다 보니까, 성인들 교제와 양육도 필요함을 느껴서 비정기적으로 성인 집사님들의 모임도 따로 만들어 함께 독서나눔, 가정방문 교제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보기도 모임도 주로 어른들 중심으로 평일 저녁에 모여서 교회와 각 목장의 청년들을 놓고 함께 중보기도하며 영혼들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하고 있는 사역은 청년들 공동생활을 위한 집을 구입하여 그곳에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신앙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 전에 시작한 사역으로, 주로 청년들 숙소가 필요한 상황에서 청년 간사를 세워서 자원하는 청년들 중심으로 약 4명 정도 '한솥밥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공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아파트 전세로 있다가 최근에 교회 재정의 2/3 정도를 들여서 아예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추후 교회를 옮겨야 할 것을 대비하여 적립하는 재정이었지만, 교회 건물보다 청년들 공동생활 훈련집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그렇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공동체를 통해서 청년들의 필요도 채우면서 이들을 신앙적으로 훈련을 꾸준히 할 수 있어서 보람이 있고, 장기적으로 계속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사역 방향 및 계획

최근에 코로나19 영향으로 대학교는 계속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을 만나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청년들 초

신자들이 교회에 초대되는 경우가 점점 줄어들고, 기존에 있는 대학생들은 거의 졸업을 했거나 취업준비를 하고 있으며, 또 취업을 하고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들 중에 가까운 지역에 있으면서 계속 교회에 나오며 섬기는 청년들이 있어서 그들과 어른들이 함께 교회의 구성원으로 계속 사역과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지역에 남아 있는 청년들 몇 명과 대구와 부산지역에서 오는 몇몇 청년들과 어른들이 있지만, 점점 청년들은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면서 타 지역으로 가고 있고, 반면에 새로 전도되어 오는 대학생 청년들이 적어지고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은 어른과 청년들이 약 절반 정도 있으면서 매주 비대면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수가 약 25-30명 정도 됩니다. 앞으로 교회의 방향과 사역에 대해서 고민이 되고, 언제까지 이 사역이 가능할지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교회의 재정은 감사하게도 늘 여유가 있고 오히려 선교사와 선교단체 5군데 정도 매달 후원하고 다른 전임 사역자를 도울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비록 비대면이지만 재정 자립도나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사역자들이 교회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하기 때문에 지출 부분이 거의 사역과 선교비로만 충당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역의 한계성과 부흥에 대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교회 재정의 건정성은 사역에 있어서 조급함이나 염려를 갖지 않도록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교회사역의 정체성이 그동안 젊은 대학생들을 위한 전도와 양육이었는데, 이 부분에서 점점 상황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어서

교회의 방향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인도를 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소수의 청년이라도 한 명 한 명씩 그들을 만나 교제하며 양육하고 제자로 삼고 세워 가기를 목표로 할 것입니다. 나아가 어른들도 새롭게 연결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성인들을 위한 사역도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대학생들을 위한 선교단체 형식의 교회의 특성이 강했다면, 앞으로는 좀 더 지역사회나 가정이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도 넓혀 가기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계속 대학생들 전도와 양육, 직장인들 위한 선교와 양육, 가정 회복을 위한 사역, 나아가 구제와 선교에 참여하는 교회로 도약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저의 사역 소개를 대략적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늘 청년들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양육하고 세우며 함께 교제하며 기도하는 것이 즐거움이요, 사명이요, 목표로 삼고 청년회 간사로 섬기다가, 월드미션 대학 목회학 과정에 들어가 공부하며 좀 더 구체적이며 실제적으로 사역을 준비하며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월드미션 대학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는 과정이 저의 사역에 큰 전환점이 되었으며, 교회를 개척하고 비록 파트타임이지만 목회자로 섬기며 교회를 세워 가는 중요한 밑받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저의 한계를 더욱 느끼게 되고 부족함을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함께하는 공동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팀원들이 필요함을 절실

히 느끼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사역이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두세 사람, 또는 그 이상이 공동체를 형성하여 함께 마음을 품고 섬길 때, 주님께서 각자의 준비된 것과 은사와 역량을 사용하여 그것이 합쳐져 하나하나의 사역이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향을 받고 변화되고 세워지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목회의 기회와 섬김의 기회를 통하여 제게 붙여주시고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과 한마음으로 공동체를 이루어서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삶으로 실천하고 보여주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함께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무엇보다 이 사역을 실제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기회의 문을 열도록 배우고 자랄 수 있는 과정인 월드미션대학교와 함께 공부했던 학우들, 그리고 좋은 영향과 가르침을 주셨던 교수님들께 이 시간을 빌려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최은종 목사의 사역 사진

교회설립예배 기념사진

매년 두 번의 교회 수련회 사진

매일 아침 8시에 말씀묵상 및 기도회 모임

주일 예배 후 점심식사 및 생일 축하

주일 예배 때 전체 기도회 시간

사쿠라와 무궁화

• 허종훈 선교사 (MDiv '08) 일본

3월로 접어드니, 사쿠라(벚꽃)가 조심스레 꽃망울을 하나 둘 터뜨리고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4월에 공식적 회기가 시작되는 일본은, 대학의 입학식, 신입사원 입사식 등 새로운 출발의 기대와 함께 들뜬 분위기에 싸여 있었을 이 시즌에, 올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조금은 우울한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일본인들은 코로나의 상처를 순식간에 극복하고, 그리고는 언제 그런 게 있었느냐는 듯, 새로운 사쿠라의 시즌을 맞이하여 이곳저곳에서 신입생 혹은 신입사원들을 중심으로 맥주를 들이키며 사쿠라 나무 아래서 흥겨운 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태평양전쟁의 참혹한 패전 후에도, 10년 전 세계적인 뉴스가 된 3·11쓰나미 및 원자력발전소 사태 이후에도 일사불란하게 경제와 사회를 재건하여 눈 깜짝할 사이에 새로운 사쿠라 꽃놀이를 즐기는 일본인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들을 향한 경탄과 함께, 현실세계만의 세계관에 깊이 뿌리 박힌 그들에게 기독교의 복음이 어떻게 비쳐지는가 하는 깊은 질문에 빠져들게 합니다.

저는 1963년 시골의 전통적인 불교와 유교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대학 1학년(1982년) 때 주님을 영접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는 완전히 무관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지독히도 가난한 가정의 5남매 중 둘째로 태어나 초등학생 시절부터 신문배달을 하던, 때론 옛날

부산 용두산 공원에서 빈병과 깡통을 줍던, 한번은 가게의 빵을 훔쳐 먹던, 그리고 소풍 가는 날을 가장 싫어하던 어린 시절이 다시금 떠오릅니다.

정규 중학교를 갈 수 없어 검정고시를 통해서 고등학교에 입학해야 했던 어린 시절 마음의 응어리가, 크면 꼭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자리잡아 저를 지배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는 사회에 대한 적대감정을 품고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라는 소박한, 그러나 본질적인 질문이 생겨났습니다. 이 질문의 고민을 간직한 채, 가난 속에서도 어렵게 대학에 들어간 저는, 무엇보다도 제 마음 깊은 곳에 있던 그 본질적인 질문을 해결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대학선배를 통해 처음으로 복음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배로부터 한 권의 책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한영대조 기드온 신약성서였습니다. 사실 그 선배를 처음 만난 그날, 저는 불교학생연구회의 신입회원으로 등록하기 위해 신입생 서클 안내 부스 근처의 벤치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질문과 고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첫 구원의 사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부터 그 선배로부터 받은 성서를 매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 후 저는 선배들과의 정규적인 성경공부를 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시간들이었는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요 14:6)라는 이 말씀이 저의 그 본질적인 질문을 깨끗하게 해결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감격 속에 있었지만, 가난한 가정에서 어렵

게 진학한 대학, 그 후의 직장에 대한 꿈과, 가난한 가정의 부모님에 대한 기대를 거절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선교의 부르심을 받아들이기에는 많은 기도와 눈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후 5:14-15).

그 후 대학 3학년 때 처음으로 일본어를 공부하며 선교의 꿈을 꾼 지 9년(1993년), 하나님께서는 저를 일본 후쿠오카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28년이란 세월이 참으로 빠르게 흘렀습니다. 이 글을 쓰며 잠시나마 지난날을 돌이켜 보며, 진심으로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신 33:29).

아마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세상적 성공을 위하여 독한 마음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했으면, 주님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쾌락을 즐기며,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선하신 주님은 이러한 저에게 구원의 선물과 함께 선교의 특권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캠퍼스 기간 중의 신앙생활관 훈련, 믿음의 선배들과의 교제, 전도

와 양육의 훈련, 군 기간 중의 연단 등을 거쳐서 주님께서는 일본의 선교현장으로 저를 보내셨습니다. 주님을 위해 다 버렸던 학업을 다시 새롭게 해야만 하는 유학생 신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경제적 문제로 인한 과중한 스트레스와 믿음의 부족으로 실족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일주일 정도 돈도, 쌀도, 자동차 기름도 다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하늘만 쳐다보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가 버릴까?' 그런 중에서도 선교사로 부름받았을 때, '내 주머니 사정은 절대로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결심을 되새기곤 하였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대형 슈퍼마켓에서 당일 사용가능한 카드를 만들어 식료품을 사려고 시도해 본 적이 있었는데, 신용이 제로인 유학생에게 카드를 발급해 줄 수 없다는 설명을 들을 때, 다시 한 번 저의 야곱과 같은 모습을 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마다 여러 모양의 까마귀(?)들이 날아와서 저희 가정을 지켜 주었습니다. 대학 캠퍼스 시절의 한 형제는 퇴직금의 일부를 보내주었고, 예상하지 못한 장학금을 허락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또한 두세 개씩 하던 아르바이트, 엄격한 교수님 밑에서의 연구, 신혼의 가정, 그리고 막 시작한 선교사역 등 치열한 생존의 시간들을 보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지친 몸으로 지하철을 기다릴 때면, '일본사람들이 이래서 과로사로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니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안에서의 믿음의 훈련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처음 석박사 6년간의 훈련기간을 거치면서, 저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온전히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26-34).

저는 주님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비로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훈련기간을 통과하고 나니, 바로 그 앞에는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저와 저의 가정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무 준비도 없이 직업 선교사로 일본에 파견된 저를 주님께서는 대학교수로서 캠퍼스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박사 학위 취득과 동시에,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경력도 없던 저에게 놀라운 방법으로 대학교수의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25대 1이라는 일본인들과의 채용 경쟁에서,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이사(아마 눈을 멀게 했을 수도…><), 택함 받은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창 24:50)라는 말씀과 같이, 채용하는 결정권이 심사위원 교수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절대주권자 하나님께 있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현재는 가정과 선교를 위한 넓은 선교관도 허락해 주시고 영주권 비자도 얻게 해주셔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선교할 수 있도록 좋은 조건과 환경들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1초의 서두름이나 지체함도 없이, 저와 저의 가정을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교지의 처음 6년은 유학생 신분으로서, 캠퍼스의 대학생 사역이 중심이었습니다. 캠퍼스의 식당에서 혹은 유학생/일본인 교류 서클을 통해서 대학생들을 만나 관계 중심의 전도를 하였습니다. 선

교지 첫해, 교류 서클의 이벤트로 일본의 유명한 불교사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유학생 5-6명을 포함한 15명 정도의 참석자들은 사원 안내원의 배려로 전통차를 마시며 환담을 즐겼는데, 제 눈에 아주 특별한 한 학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환담 시간 중에 잡다한 일들을 즐겁게 섬기는 그 학생을, 처음에는 그 사원의 시중드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 일행 중 한 명이었습니다. 왠지 섬기는 사람을 귀히 보시는 하나님의 시야를 주셨고, 그 이후 그를 위해 기도하며, 막 시작한 저희 초라한 신혼 집의 식사 테이블에 틈만 나면 초대하여, 서서히 신뢰관계를 맺으며 성경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첫 열매 N형제가 지금 28년을 함께하며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을 섬기는 동역자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할렐루야!

선교지의 7년째 이후에는 대학교수로서 대학생들을 연구 지도하며, IBF(International Bible Fellowship)라는 공식 서클을 조직해서 학생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서클을 통해서 N형제의 배필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할렐루야! 현재 N형제는 두 자녀의 가장으로서 중등교사로 근무하며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귀하신 섭리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대학교수로 근무하면서, 하나님은 또한 특별한 만남을 허락하셨습니다. 같은 학과 내의 N교수는 미국에서 20여 년간 연구경력을 가진 탁월한 분으로 경건한 크리스천입니다. 제가 대학 교수로 채용되던 해, 함께 지역교회를 개척하는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때까지의 성경공부 중심의 사역과 함께 공적인 설교와 예배를 함께 담당하면서, 신학공부의 필요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부부를 제외한 20여 명의 성도가 모두 일본인이라는 상황

은 저를 더욱 겸손히 낮추고 섬기는 자로서의 본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경과 교회,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더 깊은 안목을 얻기 위해서 고심하던 차, 본 WMU의 원격과정 신학공부를 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약 4년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좁은 터널 속과 같은 생각과 비전에 갇혀 있던 저를,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넓은 세계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의 타임 라인'이라는 주제의 교과과정에서,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신 인도하심과 앞으로 이끄실 방향들을 WMU 교수님들의 강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저에게 큰 영적 자산이 되었습니다. 특히, 저 자신을 위해 매진할 수 있었던 세상 학문(물리학)을 온전히 버리게 하시고,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시 잡아 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비로소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출 4:4)라는 말씀이, 개인적으로는 '모세가 버렸다가 다시 잡은 지팡이'가 저에게는 학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대학과정은 당시의 저에게는 캠퍼스 선교를 위한 신분 확보로 생각하였고, 일본의 유학생 시절은 비자 연장 유지를 위한 방편으로만 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의 좁은 생각을 깨우치시고,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 준비하고 계셨음을 확인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택함 받은 백성에게는 의미 없는 일이 있을 수 없으며, 주어진 모든 일들 즉 세상일처럼 보이는 어떤 것도 주님께 하듯 성심으로 임해야 한다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저의 집 마당에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서 무궁화를 이곳저곳에 심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어린 시절의 동네 아이

들 놀이를 기억하고 계신 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일제 강점기의 어린아이들 놀이에 저항과 독립운동의 요소가 숨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집에 심은 무궁화는 사쿠라와는 계절을 달리하여 핍니다만, 일본인들이 방문하면 한국의 꽃이라 소개하며, 지금은 볼 수 없게 된 1원짜리 동전 앞면의 무궁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쿠라에 대한 각별한 심미적 감성에 푹 빠진 그들에게 여전히 무궁화는 생소하거나 관심 밖의 꽃입니다. 그것은 일본의 유명한 사회학자 야마모토 시치헤이(山本七平)가 말한 "일본교(日本教)"라는 "무의식의 인간중심의 조화(調和)의 세계"에 푹 잠긴 일본인에게 있어서, 그 가르침이 너무 생소하여 그들의 인간중심의 세계에 조화될 수 없는 모습으로 비추어지는 기독교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일본에 들어온 한인 선교사들이 수없이 받게 되는 유혹, 즉 "그놈의 사쿠라(일본교)를 다 뽑아 버려야지" 하는 성급한 마음과, 또한 "역시 무궁화(한국적 기독교)를 팍팍 심어야지" 하는 과거의 성취 경험에서 오는 욕심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사쿠라(日本教)를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그들의 자리에 내려가야만 그들에게 진정한 무궁화(無窮花)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한국의 꽃이 아니라, 무궁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 말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앗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를 향한 요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요나의 마음으로 하는 선교로는, 하나님의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제 마음속에 온전히 채울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 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십이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욘 4:9-11).

1억 2천만의 일본을 위해 기도하며, 이곳에 뼈를 묻을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곧 선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대학 연구실의 창가 너머 막 피기 시작한 사쿠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현재 재직 중인 대학 내의 성경공부 모임과 지역의 현지인 교회(무나카타 메구미 교회)를 섬기며, 이 척박한 일본 땅에 영적인 봄날이 올 것을 기대하며, 현지인 지도자 양성과 현지인 교회의 아름다운 모델을 세우는 일에 남은 생을 드리고자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빌려, 두 아이를 기르는 벅찬 생활, 특히 6년간 유학생 남편을 뒷바라지하느라 생선가게 점원, 슈퍼마켓 반찬가게의 잡일 등을 마다하지 않고 한마음으로 인내하고 함께해 준 사랑하는 아내(최우선 선교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심하게 챙겨 주지 못한 가운데서도 씩씩하게 자라서 일본의 직장인과 대학생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성장하고 있는 두 아들(찬영, 대성)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저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 주신 김용식 형제님, 선교사 파송과 신학 공부 등 많은 기회를 열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세계로선교

회 변희관 목사님, 일본선교의 파이오니아로서 늘 함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강석재 선교사님, 원격 신학 공부의 기회를 제공해 주시고 지원해 주셨던 WMU의 고 임동선 총장님과 임성진 총장님을 비롯한 교수님들, 그리고 새생명비전교회 강준민 목사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20여 년간 함께 동역하는 무나카타 메구미 교회의 나카가키 선생님(N교수)과 교회 식구들, 그리고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동고동락한 니시지마 형제(N형제)를 비롯한 다음 세대의 형제자매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글을 통하여 우리 선하신 주님의 이름만이 영광 받으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가족사진(왼쪽부터 장남 찬영, 차남 대성, 아내 최우선, 필자)– 일본의 최북단 홋카이도에서 가족여행 중(2016년)

일본 다다미 방의 선교관에서 다음 세대의 형제자매/자녀들과 함께(왼쪽에서 첫 번째가 N형제)(2019년)

필자가 근무하는 국립 규슈공업대학의 성경공부 서클(왼쪽에서 네 번째 여학생이 N형제의 아내)(2011년)

일본 현지인 교회–무나카타 메구미 교회(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N교수, 빨간 모자가 N형제)(2019년)

필자가 근무하는 국립 규슈공업대학의 Huh–Shimizu Lab의 학생들과 사쿠라 꽃놀이(전열 왼쪽에서 네 번째가 필자)(2019년),

일본 현지인 교회–무나카타 메구미 교회 개척 10주년(후열 왼쪽에서 첫 번째가 N교수, 네 번째가 최우선 선교사, 2, 3열 왼쪽이 N형제 부부)(2010년)

주께서 저희를 위하여 행하신 일

• 황만기 목사 (MDiv '08) 서울

존경하는 WMU 동문들 앞에서 지난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선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우리는 40대 초반(1990년대) 중국의 대도시에 상사 주재원으로 파견되었다. 중국은 빗장을 풀고 개혁 개방의 물결이 장강과 함께 흘렀다. 도로와 시장은 인산인해요, 도시마다 거대한 건축 공사장이었다. 한 시간을 자전거 물결에 휩쓸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직원들 아침 큐티 모임을 갖고, 팩스로 도착한 생산 계획서에 따라서 외주 생산 관리에 돌입한다.

선교하러 왔는지 일하러 왔는지 모를 정도로 바빴다. 주일마다 직원 예배를 인도하며, 잦은 출장으로 동행하는 현지인 직원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그 당시 선교 제한 국가에서 전도는 조심스러웠다. 전화 도청과 미행은 기정사실이며, 통화 시 선교적인 용어 사용은 피했다. 지하 가정교회 지도자와 탈북 자매를 도우면서 긴장은 쌓이고 있었다. 이웃에 사는 친구 선교사가 한 명의 대학생을 돕다가 단속에 걸려 바로 추방당했다는 소식에 우리는 더욱 조심하였고, 회사 내 직원들 대상으로만 사역하였다.

국내에서는 1998년 IMF 경제위기가 터졌다. 회사는 긴급 구조조정으로 많은 직원들을 강제 퇴직시키고 나에게도 본사의 복귀 인사 명령이 떨어졌다. 나는 사표를 내고 아직 남은 비자 기간 동안 다른 일을 했다. 두 아들은 현지 학교에 다니고 아내는 내내 공안 당국의 감시 상황에 불안해하여 잠을 잘 수 없었다. 영화 〈뷰티풀 마인드〉 영화의 주인공 상황이 나타났다.

현지 사역은 제자 ㅅ형제 부부에게 맡겼고, 또 다른 제자 ㅂ형제 부부는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하고, 우리는 철수하여 새로운 서울 사역을 준비하였다. ㅅ, ㅂ 두 자비량 선교사는 좋은 팀워크로 현지인들을 세워 나갔다. 한편, 재정 지원을 하는 ㅂ형제 부부는 수백 명 직원을 관리하는 현지수장이 되었다. 그는 업무 시작 전에 직원 성경읽기를 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두 형제 부부는 역할을 분담해서 복음을 전하며 제자들을 삼았다.

1990년대 세계 선교는 큰 도전이었다. 당시 캠퍼스 컨퍼런스에서 세계 비전을 향한 도전과 헌신이 봇물처럼 터졌다. 우리 선교회는 자비량으로 해외 선교 방향을 잡고 이랜드 기업과 협업을 하기로 하였다. 각 지역으로부터 60, 70여 명의 일꾼들이 자원하였다. 나는 40대 신입사원으로 20대와 함께 교육을 받고 속성으로 실무 경험을 쌓은 후 동아시아 대도시에 주재원으로 파견되었다. 우리 중에 몇몇은 중도에 탈락하기도 했고, 한 형제는 교통사고로 순직하였다. 우리 입사 동기인 그의 아내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 자매는 임신 중에 남편을 잃었다.

선교적 회사 생활을 통하여 귀중한 교훈을 얻게 되었다

1) 선교 제한 국가에서 자비량 선교는 유효한 대안 중의 하나이다.

2) 자비량 선교사는 직업이 곧 선교라야 한다(Business As Mission: BAM).

3) 선교 비전과 열정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한계를 인식하고 사전 점검이 필수적이다.

4) 사도 바울은 자비량 사역의 롤모델이 된다.

>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고전 9:23).

선교의 씨앗이 뿌려지다

70년대 후반 부산 고교 SFC 연합회 수련회에서 고린도전서 9장 17절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는 말씀을 받았다. 그 이후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참여하였고 나중에 WEMA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한 분과의 만남으로 그분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다

전역 후 76학번 후배들과 함께 부산대학교 약대에서 수학 중이었다. 그 이듬해 변희관 목사님은 군목으로 전역하시고 창세기 22장 17, 18절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부산 개척 사역을 시작하셨다. 대학생, 직장 청년들을 중심으로 제자 삼는 사역이었다. 어느 날 변 목사님은 나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셨다. 두 분의 따뜻한 사랑을 개인

적으로 받았던 첫 만남은 잊지 못할 특별한 감동이었다.

주님께서 인도하신 이 만남은 지금까지 우리의 삶과 가정과 자녀 양육과 사역에 큰 축복이었다. 실제적인 전도와 양육 방법들은 나에게는 참으로 신선했다. 배워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다. 브리지 예화로 어떻게 전도하는지와 수레바퀴 삶을 그려가면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손바닥 모양을 그려가면서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 5가지 방법을 전수해 주셨다. 특별히 주제별 암송 60구절을 반복해서 복습하며, 매일 주님과 만나는 경건의 시간과 나눔은 기본이었다. 그 외에도 매주 소그룹 성경공부와 개인적인 구원 간증과 브리지 전도 등으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은 참으로 신나는 일이었다.

전도한 영혼에게 배운 대로 해보니 매우 효과적이었다. 숫자가 늘어나면서 그룹을 형성하고 식사 교제와 스포츠와 여행과 더불어 학업을 함께하며 우리는 제자 그룹으로 자라갔다. 그룹은 팀으로 발전하여 전도하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데 능숙하게 된다. 보다 강도 높은 훈련으로 캠퍼스 단대별 또는 직장별로 새로운 팀 사역을 펼칠 수 있도록 사역 인턴십을 밟는다. 이런 경건의 훈련과 사역 훈련은 큰 축복이었다. 변 목사님의 비전,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를 나의 비전으로 심어 주셨다.

유정선 사모님의 코칭을 받은 박정희 자매와 결혼하게 되었다. 결혼식은 변 목사님의 주례로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를 부르면서 행진하였다. 선교사 파송식처럼 치렀다. 80년대부터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몰려오기 시작하여 마산, 창원, 울산, 진주로 파송하여 사역이 뻗어나갔다.

단기간 부산 사역의 성장 비결은

1) 예수님이 행하시며 가르치신 본을 따른 리더십의 역할이 크다(행 1:1).

2) 디모데 원리로 견고한 세대를 형성하여 배가하는 사역에 집중하였기 때문이다(딤후 2:2).

3) 부산 사역의 원동력은 약속의 말씀인 창세기 22장 17, 18절을 믿는 믿음과 헌신적인 기도의 삶이었다.

부산을 넘어 마산, 창원, 서울과 중국으로 불타는 세계 비전

우리는 이사야 58장 10-12절을 약속의 말씀으로 받고 석 달 된 아들과 함께 마산 경남대학교 개척 간사(contact staff)로 보냄을 받았다. 그동안 배웠던 대로 사역 인턴십 6년 동안 경남대학교(현 박기성 선교사)와 창원대학교(현 유동근 목사) 두 팀을 재생산하였다. 그 당시 수양회에는 70여 명의 청년들이 참석하였고, 장래 여러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될 청년들이 나아왔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90년대를 바라보며 우리는 세계 선교 비전을 실천하기 위하여 국내 사역을 마무리하고 곧바로 자비량 해외 선교에 몇몇 형제자매들과 함께 서울 이랜드로 이동하였다.

불타는 선교 비전은 신입사원으로 입사하게 하였고, 옷을 만드는 생산관리 직업 훈련을 감내하게 하였다.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 90년대를 보냈다.

마산, 창원, 서울 사역에서 주신 교훈

1)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을 때 모든 필요를 채워 주셨다.
2) 주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신다.
3) 약속의 말씀(사 58:10-12)을 믿음으로 사역의 추진력으로 삼았다.
4) 전략적으로 디모데 원리(딤후 2:2)대로 먼저 소수에 집중하여 재생산 사역에 드렸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국내에서 제2의 개척사역을 시작하다

2000년대는 선교지에서 돌아와서 부천시 서울신학대학교 선교영어학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개척사역을 또 시작하였다. 서신대 학생 위주로 작은 컨퍼런스를 열었고, 겨울 방학 동안 성경 읽기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이들을 다지기 시작하였다. 제자 삼는 사역으로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다는 꿈을 공유하였다.

일본과 중국 비전트립을 통하여 비전을 찾고 유대를 강화하였다.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주님과의 교제와 섬김의 과 전도훈련으로 제자들을 확립하였다. 현재 이들 가운데 절반이 일본, 미얀마, 베트남 선교사들과 군목, 목회자로 섬기고 있다.

신학 공부하며 제자 삼는 사역 + 예배 공동체를 제고하다

2000년대부터 선교 열기가 이전 같지 않았고 점점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하였다. 80, 90년대는 씨를 뿌리고 그물을 내리기만 하면 열매를 얻었지만 이젠 관계를 통한 전도로 바꾸었다. WMU 목회

학 석사과정을 공부하면서 나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게 되었다.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다. 왜 우리는 제자 삼는 사역에 올인하려고 하는가?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였고, 목회학 석사 과정은 큰 도움이 되었다. 교회사에서 독일 경건주의 운동은 종교개혁 이후 교리 위주의 신앙에 반발하여 일어난 경건운동임을 알았다. 그 교회는 냉랭하고 잠자고 있던 교회들을 일깨우며 소책자 읽기, 선교에 임팩트를 주었다.

역사는 반복되어 선교단체가 교회를 일깨워 제자훈련과 성경공부 등을 도입하여 교회가 성장하였다. 예배는 선교의 땔감이다. 선교의 본질은 바로 예배였다. 그리고 내외적으로 연합을 시도하였다. 캠퍼스 연합체인 학원복음화협의회에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선교계에 신망을 얻게 되었다. WEMA의 일원이 된 것은 또 다른 축복이었다.

통합적인 신학공부를 통하여 성경을 전체적인 맥락으로 해석하며 적용하기에 이르렀다. 나는 이렇게 거꾸로 먼저 선교사역을 하고 나중에 신학을 하였지만 후회는 없다. 제자 삼는 사역 + 예배 + 연합 공동체 사역으로 '미션얼' 사역으로 전환하였다.

선교적인 교회를 지향하는 지역교회 목회자들과 '홀리 스타' 큐티 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ENM 선교회 서울 A지부에서 파송된 3 UNIT 선교사들을 지원하며 인하대학교에서 두 명의 인턴 간사와 함께 개척사역을 진행 중이다. 그리고 평생 공부하는 독서 모임 '톨레레게'를 조직하여 매월 1권의 책들을 읽어 나가고 있다. 다문화 이주민을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하여 다문화선교협의회를 맡아서 '다문화 이주민 정착 지도사' 과정 개설을 문공부에 신청하였다. 그리고 지역 교회와 협력하여 상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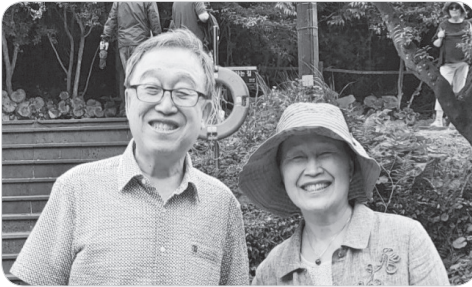
문화선교 모델을 만들어 나간다.

고등 SFC 연합 수련회 때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는 말씀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참여하게 하셨는지를 간단하게 돌아보았다. 실로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귀하신 WMU 동문들께 저의 작은 사역 이야기를 나누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황만기 목사의 사역 사진

1980년대 마산창원 사역

2000년대 개척 멤버들

변희관 목사 부부

2021년 부활절 아침

학복협대표리트리트

이랜드 프로젝트에 참여한 일꾼들

내가 받은 은사는 무엇인가?

• 황재길 장로 (MDiv '12) 남아공

아프리카에 오게 된 동기

1990년도 4월, 지금부터 약 30년 전 이야기이다. 1980년 12월 31일, 서울에 올라와서 10년째 되던 해 그동안 후원 멤버들과 함께 그루터기 선교단체를 돕고 있었는데, 이 단체의 책임을 맡고 계시는 조성범 목사님이 아프리카에 제재소 프로젝트를 한번 돌아보고 오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셨다. 시골에 있을 때 외갓집 형님이 운영하시던 제재소 경험이 있어 한번 다녀오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때 생각은 아프리카에서 목재사업을 하게 되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우거진 열대 밀림지대를 개척하기도 하고 아름드리 열대성 목재를 운반해다가 가구 및 건축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아프리카 방문을 위한 여권을 신청하였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해외여행 자유화가 처음 시행되었을 때 싱가포르를 한 번 다녀왔기에 두 번째 해외여행이 되는 셈이었다.

아프리카 보츠와나로 가는 비행기는 일주일에 한 번, 싱가폴에어를 이용해서 3일 걸려서 보츠와나 땅을 밟게 되었다. 여기에 약 30여 명의 청년들이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선교기지를 개척하고 있을 때였다. 그루터기 선교단체에서 그동안 많은 젊은이들을 신앙교육을 잘 시켜 해외, 특히 동남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등지로 파송할 때

였으므로 보츠와나에 온 젊은이들도 그중에 결혼한 분도 있고 안 한 분도 있지만 모두 이곳에 정착하기 위해 나름대로 영어도 익히고 흑인들을 가르치며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려고 온갖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학교 건물이며 기숙사 등을 손수 마련하던, 그야말로 아프리카 초창기 정착 시기라고 생각된다.

그때 이곳에 맨주먹으로 오신 그루터기 청년들이 지금 중년의 나이로 아프리카 곳곳에 흩어져 한국인으로서 이 땅의 개척자이며 선교적인 삶을 살면서 우리 교민사회의 주역으로 성장되었다고 본다. 대부분 전문적인 신학을 공부하거나 전공을 가진 것은 없으며, 누구 하나 경제적인 뒷받침을 받을 수 있는 기관도 전혀 없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현재 남부 아프리카 곳곳에 그들이 가진 공동체적인 삶을 현지인들과 함께 나누며 교회를 섬기며 병원을 설립하기도 하며 현지 학교를 운영하기도 하며 북한 선교사역에 그리고 현지 기술학교 선교사님들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

내가 처음 계획했던 목재사업은 기대와는 전혀 달리 일반적인 목재는 찾아보기 어려운 아프리카라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우리가 배운 교과서에서와는 달리 아프리카 대륙은 열대우림 지역이 아니라 대부분이 고원지대이며 매우 건조한 기후여서, 조림지역이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건축 가구 목재는 매우 귀한 땅이다. 따라서 기대하던 목재 프로젝트는 사라져 버린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보여주셨고, 이 땅에서 주님의 섭리 가운데 교회와 선교지를 섬기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셨다고 믿는다.

동대문시장에서 아프리카로

혹시 동대문시장에 대하여 아시는 분들은 그곳의 공기가 얼마나 열악한지 알 것이다. 밀폐된 건물에 3만여 점포들이 밀집해 있으며, 80년대와 90년대 초에는 원단과 봉제품 수출 붐이 일어 호황을 이룰 때였다. 처음으로 시골에서 서울로 와서 이런 복잡한 시장에 발을 들여놓는 것도 쉽지 않지만 기왕 서울에 올라왔으니 무엇인가 꿈을 이루려고 새벽마다 기도하며 지냈다. 누비솜 장사를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믿지만 무엇보다 한두 사람 직원이 늘어가면서 매주 화요일 저녁 6층 창고에 모여 예배를 드리며 우리와 거래하는 모든 회사 직원들에게 복음 전하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지냈다.

30여 거래처 사장님들이 거의 모두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유독 '대호 오버씨즈'라는 가죽제품을 수출하는 회사의 사장님 이하 직원들께서는 10여 년 동안 거래하는 가운데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셨다. 그러나 언젠가는 기도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을 아프리카에 와서 깨달았다. 아프리카에 이민온 후 3년쯤 지났을 무렵 한 통의 팩스가 왔는데 바로 그 회사 사장님이 교도소에서 막 출소하여 동대문에 가서 나의 아프리카 연락처를 알아서 팩스를 보낸 것이다. 6개월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고, 사업하면서 가끔 나와 만날 때마다 예수 믿으라는 권유가 그때는 왜 귀에 들어오지 않았는지, 이제야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한 즐거움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연락이 온 것이다. 너무 반가워 비행기 티켓을 보내면서 한 번 아프리카를 다녀가시기를 권했다.

이분은 한때 우리나라의 수출산업 훈장을 두 번이나 수상하신 이광일 사장님이시다. 10년이나 연상이었으므로 함께 일하기보다 독

자 사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마대공장을 설립하도록 협조하였다. 사업을 시작한 지 10년이 되던 해에 선교사님과 함께 마푸토 한인교회를 세우시고, 토파라는 마대공장을 15년간 운영하시면서 약 200여 명의 종업원들과 함께 매일 아침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 잘하시다가 소천하셨다.

동대문시장에서의 10년 동안 잊을 수 없는 일들이 많았다. 그중에 한 가지만 더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한국의 사업현장이 너무 경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동업자들과 반목이 심하였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화목한 분위기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 기도하며 지내던 중 바로 이웃 동업하는 회사에서 가끔 자기네 재고가 모자라 납품할 수 없으니 부족한 물건을 빌려 달라고 여러 번 부탁이 왔다. 평소 시장의 관행은 어떻게 하든지 남의 회사에 어려움이 있어야 우리 물건을 팔 수 있으므로 절대로 빌려주거나 생산가격으로 꾸어 주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종업원들에게 이웃 업체에서 무엇을 빌려 달라고 하면 무조건 우리 재고가 부족해도 꾸어 주라고 일렀다.

어쩌다가 우리 가게에 물건이 부족해서 빌리러 가면 열 번 중 한 번 빌려 줄까 말까 했으나 차츰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 도와가면서 사업하는 것이 얼마나 유리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 매일매일 정산하던 것을 일주일씩, 그리고는 한 달에 한 번씩 주고받은 것을 정산하다가, 나중에는 우리는 몇 가지 색상 너희는 빨강, 노랑, 검정…해서 색상을 나누어 생산하니 재고도 적고 생산율도 훨씬 높아졌다. 주위의 동업자들이 이 시스템을 부러워하며 함께 신뢰를 쌓으며 재미있게 지내게 되고, 그중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과 함께 동업자들과 거래처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이런 일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아프리카에서 약 한 달 반 동안 여기저기를 둘러보고 난 후, 내가 남아공에 정착하기로 결심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 맑은 공기 때문이었다. 동대문시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 너무 공기가 나빠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 이곳에서 한 달 넘게 있으면서 느낀 것은 좋은 공기 탓인지 아프리카에 대한 매력이 점점 강렬해지기 시작했다. 다시 귀국해서 사업장이 있는 동대문시장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숨막힐 듯한 기분이 들고 다시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은 내가 섬기던 교회였다. 교회 담임목사님의 아들 후임 문제로 교회가 어지럽게 분쟁이 있을 때여서 그 전해에 신임 장로로 피택받은 나의 매일 기도제목은 평안히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이사가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해 12월 마지말 날 함께 10여 년 일하던 종업원들에게 퇴직금을 지불하고 하던 사업장을 먼 친척 조카에게 맡기면서, 종업원들을 잘 데리고 사업하며 내가 잘 닦아 놓은 사업장이니 나보다 교회 섬기는 일에 더 열심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나는 새해 들어 아내와 같이 유럽 여행을 떠나서 약 3개월 후 영국에서 바로 아프리카로 오고, 아내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다. 사업장을 인수받은 조카는 5년 후 1995년 우리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 건축 당시 상당한 헌금을 해주었고, 그 후로 개척교회 건축하는 일에는 힘을 다해 헌금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교회 건축헌금을 할 때마다 더 많은 것으로 축복을 주셨다는 간증을 나에게 수차례 들려주었다.

교회 창립

1991년 4월 남아공에 첫발을 디딘 셈이다. 한국사람으로는 보츠

와나에서 만난 적이 있는 이 집사라는 분이 있었다. 우선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저렴한 호텔에서 남아공 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였다. 다른 서방국가도 마찬가지지만 이곳은 자가용이 없으면 밖에 나가는 것이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었다.

남아공에서의 처음 시작은 그야말로 나에게는 답답하다는 말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었다. 우선 영어가 전혀 안 되니 누구하고 이야기할 상대도 없고, 대중교통은 러시아워에만 다니고 간선도로 몇 군데만 다니니 가고 싶은 곳을 간다는 것은 엄두를 못 내는 형편이었다. 그동안 외국에 나오려면 진작 영어 공부라도 할 것을…고등학교를 나온 지 30년이 지난 지금 와서야 공부가 제대로 될 것 같은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

어떻든 몇 날을 지나는 동안 이곳에 먼저 온 교민을 만나게 되고, 그분들을 통해 이곳에서 공부하러 오신 지금 부산 남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배굉호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다. 배 목사님은 분명히 이곳 요하네스버그에 한인교회를 세우기 위해 기도하고 계셨고, 앞으로 이 교회가 큰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예언자적인 말씀을 하셨다. 한 달 후 1991년 4월 28일, 4월의 마지막 주일에 약 20여 명의 교인들이 모여 창립예배를 드림으로 남아공 최초의 한인 교회가 설립된 셈이다.

점점 남아공이 익숙해지면서 자연히 교민들의 아프리카 진출의 여러 가지 경로와 오시게 된 목적들이 다양한 것을 알게 되었다. 심지어는 한국에서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20여 년 전에 이곳에 오신, 결혼하신 분을 만났는데 한국말을 처음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그동안 남아공은 흑백 인종차별정책(The Policy of Apartheid)으로 인해 유엔에서 축출되었고 모든 국제사회에서 Sanction에 묶여 무역제

재를 받던 시기여서 우리나라와의 외교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다. 교회가 세워지면서 신앙생활을 하건 하지 않건 관계없이 여러 곳에서 모든 교민들이 교회에 찾아오면서 교회는 함께 교제를 나누며 서로 정보를 나눌 수 있는 만남의 장소가 되었다. 유엔의 Sanction이 풀리기까지 외교관계가 우리나라와 맺어질 때까지 모든 교민들은 교회에서 만남을 가지고, 고기가 싸다는 핑계로 쉽게 친교의 시간을 교회 중심으로 몇 년간 가질 수 있었고, 이러므로 자연히 남아공에 발을 디딘 거의 모든 교민은 교회를 중심으로 서로 교제와 정보를 나누는 기회를 가지고 복음을 접하는 기회가 생기게 된 셈이다.

차차 교민수가 600여 명까지 증가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한인회도 발족하였고, 다른 상공인 모임 같은 것도 교회가 중심이 되어 발족하게 된 셈이다. 다른 해외지역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민생활에서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절감하였다. 나날이 증가하는 교민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이국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귀국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교회생활과 신앙에 기초하지 못한 삶의 자세 때문임을 알게 되었다.

처음 교회 출석하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무언가 의지하고 싶은 답답한 심정과 확실치 않은 새로운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이민 1세대들이 간절하게 구하는 기도의 음성이 초대교회와 같은 분위기였다. 구역공부로 가정에서 모임을 가지면 밤이 늦도록 모임을 가졌고, 한인교회 자체 건물을 가지기 전까지는 교인들의 주거지가 100km 반경까지 널리 퍼져 있었지만 구역 모임을 가지는 금요일 저녁이면 거리에 관계없이 즐겁게 모여 밤을 새우고 아침에 돌아오는 일이 빈번했다. 1년에 한 번씩 가지는 부흥집회는 아예 전 교인이 멀리 집을 떠나 한 곳에서 한 주간

을 보내며 뜨거운 열기로 은혜받는 모습에 새로운 힘을 얻는 모습이었다.

우리 교인들보다 훨씬 좋은 조건, 즉 자금이나 영어 실력이나 경험이 풍부한 분이라도 이민생활을 감내하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 심지어는 향수병에 걸려 참지 못하고 귀국하시는 분들도 많았다. 어떻든 내가 느끼는 것은 이민사회에서 견디고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임을 확연히 분별할 수 있었고, 특히 이민교회가 교민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은 대단히 중요함을 피력하고 싶다. 아마도 미국에 처음 발을 디딘 청교도들의 정신이 오늘날 미국사회의 기초를 다듬은 것과 같지 않나 생각된다.

초기의 이민사회에서 선교사님으로 오신 분도 많고 다른 선교단체 이름으로 오신 분들도 많았지만 정작 한국에서 교회생활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몇 분 되지 않은 것 같았고, 그중 '장로'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은 나 혼자여서 늘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지나게 되었다. 나는 아직 아내 김 권사가 여기 오지 않아서 예배 후나 구역예배 후 성도들을 대접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어서 가정을 가진 몇 분 집사님들의 수고가 많았다.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초기 남아공의 교민사회는 이런 안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나갔다. 모든 교민사회의 단체 활동들은 교회가 중심이 되어 운영되어 왔고, 지금도 그런 분위기임을 알 수 있다. 대사관이나 다른 상사 직원들에 의하면, 교민사회가 큰 국가에서는 교민들의 분쟁이 심한데 남아공에서는 그런 일들을 찾아볼 수 없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나 자신도 초기의 한인사회 여러 가지 책임을 맡을 때마다 이 직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늘 새벽마다 기도하며 일한 것 같다. 어떻든 남아공 교민사회의 모든 사회적인 단체나 기관

은 교인들이 중심이 되어 움직이게 되므로 경쟁이나 분열 같은 양상은 보이지 않은 것 같다.

무엇보다 남아공은 다른 대륙에 비해 한국 이민사회가 90년 초부터 시작되었고 이민 초기였으므로, 정식으로 이민 온 분 가운데는 내가 나이가 가장 많은 축에 속해서 정부 공식 모임이나 여러 단체의 책임을 한 번씩은 거의 다 거친 것 같다. 그럴 때마다 속으로 기도하기를, 이런 기회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며 책임을 맡았다. 어느 단체의 모임이든 혹시 국내 해외에서 모임을 가질 때 혹 주일이 겹쳐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호텔이나 한적한 건물 구석에서 참석한 회원들에게 광고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서, 정기적으로 해마다 모임을 가지는 회의에서는 아예 예배 순서까지 정해서 모여 회의에 참석하는 의미에 한껏 뜻을 모을 수 있도록 기도했다.

핸드폰 부품 사업

본인은 월드미션대학교 동문으로서 동문들의 사역활동을 나누는 지면에 사업 이야기를 드리게 됨을 양해 바란다. 하나의 간증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한다.

처음 아프리카에 올 때는 5년 정도 이곳에서 건강을 회복하면 돌아가리라고 생각하고 발을 내디뎠으나 기왕 얼마가 되든지 일하면서 좀 더 외국 생활을 배우다가 돌아가기로 마음먹었다. 동대문시장에서 원단 장사를 하던 경험을 살려 원단 장사를 하려고 처음 세 컨테이너 물량을 수입해 왔었다. 내수 시장은 해본 경험이 있으나 수입하는 사업은 처음인데 분명히 시장조사를 할 때 90년대 초 한국의 원단이 품질과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있음이 확실하여 수입했으

나 관세 45%를 내고서는 현지 수입상들과 경쟁이 되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얼마 후 알게 된 사실이지만 현지 수입상들은 거의 관세를 내지 않고 수입한다는 말을 듣게 되어 나도 그 방법을 따라 밀수를 한번 해보았다. 그런 일이 있은 후 두려움과 죄책감이 들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 '아프리카까지 밀수를 하려고 왔는가? 먹고 살 게 없어 여기에 왔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수입한 원단을 그날로 약 반값으로 처분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기를,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면 관세 없는 품목을 선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관세가 없는 품목이면 누구든지 시장경쟁을 하는 데 있어 공정하게 가격경쟁을 할 수 있지만 관세가 높은 품목은 아무래도 경쟁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신발사업을 하려고 수입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해서 신발 한 컨테이너 수입하는 걸 도와준 일이 있었다. 그 집사님이 한국에서 수입하는 신발 가격을 너무 낮은 가격으로 수입하려다 보니 세관에 잡히게 되어 몇 달 만에 벌금을 상당히 내고 통관하게 되었다. 결국은 내가 잘못 통관을 해서 벌금을 물게 되었다고 온 식구들이 교회에서 만날 때마다 구설수에 오르게 되어, 할 수 없이 그 집사님의 요구대로 수입한 물건을 내가 떠안아 프리마켓에서 헐값으로 신발을 처분했다. 그 물건 중에 가죽으로 된 케이스 같은 것이 한 박스 남게 되어 처음에는 무슨 물건인지 몰라서 그냥 버리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때 남아공 시장에 막 시작한 핸드폰 '모토롤라 7200번 가죽 케이스'라고 했다. 200개가 든 핸드폰 케이스를 프리마켓에서 핸드폰 액세서리를 파는 사람을 찾아 사정사정해서 넘겼다.

한동안 그 물건에서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더 이상 교인들과의 사업에 대한 말씀은 조심하며 지냈는데, 어느 날 프리마켓에서 내게

핸드폰 케이스를 샀던 백인이 나를 찾아 몇 달을 헤매다가 겨우 한국사람을 만나 우리 사무실을 찾아온 것이다. 그가 나에게 처음 오더한 핸드폰 케이스 수량은 500개였는데, 서울에 있는 지인에게 케이스 500개만 만들어 발송해 달라고 했더니 온 답장은, "황 장로님, 겨우 아프리카까지 가서 아무 부가가치도 없는 봉제품 팔려고 갔습니까?" 하고는 회답이 없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4년 만에 귀국해서 방문길에 동대문에서 카메라 케이스 만드는 업자에게 부탁해서 핸드폰 케이스를 만들어 Hand Carry 해서 갖다 주었다. 그 후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핸드폰 가죽 케이스 오더가 이곳저곳에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얼마 안 가 모든 종류의 케이스뿐만 아니라 핸드폰 액세서리 배터리를 비롯 충전기 부품, 그리고 핸드폰 수리하는 기능공을 양성하는 회사가 되었고, 거의 30년째 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전혀 생소한 시장이었지만 핸드폰 부품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생각한다. 회사 내에서 월요일 아침 집회와 매일 아침 성경공부 시간을 통해 모든 직원들이 신앙훈련을 받게 되었고, 그중 신학교를 지망하는 엘리트도 생겨나고, 그중 한 명은 목사가 된 후 이 나라 큰 교단의 중요한 직책을 맡으며 요하네스버그 인근에 흑인 마을의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남아공에서 만난 중국동포들

1997년 어느 주일날 아침 예배를 마치고 난 후, 평소 조금 알고 지

내던 중국분이 교회로 나를 찾아왔다. 이분은 아래층은 가게로 쓰고 2층 위로는 하숙집 비슷하게 건물을 세로 주고 영업하는 분이었다. 다름 아니고 중국에서 온 조선족이 여러 명 한 달째 아무 곳에도 나가지 못하고 일자리를 구하고 있으니 자기 집에 와서 이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것이었다. 부루마라는 중국인 촌에 들어가 보니 약 열서너 분의 남자들과 두세 분의 부부가 직장을 얻기 위해 이곳까지 와 있었다. 이때만 해도 중국 동포들이 한국으로 오가는 비자가 나오지 않았고, 남아공은 중국과 처음 수교를 맺고 중국 물결이 남아공으로 물밀듯이 들어오는 초창기였다. 그중에 조선족들도 돈을 벌기 위해 무작정 나오게 된 것이다.

사정 이야기를 다 듣고서 우선 큰 아파트를 세를 내어 이분들의 거처를 옮기게 하고 부부가 사는 방, 싱글로 온 분들은 큰 방에서 함께 생활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그러고 나서 한 분 한 분 교민들의 가정의 사업장이나 가정의 정원사, 식모로 혹은 사업장에 취직을 거의 모두 시켜 주게 되었다.

어느 외국에서든 마찬가지겠지만 토요일 오후에는 일터에서 나와 교인들 가정에 함께 모여 구역 성경공부를 하였다. 약 5-6년 동안 나는 동포 구역장으로 계속 임명되어 구역을 두 구역으로 나누어 부구역장님이나 집사님들과 토요일에 함께 구역성경공부로 모이고, 주일 낮 예배를 드린 후 오후에 교회에서 주로 탁구도 하며 다른 운동이나 교회 다른 프로그램에 참석했다가 주일 저녁에 각자의 일터로 데려다 주는 기회가 7-8년 계속되었다.

이러는 동안 약 40-50여 명의 중국동포들이 거의 모두 예수를 영접하였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나라에서 조선족 동포들의 이민 이입국이 쉬워지면서 지금은 이곳에 몇 가정만 남고 거의 모두 중국이나 한국으로 돌아갔다. 주의 종으로 헌신하고 있는 한 분으

로부터는 명절 때마다 들려오는 소식에 반가움을 느낀다.

WMU를 통한 은혜

2005년에 임성진 목사님(지금 WMU 총장님)께서 이곳 프리토리아 대학교 박사학위 관계로 방문하였을 때 나에게 신학공부를 할 것을 제안하셨다. '과연 신학공부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결정을 망설이고 있을 때 세계로선교회 선교사님으로 이곳에 와 계시는 박창식 선교사님이 적극적으로 권하시고 컴퓨터와 이메일을 연결해 주시면서 처음으로 원격으로 신학공부를 하게 되었다.

나는 WMU에서 4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내 인생에 있어 참으로 유익한 시간들을 보내었다고 생각한다. 우선 지금까지 여러 번 무슨 직책을 맡을 때마다 학력을 써내라고 하는데 다른 분들은 모두가 대졸이라고 쓰는데, 나 혼자만 고졸로 써서 내니 좀 창피하기도 하고, 어느 모임에 가면 남자들이 모이는 곳에는 대학 이야기와 군대 이야기를 하는데 대학과 군대를 가보지 않은 나는 그런 대화가 나오기만 하면 자리를 피하는 게 내 습성이 되었는데, 이제는 떳떳하게 대졸이라고 이력서에 쓸 수 있게 되었고, A학점이니 F학점이니 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나 박사, 석사 같은 대화 속에서도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부끄럽지 않게 되어 감사했고, 컴퓨터 사용을 꺼려 하고 직원들에게 부탁만 하고 무엇이든지 메모장에 기록만 해왔었는데, 막상 과제물을 제출하려니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는 힘도 들고 시간도 따라갈 수 없어 한 단계 한 단계 배워가니 세상이 바뀐 것 같고, 제법 지식인으로 자처해도 되겠다는 자신감이 들 정도가 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신학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감사 가운데 더욱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지금까지는 소그룹이나 무슨 모임에서

예배를 인도할 때 혹은 상담을 할 때 그저 평소 은혜 받은 지식을 가지고 대했으나 이제는 여러 권의 책을 갖다놓고 좀 더 자신 있게 가르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WMU 공부하는 가운데 생의 진로를 바꾸게 된 것은, 은사장에서 '내가 받은 은사는 무엇인가?' 이 주제를 공부하면서였다. 달란트 비유에서처럼 땅에 자기의 은사를 묻어 둔 사람은 아무 상급도 없이 인생을 허무하게 마무리하게 되고 오히려 받은 은사마저 없어지게 되지만 잘 활용한 사람은 주님의 칭찬과 하늘의 상급을 누리며 축복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내용이다.

막상 70세가 되어 장로 은퇴를 하면서 아직은 건강하지만 이제 새로운 편안하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던 중에 이 말씀은 주님께서 오라고 하실 때까지 내가 받은 은사를 혹은 경험을 십분 잘 활용하다가 천국 오라는 말씀으로 들려왔다.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지금부터 여행도 많이 하고 즐기고 싶은 일들도 많이 생기겠지' 하고 여유를 즐길 생각을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Business하는 경험을 가질 수 있게 하셨는가? 어떻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학생일 때는 학생으로, 사회에 나와서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개인 사업을 한 관계로 조직적인 체계를 갖춘 회사 경영은 해본 경험이 없지만 무슨 사업이든지 시작하면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금방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라는 확신을 신학공부를 하면서 거듭 확인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다시금 내가 받은 은사대로,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장이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게 되고 이웃을 섬기게 되는 기회와 장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다시금 일터를 마련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지 이미 4년이 된다.

아프리카에 와서 처음 사업을 시작한 어느 날 아침, 사무실 문앞

에서 잠자고 있는 모잠비크에서 온 청년을 처음으로 회사 직원으로 채용한 이후 지금까지 대부분의 우리 회사 직원들은 인근 국가에서 몰려온 집 없는 청년들이다. 회사 건너편 개울가에서 집없이 지내며 이곳 요하네스버그라는 대도시의 공사장에서 일용직을 찾아다니는 이들을 찾아가, 새벽에 그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함께 나눈 지 여러 해가 되었다. 매일 아침 6시에 그들과 간단한 기도와 식사시간을 가지고 난 후 회사로 돌아와 7시에 직원들과 아침 경건의 시간을 함께 가진 뒤 하루 일과를 시작해 왔다.

새로운 화장품 생산공장을 강가의 홈리스 청년들과 함께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었지만 이제 화장품 용기에 프린트하는 기술이 상당히 발전하였다. 현재 누구에게도 자랑할 만한 회사가 되었고, 생산하기 쉬운 몇 가지 화장품을 개발하여 시장을 개척하고 점점 확장해 가고 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매일 아침 7시에 함께 모여 기도회를 시작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것이 나의 사역이라고 생각한다. 이곳 현지 CBMC 멤버들도 가끔 와서 자기네 회사의 모델을 삼겠다고 하며 함께 예배에 참석하기도 하고 말씀도 전해 주기도 한다. WMU에서 공부하는 가운데 깨닫게 된 '내가 받은 은사는 무엇인가?' 이것을 실천하는 일이 나의 사역이고 남은 생애의 사명이라고 생각해 본다.

황재길 장로의 사역 사진

흑인빈민 지원 ‘선한 사마리아인들’

선교병원 방문(잠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한글학교(교장 황재길)는 2017년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아프리카한글학교협의회’ 창립총회 및 한글학교 교사 합동연수회를 열었다.(사진 요하네스버그 한글학교)
출처: 재외동포신문(http://www.dongponews.net)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북쪽 리보니아 강변에서 지난 2011년부터 노숙자들에게 무료급식을 해온 황재길 영파이어니어 사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노숙자들과 예배를 드리고 있다.(2015.1.16. 연합뉴스)

월드미션대학교 동문 사역 이야기

사랑의 동행

1판 1쇄 인쇄 _ 2021년 8월 20일
1판 1쇄 발행 _ 2021년 8월 25일

엮은이 _ 임성진
펴낸이 _ 임성진
펴낸곳 _ 월드미션대학교

제작처 _ 쿰란출판사
주소 _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장길 6
편집부 _ 745-1007, 745-1301~2, 747-1212, 743-1300
영업부 _ 747-1004, FAX 745-8490
본사평생전화번호 _ 0502-756-1004
홈페이지 _ http://www.qumran.co.kr
E-mail _ qrbooks@daum.net / qrbooks@gmail.com
한글인터넷주소 _ 쿰란, 쿰란출판사
페이스북 _ www.facebook.com/qumranpeople
인스타그램 _ www.instagram.com/qrbooks
등록 _ 제1-670호(1988.2.27)

책값은 뒤표지에 있습니다.